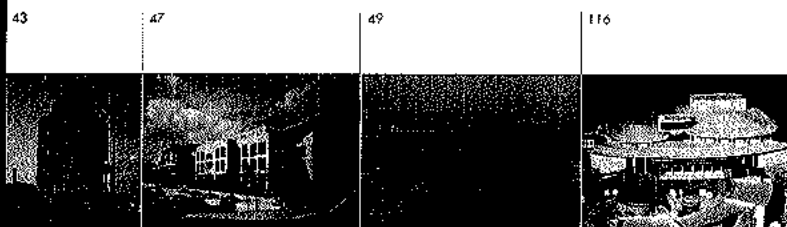


차례 1997 06 338호



성도교회(최동규 作)



발행인 : 김영수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 양원석,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전현경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인쇄인 : 아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 Kim Young-Soo
 Editor :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통일예감(統一豫感)	박영건	28
시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허와 실	최찬환	30
회원작품	은행회관 대한보증보험 본사 파티마 외과 김천시청사 수원여자전문대학 제3교육관	(주)희림건축 (주)희림건축 남상금 서보광 이장백	37 40 42 46 48
작품리뷰 / 성도교회	작품—성도교회 대담—일상성을 통한 소통의 메시지 비평—기능미학과 형식미학	최동규 김병윤 백문기	50 59 64
작품노브	한순심 산부인과	정동영	67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④ - 김종업(4)	조인철	72
건축기행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1)	장순용	78
전통건축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구성원리(4)	최동호	84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가 ③ - 파올로 솔레리	성인수	92
기고	아파트의 구조변경 허용 한계	이창남	102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계획작품 해외잡지동향 신임회원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게시판		107 109 113 119 121 127 128 130

Column

A Presentiment of the Unification	Park Young-Kern	28
-----------------------------------	-----------------	----

Focus

The State of Traffic Influence Appraisal System	Choi Chan-Hwan	30
---	----------------	----

Works

Korea Federation of Banks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37
Kore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40
Fatima Clinic	Nam Sang-Keum	42
Kimcheon City Hall	Suh Bo-Kwang	46
Suwon Women's Junior College 3rd Education Center	Rhee Jang-Baek	48

Review / Seongdo Church

Works	Seongdo Church	Choi Dong-Kyu	50
Interview	The Message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Ordinary	Kim Byung-Youn	59
Critique	Function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Beack Moon-Ki	64

Work Note

Han's Obstetrics & Gynecology	Cheong Dong-Myeong	67
-------------------------------	--------------------	----

Serial

Korean Architect ㉑ - Kim Chung-Up (4)	Zho In-Choul	72
---------------------------------------	--------------	----

Architecture Travel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1)	Chang Soon-Yong	78
----------------------------------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4)	Choi Dong-Ho	84
---	--------------	----

Overseas Architecture

Architect Overseas ㉓ - Paolo Soleri	Seong In-Soo	92
-------------------------------------	--------------	----

Feature

The Permitted Limits of Structural Changes in Apartments	Lee Chang-Nam	102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7
Archi-net	109
Competition	113
Blueprint	119
Overseas Journal	121
New Members	127
Statistics	128
Bulletin Board	13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34-6340 · 강북구건축사회/930-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384-0048 · 광안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952-2275 · 노원구건축사회/3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3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3468 · 성북구건축사회/322-3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 8607 · 은평구건축사회/398-4486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6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가평지역건축사회/(0344)63-8907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3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단성건축사회/(0345)6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2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용역지역건축사회/(0333)657-5149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6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6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 2650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 223-3088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 제천시지역건축사회/(0443)43 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0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8007~8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김제지역건축사회/(0371)33 2000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53 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81)72-3349 · 순천시지역건축사회/(065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 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8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6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 586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0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6-4846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3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8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6-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 62-2233

통일예감(統一豫感)

A Presentiment of the Unification

박영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법건축

by Park Young-Kern

한보철강 사태-거액대출 의혹, 각종 리스트, 김현철 비리의혹, 몸체, 깃털, 대선자금 의혹, 경제침체-무역 적자, 사상 최고의 부도율, 연쇄 도산 우려, 황장엽 망명 귀순-기아선상에 있다는 북한동포, 설계사무소 수사-설계업체 선정 싸고 수뢰, 住公간부 구속-신축건물 설계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건축설계도서 등 납품과정에서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아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 TV수상기 앞에 앉기가 겁이 난다. 아침마다 신문을 뒤적이지가 괴롭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할 저경에 이르렀다. 자괴감, 상실감, 삶의 목표 실종, 저마다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해보지만, 오늘의 세태를 맞아 느끼는 소감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상황에서 필자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텔레파시(Telepathy)는 '통일예감'이다. 이러한 모든 혼란은 통일을 암시하는 뚜렷한 징표이며 어디에서인가 보내오는 분명한 메시지(Message)라는 느낌을 받는다. 혼돈의 시대(Chaos)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평화가 찾아와서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을 것 같은 낙관적인 기대에 들떠 있다. 그래서 조금 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보았는가? 아직까지도 통일이라는 상황을 가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과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통일을 화두로 삼아 담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하나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국한해서 연연해 할 일은 아니다. 역사적이며 민족적인 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모든 분야,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다함께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또는 외교적인 산적인 문제들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좋겠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건축인들도 통일문제를 건축적인 안목으로 다루어볼만 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몇몇 뜻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를 어찌 해보자는 등, 통일을 전제로 한 얘깃거리들이 없지 않았으나 그 대부분을 호사기들의 농으로 치부해버리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구잡이가 아니고 체계를 갖추어 통일을 맞을 준비를 차분하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거창한 일이다. 손쉽게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니며, 그렇다고 공공 알고만 있을 문제도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감출 것이 있겠는가? 모두 꺼내놓고 하나씩이라도 맞추어 보기로 하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일종의 자기최면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십년동안이나 갈라져 있었지만 다시 합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며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고 스스로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어색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잡념에 빠지지도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걸음마를 떼어보기도 전에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 민족 두 집단간의 이질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를 적대시하며 아무런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오십년동안이나 단절된 두 집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간혹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겉모양으로는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고층아파트들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초고층의 호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장건물이 보이는 평양거리의 모습을 그저 호기심으로만 바라볼 때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건축적인 현주소를 알고 싶어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건축 현주소를 알아봄으로써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아갈 비를 모색하여야 한다. 양극화된 이념적 갈등이 빚어낸 두 개의 사회구조와 경제체제,

그 결과로 나타난 도시환경이 매우 다르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각의 건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우리 쪽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만큼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제무대에서도 거리낌 없이堂堂하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이만한 부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쪽의 현실은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 같다.

너무나 강렬하게 전해지는 '통일예감', 이제 곧 새로운 전기가 도래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며 엄격한 가풍을 지켜온 가정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집안에서 형제간의 싸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이 시점에서 무너졌던 가풍을 다시 세우고 비로워 역사의 텃밭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의식과 피지배의식에 젖어있다면, 우리 민족은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나아갈 바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부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어떠한 영화가 돌아오겠는가? 오랫동안 생사도 모르고 지낸 이산가족이 다시 하나로 합치는 통일의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밝혀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새술을 새포대에 담은 심정으로 해 묵은 때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민족의 도약을 향한 출발점에 서서 엄숙하게 웃기를 여머야겠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지나치게 상업화를 추구하며 경제원칙에 맹목적으로 따르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 많다. 그 실체가 거품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속보다는 겉치레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보게 된다. 국제화, 세계화의 추구라는 명제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가히 꼰돌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선은 먹기가 좋다고 이것저것 살펴보지도 않고 덩석덩석 아무 먹거리나 삼켜버리는 것도 큰일이다. 설계경기가 있을 때면 남보다 한발 앞서 외국으로 뛰어가서는 공동작업도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와서는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내놓고 일을 떠먹는 암채짓은 없어야겠다. 그럴듯한 포장술에 현혹되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수준의 안목이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오늘의 세태가 한심스럽기도 하다. 국제화, 무한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을 앞세워 최소한의 공중도덕이나 개인적인 양심마저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니열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이고 결국 본의 아니게 스스로 혈통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부족한 점이 나 잘못되고 있는 점 외에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더욱 많을 것임에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일을 놓고 사실을 늘어놓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 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문제보다는 전체 건축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부터 다루어야 한다.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자세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말을 꺼내놓기는 했지만 생각이 모자라는 탓에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역부족이다. 역시 우리 건축계를 총망라하여 중지를 모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축인의 뜻을 함께 모으는 합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갑자기 찾아와 머릿속을 온통 점령한 '통일예감'으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한 석달 예정으로 집을 떠나려고 한다. 어디든 조용한 곳에 가서 차분하게 내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웬일이냐고 묻기에 그저 지난 이십년 동안 갖지 못한 휴가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갖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호들갑을 떤다고 비난할런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로서는 매우 심각하다. 여러 가지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던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떠나 있는 동안에는 사무실이나 집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려 한다. 그레야만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애써 볼 작정이다.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허와 실

The State of Traffic Influence Appraisal System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우리 나라의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정착된지도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몇 차례의 법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지침 등 교통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80년대초, 중반을 넘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사회경제 발전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의 중동 건설경기의 호조속에 8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90년대 중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을 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사회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특히 도시교통 통행량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 왔다. 우선 산업구조측면에서 물류의 이동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로 인한 레저·문화의 욕구가 높아져 개인 교통수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교통이동량에 있어 도로용량이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도로의 차량 흐름의 지체와 정체를 발생하게 되고 주차장 부족이 가중되어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도로포화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의 확장이나 연장 등 물리적 해결책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한계성이 있을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의 교통수요 대안들이 제시되어 시행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제도 또한 여기에 일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교통영향평가의 목표는 도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건축물의 허가 또는 불허나 통제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적 교통계획과 정책제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고찰

1) 교통영향평가의 도입배경과 변천내용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과 그 과정, 절차를 말하며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은 교통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경제의 발전은 상품의 생산과 분배활동에 크게 의존하며, 분배활동은 교통에 의해 이들 상품을 보다 필요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공간적 효용(Place Utility)과 시간적 효용(Time Utility)을 증대케 하였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인간활동을 연결시키고, 물자를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교통의 발달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교통의 발달은 다시 인간활동을 증대시키고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교통혼잡 또는 도시교통난의 문제는 개괄적으로 볼 때 교통수요와 교통공급(교통시설의 확충 포함)간의 불균형에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교통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도로건설 등 교통시설의 확충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교통문제는 유발되며, 교통공급은 그 구조적 특성상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확대하거나 조정하기 곤란하며, 교통수요도 적절한 관리없이 시기적, 지역적으로 밀집·혼잡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의 유발요인이 언제 어디서나 상존하게 된다.

교통공급은 지하철, 도로, 주차장건설 등 지속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그 이용 수요가 도심 등 특정지역 및 특정시간대에만 집중됨에 따라 교통공급의 확충만으로는 교통수요 대응상 효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그간 교통공급의 확충이 교통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면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하여 특정지역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수요와 교통공급간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도시교통문제

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경제활동 중 분배활동(재화의 수송 및 각종 용역의 이용접근성 제고 등)을 원활히하고 국민의 이동욕구를 충족시켜 교통편의를 제고하는 등으로 도시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즉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능배치, 시설밀도와 활동량,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이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교통측면에서 이와같은 관계를 점검, 평가하여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개선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통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단위 사업 또는 건축물의 설치·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기존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각종 인·허가 전에 평가하여 교통수요와 교통공급의 균형정도를 맞추는 것으로서 교통현황에 대한 종합적이며, 개별적인 판단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과 같은 제 계획에의 교통개선 환류가능도 할 뿐만아니라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교통신호처리 개선, 동선체계 구축·개선 등과 같은 개별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특정시설을 건축 및 대규모 사업시행시 사업본연의 목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있다. 대도시의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82년 IBRD 차관사업으로서 교통부 주관 하에 "서울시 교통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85년 9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이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듬해인 86년 12월 31일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87.7.24)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87.9.30) 등이 법제화되면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들 법령은 3~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95.8.10)이 고시되어 시행되므로써 상세하고 적극적인 평가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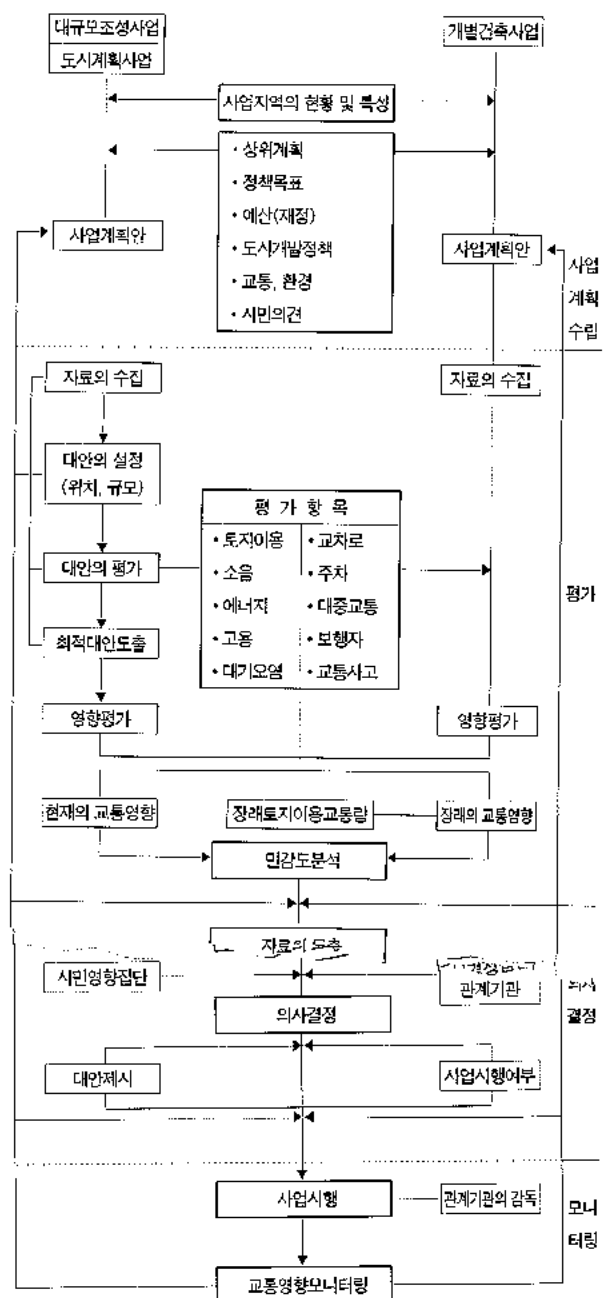
2)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및 평가절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지방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다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외로 나누어진다. 이들 대상구분은 크게 용도별 면적에 의해서 구분하며 중앙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의 사업 또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청사 등이고 지방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로서 지방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여부의 결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해석·적용(집행)과정으로써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귀속재량의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심의대상 여부결정을 위한 해석·적용행위는 일관성있어야 하며, 관할관청간에도 상호협

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법령해석상의 의문이 있거나 상호이견으로 합리적 결정이 곤란한 경우, 교통관계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도시교통정비촉진 법령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정부에 당해 사안에 대한 질의·판단을 구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건축허가시 심의필증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교통심의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회와 건축심의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교통영향평가 과정〉



※ 자료 : 도시정보 1985. 11.

절차를 살펴보면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두 심의는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부서를 거쳐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평가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주관부서에 평가서를 접수하고 주관부서는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기획과에 평가심의를 의뢰하게 되며 심의담당과는 이를 검토·보완후 심의에 상정하게 된다. 심의결과와 통보는 평가서 접수와 반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주관부서	처리내용
사업주체 ↓ 사업주관과 ↓ 교통기획과 서울시교통영향심의회 ↓ 사업주관과	•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평가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사업주관과에 작성 • 교통실에 구상장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의뢰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또는 조정

이상과 같은 절차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 지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각 사안별로 다르나 주관부서에서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되고 있는 실정(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이며, 주관부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기획과에 교통심의를 의뢰하는데 교통심의회부서인 교통기획과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약 2주전에 접수·검토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한달에 2회정도 열린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은 약 3주내지 4주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평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시간 약 2~3개월을 합산하면 3~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교통영향평가의 중요내용 및 항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 내지 완화하는데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이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그 평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과 이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평가서가 작성된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요하게 서술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면(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내용)

- 교통환경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 세부항목별 상세한 현지조사 실시(조사결과는 평가서에 수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도출에 관한 사항
- 교통개선대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 교통개선대책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개선안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에 관한 사항

〈분석내용과 기재사항〉

주항목	소항목	항목별지침
I. 요약문		평가범위, 사업개요, 교통여건, 사업전후의 교통여건 변화, 주요 교통문제점, 해소방안의 요약
II. 사업개요		해당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교통관련사업을 포함
III. 교통현황 및 여건분석	①교통수요 ②주요교통시설현황 ③주변여건분석 ④용량/수요 비교분석, 서비스수준분석 ⑤교통수요증가전망	교통수단별 교통의 수요공급 자료, 현재의 V/C자료, 서비스수준 자료, 장래교통수요증가 자료
IV.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①수단별 부담률 및 운송수요변화 ②주차수요변화 ③V/C, LOS 및 지대도변화 ④보행자동선변화 ⑤대중교통이용편의 ⑥화물·조업차량 ⑦교통사고	분석항목별로 적절한 분석을 비교
V. 교통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가로소통·사업지내차량진출입·교차로·대중교통·보행자·기타	교통에의 영향분석자료를 이용, 객관적 기술
VI. 교통문제 해소 대책	주차·가로소통·사업지내차량진출입·교차로·대중교통·보행자	임기응변식 개선책, 단기대책(TSM방안 등), 중·장기 대책, 시공설계도면은 추후작성 가능
VII. 필요한 교통개선시설의 투자효과	투자규모·투자우선순위·적정투자시기	적절한 평가기법 활용, 자료미비시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제시 가능
VIII. 종합결론 및 건의		분석내용의 요약, 대책제시적 건의

※ 자료 : 도시정보 1985. 11.

상기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평가서 상에 수록 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부실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 성격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는 중앙과 지방심의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5조를 보면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또는 토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위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나 위원 수는 지방심의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위원중 지역별 위촉직 심의위원의 분야별 구성분포를 보면 1995년 5월 현재 교통분야가 33.3%로 제일 높으며 도시계획 19.8%, 건축 1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행정관청)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행정행위)으로 나타난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쌍방적 단독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과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표시(심의필증의 외부효력)는 건축허가 등 제행정처분시에 당해 관할관청이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심의결과와 성격이 달라지는데 반드시 교통영향 심의·의결 내용대로 조정 보완하여 인·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행위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처분할 수 있는 공익재량인 경우에는 제3자적인 복합적이며 다수적의 당사자가 관련되며 일반불특정 다수인의 반사적 이익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의행위는 당해 행정관청의 내부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심의를 반드시 거쳐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를 할 경우 명백한 위법행위처분으로써 그 효력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되며,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심의의 성격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허가권자의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및 시설을 설치허가 등의 행정처분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부의견 수렴과정임으로 절차적으로는 의무적 성격을 가지나,

내용적으로는 교통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심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대상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을 보완·조정토록 조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전문분야

단위 : 명

전문분야	교통공학	도시계획	건축	토목	기타	계
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	10	2	1	3	1	17
지방위원회	37	26	24	12	25	124
계	47	28	25	15	26	141

※ 자료 : 육상교통업무 통계 1995. 5. 육상교통국

※ 지방위원회 : 특별시, 광역시·도

3. 건축설계와 교통영향평가의 상호기능과 역할

1) 건축설계는 유기적, 종합적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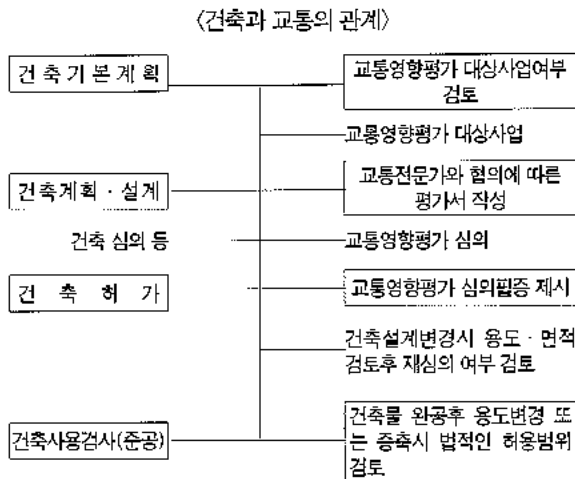
건축설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많은 관련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건축설계자를 비롯하여 도시, 조경, 구조, 디자인, 교통, 환경전문가 등 각 분야의 계획가가 공동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계획초기단계부터 서로 협력하여야만 양질의 제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중 하나는 교통전문가와와의 협력이다. 건축설계는 초기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기획과 운영 등이 논의되고 나서 건축계획이 진행되면서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매우 다양한 변수를 수용해야 하므로 건축계획의 초기단계가 최종계획과 일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이는 건축주의 요구, 주변환경의 변화, 제도적인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통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은 건축설계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설계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변화를 요구하게 되므로 교통영향평가후에 건축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건축과 교통이 당초 심의내용과 서로 상이하게 되므로 이들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재심의가 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설계에서 알아야 할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면 건축기획 → 실시계획·설계→시공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건축기본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과 개략적인 배치의 개념정도가 이루어지므로 각 단계별 작업은 연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건축계획 초기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검토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교통전문가와 협력하게 되는데 이 때는 건축계획과 교통과의 밀접한 협의가 진행되어 건축물이 건립되므로써 주변 또는 당해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자와 교통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설계와 교통영향평가는 상호보완적

요소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에 대한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당해 대지에 적합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건축계획단계에서는 건축물의 방향성, 대지에 따른 건축밀도 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건축설계의 경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건축규모면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에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이는 건축계획가의 설계의도가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주차규모나 차량의 진출입동선, 보행자의 배려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설계자의 의도가 건축설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교통계획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차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스펙계획이 우선되거나 차량진출입을 위한 램프계획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건축설계자가 의도하는 건축물의 중요한 핵심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

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건축설계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설계와 교통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면서 교통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적절한 조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계획심사와 교통영향평가심사의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별개로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상호협의 조정해야 하는 체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은 당해 시설물이 입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 분석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교통영향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내지 완화하는데 있다. 교통분야만을 한정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생각하다보면 건물전체에 대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로 인하여 당해 사업이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불필요한 억제수단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1) 행정절차의 간소화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가 완료된 후해야 다음 단계의 사업시행절차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초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안에 비해 매우 민감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는 짧은 기간 이라고 볼 수 없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비슷한 건축심의회는 서울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1회 건축심의회가 개최되는 반면 교통심의회는 월 2회 개최된다. 건축심의회는 설계도서가 작성되어 건축허가 부서에 직접 설계도서가 접수되면 약 7일 이내에 건축심의회가 이루어지나 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주무부서인 구청에 접수되어 협의를 거쳐 본청으로 심의 의뢰를 하고 심의부서인 본청에서는 교통심의 약 2주전에 접수되어야 평가심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가 완료된 후라도 심의보완서를 작성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따른 심의필증 제출시기(건축허가시(일부 다른 경우도 있음)가 되므로 심의필증 교부 전이라도 심의의결서 등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건축허가시 다시 교통심의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통심의 의결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평가서 항목의 축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서에 의해 심의를 하게 된다. 평가서의 평가항목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지침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평가항목에는 중복되거나 단시간에 평가 또는 심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와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축소하여 현재의 300~500쪽 분량을 100쪽 내외로 하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결과도 갖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평가서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에 노력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를 토대로 수립하는 개선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대상사업규모 산정에 대한 모순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사업의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단일용도의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며 대부분 연면적(일부는 부지면적)에 의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의 연면적이라고 하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대상을 판별할 경우 연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연면적에 대한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수요에 직접 영향을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면적, 기계실 등이 연면적에 포함되어 평가대상사업으로 결정되는데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은 상당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

다. 그리고 대상건축물의 규모가 가부(0, x)의 임계치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여러 건축물이 모여서 교통량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가구별, 지구별 집단영향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건축물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 건축심의회에서도 주차장설치 기준, 동선계획 등으로 교통에 대한 심의검토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단일용도와 복합용도에 대한 불명확성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는 단일 용도의 시설물과 복합용도의 시설물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면적에 근거한다면 대부분 복합용도 시설물로서 구태어 단일용도 시설물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복합용도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용도를 제외한 여러 용도가 있을 때는 각각의 주용도가 된다고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 미만으로 그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류저장, 주차, 구내식당, 구내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이처럼 용도에 대한 정의가 고려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도시 교통정비지역내에서는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연면적이 25,000㎡가 되는데 건축물 연면적 24,000㎡라고 가정하고 이중 업무시설인 사무실면적(Core등 포함) 14,000㎡로 사용되고, 주차장시설면적 7,500㎡, 지하층에 업무시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근린생활시

〈바람직한 개선책〉

내 용	사 업 시 행 자	건 축 설 계 자	교 통 평 가 자	행 정 관 청
• 행정절차의 간소화 - 심의접수 및 협의, 의견내용 반영	시간단축	-	시간적 효과 얻음	행정지침들 마련
• 평가항목축소 - 300~500쪽 분량을 100쪽 내외로 조정	비용절감	-	시간적 효과 얻음	법령개정
• 대상사업규모산정 재검토	-	-	-	용어정의 및 관계기관과 협의의 법령개정요
• 단일용도 및 복합용도에 대한 불명확성	-	-	-	심의기준 마련
• 교통영향평가심의 기준 마련	-	-	평가서 작성에 일관성 부여	법령검토 유관부서와 협의
• 종합심의제도 도입 - 건축심의회 통합 - 간이평가제 도입 (재심의 또는 필요시 활용)	비용절감	원활한 설계 유도	-	

설 2,000㎡의 연면적이 된다고 보면 단일용도 시설물로 볼 경우는 연면적이 24,000㎡로서 해당되지 않으나 복합용도 시설물(WA=10,000㎡ 대상 산업임)로 산정할 경우 13,900㎡가 되어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단일용도 및 복합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교통영향평가심의 기준 마련

평가의 심의는 형평성과 공정성, 객관성있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 어느 누가 심의했느냐에 따라 평가서가 부결 또는 통과되는 식의 심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평가심의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관계공무원과 교통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몇몇 위원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모두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각 위원별 시각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면도 없지 않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심의기준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규모, 동선계획, 램프위치 등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입지적 조건, 주변의 관계 등 주관적인 심의도 필요하겠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심의기준의 틀이 마련되어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곳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지역 등으로 16개 부서에서 직접 교통평가심의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에 있어 제일 중요도가 높은 것은 심의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심의과정을 보면 평가서작성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건축심의회 경우 설계자를 호출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 갈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는 월 2회정도의 심의를 개최하는 반면 타지역은 보통 월 1회 정도 심의가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교통전문가가 극히 적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못한데다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가 너무 많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교통영향평가는 시간적 손실과 비용이 높다는 점과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건축심의회와 동일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심의회와 통합하여 종합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되는데 평가서의 항목을 대폭 축소, 필요한 내용만 작성 제출하도록 하며 민원해소와 함께 절차의 개선 등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집중적으

로 검토하므로써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물론 행정주무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건축 및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황조사에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보내는 형식주의적 평가기법보다는 실제적으로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마련에 치중하여야 하며 주차의 진출입, 동선계획, 주차대수와 형식 등에 치중하고 건축물 대지 밖의 여러 공동평가는 광역교통계획으로 해야 하며 개별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로는 합리적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별개 연구과제로 하고 건물단위의 사업 시행에서는 광역 교통영향평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용도별 주차대수 확보 등 공통적인 사항은 기준으로 정하고 진출입이나 동선계획은 원칙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등 간략화할 수 있다. 예컨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간이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한가지는 발주자와 교통영향평가기관을 상호분리 시킴으로써 공공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하며 중복평가를 가급적 줄이고 공동평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이나 지구단위의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필지 단위의 평가가 가진 한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주자가 비용부담을 하되 중복평가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별 건축물계획과 교통평가를 긴밀히 연계시켜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마련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최근들어 건축설계자와 교통전문가와의 교류가 밀접해지고 있다. 다시말해 그 만큼 건축설계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이고 세련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건축설계자, 교통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당해 건물은 물론 주변건물에까지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순기능도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건축과 교통이 서로의 조화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항목의 단순화, 절차의 개선, 종합평가심의회, 기준의 설정, 간이평가심의 그리고 광역교통계획과의 별도수립과 이를 상위계획 내지는 수용조건으로 한 단위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은행회관

Korea Federation of Banks

(주)희림건축

Designed b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은행연합회관은 장기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각 은행사간의 관리·영업 기능을 보조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은행 상호간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업무역량을 최대화하고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각 은행사들의 발전을 꾀하여 나아가서 공공의 이익에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 명동 1가 4-1번지에 위치한다. 역사적으로 고도의 도시이며 유통센터의 중심지로서 일찌기 경제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생활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그 지역적 특성을 적극 살려 각종 금융센터의 본사와 그에 수반되는 활동적 행위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밖에 현대사회의 총족 기능을 모두 갖춘 위치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은행회관 신축에 따른 모든 업무와 집회기능이 무리없이 진행 발전되어질 수 있는 위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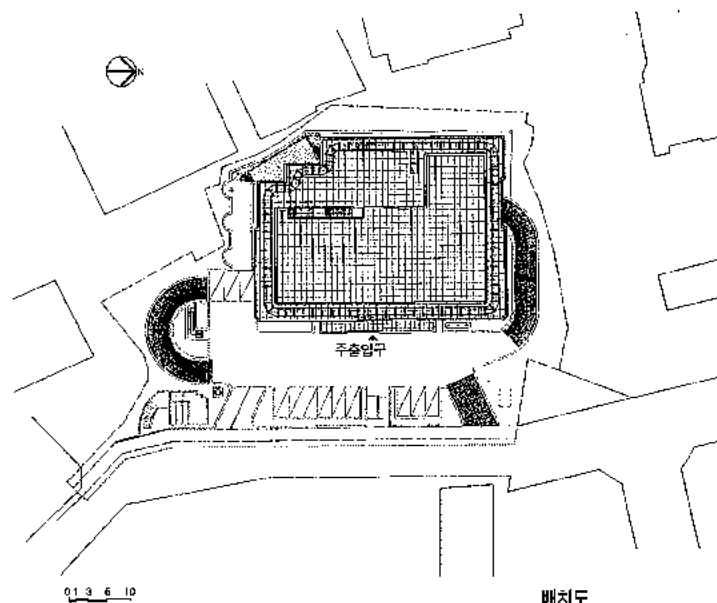
입면은 푸른색의 Glass를 주재료로 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Human Scale에 의한 정면과 측면을 강조하고, 대지의 상승으로 인한 직선의 위압감을 저층부의 출입구 부분의 음양으로 건물에 대한 거부감을 배제함으로써 친근감을 유발한다. Flat하면서 수직적인 Glass의 단순미를 스텐레스 수평띠로 보강하였으며 건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유도한다.

평면계획개념

첫째, 은행회관의 중심기능인 집회 및 회의시설과 부속 기능인 업무 Zone을 명쾌하게 분리하고 둘째, 적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의 동선을 적절한 Core배치로 집중 및 합리적 배분 방침의 설정과 각 층의 업무상호 연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동선을 체계화한다. 셋째, 강당 및 회의장 규모에 맞는 Module채택과 각 Zone별 사용에 융통성 및 가변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고, Core의 집약화를 통한 경제적인 설비구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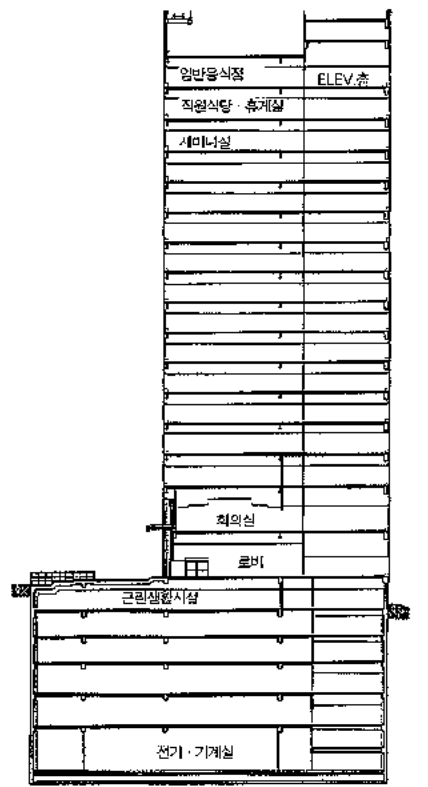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집단방화지구 도시설계구역
도로현황	전면 6m도로
용도	업무시설(은행회관)
규모	지하 6층, 지상 15층
대지면적	3,272.40㎡
건축면적	1,150.80㎡
연면적	29,805.26㎡
건폐율	35.17%
용적률	479.57%
최고높이	69.87m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미감	㉠30 회강석 버너마감, ㉡24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261대
건축주	전국은행 연합회
구조설계	센구조연구소
설비	성아기술사
전기	(주)문유현 전기 설계사무소
시공	(주)삼환기업
인테리어	민인터네셔널 (주)진양
설계기간	1991. 8~1992. 8
공사기간	1993. 4~1996. 12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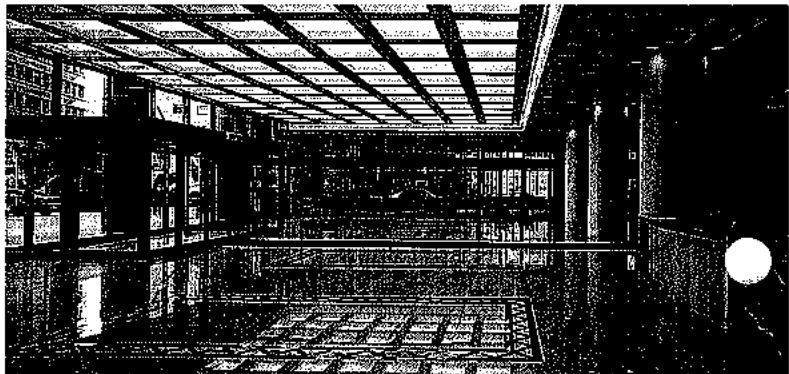


0 3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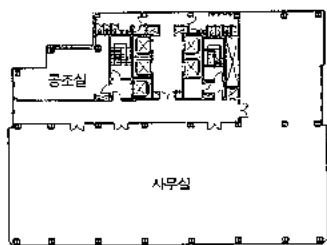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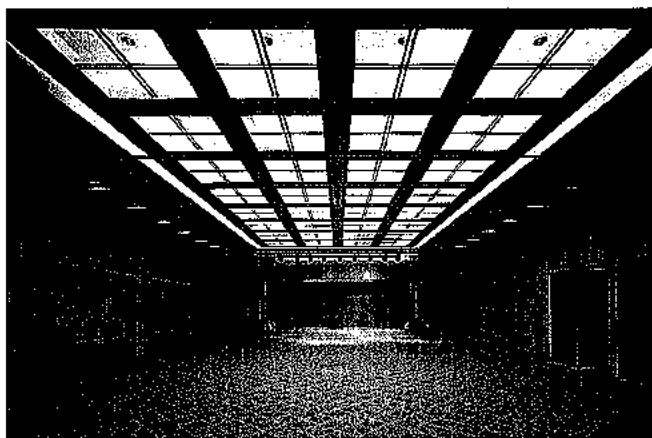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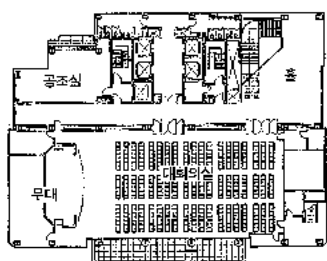
로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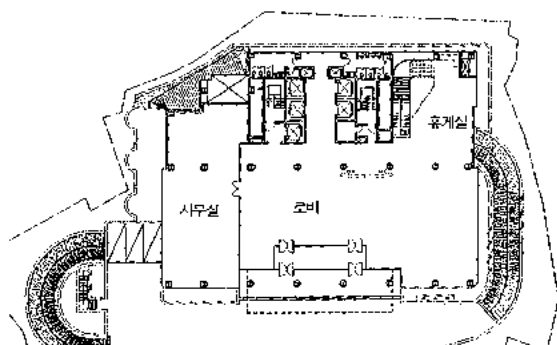
2층 국제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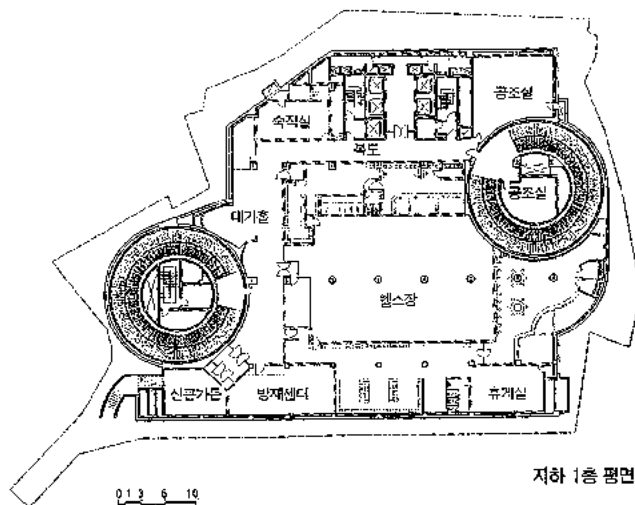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2층 홀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4층 휴게실



16층 Banker's Club 양식당

대한보증보험 본사

Korea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주)희림건축

Designed b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남산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장충공원을 지나 훈련원로를 내려오다보면 시야에 종로통이 들어온다. 왼쪽편에 기독교회관 뒷편으로 경사지붕을 타고 다시 내려오면 상부가 굴절된 모양의 대한보증보험 본사 사옥이 Skyline으로 살며시 드러난다. 보증보험의 신뢰성 구축과 미래지향적이며 성장하는 보험의 위상을 입면요소로 반영하고자 창 프레임에 수직패턴을 주어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화강암, 유리(블루), 알미늄바의 조화를 통해 현대적 감각과 창호패턴의 반복효과를 건물 표면에 리드미컬하게 처리하였다.

배치계획

대지형태가 20m 전면도로 축을 제외하고는 평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된 동선이 이루어지게 될 지상1층 전면부는 대규모 광장으로 계획하여 건물을 출입할 때 개방감 넘치고 여유로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고 동측면부는 선큰공간 및 수공간을 도입하여 도심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층수를 고려한 건물배치에 따라 향후 북측면 직원운동장 지역은 2단계 사업을 염두에 두었고 후면부는 옥외 주차 공간으로 활용, 북측우편에는 기부채납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건물의 주출입구는 고층부와 저층부 사이를 아트리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내부공간의 연결을 원만하게 함과 동시에 상징적인 주출입구의 기능이 부여될 수 있도록 커튼월로 처리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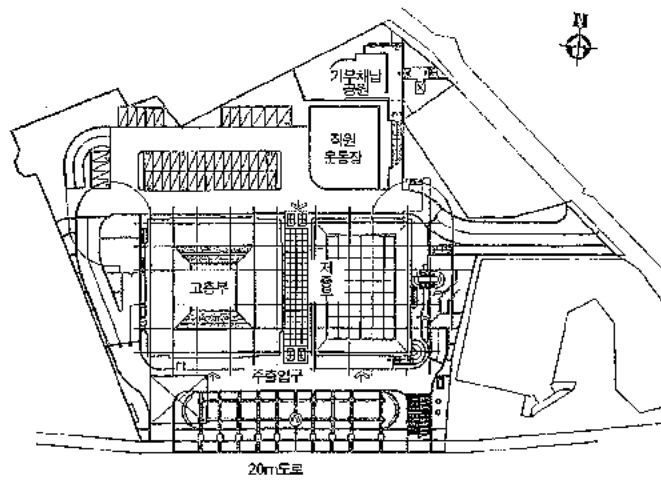
지하5층에서 지하2층까지는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며 지하1층은 주 사용자를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아케이드 및 식당 공간으로 확보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배치하였다. 1·2층은 주 Lobby와 은행기능을 수용하였고, 3층에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대회의실과 연수실 및 세미나실을 두어 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부 사무공간의 중간층에는 일부공간을 Open시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2개소 제공하여 부분적이나마 공간의 질을 향상시켰다.

Core의 형식은 중심 코어로 외관적으로는 사방에서 볼 때 정면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평면적으로는 쾌적한 로비 및 홀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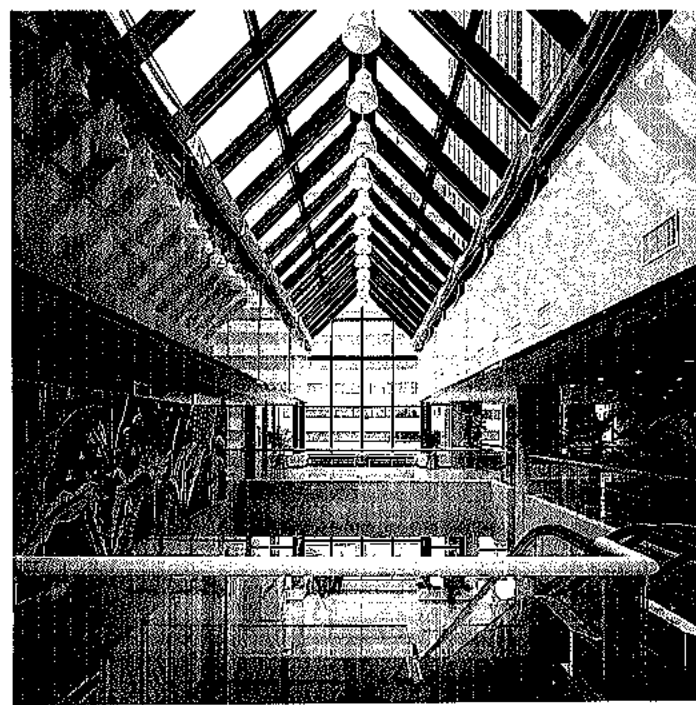
주요건축공법으로는 콘크리트슬라브를 데크플레이트 선시공후 지하층 Con'c와 별도로 고층부 5층 바닥부터 상층부로 Con'c 타설시공을 하여 공기단축을 가져왔으며 G.P.C공법을 적용시켜 Con'c 슬라브타설시 고정용 양카플레이트를 미리 매설하여 품질의 균일화 및 공기단축효과를 거두었다. 압축알미늄바의 조립, 유리부착, 코킹 백패널 부착 등은 4,000×2,300 크기로 유니트화하여 5Unit를 하나의 파렛트로 T/C사용 운반하여 현장용접 고정조립 시공한 것이 특징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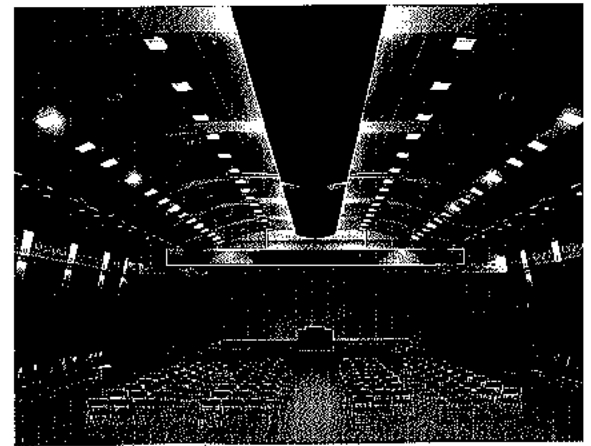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 75 · 77 · 78	주차대수	486대(옥내 : 439대, 옥외 : 47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외부마감	㉠30 화강석 버너구이(G.P.C)+㉡24 파스텔복층유리
대지면적	8,840.48㎡	구조설계	센구조연구소
건축면적	2,314.61㎡	토목설계	내경 ENG
연 면 적	49,922.68㎡	조경설계	반도조경
건 폐 율	26.18%	시 공 자	동부건설
용 적 륜	276.06%	인테리어설계	민, 우원, 헨디
구 조	SRC조	설계기간	1992. 2~1992. 12
규 모	지하5층, 지상19층	공사기간	1993. 4~1996. 12
용 도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최고높이	81.7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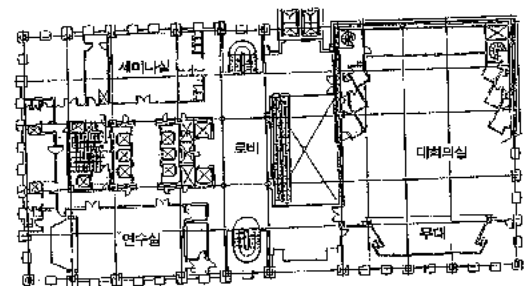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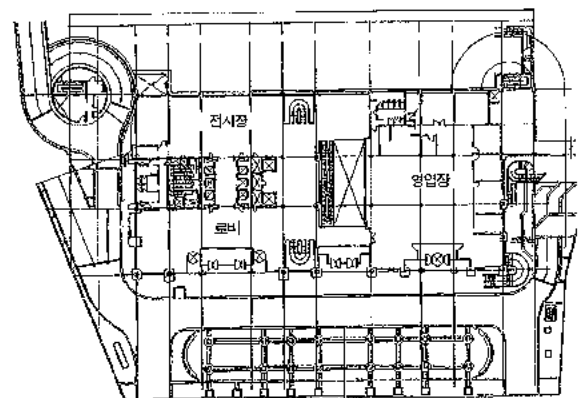
저층부 아트리움



대회의실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파티마 외과

Fatima Clinic

남상금 / 남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Nam Sang-Keum

확장된 도로폭 만큼이나 고층화가 가능했던 것은 상업 지역이라는 이점 때문이다.

향문 외과 전용 부분을 5~10층에 구성하고 나머지는 임대분(가능하면 의원 임대)으로서 의원 건물이 일반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다. 3개층은 21개의 병실층으로 휴게실,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과 좋은 전망을 갖는 유익한 점이 병실로서의 매력을 갖는다. 아마도 환자는 일시적으로나마 병원(고정된 측면에서)에 입원해 있다는 느낌을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파사드는 3개층의 병실부분과 진료실 부분 및 임대부분으로 구분되는 각기 아이덴티티 표현이 가능하면서도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층건물이 왜 반복 리듬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면의 구성은 추상적인 면분할과 겹침수법을 채용하였다. 상업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저층부는 건물의 활력과 트인 이미지를 위한 유리면과 외부계단, 반질거리는 텍스처 등을 소재로 삼게 되었다. 디자인 인상만큼이나 외부재료 또한 화강석 표면 마감 구분과 알루미늄, 복합페널, 액센트 부분의 철재 페인팅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었는데 현대사회의 개인의 다양성 존중의 의미로 표현하고자 했다. 자칫 병원의 통일성 강한 디자인은 환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임대건물은 내부공간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취약하다. 따라서 현관홀과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화장실 등의 공용 부분만이 개성을 허용하는 부분이다.

특히 현관홀,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기에는 전용면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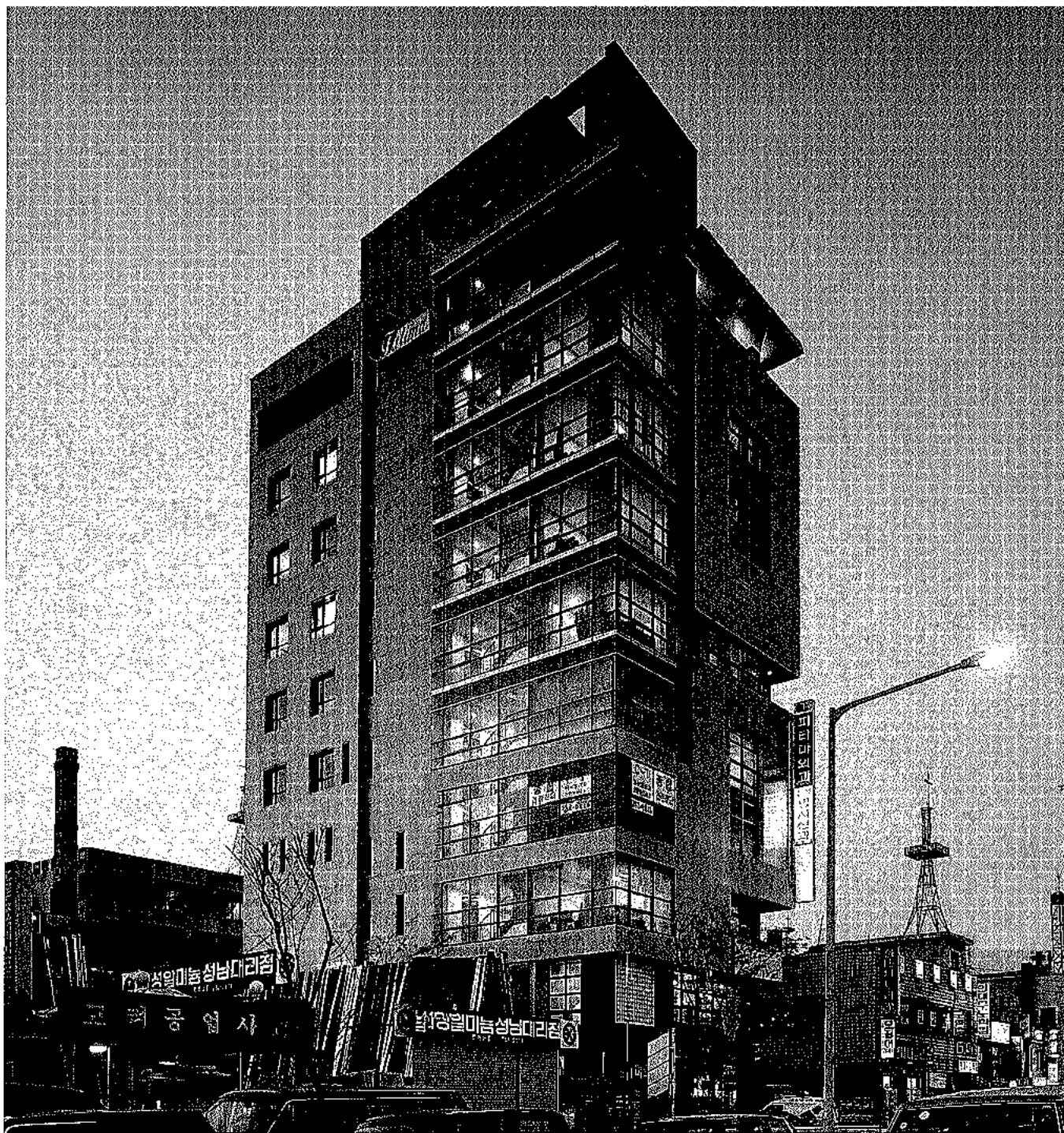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이 특성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매력을 갖지 못한다. 다소 복잡하고도 구조적인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계단실 폭내에서 현관출입구 뿐만 아니라 홀의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기본층에서는 계단실 길이로 해결하되 독립적인 엘리베이터홀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천장구성과 빛의 도입, 색채사용을 중시하였다.

계단실의 넓은 커튼월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환자나 오르내리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햇빛을 받는 만큼 쾌적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반대로 외부에서는 이 층창을 통해 계단의 오르내림 운동성을 엿볼 수 있고 중앙벽기둥의 강렬한 색채가 호릿하게 걸려져 전층을 점층적으로 꿰뚫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견 벽으로 둘러친 건물내부가 비밀스럽기만 한데 비해 스쳐 지나가면서도 시각적 즐거움과 기억, 행동유발 등으로 친근한 도시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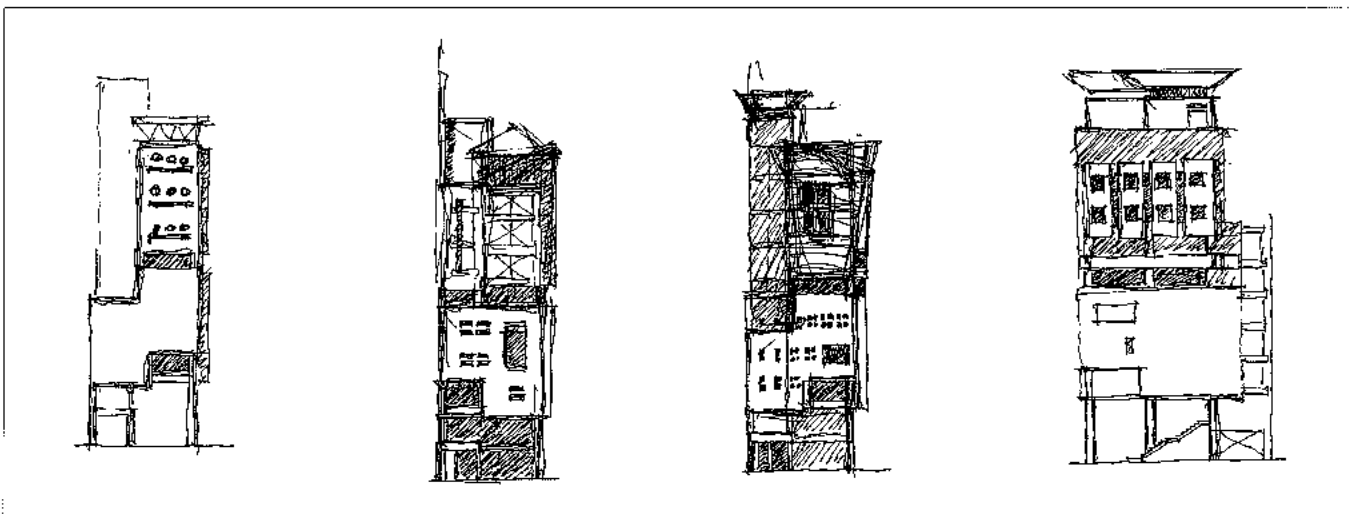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3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2종미관지구, 고도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318.0㎡
건축면적	253.27㎡
연 면 적	2,480.78㎡
건 폐 율	79.64%
용 적 륜	655.45%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최고높이	35.1m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용 도	근린생활시설
조경면적	49.3㎡

주차대수	16대(법정/12대)
주차방식	수직승강식 타워파킹
외부마감	화강석판, AL 복합페널, THK16 복층유리
설계담당	신인복, 조윤숙, 남승희, 김정남
인테리어설계	남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시공	(주)화인토탈건설
구조설계	김각경
설비설계	성기찬
전기설계	임조순
시 공 자	(주)화인토탈건설
설계기간	95. 3~95. 9
시공기간	95. 11 ~9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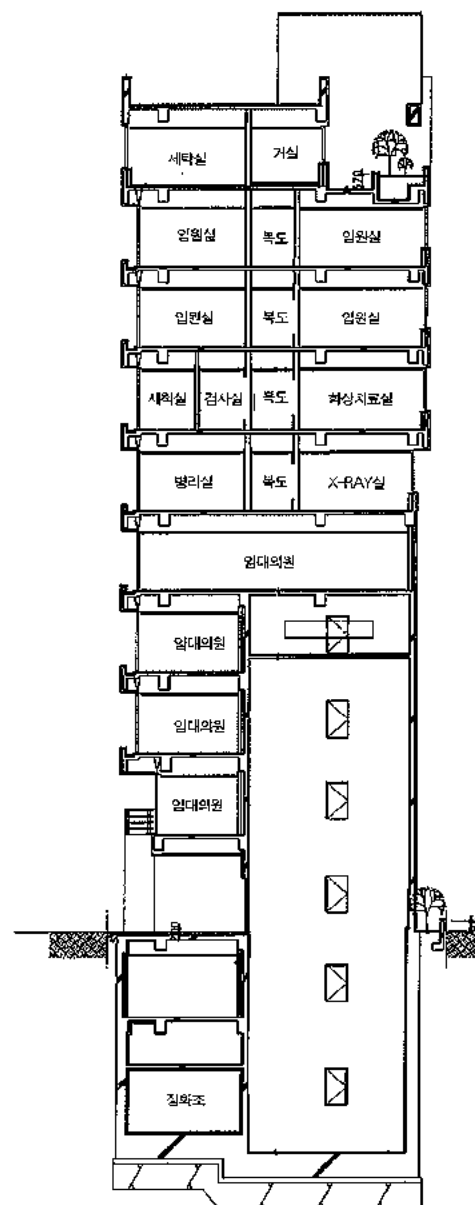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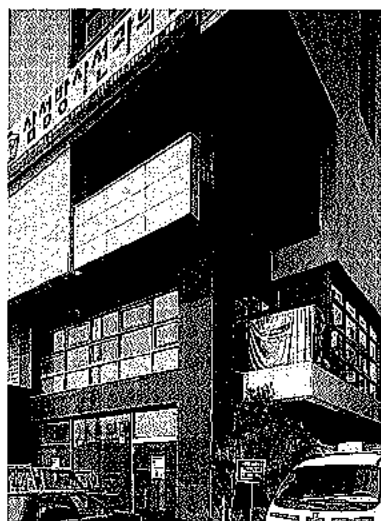
개념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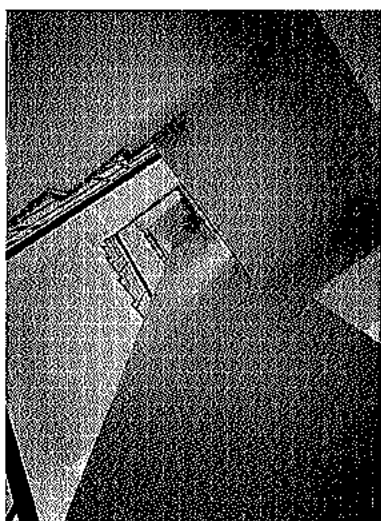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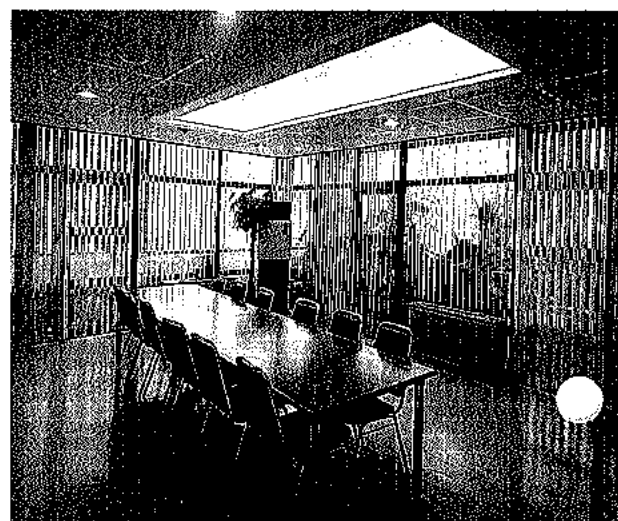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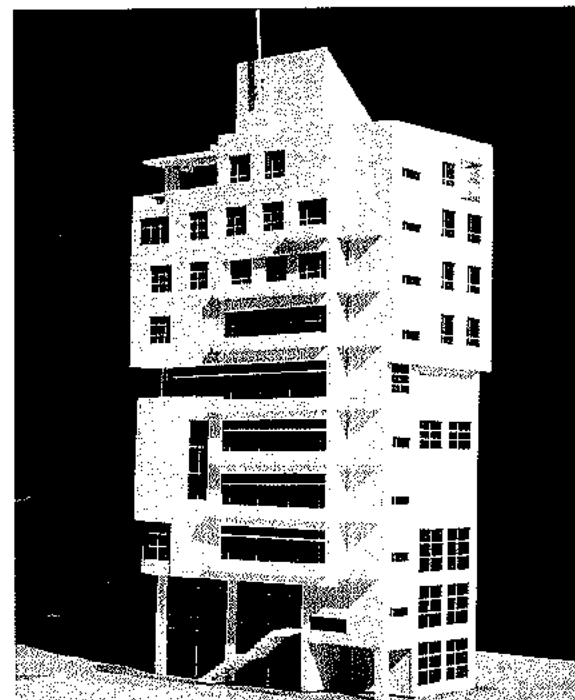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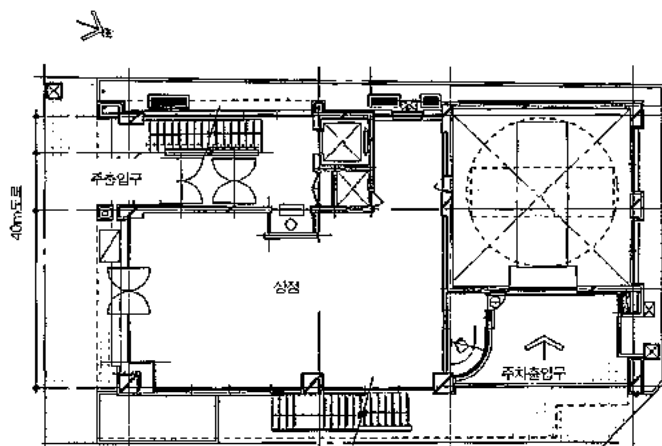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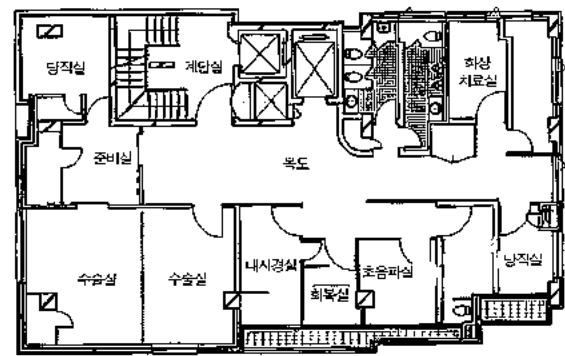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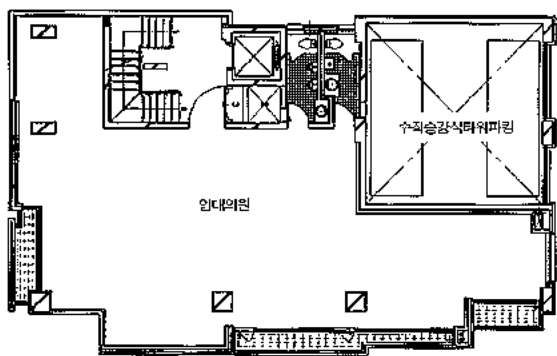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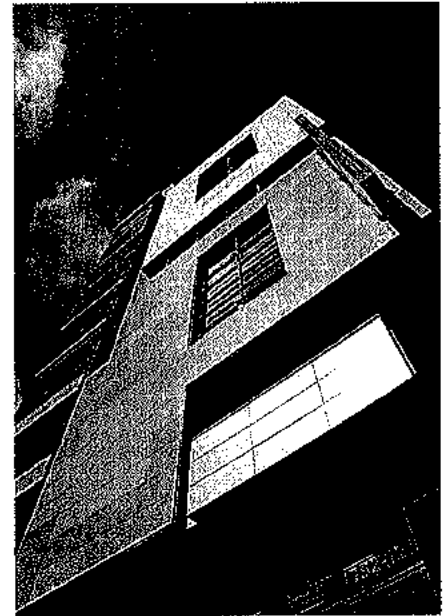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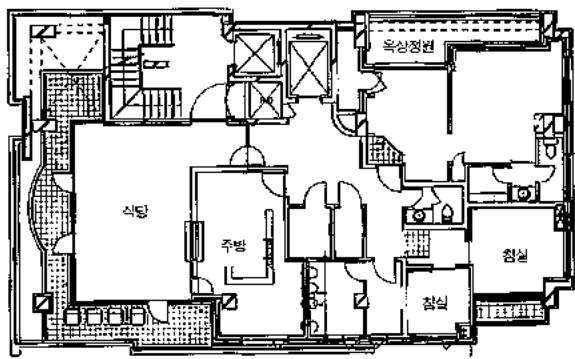
전면코너 상세



올려다 본 계단실 내부



다용도 회의실



김천시청사 Kimcheon City Hall

서보광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계획의 목표

- 일반 시민에게 열려진 공간으로서 개방성 추구
- 청사건물의 엄격, 단아, 순수, 정직을 표상할 수 있는 상징성 추구
- 주위환경과 유기적인 조화성 추구
- 업무의 확장과 변화에 따른 공간의 융통성 부여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 대지의 경사극복, 시각적 효과를 위한 축의 설정과 공간의 위계성 부여
- 건물 전면에 주차장, 시민공원, 휴게광장, 후면에 테니스장, 선큰 플라자 등을 두어 오픈 스페이스 확보
- 본관, 광장, 주차장, 시민공원, 체육시설 및 직원 휴게시설 등 5개 구역으로 구분배치
- 좌, 우 대칭적인 배치로 민원실과 행정제실을 배치하고 그 앞으로 휴게공간, 본관, 좌측 후면에 보건소 배치

평면계획

- 자체업무 기능과 민원업무 기능으로 구분하여 좌우에 민원실

과 행정제실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홀을 두어 두 기능을 합리적으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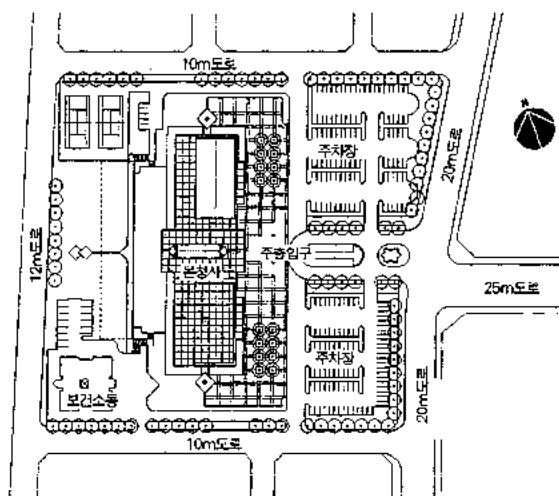
- 홀 상부에 톱라이트를 설치하고 2, 3층은 오픈시켜 매개공간으로 활용하여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
- 지방의회실과 대회의실은 본관에 위치하여 김천시 행정부와 유기적인 상관성을 부여하고 보건소는 대만 접촉상 별도로 계획
- 본관은 선큰 플라자를 전이공간으로 식당 및 편의시설과 연결되며 이 식당동 위로 녹지공간 조성

입면계획

- 정직, 순수, 단아 등 형태를 개념화하여 표출하고자 Grid Pattern을 입면계획에 도입
- 출입구 부분의 입면을 돌출시켜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를 주고 외벽, 창문 등에 전통문양의 패턴으로 형태 구성
- 전면 주출입구 상부에 원형창을 두어 시의 상징문양을 표현하고 시각의 초점으로 활용
- 좌, 우 대칭의 입면형태로 공공건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수평적 형태를 강조하여 시각적 안정감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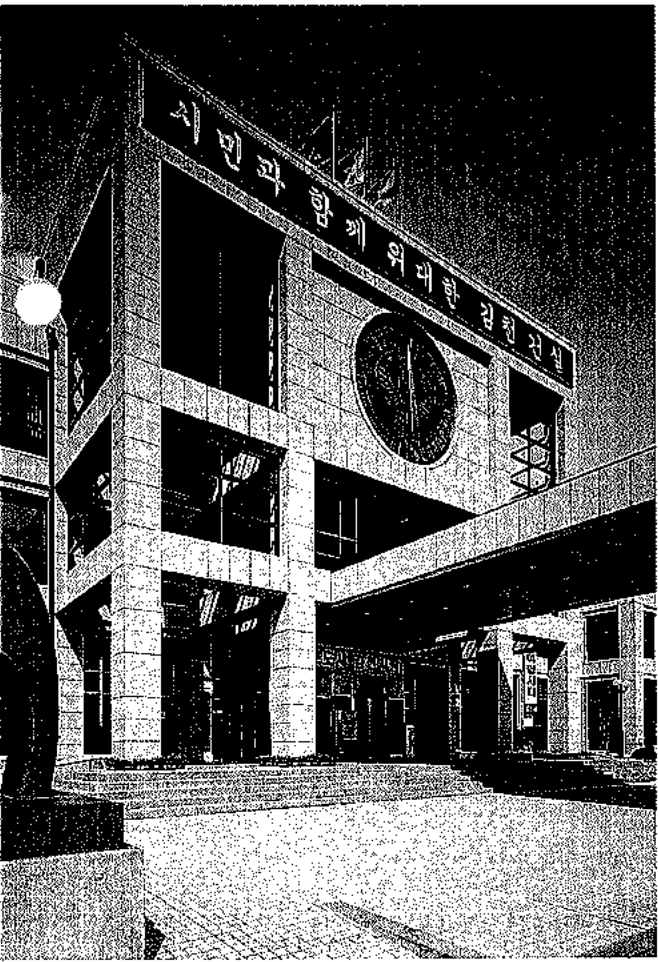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김천시 신음동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26,210㎡
건축면적	5,018.7㎡
연면적	14,037.0㎡
건폐율	5.8%
용적률	40.1%
용도	공공업무시설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요설비	F.C.U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T18복층유리
구조설계	동성건축 구조실
전기설계	한일전기연구소
설비설계	신아설비연구소
시공자	미도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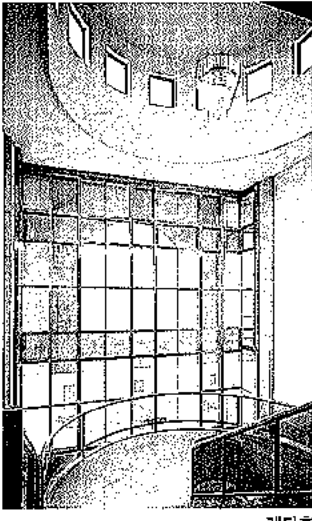


04 12 24

배치도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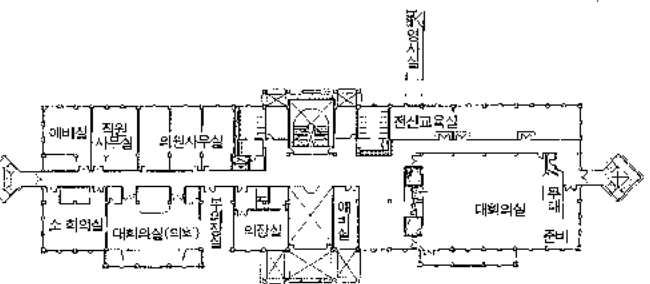
계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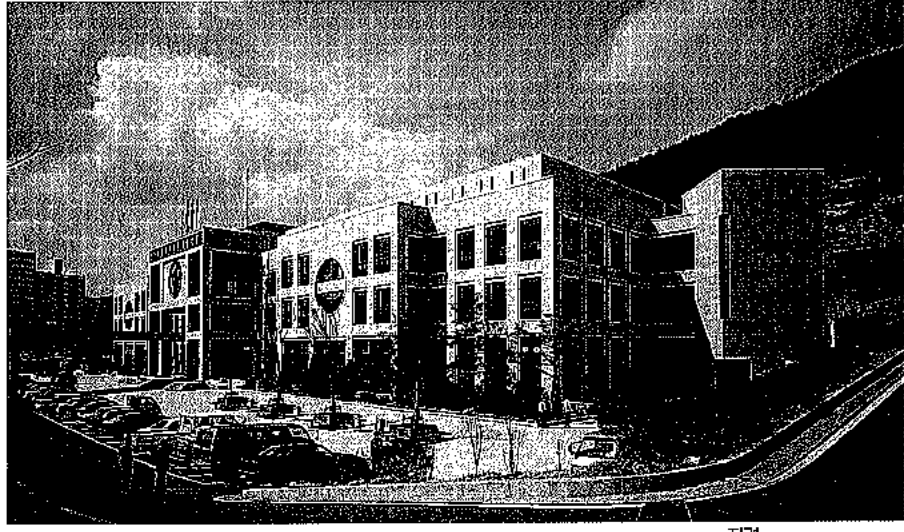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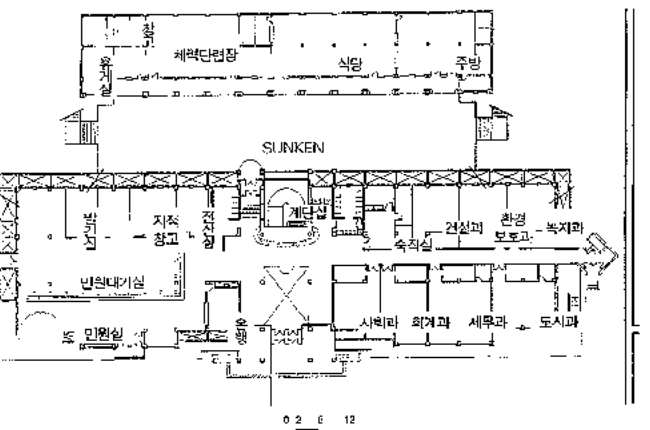
소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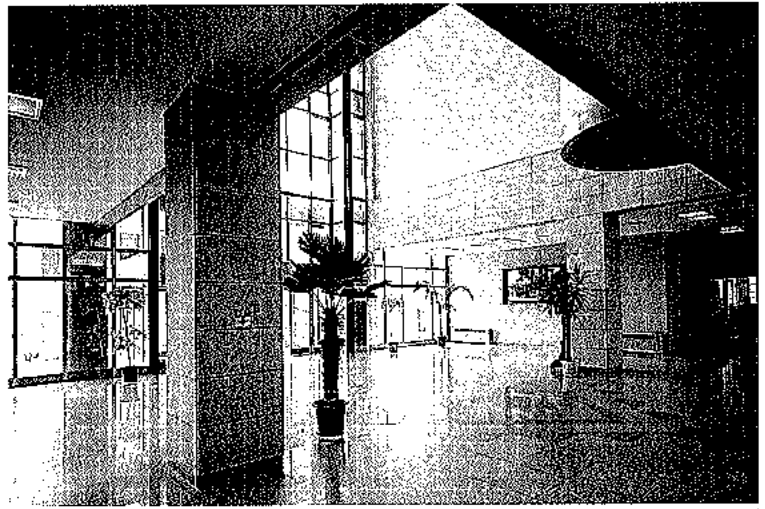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경



1층 평면도



로비

수원여자전문대학 제3교육관

Suwon Women's Junior College 3rd Education Center

이장백 / 기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hee Jang-Baek

형태 및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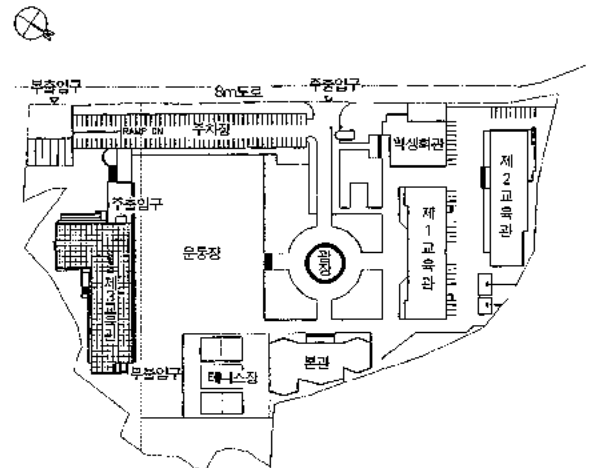
"ㄱ"자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단순함을 피하기 위하여 4면의 입면을 변형시켜 보았으며 스케일과 비례감에 충실한 건물이 되고자 하였다. 외부 마감은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단지내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건물이 수평으로 길어 보이는 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좌우 창문의 형태를 변형시켜 건물 전체의 안정감을 갖도록 하였다. 매스감의 변화를 주기 위해 모서리 부분에 커튼월을 설치하였으며, 고전적 벽돌 건물의 육중함과 조화시켜 경쾌한 건물이 되고자 하였다. 대강의실 지붕은 형태를 변형시켜 형태의 단조로움을 피하였으며 재질을 바꾸어 가볍게 놓여 보이도록 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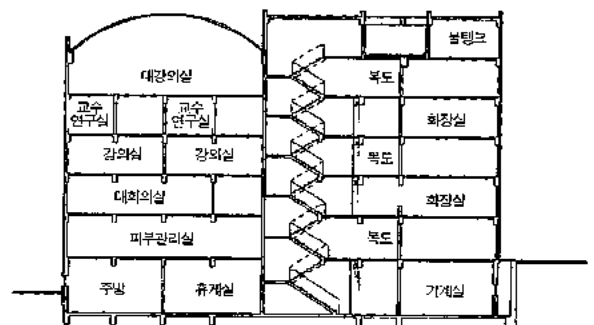
모서리 커튼월 부분에 Hall을 설치하여 각층의 학생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강의실은 남북쪽으로 배치하였다. 지하층은 드라이에리어를 지하 바닥까지 내려 지하실에도 자연 환기와 채광을 유도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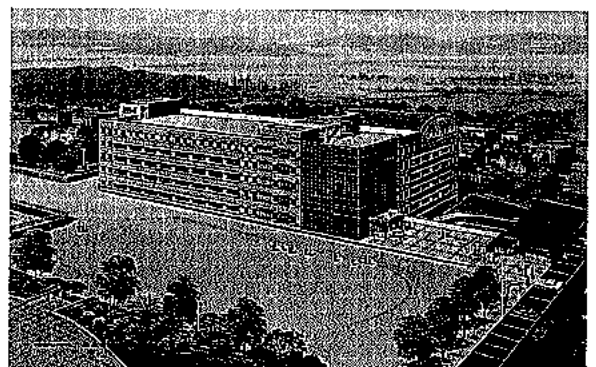
위 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1-6번지의 6필지
대지면적	28,267.00㎡
건축면적	1,742.71㎡
연 면 적	10,489.12㎡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요용도	강의실 및 교수 연구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드라이비트+커튼월
내부마감	수성페인트+라이톤
설계담당	김기봉, 박수일, 최현준, 이승훈, 박은희
설계기간	1995. 10~1996. 2
공사기간	1996. 2~1997. 4
구조설계	(주)진흥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예림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건우전기
정 화 조	동호엔지니어링
시 공	태조건설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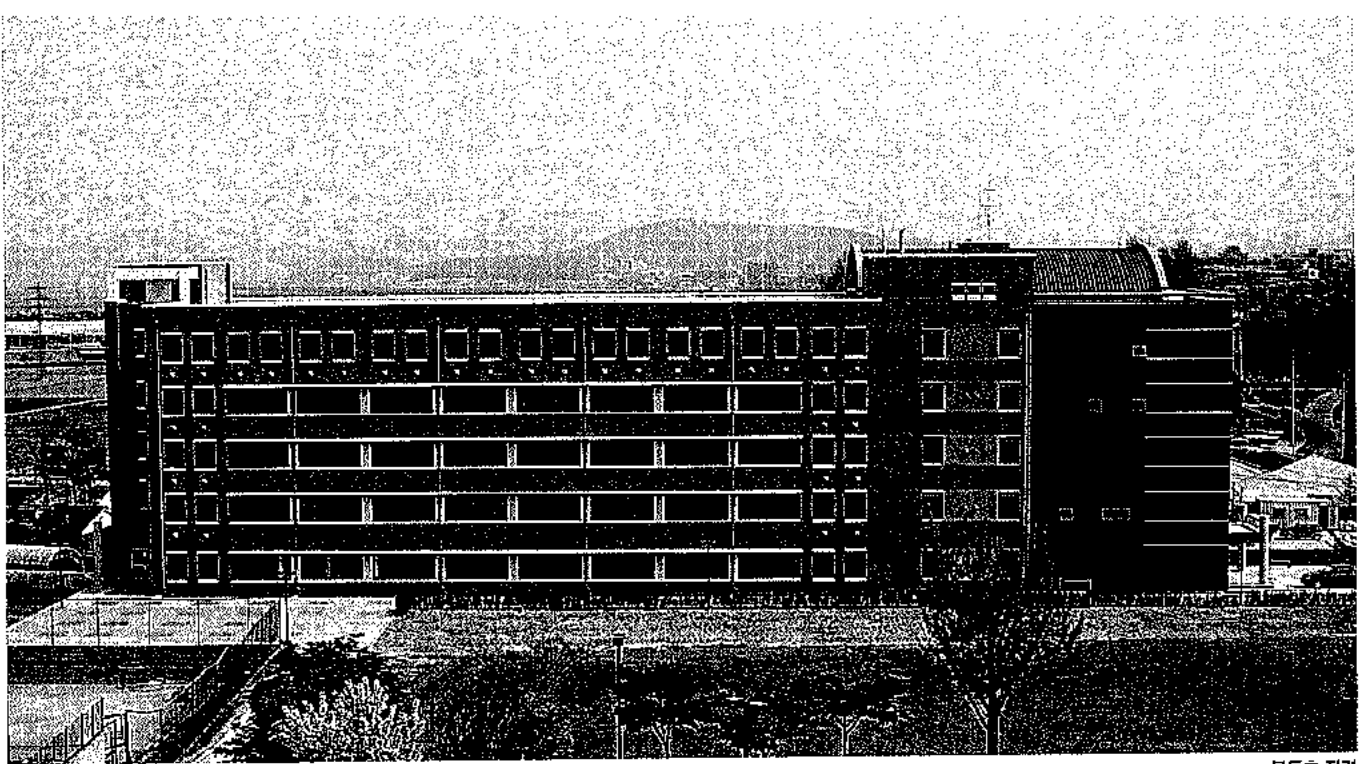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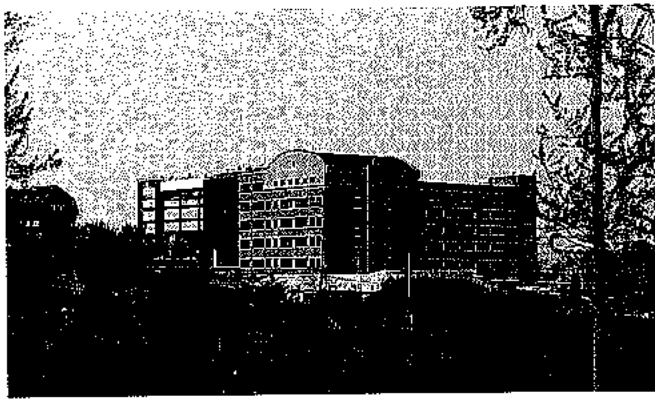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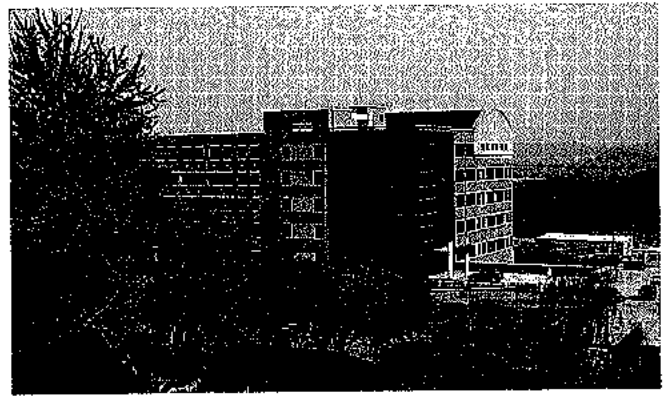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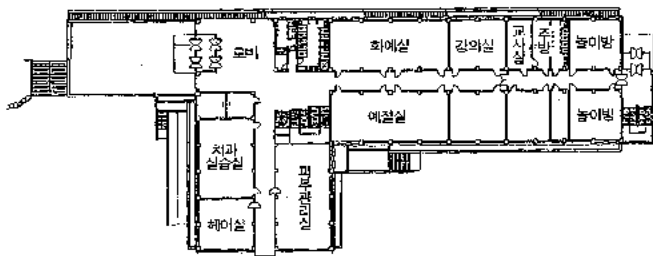
북쪽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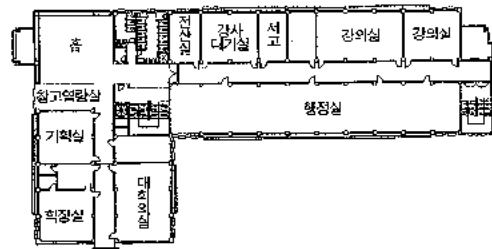
남쪽 원경



서쪽전경(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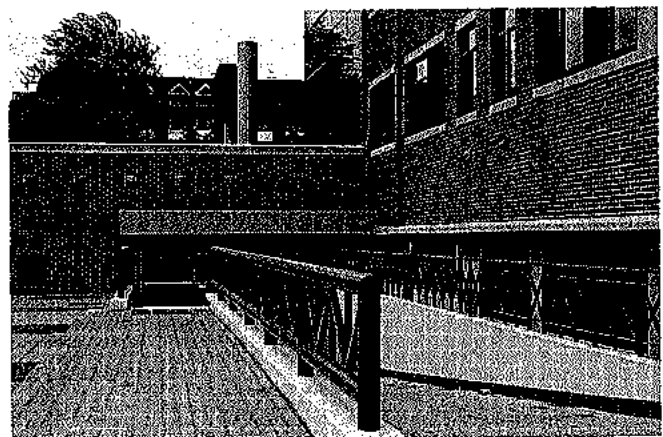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면도



남쪽에서 본 주출입구측 벽면 상세

성도교회

Seongdo Church

최동규 /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Gyu

퇴계로 남대문 시장 건너편도로에 한커의 껌질위로 들어간 자리에 이 대지는 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터에 자리를 잡은지 50년되는 1998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계획을 세웠다.

주어진 대지에 나는 선입견 없는 빈마음으로 서서, 건축주를 만났다. 이미 그 자리에 버티고 40여년간 교인들 마음에 자리잡고 있던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 또 너무 낡아서 곧 헐릴운명이 된것이었다. 건축주는 자기들이 쓰고싶은, 가지고 싶은 공간들을 알려주었다. 부채꼴의 본당 형태가 그들이 갖고 싶어한 형태였다. 그러나 대지의 생김새는 장방형의 예배당 형태를 요구하고 있었다. 건축주가 원하는 형태가 대지모양 때문에 안될리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이 났는데 즉 주가 되는 공간이 자리잡고 나머지 종속되는 공간의 형태는 그야말로 종(SERVANT)의 형태를 취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실 3개의 중요공간의 배치인데, 나는 이 3개를 층별로 나누어 배치하되 위치는 다 같은 곳에 두기로 하였다. 즉 크기만 다를뿐, 닳은 꼴이 되어 예배드리는 방향이 같은 것은 물론 형태가 같은 이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옛 목기중에 닳은 꼴로 된 크기가 다른 그릇들의 조합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 중, 소 세 개의 예배실은 크기는 다른 공간에 비해 작을 수 있어도 중심이 되는 내부공간에서도 다른 공간과는 차별되어야 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입구부분은 외장재와 같은 재료를 선택했다. 여기서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 임금과 장래 임금이 될 세자의 의복이 크기만 다를 뿐 모든 내용이 같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교회로 다가서면

서 보게되는 측면은 진입부에 서있는 십자가를 빼면 심심하기까지 하다. 마당에 도달해서 보게되는 정면은 고만의 산물이었다. 정말 우연하게, 흔히 우리들이 자주먹게 되는 꿀을 그리고, 노르스름한 껌질과 속을 생각했고, 이것을 형상화해서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껌질과 속"이라고나 할까? 전면의 붉은색 인도산 사람과 후면의 색의 차이는 그부분이 바로 주가되는 예배당 본당 공간과 종속적인 서비스 공간과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결합부분을 움푹 파내어, 단순한 재료의 변화뿐 아니라 깊은 음영을 주게되어 분리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 흔히 십자가는 종탑위에 조그맣게 붙어있어 교회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종탑이 그대로 십자가가 되었다. 또 한개의 십자가가 두 개로 분리되고, 그 가운데를 신자들이 다닐 수 있게한 것도 다른 여타의 종탑과는 다른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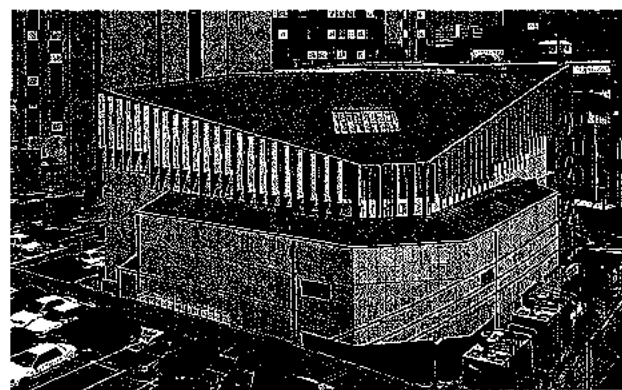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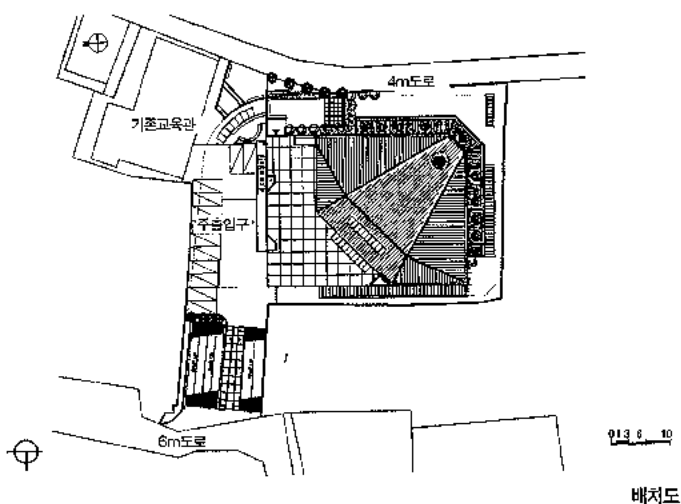
위 치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81-8
대지면적	2,731.69㎡, 건축면적 974.07㎡
연 면 적	8,722.77㎡, 건 폐 율 45.72%
용 적 륜	133.21%
지역및지구	일반주거, 주차장정비, 고도제한지구
규 모	지하 4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정태석, 이정석, 조영학, 김대영, 정현
감리담당	조영학, 설계기간 1993. 6. 10~94. 8. 9
시공기간	1995. 1. 3~97. 4. 15
시 공	(주)쌍용건설, 인테리어 서인건축,
조 경	서인건축, 3 D 우병규

The site was located at the other side of NamDeMoon Market, a block inside from TweGaeR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hurch was to be finished in 1998, exactly 50 years since the completion of the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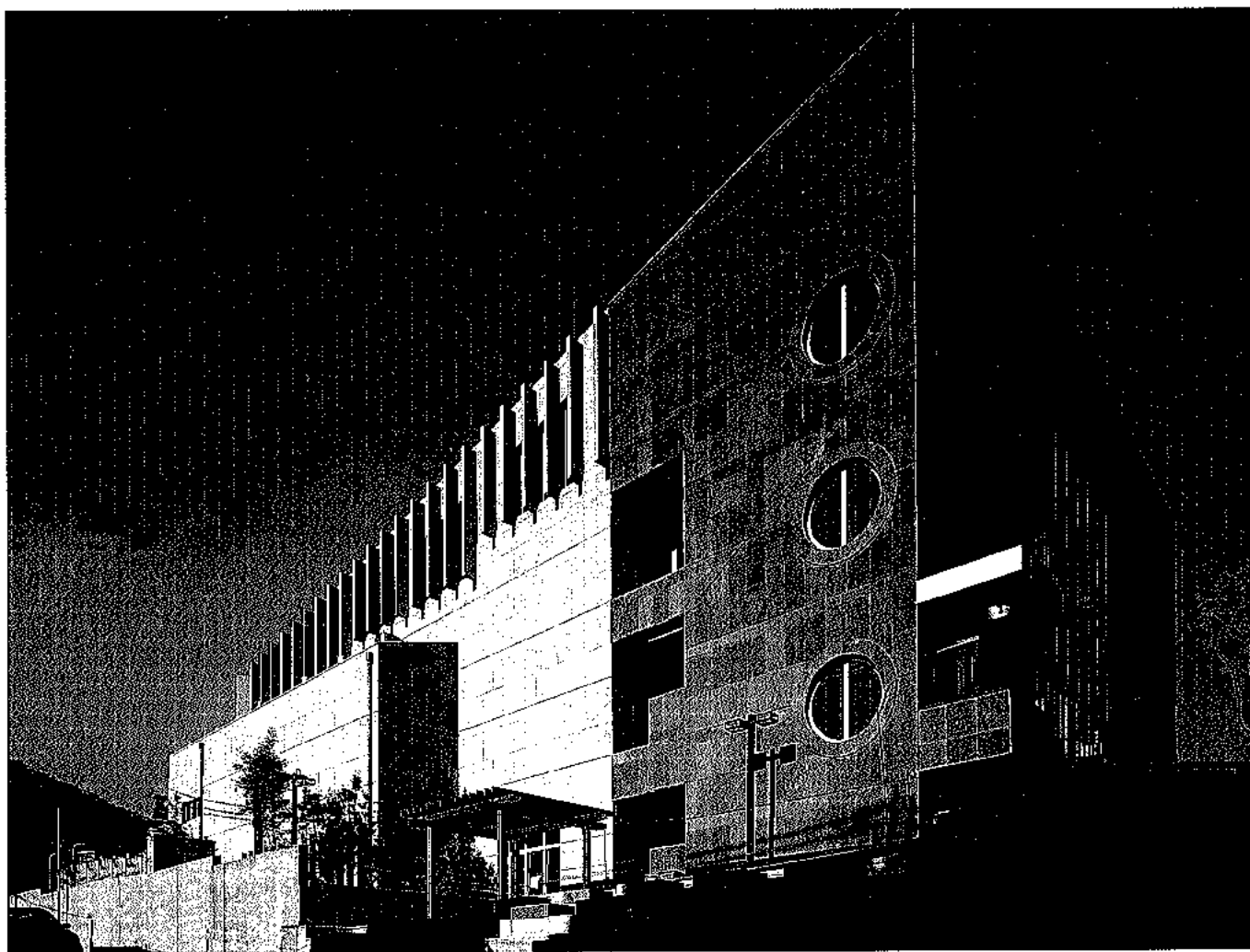
I visited the site and met the owner of the church without any preoccupation. The existing church was there for 40 years, welcoming the adherents, but from age stemmed structural defects, and was to be destructed. The owner expressed several preferences and wishes. The most wanted was a chapel in an arena form, whereas the shape of the site indicated a rectangular shape. But the condition of the site was something that could be overcome. If the church was to be composed of a main space as

master, with several sub, servant spaces added to it, there could be plenty of possibilities within the limited site. The problem of placing three different sizes of chapels was solved by deciding to stack them vertically. I was inspired by the way traditional wooden vessels, with same shapes and different sizes, were stacked. These chapels, whatever their sizes, were still the main spaces of the church, and needed to be discriminated from other spaces. Hence the material of the entrance was set to be the same as the exterior finishing. Another tradition indicated a solution: the clothes of the emperor, and those of his son, the would-be emperor, were the same in style with the only difference in their sizes.

The elevation which one views approaching the church is,



배면전경



전경

with the exception of the cross, rather plain. The facade, visible entering the garden, was a product of much deliberation. All of a sudden I was struck with the thought of tangerines, whose inner contents were totally independent from their peels, and applied this structure to the church. If one should name this, it would be "content and peel, or envelope." The color of red indian sandstone in the facade,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ar elevation, was to distinguish the main chapel area from the other sub spaces. The junction of these spaces were also carved, so as to create shade, increasing the sense of distinction derived from the use of color. The cross is usually placed on the top of the tower, but here the tower itself is the cross. One cross divides itself into two, and the space between is where the adherents pass by. This, too, was to distinguish this church with the other "usual" churches.

Site Seoul Jung-gu Hoihyun-dong 1Ga 181-8

Site Area 2,731.69㎡

Building Area 974.07㎡

Floor Area 8,722.77㎡

Building Coverage Ratio 45.72%

Gross Floor Ratio 13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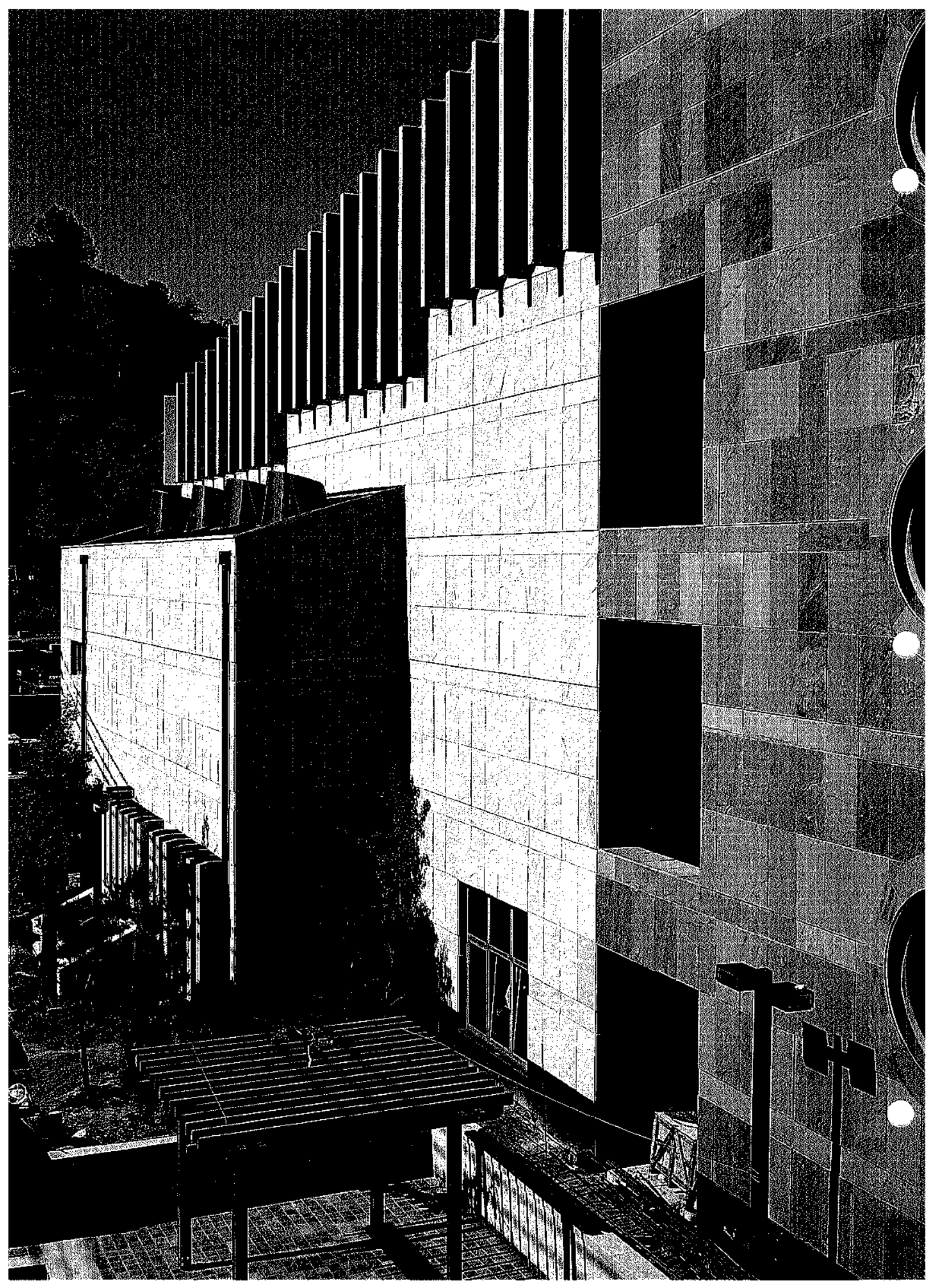
Total Floor 4floors, 4basement floor

Project Team Jeong Tae-Seok, Lee Jeong-Seok, Jo Young-Hak, Kim Dae-Young, Jeong Hyeop

General Contractor SsangYong construction Co.

Interior Seoin Architects

Landscaping Seoin Architects



5.00/1.00 总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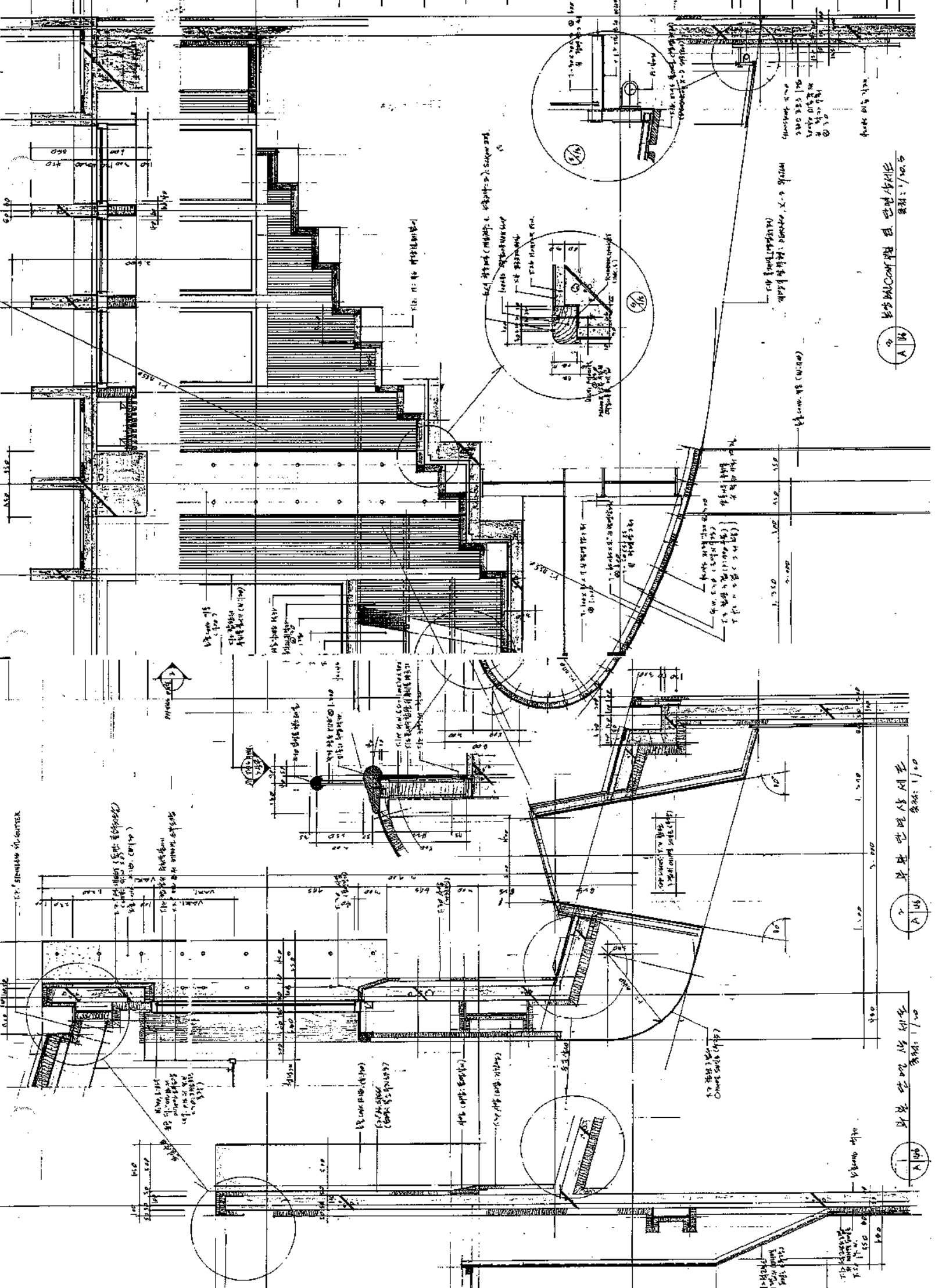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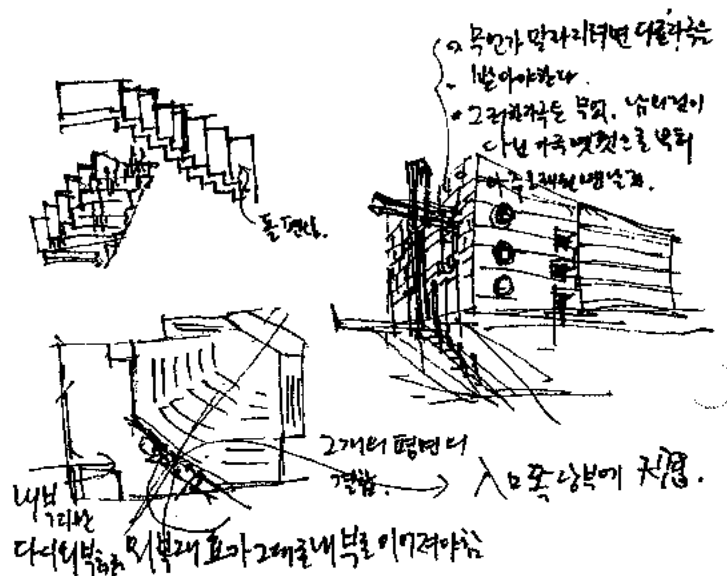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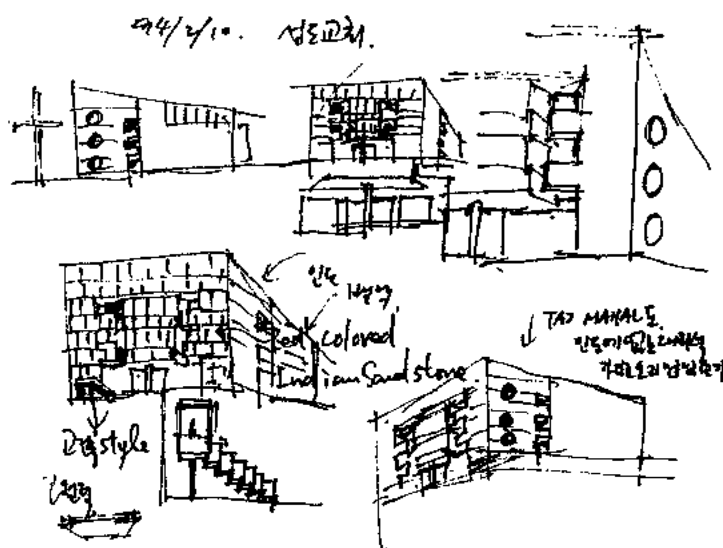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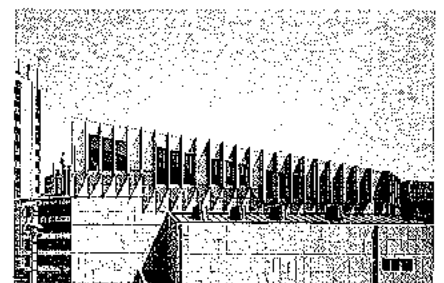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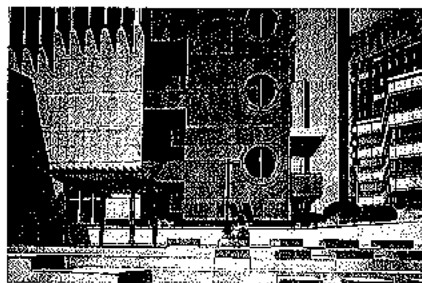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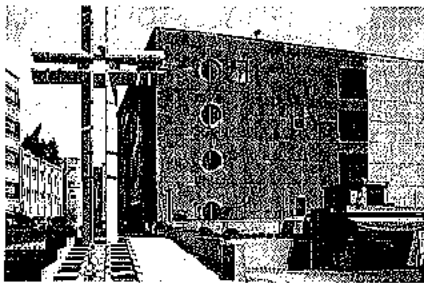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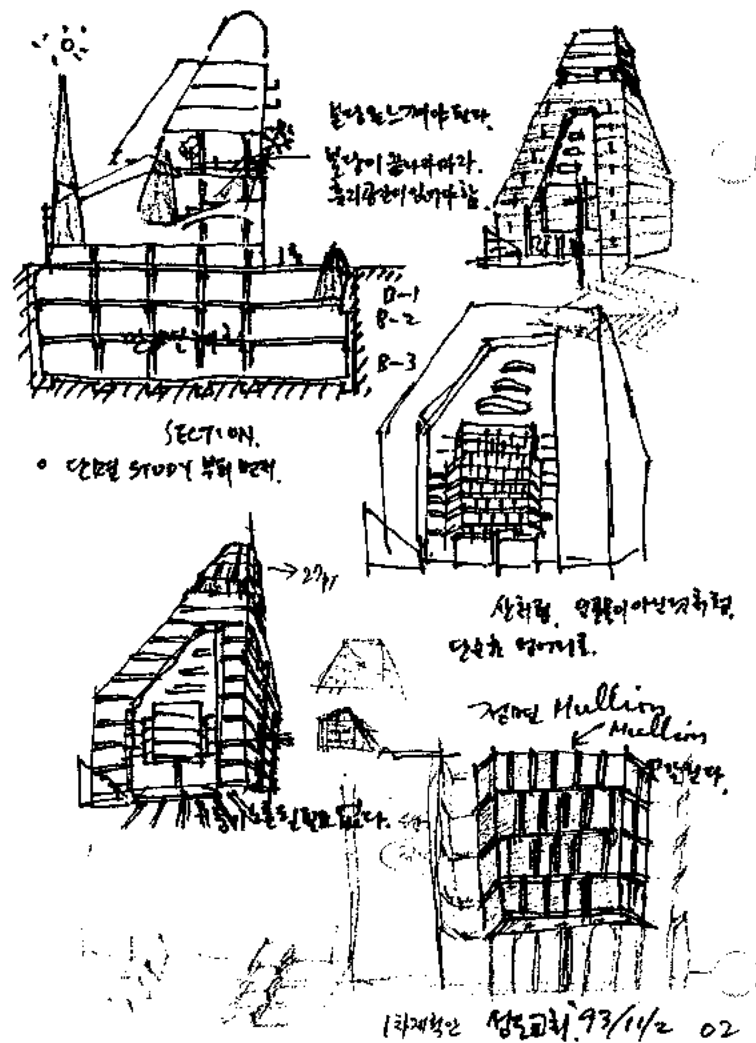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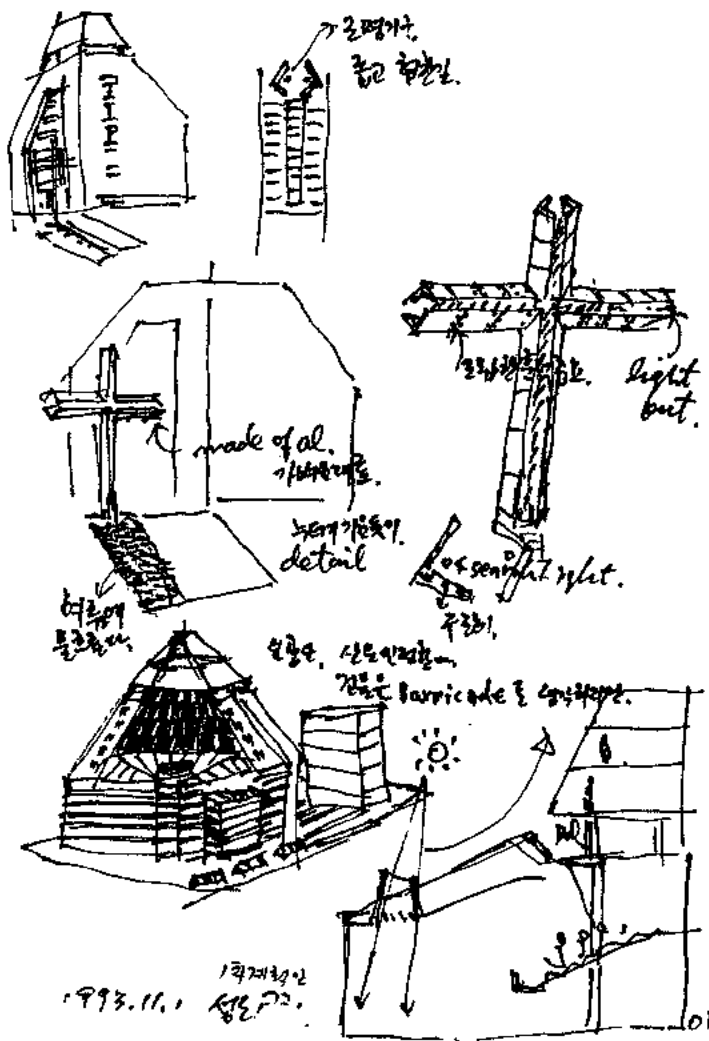
5.00/1.00 总图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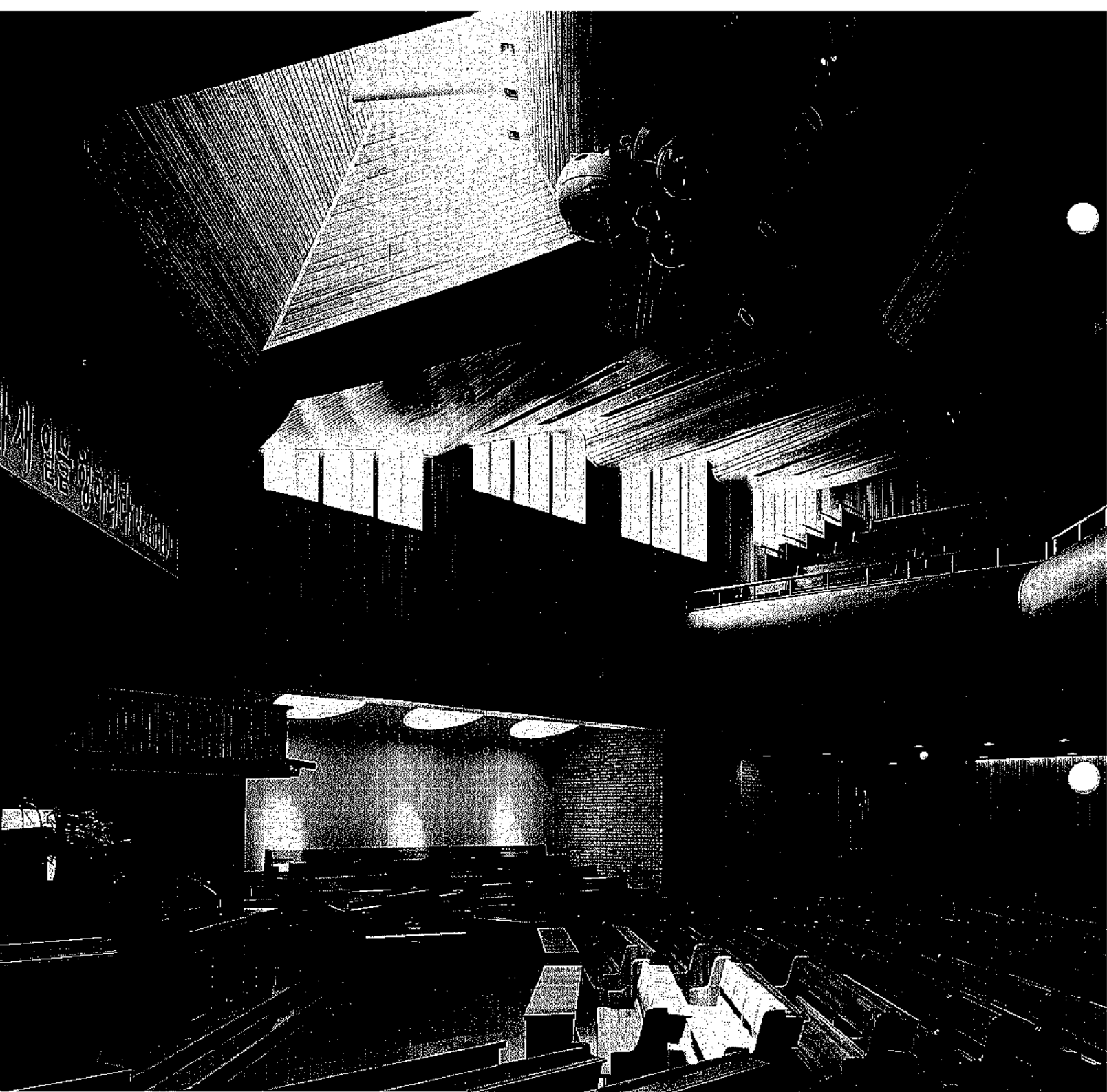
5.00/1.00 总图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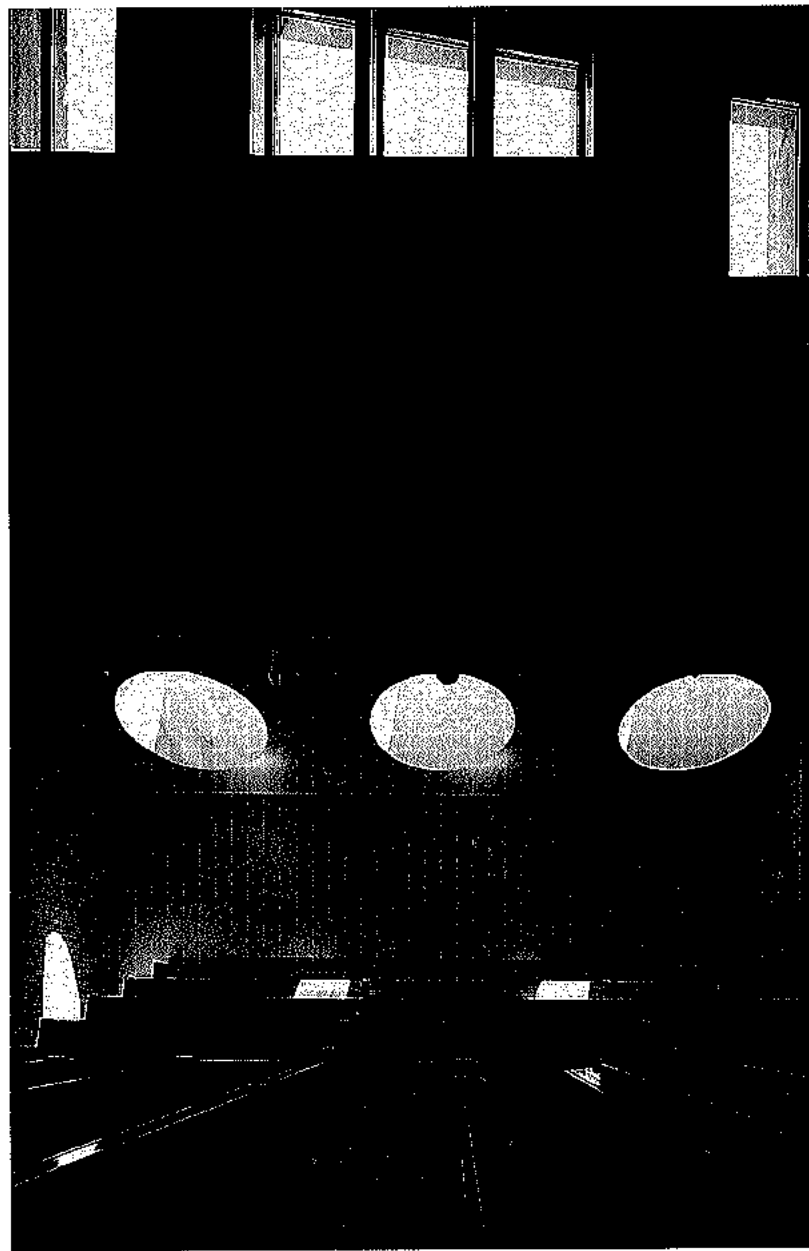
본당 정면



지하1층 소예배실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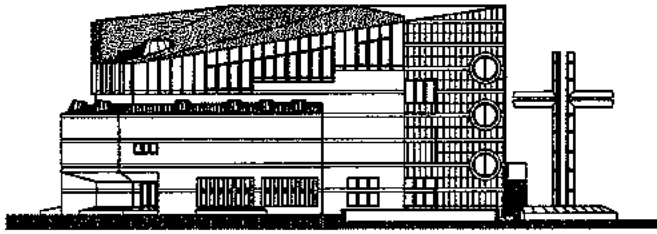
본당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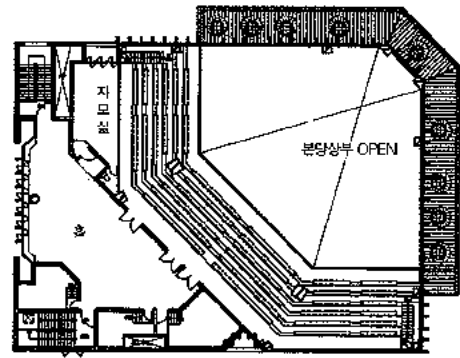
지하2층 복도 및 본관공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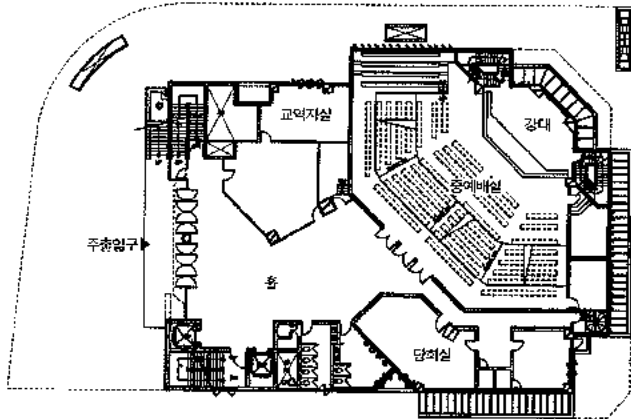
2층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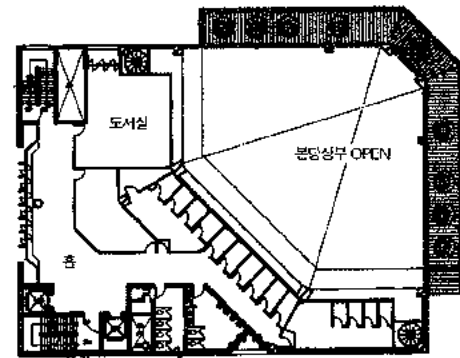
외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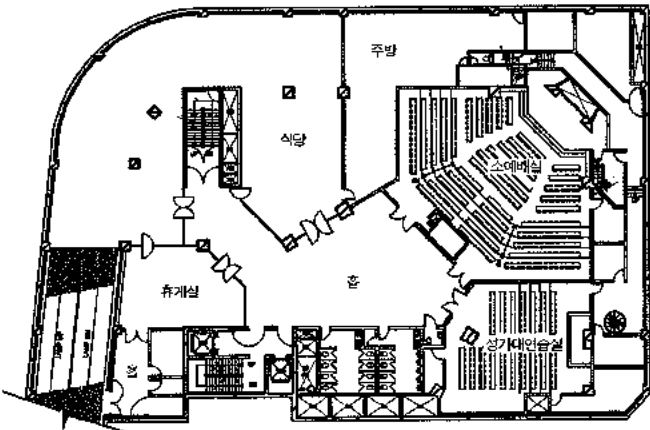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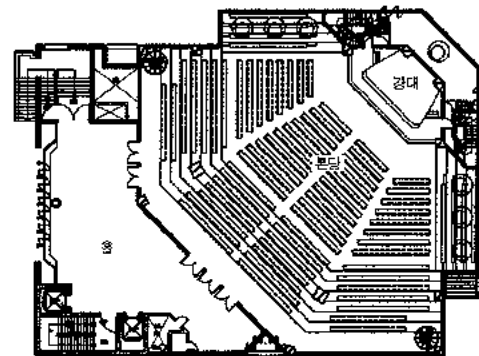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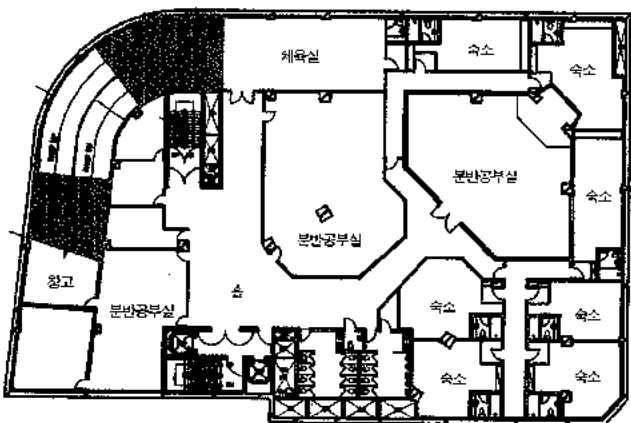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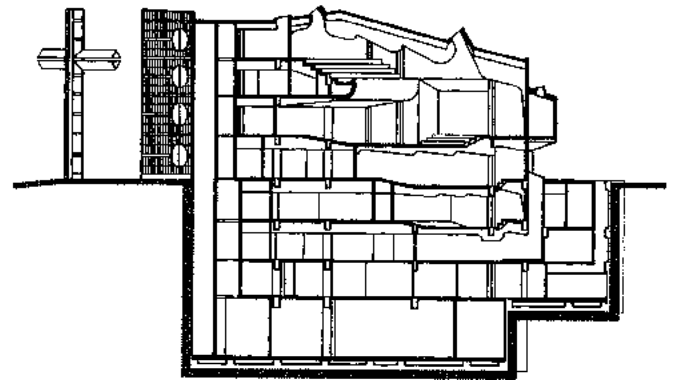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단면도

일상성을 통한 소통의 메시지

The Message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Ordinary

설계자 / 최동규(서인건축) 대담자 / 김병윤(백제예술대학 교수)

Kim Byung-Youn & Choi Dong-Kyu

일 시 / 1997. 5. 9, 장 소 / 성도교회



이미 종교건축, 그것도 개신교 예배당을 많이 설계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는 건축가 최동규의 사무실인 서인건축을 방문했을 때 이미 소란은 시작된 상황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설계사무소로 이용했던 터미널 근처의 사무실이 이사를 위해 짐을 꾸리고 있던 날이었다.

몇번에 걸쳐 사무소를 이사해본 경험이 있는 터라 겁이 났으며 그 소란과 먼지속에서 정신이 좀 아득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남산자락에 다다랐고 오던 길에 그의 새사무소도 밀려서 보고왔다.

사육, 성공한 건축가... 무엇인가 견고하고 단단한 각질로 쌓여서 쉽게 나와 같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또 다른 건축하는 이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그로부터 멋지게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머리 가득 맴돌았으며, 그래서 포장된 사고와 형식성, 변지르한 비평적 새김질을 반복하지 않도록 내심 열심히 비라고 있었다. 짜여진 편집적 시각을 벗어나 일상의 대화로 그가 설계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유지하는데 써버린 그 종류의 얘기를, 어떠한 경험이 있기전에 그에게 처연히 다가선 일상의 매체들, 유달리 그에게만 그것이 그렇게 보여져 그를 움직이게 한 그 사고를 들어보기로 하자. 과연 쉽다거나 어색하다거나 또한 그 매체가 엉뚱하다해서 가려질 것은 없다. 그대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가 최동규가 소탈하다거나, 달변가이라거나 현학적이면서 해학성을 건축과 그의 일상에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일상 그대로 그에게 다가갔다.

김병윤 성도교회는 오랜 연륜을 지닌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 설계에 수임이 되셨습니까?

최동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지요. 내년 1998년이 이교회의 50주기가 되는 해로써 자부심이 대단

한 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궁지만은 뒤지지 않습니다. 성도교회의 신축은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발족되어 준공시기를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는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물망에 올랐던 국내 굴지의 설계사무소 한군데에서 추천해 주셔서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쳐 설계에 위촉되었죠. 그때가 6월 초순이었는데 열심히 안을 발전시켜 그해 12월에 계약이 되었고 당초의 안은 8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남산경관 규정에 18m로 높이제한 규정이 있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거의 계약금까지 되돌려 준 상황으로 종료까지 갔었는데 그 이듬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어 여러 인허가과정을 거쳐 착수후 무려 1년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인수 1천명 남짓한 교회에서 2천6백여명의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겠지요. 건축위원회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병윤 계획대지의 형세와 Context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최동규 보셨겠지만 서울역에서 남대문시장쪽 퇴계로로 들어서면 도로가 자동차로 꽉 메워져 있지만 밤이면 새벽까지 도로변 가득 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이 확장되어 불야성을 이룹니다. 도로에서는 얼핏 보일 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은 크고 작은 여러 건물들로 둘러쳐져 있으며 그 것들이 만들 도시의 입면 "들로" 파인 사이로 비워져 있는 부분 이라기 보다는 감싸인 형세라 해야 하겠지요.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 잠긴 배후지의 내밀함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 내밀함을 채운 성도교회는 커다란 도시의 벽처럼 또 하나의 배후지를 간직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상하게 주변을 살피고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데,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 제 경우에도 이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험과 대지가 수행하여야 할 우선적인 요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적응을 먼저 시도해 봅니다. 우선 몸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장방형의 대지와 그 대지를 연결짓는 도로로부터, 흠사 꼬리와 같이 생긴 대지의 도입부에서 실현시킬 수행원칙을 먼저 따져 보았을 때 주변의 상황은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산으로부터의 경관 때문에 높이에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제한이지요. 대지로 보면 직사각형의 전형적인 평면이 가능하다고 우선 생각되었지만 교회측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채꼴형태가 부적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저도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대지의 상태를 고집하지는 않았지요. 일단 평면적 배열을 해본 후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았고, 부속공간 등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형의 형태들이 등장한다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건축주가 최초로 요구한 그러한 본당의 형태를 적응함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병윤 _____ 그러한 펼쳐진 공간형태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그리고 크고 작은 예배실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적층된 점에서 어떠한 구성적 해석성을 지니고 계십니까?

최동규 _____ 부채꼴을 펼쳐진 형태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예배당 형태중에서 부채꼴을 좋아하는 편이죠. 이유는 옥외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형성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반원형이고 그것의 변형이 부채꼴인 셈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개의 크기만 다른 닭은꼴의 예배실이 있습니다. 강단의 방향이 3개가 다 일치하지요. 닭은꼴의 형태는 옛날 선조들이 쓰던 목가중에 크기는 다르고 형태는 같은 그릇의 조합이 생각나서 이것을 원용해 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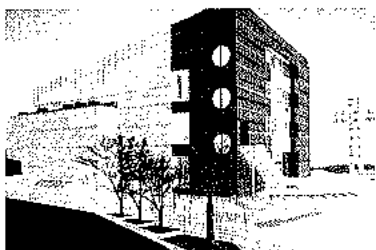
김병윤 _____ 사실 지금까지 대했던 종교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쉽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대해 새삼 어려운 질문을 유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교공

간의 특성상 그것이 지닌 본래의 재래적 성분과 현재의 성분, 다시 말해 인습적인 반복으로부터 이탈을 위해 많은 현대의 종교건축들은 저마다 그 고정된 틀로부터 편차를 고려하고 고정이라는 불안감으로부터 탈파하려고 예측하기도, 규명하기도 어려운 감정의 복선을 계속 잠입하여 그로 인한 새로운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려 하는데, 계획하신 공간이 지닌 특징과 배려가 형식적 측면 이외에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인지 밝혀주시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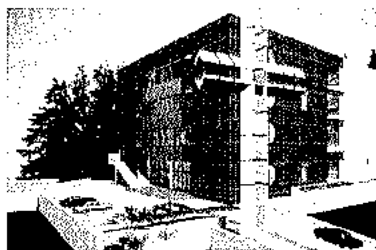
최동규 _____ 우선 저는 교회건축하면 예배당, 본당공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심지어 그 이외의 공간은 다 부차적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본당공간이 부채꼴로 자리잡은 후 나머지 공간의 배열은 사실 너무 쉽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들면 본당이 중요한 것은 누구냐 공감한다해도, 그러면 소예배실과 식당의 공간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소예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식당은 아무리 넓다해도, 둘 혹은 넷씩 마주앉아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펼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예배실은 비록 크기는 식당보다 작다고 해도, 무엇인가 중요한 의식의 주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긴장된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으로 굳이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느 공간이나 최대한 밝게 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공간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리고 거꾸로 쉽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배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윤 _____ 우리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식적이다라는 Ritual 하다고 하는 표현을 건축을 경험하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한 공간성에 대해서나, 위계 질서등을 나타내는 형식의 표현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동규 _____ 저 자신이 제가 설계한 이 공간이 Ritual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사의 대웅전 내부공간은 Ritual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계획한 이 예배당 본당공



성도교회



성도교회



성도교회

간내부는 편안함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Ritual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고친다든지,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예배공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 는군요.

김병윤 _____ 주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틀속에서 약속처럼 고무한 영역과 절대의 형상을 깨닫게 되는 일상을 정지시킨 그 시간, 인간은 가장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신과의 교류를 달성시키려 합니다. 성가나 무슬림의 기도소리, 인도와 같은 곳에서 경험하신 생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라는 늘 신을 염원하는 비워진 자리를 차지합니다. 침묵의 자리, 공간의 허실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규 _____ 상당히 신비함을 가져야 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교수가 오히려 성당설계를 해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당은 그런 신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약간의 신비스러운 공간 연출이 필요하겠지만, 개신교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만인사제설등의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건축화된 공간은 엄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언어들은 성당의 예배공간에 적합한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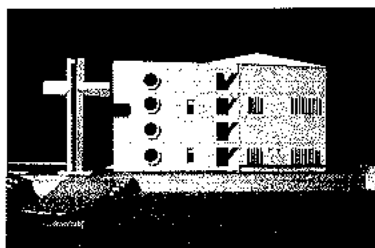
김병윤 _____ 이제 2천6백여평에 달하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해오신 종교건축 작품중에서 이 성도교회에서 특별히 지냈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며, 전통적 예배당 형식과 단순배려의 Auditorium적 형식 등의 관점, 그리고 주변환경으로부터 어떠한 모습을 자우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규 _____ 특별한 관심사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부채꼴 형태를 원하길래 수용해 준 것이고, 또 대 중 소예배실도 같은 뎡은꼴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아무 선입견없이 건축주와의 대화를 기대하고 거기서, 이야기중에 나오는 실마리를 붙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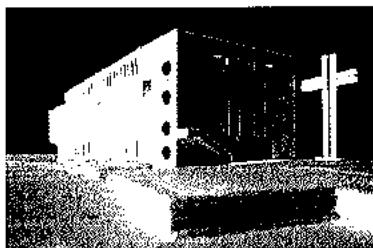
늘어지는 편이지요. 다만 제가 이번교회를 끝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에서 음향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교회가 강당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차후로는 이러한 연약한 건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파르테논 신전은 다부서지고 최소한의 것만 남아있는데도 그 자체의 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은 최초의 상태를 상상해 보아도 요즘 건축과는 너무나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전기, 설비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건축가들에게, 사실 너무나 많은 기술적 고려사항과, 너무나 많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옛날 건축물에서 느끼는 건축적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다시 비유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성을 지을 때, 내장재와 외장재의 구분이 꼭 있었을까요. 또 단열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결국 과학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너무 위하는 건축을 하다보니, 오히려 건축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주변환경을 특별히 의식한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브젝트로서 보고 해석을 한 것뿐이지요.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를 조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아쉬운데, 도심내에 짓는 건물을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김병윤 _____ 복잡한 도시의 한거를 지나 내부로 들어온 느낌을 받고 있고 이미 둘러싸여 있는 주변건물들로 인해 이 장소는 이미 내적인 분위기를 연상받습니다. 주변이 모두 관련있는 부속건물같기도 하고 Set같은 이미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던 주변의 찻집조차도 예배당의 부속실과 같은 인상을 연속시킬 수 있었습니 다. 접근루트에 대해서 그곳에 십자가 종탑을 세우신 의도 등을 얘기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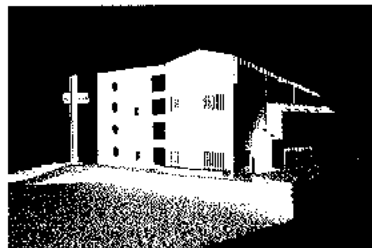
최동규 _____ 아마 주변 찻집조차도 교회의 부속건물같이 느끼게 된 것은, 이 주변지역이 이미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라 모든 건물이 고급이든, 허름하든 다 제자리에 뽐뽐하게 차있을 뿐더러, 전면에 15층짜리 인송빌딩이 병풍처럼 막고 서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인송빌딩과 교회 앞의 도로도 결코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송빌딩 옆으로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도로가 교회로의 유일한 접근로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쉽게 인지시키려는 의도로 마주



성도교회



성도교회



성도교회

보이는 위치에 십자가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병윤..... 모든 종교건축이 지닌 속성이 상징과 소통을 의미하는 주제하에 다양한 부제요소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탑이라든지, 아치형 개방공간이나 원형의 창틀, 뾰족한 지붕 등, 형식성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전연 과도 같은 표현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금욕적인 태도의 골격이 종래에 보여줬던 종교건축의 형식에서 많이 달라져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 두가지의 겹침이 있는 형태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금욕적인 태도의 골격이라는 말을 들으니 언뜻 정면의 입면이 생각납니다. 정면의 입면은 이중의 골격이 보이는데 정면에 있는 것이 겹칠, 즉 외피를, 가운데 약간 들어가 있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생각해낸 것인데, 신자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이 지난날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과도 우연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부분의 표현이 금욕적이라고 느껴진 것은 아닐까요.

김병윤..... 이미 잘 알려져 있는대로 설계자의 건축적 성향에서 알비알토와 같은 건축적 성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건축의 풍부한 유산과 의미를 수용하고 있으면서 또한 공간구조를 현대적인 어휘로 구사하는 몇 안되는 교회건축의 거장중에서 알토의 성향은 어떤 것이며, 그로부터 고무되고 있는 개인사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히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대상작품이 있으십니까?

최동규..... 알토의 건축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책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80년대초에 그에게 경도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가 구사하는 어휘 하나하나가 제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가 했던 작품들 전체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정신이 크게 느껴지는 편이지요. 즉 그는 인간을 철저히 배려하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인데, 이를테면 그는 자기건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결정, 선택하는 건축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은 저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윤..... 아마 부정도 긍정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건축이 아니라도 누구의 무엇을 닮았다든가 무엇과 비슷하다면가라는 말을 들게 되면 대개 기분이 언짢기 마련입니다. 그 보다는 그곳 북유럽에 많은 건축 여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영감을 얻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기억하시는 것 중에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최동규..... 북유럽이라기 보다는, 핀란드, 그리고 그중에서도 알토의 작품들 하나하나가 제게 교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처리로 제가 설계한 건축공간에서는 최대한 자연광을 유입시켜 밝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의 처리방법을 그로부터 배운 것이죠. 특히 모든 건물에서 제일 주인공이 되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공간에서 빛의 연출은 필수입니다.

김병윤..... 우리는 알토와 같은 건축가의 교회당 루이칸의 교회와 그의 건축, 코르뷔제의 라플렛 수도원, 바라간의 수녀원교회 등 크게 몇 개의 걸작을 남긴 건축가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역사속에서 유지되어 오던 종교건축, 특히 예배당 건축의 현시적 재해석을 보게 된다. 과거의 상징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직접적 기능체계에 눈이 멀지 않은 이들은 유난히 이 두 개의 시대적 상황을 잘 겹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보임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보편적 체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세의 건축가라면 모두 이들의 건축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후의 건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까?

최동규..... 지금 몇가지 열거한 교회를 상 상해보니, 제가 이번 성도교회에서 아룩하지 못한 몇부분들이 금방 대비되어 느껴집니다. 특히 성도교회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에 대한 배려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다보니, 사실 교회건물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비싼 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열거한 걸작들은, 검소하고 질박한 표현이 바탕에 깔려있고, 솔직 순수성이 느껴집니다. 즉 다음번 교회건



성도교회



교회 정면에 직접 관련된 이미지로서 잡질과 속의 관계를 나타낸다

축에서는 덧붙임이 없는 질박한 표현으로 종교건물이 가져야 할 속성에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강당과 같이 보이는 과다한 표현을 배제해 보고 싶습니다.

김병윤 _____ 다시 얘기를 성도교회의 대지에 대해서 좀더 할까요. 주된 접근로로부터 대지가 면한 부분은 경사로로 오르는 주진입로와 아주 상징화된 접근로가 있는데 이곳에 흐르게 될 물은 경관에 의미를 두신 것인지 십자가로 다 다른 동안에 씻김을 위해 만든 행위의 상징인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로 향하는 예수의 종교적 실체를 이미지화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동규 _____ 우선 십자가가 놓여있는 위치는 인송빌딩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길로부터 접근하는 신자들 눈에 띄이기 쉬운 위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종탑이 아니고 십자가 그 자체가 다시 디포드(Deformed)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이에 약간의 좁은 통로가 있고 양편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 사이의 통로도 다닐 수 있게 한 것은 색다른 경험을 유도해 보려고 한 것이죠. 또 양편에 흐르는 물은, 사실은 여름더울 때 시원한 분위기를 유도해 보려고 한 목적도 있고, 또 성경에 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부분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하게끔 맡겨버린 것입니다.

김병윤 _____ 이는 마치 성화의 한 부분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이미지화한 공간들이 주는 신비감이나 가시적인 또한 체험으로써의 상징을 통하여 성스러워지는 소통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실체에 대한 규명,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짧은시간내에 변화를 구해야하는 강렬한 전환을 시도하신 것이라면 십자가탑을 관류한 이후 진입마당의 분위기는 다소 특징을 지니는 성격면에서 떨어지는데 그러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최동규 _____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당의 소홀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오고 그 마당의 대향부를 받쳐주는 무엇이 있었다면, 그 마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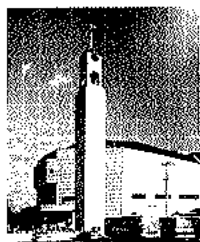
좀더 종교적인 성스러움이 있었을텐데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김병윤 _____ 아쥔든 이 도입부분의 가시적인 이미지와 상징성은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연한 성스러움의 단서가 되는 주요요소들에 좀 부차적인 요소들, 예를들면 스텐레스 금속의 띠들이랄지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개구부의 주요 형태들과 전면부의 금속판들, 사실 다른 건축가의 경우의 교회건축에서 잘 닦여지지 않은 기술성을 보인다든지, 상업적 건축에서 감성적으로 훈련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그 부잡스럽고 둔중한 천덕스러움이 새로운 건축의 치환을 예견하듯 오인된 모습에서 마음이 걸렸는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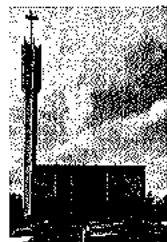
김병윤 _____ 매우 치밀한 사고와 자세한 세부설계가 이루어진 내부공간은 집회장소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단 성스러운 공간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전래의 예배공간의 특성과 현재적 의미, 또한 이후의 설계자의 새로운 건축공간과 그 방법성을 극복하는 시도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최동규 _____ 그말을 들으니 설계하던 당시가 생각나는데, 종탑을 설계할 당시는 이미 설계가 너무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져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 들 때였고, 종탑중간의 스텐레스띠는 그냥 심심해서 변화를 주려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없는 것이 나을뻔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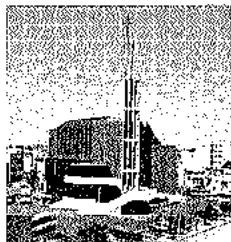
다음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소망교회, 대흥침례교회 등의 교회의 모양에 대해서는 참고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토자신이 극히 내부지향적인 건축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을 저도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알토의 후기작품들로 가면 특히 흰란디아 홀이나 세낫살로 타운홀 등 외관과 내부 공히 나무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더 솔직하고 단순한, 그리고 빛의 연출만이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건축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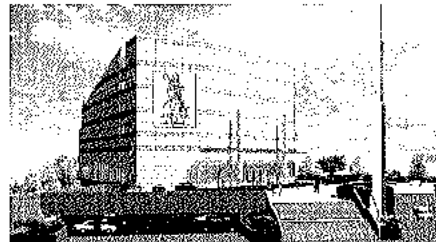
대전 대흥 침례교회



소망교회



속초 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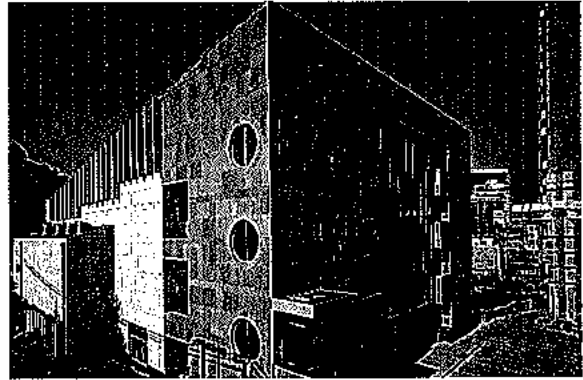
군산 성광교회

기능미학과 형식미학

Function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백문기 / 인.토.건축,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

by Beack Moon-Ki



건축가 최동규의 작품을 찾아간 것은 싱그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계절의 어느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이곳은 변화한 도시의 한 켠을 두고 있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맞닿는 곳인데, 남산의 한 줄기 끝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고층건물을 뒤로하고 찾아갔을 때, 거대한 '십자(+)'가 (여느 건물의 종탑에 올라간 십자가가 아닌) 지면에 꽂혀 있는 분절된 십자가 형태를 보면서 한눈에 교회임을 알 수 있었고, 그 형상이 너무나 설명적이라 쉽게 입구를 찾아냈었다. 그 뒷면에 단일 형상으로 보여진 형태는 매우 단순해 보였고, 그 비례는 도시가 갖는 형성과 순응하는 크기였으며, 재료자체의 질감은 따뜻한 인도 사람의 재료로써 두개의 색상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다. 다소 스케일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도 내부로 조용히 공간을 느껴면서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배공간과 제대부분에서 들어오는 빛을 주시하며 서성거려 보기도 했다. 그곳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측에서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 모두를 이용하고 있었다. 지상3층과 지하4층, 대지면적 833.5평에 연면적 2,930평 그것도 고도제한 입만지역이라 지상으로 짓고자 하는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도시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Gate로 삼으면서, 그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게 하고 있으며, 동측의 4미터 도로에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속에 작은 휴게공간과 전면 마당과의 연결을 구 교육관의 점속을 통하여 청소년과 유치부들의 놀이터로서 대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활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 대지가 갖고 있는 자기를 생각한다면 건축가가 그 한계를 스스로 느끼면서 구석구석 사용하려는 노력은 사용자를 위해서나 공공성을 위해서 건축가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른바 기능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기능의 해결과 충족을 근거로 두고 있으므로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다.

1층에 들어서면 거의 개방되어진 교회사무실이 모든 사람과의 접근을 쉽게 하고 있으며, 당회장의 접촉과 성도들의 교류 또한 여기서 이루어진다. 예배공간에서도 위, 아래층의 경사진 회중석 사이에 개인 기도실이 위치하며, 지하층에도 분반공부실과 숙소를 두고 있어, 성경공부를 하거나 수련장으로 이용하므로 별도의 공간없이도 장소를 활용할 수가 있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건축가에 의해 기능적으로 풀여지던 작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는 철저한 형식적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과 형식을 해결한 건축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건축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의 철학적인 문제를 기호로서만 이해하려는 사고 속에서, 또 다시 건축가에게 무리한 용도 수용에 대한 해결을 요구함으로 인해 건축가는 단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지식인들의 상식적 편견에 재차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적 가치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과 '신앙적 본질'이 어느 정도 가치부여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이라는 말 속에서 그들의 내면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다.

"성전은 그 존귀함이 은과 금에 있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모심에 있다"고 한다.

성경은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이다."

그곳에 예배공간과 제대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밤하늘에 떠도는 붉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촘촘히 박혀있는 네온사인인 십자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마도 시대를 보고 감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복잡한 사회에 표류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인가?"

"불확실한 시대에 모든 재앙으로부터 비켜가고자 함인가?"

"아니면, 지나온 시간의 잘못을 반성하여 신앙으로부터 마음을 평정하고 속죄를 하고 구원받고자 함인가?"

“그러면, 신도를 수천명, 아니 수만 명을 넘게 수용하는 교회가 과연 축복의 증거일까?”

“양적 팽창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좋은 건축은 인간에게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좋은 교회건축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행하게 한다.”

잠사나마 종교에 대한 물음을 한 것은 건축가에게 본질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필자의 사건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건축가 최동규는 외관(정면)에서 굴뚝질의 속 알맹이와 표피인 관계에서 그것을 형상화하였다. 통합되어진 기능에서는 주공간(예배실)과 부공간(부속실)으로 구분하여 장방형의 덩어리에 부채꼴 모양(아래나 스타일)을 접속시켰다. 그리고 기능을 조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방법에서는, 동일한 재료 상에서 색상을 바꾸어가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예배공간은 옛날 살림에서 사용되어지던 목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수납적 방식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건축주는 처음부터 부채꼴 모양의 예배공간에 주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지가 갖고 있는 여건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이미 다른 방향이 암시되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건축가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형태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쪽 생각으로는 정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건축물에 십자기를 세워서 만든다면 상징적인 기호가 될 거리는 지식적인 방법을 요구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에, 바로 땅위에 세웠을 때도 기호의 역할과 영역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 속에 놓인 한 조각으로 인식되어지므로 많은 비 신도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더 깊은 기호로서 다가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 교회를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건축가들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니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기존 교육관 정운을 서로 마주하면서 갖는 기능적 효율은 매우 좋은 듯하다. 그러나 너무나도 짧은 도시적 접근은 예배공간 안에서의 심리적, 과정적 진입부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남측에 제대를 두고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성가대 좌우 제대에 빛을 머물게 한 것은 상당히 설명적이긴 하나 좀더 긴 과정적 공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숙하고자 하는 공간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일 남측 진입대지 경계선 부분에 산책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빛이 주는 효과마저도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남측에 여유있는 마당을 두고 해결한다면 그 빛은 늘 유지되리라 보며, 서측면의 사이 또한 줄여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동측에 있는 4미터 높이의 긴장된 벽면과 마주하는 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본다. 또한 북측 진입이 갖는 어둡고 음산한 진입감도 무시할 수 없다.

작가는 주공간과 부공간을 주인과 종의 개념으

로 설명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료의 색상으로 구별되어지며 때때로 면에 콘트라스트가 부여된다. 필자의 눈에는 그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색상의 단조로움에서의 변화로만 보여졌었다. 그리고 동일한 재료의 색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그것은 조형적으로 수평적 이반상태이거나, 수직적 이반상태여야 하는데 반해 그 방법은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진다. 작가 또한 아이디어를 실행함에 있어 기대한 것보다 약하게 느껴졌으리라 본다. 부공간(부속실)과 주공간(예배실)의 형태가 갖고 있는 언어를 달리 연출했다면 그 의도는 분명하게 나타났으리라 본다. 그래서 통합된 자체에서 또다른 본리의 성격을 이반시켜 외부 공간화된 사이를 개입시켰더라면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음악에서는 음조 자체가 제시부, 재현부, 반복에서 그 절정에 클라이막스가 있으며, 종국엔 대원인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것을 음악에 비유하자면, 제시부 자체가 기호로서 멈춰 서 있으며, 그것이 재현되어 있으나 그 교회가 가져야 할 클라이막스는 빠져있는 듯하다. 필자는 작가와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좋은 하늘과 만나는 또 하나의 유일한 대지인데, 그것을 덮지 말고 하늘이 열린 옥외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동의적인 심경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너무 관습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만일 그랬더라면 남산 산자락을 보며 서울의 하늘이 갇혀진 상태에서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며, 그 공간은 클라이막스 역할로 존재하며, 설사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한 개의 보석은 갖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 작가는 여기서 하늘로 상승하는 안(案)을 만들어 브리핑까지 완료했으나, 그것이 남산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일정 높이제한이 규제되는 곳이라 실현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안 속에는 작은 상징적인 전망대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건축가 최동규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논할 때 걱정이 앞선다. 한 사람의 작품을 논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철학, 그리고 성장과정, 즉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한 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상당히 많은 교회작품을 다루었으며, 기술적 해결능력이 뛰어나고, 알바 알로라는 핀란드 건축가의 작품에서 인간적인 작업을 흠모하고 영향을 받아 작업에 그러한 방법이 보여지고 있으며, 꽤 성공한 건축가라고 알고 있다. 굉장히 유머스럽고 남에서 즐거움을 주고 또한 건축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각종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의 모습은 생활자체에서도 성실함을 느끼게 한다. 지금에 와서 그의 작품(성도교회)을 따로 평가하고 싶지 않으며, 그는 여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진짜 최동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다.

그 훌륭한 역작이 건축가 최동규 손에 의해만 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느낌을 만족하며 더 이상 그를 평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Functional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My visit to architect Choi Dong-Kyu's recent work at the hill of Nam-San, a junction between commercial and housing areas, was in the late afternoon of a bright spring day. Just passing a high-rise building, a fragmented cross, unlike other usual crosses seen in other churches, came to sight, unmistakably indicating the purpose of the architecture behind it. The building itself had a rather simple form, with a proportion in conformation with that of the rest of the city, and with the colors of two warm Indian sandstones.

The overall scale somehow provoked me, but I proceeded inside to look into the interior spaces, which was of high density, perhaps the result of excessive programmatic demand from the church. Considering the value of this inner city land, the effort to condense various programmes to a limited site is surely a basic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architect. This functional approach is applied in the interior as seeking formal solutions for variou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hus enables convenient use.

Entering the first floor, one is faced with the open church office, where the meeting between the priest and the adherents occur. The chapel has individual praying spaces along with lecture spaces and dormitory in the basement. These open spaces are adjustable to various programmes without physical alternations.

The architect striv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owner, but disagreements will occur, and it is another task for the architect to come up with formal solutions to these disparities. What could be the visualization of a successive architecture in formal and functional aspects? In answering this question, I realized that it was not the sole concern of the architect. Architects themselves interpret the philosophical issues of architecture as semeiological problems, and added to this are the excessive demands of the owners, which together forms, among intellectuals, a stereotype of architects as a problem solver to certain demands. In this view, the questions on the essence of religion and man, a spiritual value that has sustained mankind, comes about. The ultimate subject can be: under the notion of convenience, aren't we neglecting the inner values within us? Some questions on religion per se could help in providing an answer. In a personal opinion, I believe the essence of an architect, as of any other profession, is to follow God's lessons.

Choi has realized this materially in the relations of the envelope and the content. The unified programme consists of main spaces for ceremonies and sub spaces for additional activities, together contained in combined form of a square and an arena. To visualize the function, the method of alternating colors in the same materials was applied. The chapel area was inspired by the wooden vessels from the old ages. The owner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rena shape of the chapel, but conditions of the site disabled a

complete realization, and variations were made. Each time the architect faced these problems, he sought new ideas and forms, but simultaneously his thought could only be oriented towards a certain way.

The architect could have placed the cross on the roof, raising it above the high-rise buildings, but he instead chose to place it on the ground. It would nevertheless perform its symbolic function, and in addition, as a piece of sculpture, give a warm welcome to the adherents.

The church, however, leaves a few things to be desired. The style of each architect is apparently characteristic, so I would approach its shortcomings from an objective stance.

For instance, facing the existing education center seems like a functional solution, but the resulting diminution of entrance length ultimately reduces the chapel's effect of spiritual approach. And by placing the main altar in the south and inviting natural light in order to illuminate the choir loft seems ideal for a holy environment but lacks a sense of silence found in linear proceeding spaces. And in the occasion of a building's addition in the southern neighboring site, the effect induced by natural light will no longer be available. The northern entrance, with its dark and dim passages, could be pointed out as another shortcoming.

The architect explains the main and sub spaces in terms of master and servant. The separation of these two are indicated by the use of materials with diverse colors, which, before comprehending the architect's intention, only seemed like a method to break the monotonous tone. But this use of color as a tool of classification seems rather passive, a easy way out. I suppose the architect himself also felt a lack of strength in this method. It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if the two were classified by formal language.

A work of music, in a sonata form, consists of presentation, representation, repetition, climax and ends in a denouement. Comparing this to the church, one can realize the curious absence of the climax. The architect has pointed out the problem himself: he regrets covering the ceiling of the highest floor, which is another land where we can meet the sky. An open space at the top of the church would present a grand vista of NamSan and the endless sky. At a certain point, it must have been too difficult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Even if he had, the conservation law of NamSan, limiting the height of buildings, would have prohibited the actual exec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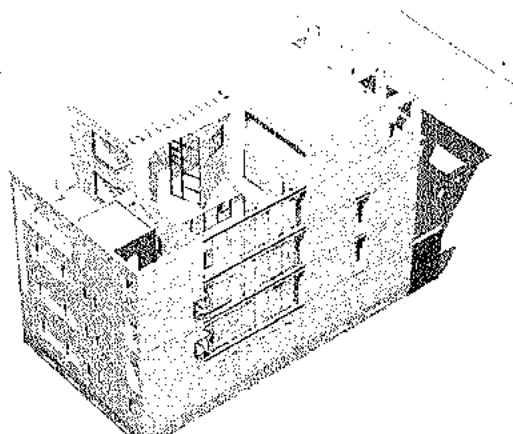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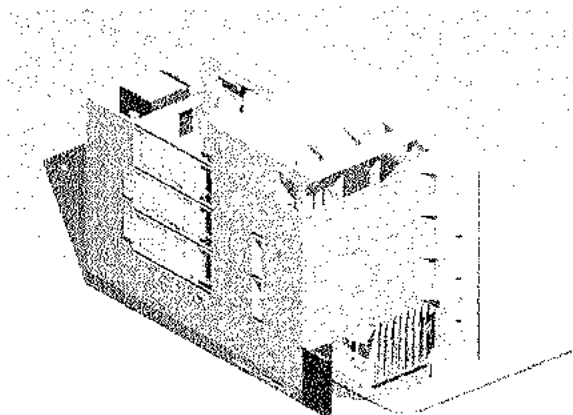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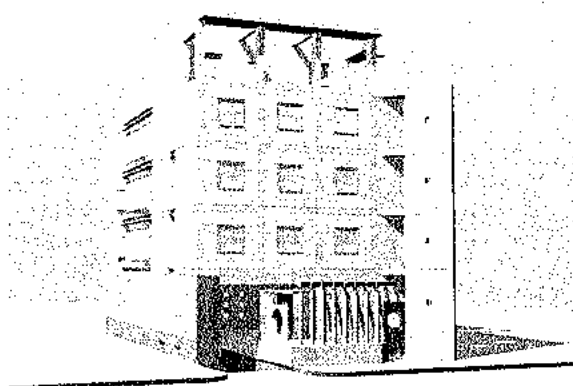
I do not know much about Choi, and from this fact it was quit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his architecture. To do so, I believe, one must have the knowledge of his point-of-view on the world, his philosophy, and his own history - in other words, his background. The only thing I know about him is that he has done a number of religious architecture, that he admires the human warmth in the works of Alvar Aalto, and that he is quite a successful architect. In this view, I do not wish to expand my analysis any further. But this work alone ensures me that his future projects are worth looking forwar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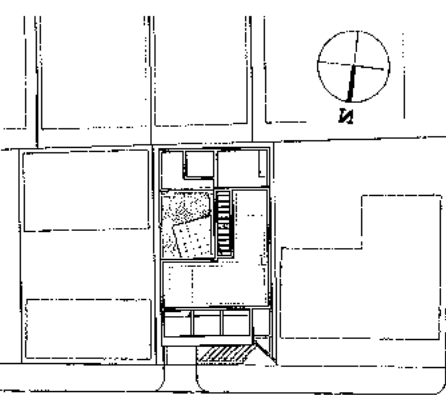
한순심 산부인과 Han's Obstetrics & Gynecology

정동명 / (주)일건씨앤씨 건축사사무소
by Cheong Dong-M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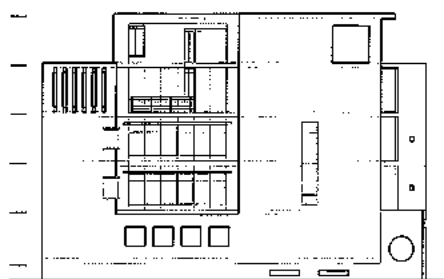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한다’ 대개 300평 미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말로, 그 말의 본래 뜻이야 글자 그대로겠지만 쓰일 때는 무언가 경시하는 느낌이 깔려져 있는 듯하다. 소규모니까 가볍게 다루어져도 괜찮다는... 무뎠던 건설업자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 적용되는 법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고 법규가 바뀌면 그때마다 불이익을 당할까 고안고 만한 규모의 건축물 허가 건수가 폭증하고...

사실 건축가들은 대개 작은 일의 설계일을 할 때 더 보람을 느끼곤 한다. 가로 환경, 나아가 도시 환경을 근사하게 만드는데 건축가의 역할을 앞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설계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공부나 체험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의지와 의도대로 일을 이끌어나가고 싶어하고, 언젠가 써먹고 싶어 간직해 둔 디자인 어휘를 구사해 보고도 싶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실험적인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 결실을 빨리 볼 수도 있고 평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큰 설계일의 경우 건축가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일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것도 관청 일, 공공성을 띤 일, 주인없는 일들이 더 그렇다. 백지가 새까맣게 될 때까지 헤메다가 어습푸레한 한줄기 가능성을 붙잡아 계획안으로 일궈나가는 일련의 계획 과정이야 큰 일, 작은 일 다르게 하나 없지만 그 이후가 문제이다. 사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이 좌우한다. 의사결정은 표류된다. Project가 중간쯤 진행될 때는 설계자도 중요한 사공의 한 사람 줌으로 격하되고 처음 채택된 계획안은 몇번 바뀌어 그 본래 컨셉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리기도 한다. 설계 기간도 마냥 늘어진다. 설계자는 스스로의 나약함을 느끼며 같이 떠밀려 흘러흘러가게 되어버리곤 한다. 설계자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Project에 대한 애착은 점점 멀어져간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럴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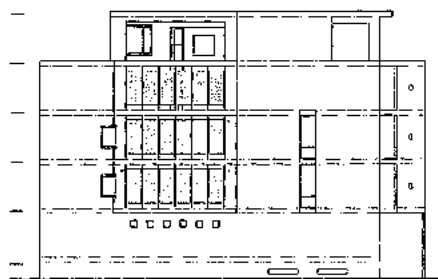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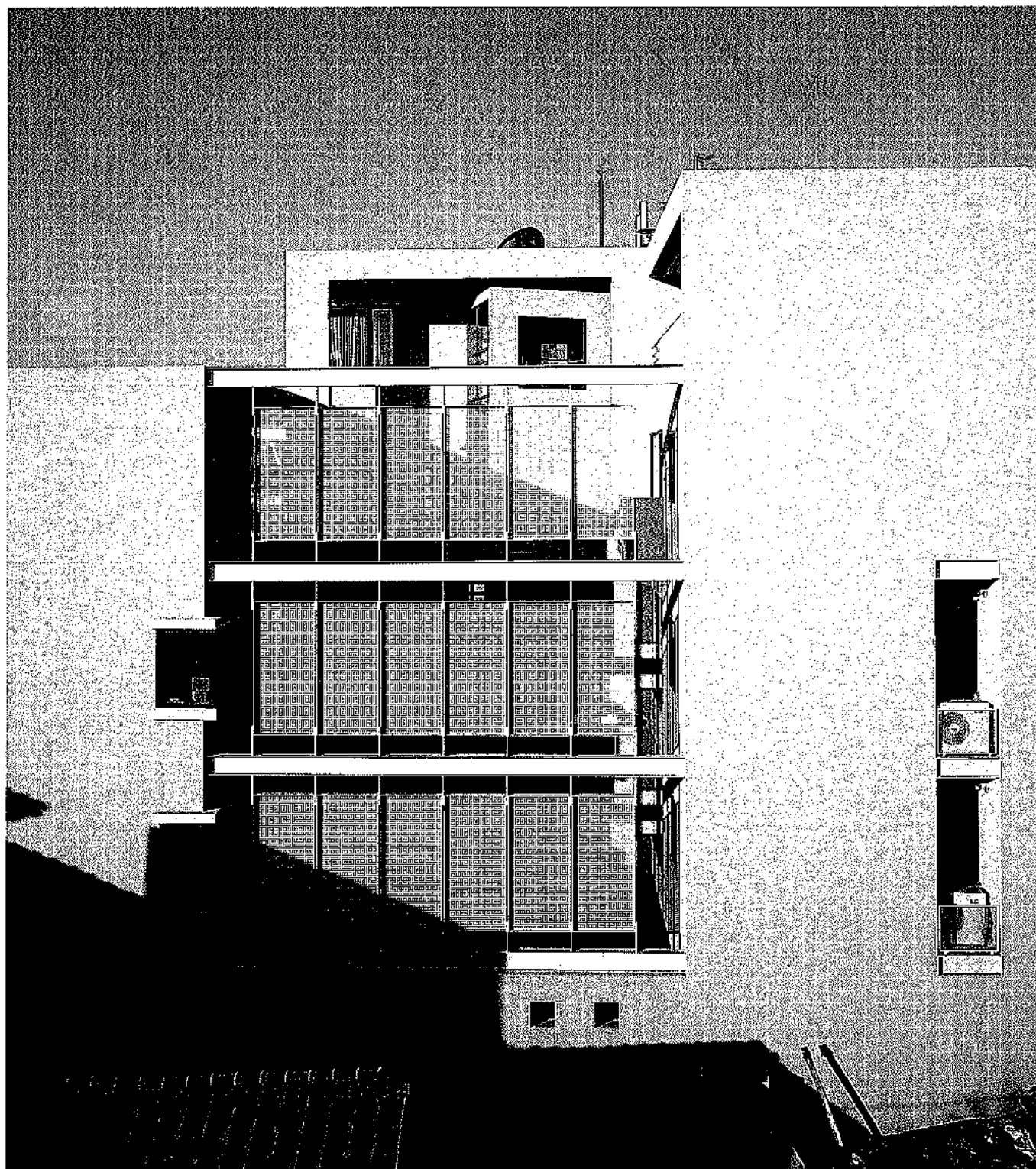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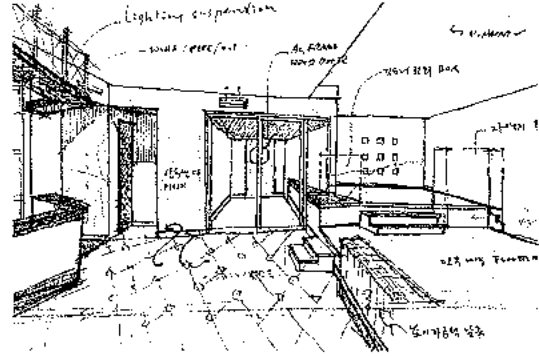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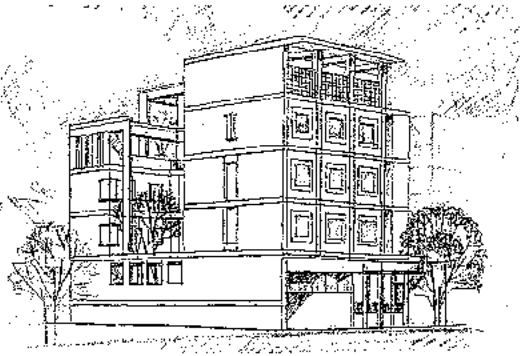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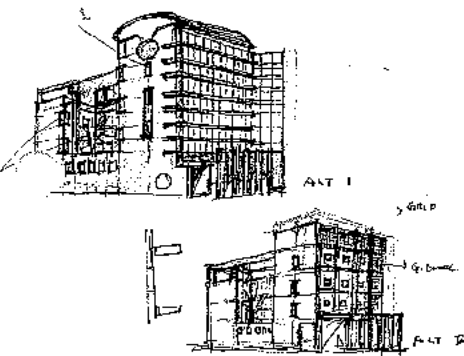


동측면도 초기안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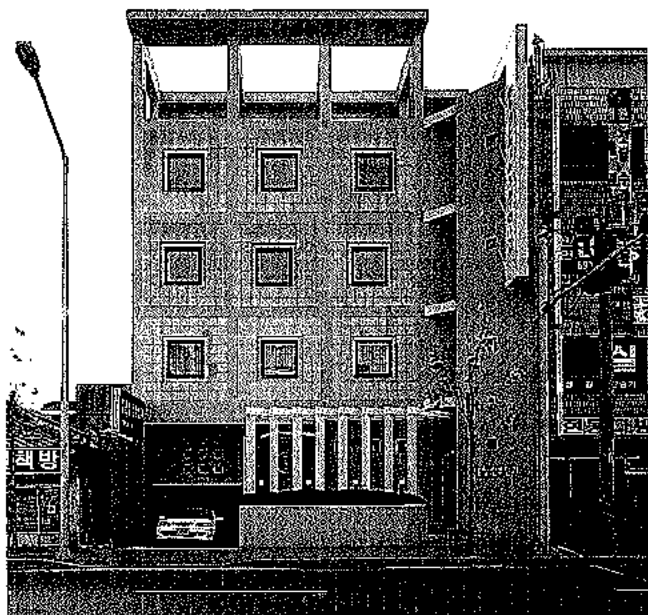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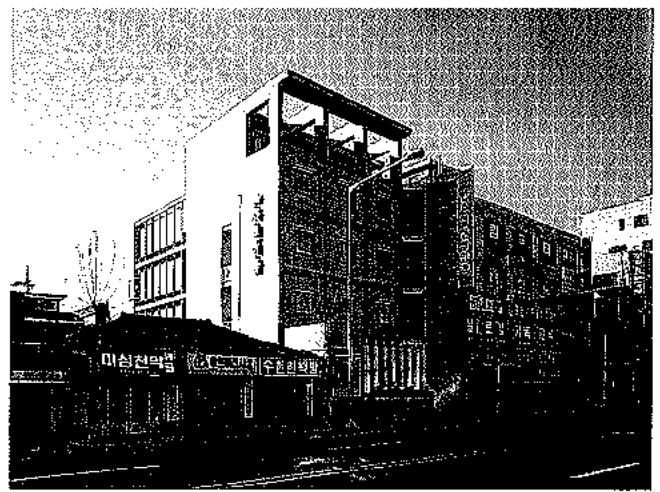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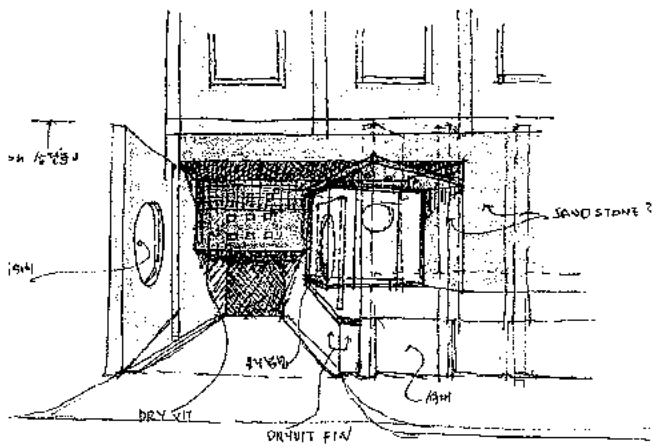
아쨌든 수년간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일을 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 사무실을 이래저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무실을 작은 일은 '안하는' 사무실로 판단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에게 얘기도 꺼내지 않거나 아니면 '청롱도로 생선회를 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작은 일은 '못하는' 사무실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몇개의 작은 설계일의 기회가 주어졌고, 「한순심 산부인과」도 그 중 하나다.

2년전쯤 한 친구가 찾아왔다. 현재 세들어 제법 성업중인, 부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 건물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얼마 후엔 철거될 처지니 치제에 조그만 땅을 사서 병원건물 겸 주택을 지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선 부지매입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하철 5호선이 마무리 공사중이던, 목동에서 가까운 양천구 신정동에 20m폭의 오목로에 접해 있는 100평이 채 안되는 두개의 후보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조언을 해 주었다. 사실 그 주변에 별로 그런 조언을 해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맡길려고 한 것은 아닌 듯했다. 우리 사무실에 대해 들은 정보는, 이것저것 굵직한 일들을 하는 사무실쯤이라고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작은 설계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임견과 함께 '청롱도'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조언해 준 다른 사람들도 있을 듯하고. 그런데 솔직히 이쪽도 마찬가지였다. 선뜻 우리한테 맡기라고 할 형편이 사실 못되었다. 그냥 조언해주는 입장에서 '아무튼 누구에게 설계를 맡기든 좋은 건축가를 잘 선택해서 설계비, 설계시간을 웬만큼 주고 일단 선택한 건축가를 철저히 믿고 따르라'는 원칙적인 얘기만 해주는 정도였다. 발을 반쯤은 빼고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그 친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일은 시작됐다.

93평의 크지 않은 땅에 입원실 10개 정도 규모의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족을 위한 주택이 있는 소규모 복합 건축물을 설계해야 하는 일이다. 우선 부지를 가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주변 여건이 훨씬 열악해 보였다. 지하철 공사로 파헤쳐진 전면도로, 온통 간판으로 뒤덮힌 어수선했던 주변건물, 뒤얽힌 전선, 비스듬한 전봇대, 거기다가 생각보다 좁아보이는 땅. 정성을 들여 설계해 보아야 제대로 된 사진 한장 나오기 어려울거라는 알팍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것도 전면은 북향(北向)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더. 거기다가 건축적인 해법도 간단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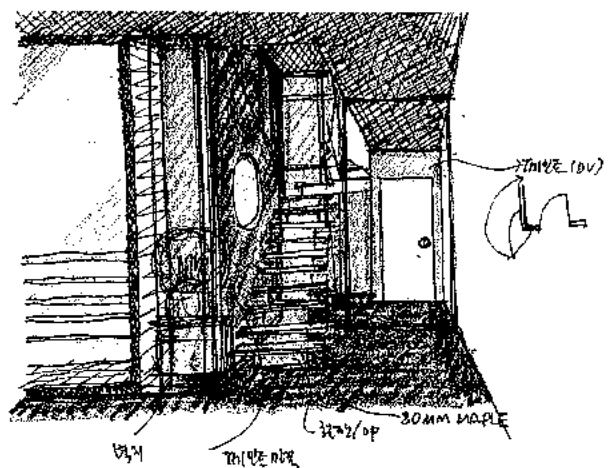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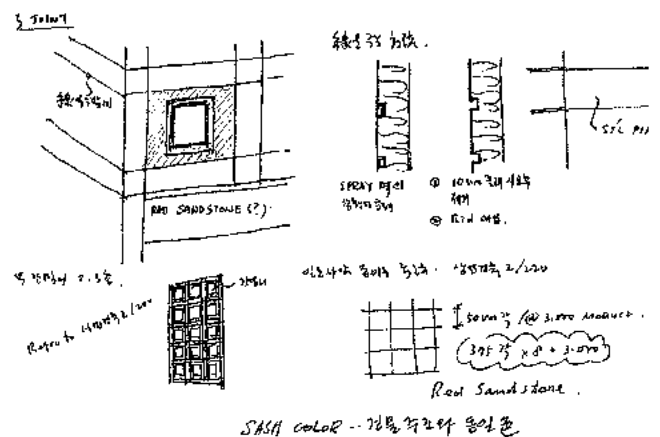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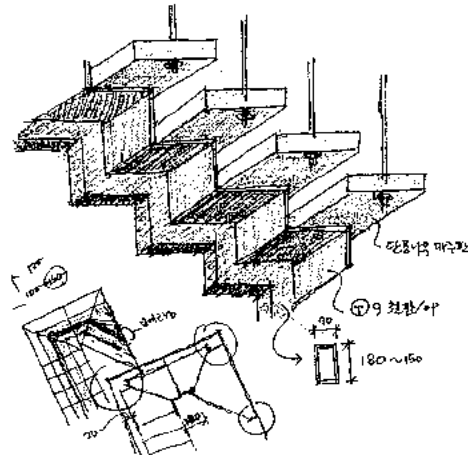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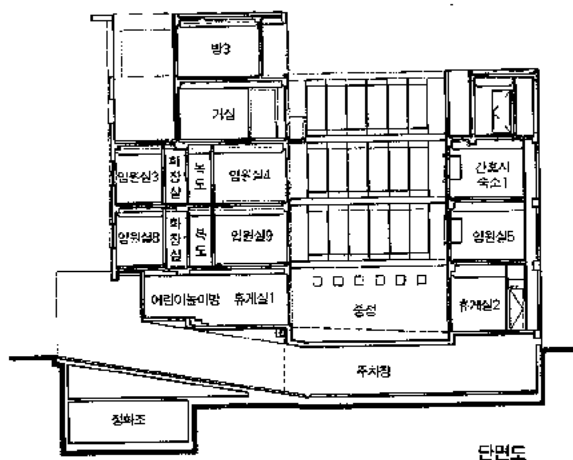
보였다. 병원부분과 주택부분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Image속에 결국은 어떻게 독립시켜야 하는가?

조그만 땅에 건축주가 원하는 최대한 크기의 한층 바닥면적을 가지면서도 작지만 쓸만한 마당 하나라도 가지려면 건물외벽을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이는 도리밖에 없다. 처음부터 ㄷ자 중정(中庭)을 갖기로 작정했다. ㄷ자 중정을 갖기는 땅이 너무 작았다. 양동마을에 가면 향단(香壇)이라는 집이 있다. ㄷ자로 형성된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이집의 중정의 한쪽 변의 길이는 그저 양손을 벌리면 닿을 듯하게 작다. 그러나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광정(光庭)으로서의 그 효과가 어찌나 컸는지 잊혀지지 않는다. 중정을 두고자 작정했던 것은 채광 때문만이 아니었다.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돈되지 않고 열악해서 시선을 향하게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자연히 안으로 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으며 중정을 면한 세계의 파사드 계획은 그렇게 유도된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동쪽으로 트여 있는 한 면을 통해 여전히 안팎은 그냥 여과없이 연결된다. ㄷ자를 이루고 있는 남측 매스(mass)와 북측 매스도 상징적으로 연결할 겸해서 트인부분에 층마다 철제빔을 하나씩 가로질러 보았으나 시공중 현장에서 막상 느껴보니 전혀 아니을사다였다. 「스크리닝(screening)」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고, 어렵게 건축주의 공감을 이끌어내 기존의 철골 사이에 「구멍뚫린 철판 가리개」를 걸치기에 이르렀다. 사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건축주에게 꽤 많은 돈을 추가로 부담시키게 되어 망설여졌다. 그러나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막아주며, 안에서는 밖의 무질서한 경관을 여과하고, 앞뒤로 나뉘어진 두개의 매스를 확실히 묶어줄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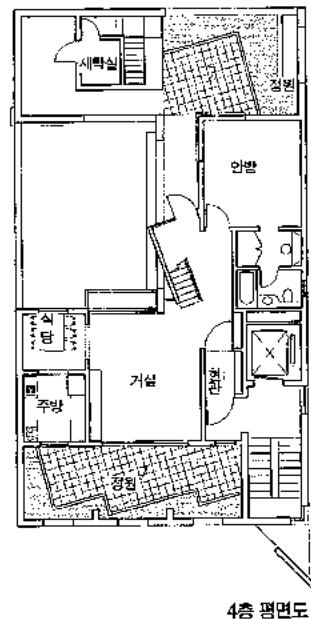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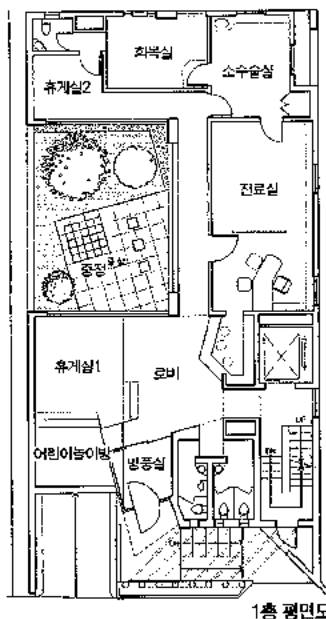
또 하나의 자그만 open space는 도로와 건물 사이의 좁은 진입 마당이다. 산부인과의 특성상, 약간의 프라이빗(private)한 출입을 굳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길에 바짝 붙어 있는 집에 직각방향으로 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는 배치 방법은 피하려고 마음먹었었다.

길과 45° 각도를 이루는 큰 헛벽(이 큰 헛벽에는 나중에 간판이 붙었고, 공사기간 중에는 이웃 건물벽에 직각으로 붙어있는 몇개의 간판들을 가린다고 민원이 있기도 했지만)을 끼고 돌아 건물과 나란히 진행되는 동선을 생각했다. 이 조그만 진입공간이 앞마당인 셈인데 이 앞마당을 구획하는 일곱개의 원형기둥도 설계때는 45°의 또다른 5개의 작은 판상형기둥들이었던 것을 콘크리트까지 타설한 후에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건축주를 설득시켜 깨어내고 현재안으로 바꾼 것이다. 당연히 건축주의 또다른 출전(出錢)이 있었다.





아무튼 사무실에서의 설계를 현장에 적용해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조정되어 나갔다. 이렇게 설계자가 건축주를 설득시켜 현장에서 바꾸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건축가는 당연히 갖고 싶어하고, 개인이 건축주인 「소규모 건물」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테리어야 당연히 설계자 몫이라 치더라도 장식용 그림 한장의 선정까지 설계자에게 의지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큰 집, 그것도 관공서 건물, 공공건물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인 경우에는 설계자가 원하는 공사기간중의 여하한 변경 제안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은 항상 공사비 증액을 가져와서만이 아니라 바꾸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고 싶어한다. 그저 정해진 공사기간, 공사비내에 큰 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최선으로 친다. 자칫 양심적인 설계자가 어설픈 설계의 미흡함을 고백이라도 했다가는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다. '용역비 받고 설계하는 설계자가 당연히 설계 때 제대로 해야하지 무슨...'



설계자와 건축주의 호흡일치가 좋은 집을 만드는 첫째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소규모건축'에 한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겠다는 발상이 있었고 이미 기정 사실화된 듯하다. 물론 이야 있었겠지만 섣뜻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 소규모 건물에 있어서도 대체 설계는 무엇이고 감리는 뭔가? 어디까지가 설계고 어디까지가 감리인가? 기본도면 몇장 가지고 설계자가 아닌 제삼자의 감리자에게 무엇을 감리토록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고의적인 법규위반? 부실시공? 설사 도면을 완벽하게 그렸다고 치자, 남이 설계한 건축물을 산고를 겪은 설계자와 똑같은 애착을 가지고 설계 연장선상에서 감리를 해주는 양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좋은 집을 원하고 그런대로 설계라는 작업을 이해하는 많지 않은 건축주는 할 수 없이 법정 감리자와의 감리계약을 하는 외에 본래 설계자와 설계감리 혹은 자문을 추가로 계약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됨이 확실하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늘 비뽀 수박
에 없는 사무실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내고 거기다가 약간의 부지런함
을 떨어 조그마한 집 하나가 생겼다. 설계자보다 건축주가 더 열성이었
음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다. 일단
일이 끝나면 설계자의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건축주가 만족해야면 설
계자로서는 그것이 보람이다. 지금쯤 고만고만한 일 하나쯤 새로 시작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위 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88-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10.4㎡
건축면적	185.05㎡
연 면 적	950.91㎡
건 폐 율	59.62%
용 적 륜	236.65%
층 수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6.35m
층 고	3m
주요설비	냉방 - 공냉식패키지, 난방 - 온수보일러, 방열기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의원), 주택
외부마감	벽 - 외벽단열시스템, 지붕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도막방수
내부마감	바닥 - 대리석, 비닐시트, 벽 - 몰탈 위 수성페인트
	천장 -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주차대수	6대
조경면적	40㎡
설계담당	강효정, 김병익, 김미실
건 축 주	이재춘
시 곁 자	(주)삼협특건 / 김연홍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4)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건축사

by Zho In-Choul

◇ 연재목차 ◇

(개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현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 김종업 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2. 대답내용

- 김종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답내용

- 김종업과 르코르뷔제

4.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김종업 건축의 어휘

1.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

건축가 김종업의 작품경향을 음악이나 미술의 분야와 같이 굳이 양식의 관점에서 분류를 한다면 그는 손쉽게 낭만주의 건축가로 분류된다. 그는 건축가이면서도 시인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시인, 화가들과도 깊은 교분을 나눈 것¹⁾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가 이중섭과의 관계는 남다른 것으로 기록²⁾되고 있다. 그의 작품이나 그에 대해서 얘기한 여러사람의 견해도 그러했지만 그는 낭만주의자였으며 꿈을 만드는 건축가였다. 그의 작품중에서 이러한 꿈의 표현이 나타난 대표적 작품이라면 바다호텔(1979)과 민족대성전(1979)을 들 수 있다. 물론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은 실현되지 못한 채 계획안으로 남겨져 있다.

바다호텔(그림1)의 경우는 덕적도 모래사장에서 제작한 후 레일을 이용하여 바다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해상호텔의 계획³⁾은 그가 미국에 체류중일 때 영국의 대재벌인 윌리엄씨의 의뢰로 시도된 적이 있었으며, 그는 이계획을 상당한 수준까지 구체화했었다 한다. 그때의 해상호텔계획안은 도버해협에 띄우는 것이었다. 프랑스 가레에서 런던으로 연결되는 템즈강 입구 근처에 띄워지는 해상호텔로서 객실 1천2백개에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갖추는 것이었다.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약7천만달러 정도였고 160미터의 반구형이 바다에 잠기고 중앙에 120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와 덱트를 겸한 타워가 세워지고 프리웨브철제 객실을 끼우고 사면으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에 냉난방파이프가 지나가게 계획되었다. 중앙부에 뚫린 엄청난 공간에는 꼬불꼬불한 거리들이 펼쳐지게 하고 그곳에 데이비드 부리슨의 4차원 조각을 매달고, 이안니스 제나키스의 작곡에 따라 레이즈빔이 조각사이를 뚫고 지나가도록 하며 원통의 거대한 디스코홀은 백남준의 비디오 이미지가 좌우 또는

1) 김석경, "꿈의 설계도를 찾아서 외롭습니다", (문학사상), 서울:문학사상사, 동권144호, 1992, 4, pp.203-204; "파란생명이 외로웠던 것만은 아니다. 잿더미 속에 흰 인정의 꽃은 더욱 붉고 아름다웠다. 파란시절 그는 '일다원'과 '금강다원'에 자주 나갔다. 공초를 비롯한 문인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베를렌스를 함께 번역했던 북문학자 정봉태가 '스타디움'에서 자살한 시기였는데 화가 이중섭과 김기환, 영화 배우 최윤희도 이때 자주 만났다."

2) 김종업, "이중섭-꽃다핀 재능의 꽃", (김종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 4, pp.254-255.

3) 김종업, "바다호텔", (산동아), 서울:동아일보사, 동권188호, 1980, 4, pp.77-80; 미국에 있을 당시 도버해협에 계획하였던 해상호텔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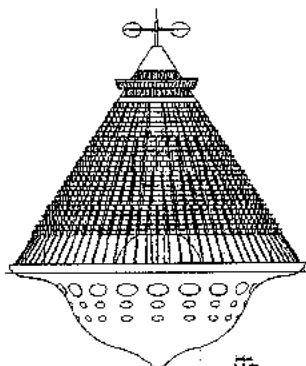
상하로 모이고 흩어지게 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이 향유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윌리엄씨의 사업투자 계획의 변경(북해유전개발)으로 해상호텔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덕적도 앞바다'의 바다호텔은 앞의 해상호텔 계획을 조금 발전시킨 것인데 객실 1,200개에 카지노도 있고 음악회나 서커스까지 공연할 수 있는 8천평의 규모였다한다. 바다호텔의 경우도 백남준의 비디오 이미지를 디스코를 같은데서 방영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구체화되었으나 건축주였던 당시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계획안으로 끝나고 말았다. 민족대성전(그림2)은 그가 미국에 체류중일 때 황재경 목사의 제의로 시작되었다. 처음 제의받을 때의 건립위치는 북한산 뒤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⁴⁾이었다고 한다. "모든 종교의식,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극, 무용, 영화, 페스티벌, 국전, 문학의밤, 국제세미나, 축제, 그밖의 모든 문화행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바티컬 컬리지를 병설한 20세기 한국문화의 전당을 마련하는 것이다."⁵⁾ "기독교 1백주년기념을 위해서 기독교당이 아닌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는 데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저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고 민족이란 이름을 붙여지어서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그곳에서 취임식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서 5천만달러를 모금하고 나머지는 국내서 부담하자고 해서 미국서는 일부 모금까지 되었는데 한국서 교파간에 주도권싸움을 하다 좌절되었습니다. 국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멋있는 것 세울 기회를 놓쳤습니다."⁶⁾

2. 주한 프랑스 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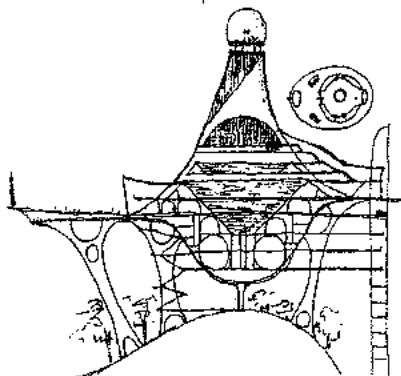
건축가 김중업은 1959년 주한 프랑스대사 '상바르'로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현상설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당시 그의 스승인 르코르뷔제의 추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7명(누구인지, 어떤 작품을 제출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의 프랑스 건축가들과 기량을 겨루어야 하는 현상설계였으므로 그에게 실시설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는 당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4주간 미국의 로의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출장기간중 뉴욕의 메디슨호텔의 방⁷⁾에서 계획스케치를 시작하였다. 그의 제출안이 프랑스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결국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 그의 프랑스대사관의 현상설계의 당선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김중업 개인에 있어서는 르코르뷔제의 문하생으로서 거장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일 뿐 아니라 그의 향후 작품활동에 있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어느 분야에서건 거장의 아래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선생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난 첫번째의 시도에서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프랑스대사관을 건축디자인에 관한한 볼모지나 다름없던 이땅에 디자인된 건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시설계와 현장의 담담은 장석웅⁸⁾이 주로 했고 김중업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지휘했다 한다.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김중업은 프랑스대사관을 위해서 입면도를 200장⁹⁾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대사관이 하루아침에 대가의 천부적인 직감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프랑스대사관의 배치계획(그림3)은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건물의 '향'¹⁰⁾에 대한 배려와 경사지반의 높낮이에 대한 배려이다. 우선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3개의 동중 가장 규모가 큰 대사관저를 배치하고,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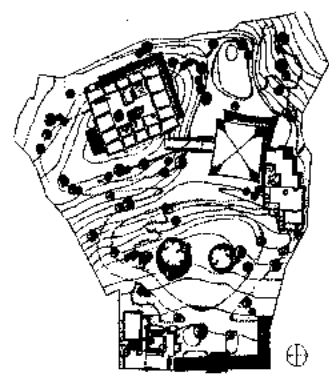
- 4) 최일남, "건축가 김중업에 전서형성이 착각한 도시 만드다", 《신동아》, 서울: 동아일보사, 1984. 10. p.413. "덕적도에 가보았더니 상당히 긴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재작한 후 레인을 깔아 바다로 넘쳐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총건비는 8천만달러가 예상되었는데, 1억5천만달러에 팔 계획도 세웠습니다. 총하니 지중해에 낚다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 바다호텔의 설치위치가 제주도, 덕적도 등으로 분명치 않은 것은 호텔에 성격상 해안선에 의해 바다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5) 조인철, "한국의 건축가(19) 김중업(2) : 대담내용-김중업 건축과 사바니즘", 《건축사》,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997. 4. p.87.
- 6) 김중업, "민족대성전 계획안",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 4. p. 184.
- 7) 최일남, 앞의 책, p.412.
- 8) 김중업, "상바르대사-한국에 묻힌 프랑스인",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 4. pp. 257-258.
- 9) 김중업과는 같은 평양출신으로 서산부원과의 구조설계를 담당했던 구조전문가 마중경생과 필자의 대담, 1997. 4.
- 10) 안병의의, "장간 특설좌담/김중업을 다시 말한다.-온자 풀꾸먼 건축가, 우리는 그를 끌어안지 못했다", [리얼간. PA], 서울: 건축세계사, 1997. 1. p. 17. "저(김중업)는 김신생님이 그 작품을 할 때 일면 도란 200장을 그렸다는 전설을 듣고 그 점을 존경합니다."-건축가 김원호 설계도면작성에 지친 자신의 설계사무소의 직원을 독려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자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바다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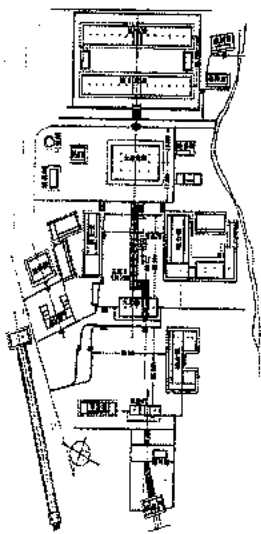
(그림 2) 민족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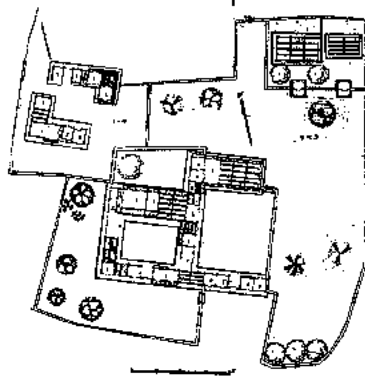
(그림 3) 주한 프랑스대사관 배치도

관의 업무공간은 대사관저보다는 낮은 위치에 배치시키고 경사 브릿지로 연결하였다. 건물 3개동의 진입은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직선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대사관저로 올라가는 길과 업무공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해두었다. 방문객이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각 건물의 정면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진입하면서 점차 건물의 측면으로 비켜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동선의 유도는 자신이 디자인한 건축이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도록 하겠다는 건축가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기 갖고 있는 본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대지의 동고선을 따라서 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건축의 건물배치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건축의 배치법(그림4)에서는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위에 하나의 축선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능한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축이 있기는 하지만 비틀어지기도 하고 직각으로 꺾이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의 축선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개의 축이 형성되면서 건물이 배치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축의 형성은 소위 해체주의에서와 같이 군대제식훈련과 같은 경직된 질서에 식상한 전위 건축가들의 지력발광과 같은 질서의 해체와는 근본에서 다르다. 전통건축에서의 축의 형성은 아마도 울창줄망한 산이 많은 우리 땅의 지형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시점에 와서도 프랑스대사관이 앉혀진 대지에 동일한 조건으로 현상설계에 붙여진다면 아마도 지형을 깎아서 하나의 축으로 곧바로 진입하게 하는 여러개의 안이 나올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배치도를 살펴보면 김종업은 3개의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축을 고집하지 않고 지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에 따라 건물을 앉히려고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3개의 건물이 서로간에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는 주의 깊게 분석해봐야 한다. 3개의 건물이 하나의 축을 공유하게 한다면 서로를 관련시키는데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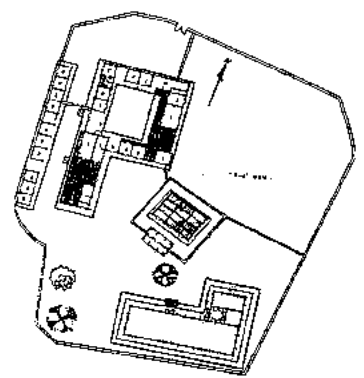
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김종업은 프랑스대사관이 요구하는 기능을 3가지로 분류하고 (현상설계의 조건인지는 밝혀진 바 없음) 하나의 건물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3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정문 출입구에서 보았을 때 높은 언덕에 위치한 건물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지는 그러한 기분을 선호했던 것 같다. 3개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건물의 사이사이로 남겨지는 공간들이 연출하는 막힘짐과 틈여짐의 시각적인 변화에도 신경을 쓰면서 건물간의 위계를 표현하려는 듯 높낮이에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대사관저와 대사관을 브릿지로 상호 연결함으로써 건물상호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의 특성은 건물개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간의 관계¹¹⁾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전통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양의 건물처럼 날개로 떼어서 건물개개로 해석한다면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만의 얘기가 전부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통건축은 목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와 서양건축에 비하여 그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현대건축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회마을에 가서 충효당이나 양진당을 보고 왔다고 할 때 왜 형제간의 두채의 주택(그림5,6)이 하나는 남쪽의 산을 바라보면서 남향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동쪽의 산을 바라보면서 동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이 지나칠 경우가 많다. 필자는 판단하건대 분명히 형님집과 아우집은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프랑스대사관에서의 3개의 건물은 떨어진 거리, 건물의 향, 높낮이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상해질 정도로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¹²⁾를 가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건물 각각에 대한 해석들은 많이 있어 왔다. 앞에서 얘기한 건물의 배치나 자연지형의 이용방법을 보면 전통사찰의 배치나 소재원에서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림 4) 해인사 가람배치



(그림 5) 하회마을 양진당(형님집)



(그림 6) 하회마을 충효당(아우집)

11) 최일남 앞의 책, p.407 : "좌제를 바래 보지요. 김성생님은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선 향입니다. 남향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12) 김종업 (栗澤魯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p.198 : "동양인들은 공간 자체도 시간적으로 파악해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외적 형태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공간개념은 동양건축양식의 공간처리에서 특수한 관계적양상(relational mode)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본론의 주제에서 어긋나므로 그논지를 여기에 전개할 수는 없다. 절대시간의 성립이라는 것은 시간의 공간화라는 문맥에서 이해될 때 가장 정확히 이해된다는 추상적 언급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대사관의 건물개개의 형태적측면의 해석은 지붕에 집중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사관지의 것보다는 대사관의 지붕(그림 7)이 많이 거론된다. 거의 정사각형의 평면에 전통건축에서와 같이 양곡(귀솟음)과 안하리 곡선을 가진 지붕이 띄워져 있다. 안병의의 말¹⁴⁾에 의하면 초기안에는 지붕이 건물몸체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 대사관지는 단층건물인데 공사 당시에는 지붕이 건물에 붙어 있었어요. 내가(안병의) 보기도 좀 답답하구나 했지요. 하지만 대안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분(김중업)이 와서는 도면을 붙여놓고 한참을 들여다 보더니 1미터 80센티 가량 공중에 띄웠습니다.” 모든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이 지붕은 얼마까지 못해서 변형이 되고 만다. “김중업 선생이 그대사관을 설계했을 당시 그보다 연배가 많았던 동료 건축가들은 좋은 얘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누구를 그정도는 못하겠느냐는 식이었습니까. 한국사람이면 그만한 건물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지 모르지만 식의 막연한 느낌에 따른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편견이 많았지요. 원지 모르지만 내가 좋다면 다 좋은 거라는 식의 작품활동과 강의를 하던 분도 있었으니까요¹⁵⁾ 프랑스대사관의 지붕의 경우 몇몇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이광노의 주도하에 윤도근이 변형의 장본인(좀더 구체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한 대상임)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대사관 지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선생님(김중업)이 외국에 오래 계실 때 었습니다. 귀국하신 선생께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 드리며 말씀드렸더니 ‘응 그래?’ 하시고 마는 거예요. 아주당황스러운 기억입니다.¹⁶⁾ 하지만 김중업의 상바르 대사에 관한 글을 보면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4.19때엔 본설계가 완료됐고 가을에 착공해서 몸체공사가 끝나갈 무렵 5.16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화폐개혁이란 홍역을 치르고 62년 봄, 그래도 의적이 서대문 언덕위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섰다. 나는 62년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고, 65년 드골 대통령에게 불려가 파리에서 프랑스 국가 공로 훈장을 받았다. 앙드레 말로 문화상이 과분한 저력을 냈다. 이작품은 외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71년말, 삼일로빌딩 준공뒤에 본의 아니게 다시 프랑스 생활을 해야 했다. 파리에선 지주 상바르와 만났다. 한국을 더없이 사

랑하는 그는 내가 조국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도록 놀랐고 아쉬워 했다. 5년동안 쉬깁하려는 나의 기력을 받쳐 주었다. 꼭 다시 만나기를 기억하며 나는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80년 조국으로 돌아온 나는 끝내 그를 못본 채 그 유해만이 이곳에 돌아와 해인사에 묻히게 되었다. 애석하고 원통하다. 그가 그리도 아끼던 대사관은 그도 나도 없는 사이에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모처럼 돌아온 그의 넋을 대할 면목이 없다.¹⁷⁾

3. 구 제주대학본관

김중업이 구 제주대학본관(이하 제주대학본관)의 설계를 맡게 된 것은 당시의 제주대학장으로 부임한 ‘문종철’ 제주대학장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문종철’은 제주대학학장이 되기 전에는 법제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중업은 그의(문종철) 서울의 집을 설계하던 중 제주대학장으로 부임한 그의 요청으로 제주대학 설계에 임하게 된다. 이 당시 김중업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한다. 인의동에 있던 사무실(12명의 직원)도 철수하고 성북동에 있는 주택(3명: 김석철, 김석재 등)에서 침거하던 시기였다. 제주대학본관(그림 9)의 실시설계의 담당은 주로 김석재, 김석철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석철의 글에는 이미 끝나있던 설계를 다사하게 되었다고 하며, 기둥의 위치만 살리고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한다.¹⁸⁾ 제주대학의 설계는 제주도 같은 곳에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교부로부터 거부당했던 것¹⁹⁾이었으나 제주대학장인 문종철학장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었다. “우선 목수들을 한사람씩 훈련을 시켰다. 베니어판위에 내가 직접 먹줄을 쳤고, 업자에게는 특수공법을 알기 쉽게 도해 해주고... 어떻게든 새롭고 감동적인 건축

13) 정안하, “김중업건축: 건축의 본위적가치에 대한 탐구”, (격월간PA:김중업), 서울:건축세계사, 1997.1, p.39 : “대사의 집무실과 대사관지는 마치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중성처럼 건물주위로 하나의 장(場)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건물에 형성된 장은 마치 여러개의 자기장이 충돌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의 자기장을 만들어 내듯이, 건물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보는 이들에게 특이한 체험을 유발시킨다. 즉, 이곳을 가닐다 보면 높이와 스케일이 다른 건물들 사이에서 공명과 간섭, 복합성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14) 안병의외, 앞의책, p.10.

15) 안병의외, 앞의책, p.10.

16) 위의책,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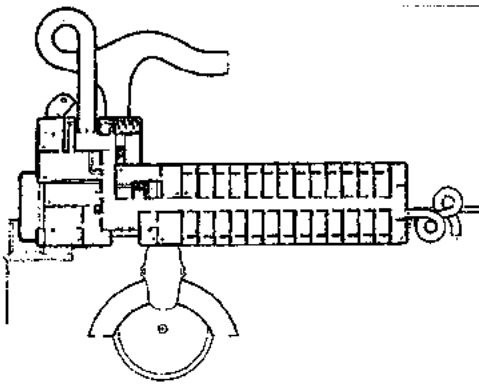
17) 김중업, “상바르대사-한국에 묻힌 프랑스인”,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1984, p.268.



(그림 7) 주한 프랑스 대사관(변형전의 지붕)



(그림 8) 주한 프랑스 대사관(변형후의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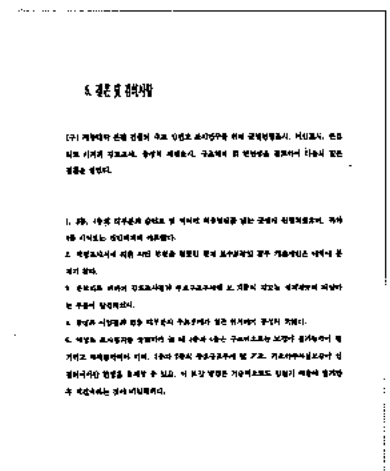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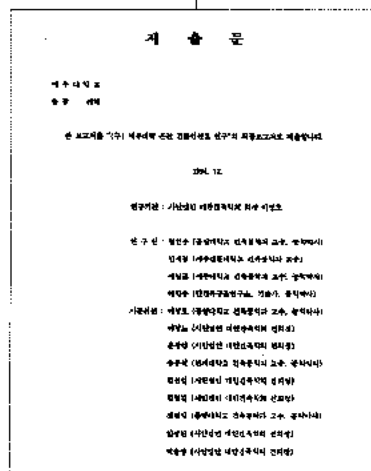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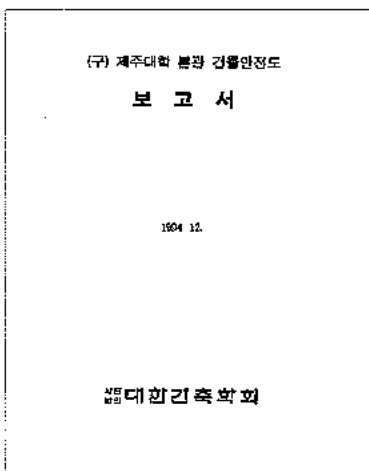


(그림 9) 구 제주대학본관 3층 평면도

물을 세운다는 것이 즐거웠다... 준공되던 날 감격한 나머지 그는(문종철) 옥외의 회전계단에서 실족했고, 목수들은 자기손으로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호숫함에 취해 있었으며, 업자²⁰⁾는 제주 제일의 업적을 남겼다.”

제주대학본관은 그의 작품중에서 그것이 위치했던 섬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설계된 가장 낭만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가 있다. 설계기간 2년동안 다른일 없이 이작품에만 매달렸을 뿐만아니라 건축주라 할 수 있는 학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작품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가 이작품에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건축가의 일생 중에서 충분한 설계기간과 건축주의 전폭적인 신뢰하에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그리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대학 본관은 김종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종업 자신도 말하듯이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난도시 제주대학 본관을 좋아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나 본인(김종업)은 대한민국 인건비가 싼데 마음대로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의 한국건축이다. 60년대가 아니면 못 만든다. 70년, 80년이 되면 경비가 비싸서 못 만드니까 일본이나 구라파에서도 못 만든다. 따라서 이게 1960년대의 한국의 고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²¹⁾ 솔직하게 말하자면 필자는 제주대학본관에 가보질 못했다. 제주대학의 본관을 직접보지 못하고 제주대학본관에 대하여 평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대학본관은 이미 철거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작품집에 있는 평면도와 오래전에 찍힌 사진, 그리고 어렵게 구한 철거되기전 슬라이더 몇장이 전부이다. 그러나 제주대학본관의 경사로만을 보아도 르코르뷔제의 사보이 빌라에 못지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보이빌라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프랑스정부에서 보존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인에 의하여 지어진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보존의 논쟁

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순수 우리건축가의 설계와 우리의 목수의 손으로 지어진 제주대본관은 순식간에 철거되었다. 제주대본관의 사라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몇몇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제주대본관의 보존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2월 5일 건축가협회와 제주대학교의 주관으로 “구 제주대학본관보존을 위한 세미나²²⁾”가 열렸다.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세미나의 결론은 어떻게 보존 또는 보전을 하느냐가 문제였지 철거나 존치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날 제주대본관은 이명호교수(중앙대 건축공학과)가 회장이었던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건물안전도 보고서(그림10-1,2,3)(연구책임:정현수교수-중앙대 건축공학과)’ 몇장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운명을 달리했다(96년3월). 결론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3층과 4층은 구조적으로는 보강이 불가능하여 철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며, 1층과 2층의 주요구조부재 및 기초, 기초하부지질보강이 선결되어야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보강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³⁾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된 건축학회의 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추진 함으로서 제주대학본관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합날짜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건축학회는 건축가협회에 통보를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보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통보를 해주었울리는 만무하다. 제주대학측에서는 당시 보존 세미나에도 참석했던 사람들이 연구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건축가협회와는 별개로 사단법인 건축학회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보고서에 의해서 제주대학본관은 사라져버렸고, 보존이나 보전이나로 언성을 높이던 세미나는 웃기는 소리가 되어버렸다. 건축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문화적인 측면이나 한국의 근·현대건축에서 이작품이 차지하는 의미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고 무슨 아파트의 부실공사 현장의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3층과 4층은 구조적으로 보강이 불가능하여 철거후 재시공" 이라는 용어는 아파트 부실 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자나 행정관청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문구이다. "1층과 2층의..., 보강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도대체 전문가로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인가가 의문시되는 문장이다. 그래서 결국 1,2,3,4층 모두가 보강 불가능이니 철거하라는 뜻이다. 제주도 현지에서 열린 보존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구조전문가²⁴⁾가 참석하여 보강부위, 보강방법, 보강공사금액, 심지어 특기시방서까지 제출되었다. 어느 쪽의 구조전문가가 더 탁월한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건축학회에서 이러한 사형선고와 같은 이러한 보고서가 제출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들이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음식점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의 이 안건에 대한 자문회의에는 대한건축학회 전임회장님들이 참석했다한다. 제출보고서에 적힌 자문위원들 중에는 구조관련 교수 뿐만아니라 제주대학본관의 보존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던 이광노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올라 있다. 물론 회의록 같은 것은 남겨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문종철, 그이도 저승엘 가고 제주는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이작품이 각국의 건축교과서에 21세기를 예시하는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서너줄하기만 하다. 제주도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념관으로 살렸으면 좋으련만 우리 것을 우리가 아끼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²⁵⁾

4. 올림픽 상징 조형물

건축가 김중업은 79년 영구귀국한 이후 대형프로젝트로서 바다호텔과 민족대성전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획안으로만 끝나고 이렇다할 프로젝트를 만져 보지 못한 상태로 몇 년 세월을 보냈다. 다행히 88년 하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국제방송센터(KBS방송국;그림11)와 올림픽상징조형물(그림12)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되게 된다. 올림픽상징조형물의 현상공모의 지침내용(1984,12)을 살펴보면 1차 예비공모에서 5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지명된 5명의 작가와 함께 총10개팀이 본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예비공모 당선작가로 장태현, 오인환, 강건희, 오기수, 노재승과 본공모 지명작가 김중업, 장석웅, 김세중, 최기원, 오희영이 경합을 하게



(그림 11) KBS방송국



(그림 12) 올림픽 상징 조형물

된다. 현상설계진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결국 현상설계의 최우수작 김중업, 우수작 김세중의 안이 채택되었는데 최우수, 우수작가에게 규모 조정의 이유로 재출품(합작요구가 있었음)을 요구하여 결국 김중업의 작품이 본공사 심사에서 채택되었다. 현상설계의 당선안은 높이 24m, 폭이 37m인 문을 상징화한 작품이었다.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형물의 형태는 문을 상징화하였는데 문을 상징화한 이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한다는 행위는 탑 아니면 문이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대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올림픽회관이 77m의 높이로 솟아있는 상태이므로 김중업은 위로 솟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펼쳐지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날개의 이미지를 가지게 디자인이 되어 수평적이면서도 하늘로의 상승을 의도하였다. 조형물 앞의 수공간은 부산 충혼탑이나 육군박물관에서 처럼 거울과 같이 대상을 투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형물의 날개부분의 연결구조물은 원래 당선안에서는 없었으나, 철골연결부가 만들어지고 올림픽 오륜표시가 그려졌다. 올림픽조형물의 현상설계의 응모안의 구상스케치에서부터 2차규모조정 실시설계납품까지의 전과정은 박재환씨(건축가, 현 맥건축)가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선안과 실제로 지어진 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높이와 폭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었으며, 단지 날개의 부분이 당선안 70m에서 62m로 변경²⁶⁾되었다. 김중업의 부인 김병례와의 대답²⁷⁾에 의하면 높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듯하다. 또하나의 커다란 변경은 상징조형물 내부의 공간을 전시실, 기념관 등으로 계획되었다가 삭제된 것이다. "수차에 걸친 규모조정 내용 일일이 비교해보는 일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이 선정된 후에 최우수 및 우수작가에게 재출품을 위촉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가 다시 축소되고 하는 등, 몇차례에 걸쳐 규모조정이 다투던 것은 단순한 형태변형의 수정요구가 아니라 조형물내부에 전시실, 기념관 등의 내부기능을 담은 활용시설을 구비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 때문이었다"²⁸⁾

18) 김석철, "영원한 도전", (공간), 서울:공간사, 1988, 6, pp. 37-39.

19) 송호성, "김중업과 그의 현대적 고전주의", (공간), 서울:공간사, 1986, 3, p. 44.

20) 김석웅, "제주에서 띄우는 글", (건축가), 서울:건축가협회, 1993, 2, pp. 24. 당시 제주대학교 시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으로 계셨던 황토사철자(이시기도, 한 김선생(김천을))이 새워놓은 제주대학교본관의 안내를 전문에 "시공은 주식회사 서해의 전신인 대영토건이 담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21) 안병희, 장석웅, "건축가 김중업선생 추모제발령", (건축가), 1988, 5, p. 28.

22) 안병희, 김정동, "구 제주대학 본관 복원을 위한 세미나", (건축가), 서울:건축가협회, 1993, 3, pp. 38-50.

23) 정현수, "(구)제주대학본관 건물안정도 보고서", 서울: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1994, 12, p. 18.

24) 당시세미나(안병희, 김정동, 김정동)에는 구조설계의 실무를 하고 있는 C.S구조연구소의 김중수가 참석하여 제출한 내용을 보면 1. 보수·보강공사, 2. 구조보강설계, 3. 특기시방서 의 순으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25) 김중업, "문종철-그와 함께 제주에 살았던 꿈",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 4, p. 259.

26) 이일훈, "정령을 위한 일지리 교동", (공간), 서울:공간사, 1989, 7, p. 48.

27)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의 충혼탑의 경우도 실제 계획된 높이 보다도 낮아진 상태로 세워졌다고 한다.

28) 이일훈, 앞의 책, p. 49.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1)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연재순서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락박씨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2회>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두루
9. 빠원
10. 문두
11. 프람바난

<3회>

12. 세우
13. 플라오산
14. 칼라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파만아윌 힌두사원
18. 맺는말

1. 출발집합!

아침부터 복장문제가 귀찮게 머리속에 영긴다. 늦추위에 가볍게 입고 나갈 것인지 방한복을 선택할 것인지, 겨울나라에서 여름나라로 직행하는 여정이므로 당장의 편리함과 니중의 편리함에 대한 비중 판단이 망설여진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도 떠오르지만 도움이 안되고, 출발시간이 임박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둘아울 때쯤이면 겨울은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입되, 스웨터 하나를 덧입기로 결정하였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소심해진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묘한 기분을 느낀다.

한길회 모임에서 지난 연말부터 해외기행을 마련했으니 참석하라는 권유가 수차례 있었으나 사무실 돌아가는 형편을 생각하니 관광길에 나선다는 것이 쫄쫄한 일로 생각되어 사양하다가, 정월 중순경 마지막 권유에 마지못해 승락하고 말았다. 가족동반이라 하기에 집사람에게 불쑥 해외여행 가겠느냐 물어보니 "남편 자식 먹여 살리려면 직장에 나가 일해야지 놀러 가겠소?"라는 대답에, 당연히 그럴거라 예상했지만 듣고 보니 언중유골이 느껴진다. 모른 채하고, '할 수 없지, 아들놈이 곧 군대에 가니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

에 부자간에 좋은 여행하고 오겠소"라고 응수하고 말했다.

마침 방학기간이고 하니 여행일정표를 보고 답사대상에 대해서 자료수집하여 공부하고 떠나자고 준비시키니 이런저런 자료 수집에 분주하다. 그런데 준비된 자료를 보니 깊이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먹고 자고 보는 단순한 관광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 그런대로 인터넷에서 찾아낸 인도네시아 관광정보에서 사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새삼 인터넷의 유용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과연 한국의 관광에 대한 인터넷 정보는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진다.

공항에 도착하니 일행이 속속 집합하는데 예정 인원 21명중에 일부가 포기하여 17명이 확정되고 그중에 한길회 회원인 건축사는 11명이고 동반하는 사모님 세분, 아드님 셋이라고 알려준다. 어렵사리 만난 회원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출국수속을 기다리고, 비행기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루다 비행기라고 한다.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마가 타고 다니는 새를 가루다라고 하여 신격으로 숭상된다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힌두신을 항공사 이름으로 명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보게 된다.

당초 여행일정 계획에는 족자카르타에서 1박하고 발리에서 2박하는 것이었는데 출발 며칠전에 수정된 최종 일정표에는 시작과 마지막을 발리에서 하고 족자카르타는 중간에 돌아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족자카르타에 집중되어 있어 불만스러웠는데, 공항에서 듣자하니 가루다 항공사에서 비행스케줄이 변경된 것이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저렴한 항공료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차피 여행길에 나섰으니 행동과 숙박은 진행되는 대로 맡기고, 보고자 하는 내용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행하기로 하고 사무실 걱정도 당분간 잊기로 결심하니 몸이 가벼워진다.

가루다 항공사의 보잉기는 관록을 자랑하는 지 기내의 진동소음이 유난스럽고 창문은 굵힌 자국으로 내다

보기도 어지럽고 화장실도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지 불평하는 소리도 들린다. 대한항공이 독점하는 시절에 KAL기도 이와같은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다.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하여 5시간 정도 지나니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탑승하여 발리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부 중부 서부가 시차가 있어 동부는 우리나라와 시간이 같고 발리는 중부로 1시간 늦고, 족자카르타는 2시간이 늦다고 한다. 난생 처음 적도 남쪽으로 내려와 본다. 북반구에서의 방위개념과 이 나라에서의 방위개념이 건축과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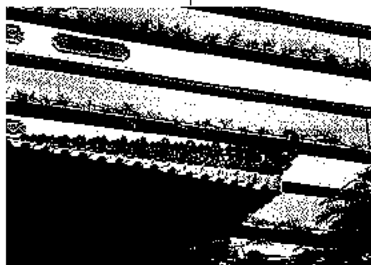
집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여행사에서 마중 나왔고 보도사진에서 보던 꽃목걸이를 현지인이 일일이 걸어준다. 장시간 비행후 후덥지근한 날씨에 꽃향기와 밤거리의 이국풍경에 알뜰뜰한 기분이 마치 무중력상태의 세상에 내려선 듯하다.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하고 출발하자 서울에서 동행한 여행사 직원이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 권양을 소개한다. 이곳의 일정에 대해 끝까지 돌보겠다는 명랑한 인사말과 함께 규정상 동행해야 한다는 현지인을 소개한다. 제도적으로 권양은 통역사이고 현지인이 가이드가 되는 모양이다. 현지인은 권양이 한국말을 가리킨 학생중에 실력이 우수한 편이라고 한다.

발리에서 가장 큰 호텔이라는 발리비치호텔이 목게될 숙소이고 이 섬에서 10층 높이의 유일한 최고 빌딩이라고 한다. 이 호텔이 들어서자 해변의 경관을 가로막는다고 하여 도시계획 규정을 개정하여 야자수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유로는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이란 다. 야자수 높이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호감이 든다. 법규정에도 이런 친근감이 드는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의 건축법규에도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교차한다.



발리비치 호텔 현관



발리비치 호텔 지붕장식



호텔 객실에서 본 해안경관

호텔에 도착하여 과일향기가 나는 음료수를 대접받고 방 배정을 받은 후 내일의 일정에 대해 설명듣고 각자의 카드를 받아주고 방에 드는 것으로 첫날 하루가 마감되었다.

2. 발리 이야기

호텔에서 발리식 뷔페로 아침을 먹고 원주민들이 공연하는 바롱댄스(Barong Dance) 관람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목조의 공연장은 이미 관광객으로 만원이고 화려한 의상에 가면울 쓴 배우가 울동하고, 무대의 한 옆에 자리잡은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열정적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리의 언어로 연기하는 대사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고 입장시에 나누어준 한 장의 한국어 설명서를 읽으면서 눈치껏 짐작할 뿐이다. 연극의 요점은 선을 상징하는 바롱과 악을 상징하는 랑다와의 끝없는 대결이며 해피엔딩으로 종결된다. 발리의 민속춤을 보았지만 문화의 이해없이 는 피상적인 구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버스에 오른다.

발리섬 북부에 있는 깐따마니 화산지대로 가고 있다. 길가에는 작은 점포들이 연이어 있는데 전통적 문양으로 나염한 직물인 바틱점과, 목공예점, 석공예점, 은세공점 등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품종이고 자동차 수리소, 가구점 등도 눈에 띈다. 관광객 덕분에 차량은 붐비게 움직이나 길거리는 한산한 편이다. 점심때가 되자 길거리 곳곳에서 차려입은 여인들이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이곳 저곳에 전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85% 정도가 이슬람교도이나 발리섬은 80%가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며 일년내내 끼니 때마다 식사하기 전에 공양의식을 행한다고 한다. 나무잎으로 10cm각 정도의 풀바구니를 만들고 꽃과 약간의 음식을 담아 한집에서 20여개소에 공양하며, 바구니를 만들고 음식준비를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여성이 한다는 설명을 듣는다. 평생토록 공양의식에 소비하는 발리여성들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여러가지 질문이 이어진다.

이 곳 여성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는 권양의 설명으로 공양에 대한 화제가 수그러 들었다. 지나가는 곳곳에 돌로 조각한 제단과, 기단을 갖춘 초가형의 제단, 2층 3층의 탑형 제단 등이 어지럽게 스쳐가는데, 이곳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멋지고 크게 만드는 제단을 갖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그것이 신의 도움으로 성공한 것을 상징하여 자랑스럽게 치장하게 되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그 형태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종교가 일상생활에 깊게 밀착된 것으로 보여지고 외부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종교적 생활이 지속되는 바탕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차창에 빗방울이 듯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3월까지의 우기라 하는데 모처럼 나들이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이다. 폭우속에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식당에 도착하여 발리식 뷔페로 점심을 먹는데 화산지대 구경이 비와 농무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점심매뉴중에 바나나튀김과 꼬치구이가 인기있어 금새 동이어나고 만다. 삼삼오오 앉아 정담을 나누는데 운연중에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런식으로 여행이 계속된다면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의 손님으로는 대만사람이 단체로 드나들고 일본인은 가족끼리 즐기고, 한국인도 단체 또는 신혼부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식사후 이동할 때에야 비가 견히고 산의 윤곽이 슬며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해발 1,750m Batur산 옆구리에서 수증기가 분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산의 동편으로 느바투르 호수가 보인다. 화산의 폭발로 이루어진 칼데라 호수이고 반달형상으로 장변의 길이가 11km에 수심은 18m가 되며 언제 다시 폭발할지는 미지수라 한다.



처림에서 본 가로번 사당



도로변 꽃가게



로타리 장식

고산지대여서 한 여름에도 이곳의 기온은 서늘하고, 호수 건너편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원시적인 형태로 살고 있는 Aga 부족이 산다고 한다. 동족 결혼에 외부인에게는 적대적이고 풍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관광객이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락을 받아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금자족으로 고립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상에 호기심이 발동하지만 설명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3. 땀박씨링 사원

정상적인 첫번째 답사 장소인 땀박씨링(Tampaksiring) 사원으로 향한다. 땀박씨링은 마을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Pura Tirta Empul이다. 퓨라는 발리에서 사원의 뜻이고, 어순에서 주격이 먼저 오고 형용사가 뒤에 따르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볏음밥을 밥볶음, 비빔국수를 국수비빔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이며 원시적인 언어의 형태가 아닌가 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거창한 나무 밑에 제단이 설치되고 천으로 둘러 감은 모습이 얼핏 우리의 서낭당을 연상케 하는데 여인이 무릎꿇고 앉아 정성스레 치성드리는 광경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망을 신에게 부탁하는 정경이 낯설지 않다.

입구 주변에는 원주민 소녀들이 과일을 팔고 있고 사원은 주민들의 공원처럼 사용된다. 입구 중앙에 현대적인 분수대가 마련되고 있고 왼편에 사원의 문이 있다. 우리의 향교건축에서 외삼문 내삼문이 배치된 바와 같이 출입구가만 떨어져 있는데 탑을 수직으로 쪼개 좌우로 배치한 특이한 형태이다. 출입구 부분은 수직면으로 만들고 그 좌우면에는 조각장식에서 공룡의 모습이 얼핏 연상된다. 이 출입구와 다음의 출입구 사이가 앞마당이 되는데 마당 우측편에 집회장소로 사용

되는 건물이 있다. 오른손을 숭상하는 것과 관련되어 오른편에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하나 질문에 대답해 줄 만한 안내자는 아닌 듯 싶어 그대로 지나친다.

제2의 문에 도달하니 앞의 문보다 치장도 더욱 많고 문풍이 좋아졌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앞에 목욕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왼편이 남자용이고 오른편이 여자용이라는데 사원 참배에 앞서 목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나 관광객이 많아져 이곳에서 목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석루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각된 장식물에서 물이 토출되고 있다. 일종의 샤워시설인 셈이다. 한편으로 난 통로를 따라서 목욕장을 지나면 사원의 중심부에 이른다. 돌과 벽돌을 혼용한 기단에도 각양의 조각이 배풀어지고 그 위로 목조건물을 세워 초기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목재 성글로 지붕을 덮은 건물이 웅기종기 배치되어 있다. 초기집에 당초문양으로 조각하고 원색으로 칠을 하여 단청이 배풀어져 있다. 한국건축에 익숙한 눈으로 보니 혼란스럽다. 더구나 발리의 힌두교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고보니 산만하기도 하고 석조기단위의 초기집에 단청이라는 조합이 생경스럽기만 하다.

이곳의 벽돌쌓기에서 줄눈없이 밀착되도록 쌓은 특징이 있으며 점착용 몰탈도 없이 쌓는다고 한다. 담장 한편에 약간 붕괴된 곳이 있어 벽돌을 살짝 들어보니 습기로 인해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나 움직인다. 역시 몰탈은 없었다. 붉은 벽돌의 소성온도도 높지 않은 듯하고 벽돌끼리 마주비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축조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여인이 관광객이 있거나 말거나 제단 앞에 과일과 꽃을 공양하고 기도에 열심인 모습이 보인다. 문화와 종교는 달라도 재산을 면하고 복을 기원하는 인간의 모습은 본능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황혼길에 은세공점과 목각마을을 둘러 상품을 구경하고 해변의 방기로를 구비 돌아 한국인이 경영하는 청기와 식당에서 늦익은 만찬으로 하루의 노곤함을 씻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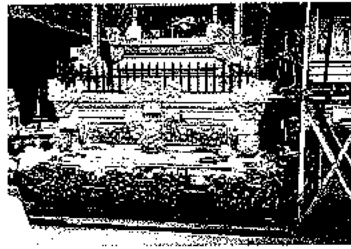
땀박씨링 입구부근의 치성광경



땀박씨링 목욕장



땀박씨링 사당군



땀박씨링 사당의 기단장식

새끼 돼지 바베큐가 특별메뉴로 나왔는데 고소한 특미에 한국산 소주가 나오고 일정을 지휘하는 총무님(방철린 소장)은 내일의 여정을 확인하느라 경황이 없다. 묵묵히 말은 임무를 수행하는 덕택으로 순조로운 여정에 동반하게 되는 고마움의 표시로 한잔 권하여 본다. 식사후 숙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내일의 여정인 족자카르타 답사에 대한 안내가 있고 이어서 권양이 그곳의 가이드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 유적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더 이상의 안내자는 없는데 성격이 좀 팔팔해서 관광객과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좀 유별난 가이드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인도네시아의 유적이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며 서로 융합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힌두교가 인도에 존재하는 종교로서 소를 신성시한다는 정도의 유치한 상식 밖에 없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답사 유적의 성격 파악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의로는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를 힌두교라 하며, 좁은 의미로는 아리안족의 인도침입(B.C2000~B.C1500 ?)이후 아리안 계통의 바라문교(婆羅門敎)가 인도 토착의 민간신앙과 융합하고 불교 등의 영향도 받으며 300년 경부터 종파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정한 교조와 체계를 갖고있지 않다는 것이 타 종교와 유다른 형태이며 다양한 신화, 전설, 의례, 제도,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적 형태를 가능케 하는 기능이 카스트 제도로써 종교와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카스트 제도는 엄격하고 신앙 자체는 관용적이다. 힌두교에서는 신전과 신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인격신이 신앙되며 희생제를 반대하여 육식이 금지된다. 힌두교의 성전(聖典)에는 베다, 우파

니샤드, 브라흐마나, 수트라 등이 있어 인도의 종교적 사회적 이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성전에 준하는 것으로는 바라타족의 전사시(戰史詩)인 마하비라타, 라마의 기행인 라마야나의 2대 서사시가 있어 종교예술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힌두교의 신에는 창조신인 브라흐마, 유지와 번영의 신인 비슈누, 파괴와 죽음의 신인 시바의 삼신을 일체로 하여 다신교적이지만 삼신일체(三神一體)라 하여 교묘히 통일시키고 있다. 힌두교의 종파에서 비슈누파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비교적 상류층에 신앙된다고 하니 고려시대에 왕권의 강화를 위해 귀족층에서 선호한 불교의 화엄종이 생각난다.

반면에 시바파는 사회의 하층부에 세력이 있고, 수행자의 고행과 주술, 그리고 열광적인 제례에 특색이 있다. 고행은 주로 육체의 수련이고 요가는 정신적 수련을 의미한다. 근엄한 종파보다는 열정적인 제의를 행하는 시바파가 대중에게 선호되었을 것을 짐작하게 되고, 어쩌면 현실의 고난을 시바신이 파괴하여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기를 소망하였는지도 모르겠다.

5. 발리의 전통가옥

땀막새링 사원에서 발리의 전통가옥을 향해 가다가 과일점 앞에서 잠깐 세운다. 우중에 열대과일을 구경하고 목을 축이고 가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갓가지 과일에 대한 명칭을 들었으나 한꺼번에 듣다보니 외우는 것은 포기하였고 특징으로 동료간에 소통이 된다. 껍질이 멍게처럼 생긴 것, 속열매가 마늘처럼 생긴 것 등등이 있는데, 냄새가 고약한 두리안이라는 과일도 있었다. 강정식품류에 속하는지 맛을 아는 사람은 최고로 친다는 과일이고 값도 비싼 편이다. 한 점을 먹어보니 맛은 있는데 냄새는 역겨웠고 그 냄새가 오후내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다. 호텔에서서의 아침용으로 챙기기도 하고 서로 권해보기도 하며 잠시 천진난만한 때를 즐긴다.



발리 은세공점 현관 : 기둥의 배틀람이 완연한데 아자수 나무의 형상과 닮았다



주택의 대문 : 잘 가꾸어진 전통 주택으로 표창을 받은 집으로 원편 기둥에 문패가 있고 그 밑으로 작은 감실을 만들어 공양을 베풀고 있다



대문의 문패 : 가구주의 이름과 구성가족이 장정, 여자, 자녀의 순으로 표시되고,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마다 각각 부착한다



주택의 신당 : 이사를 거듭할수록 신당이 커지고 이곳에서 신성시하는 아궁산을 바라다 볼 수 있다

주택가 앞에서 하차하여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아자수를 비롯한 열대식물로 이루는 가로수 풍경에서 이국적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한다.

홍벽돌로 문 기둥을 세우고 지붕에는 이영형 식으로 이은 대문이 보인다. 대문 기둥에는 벽감을 두어 공양 의식의 장소가 마련되고 그 위로 액자가 걸려 있다. 이 지역의 문패라는데 가족 구성원의 호구조사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집 안에 여러 가족이 있으면 가족마다 걸게 되므로 이 문패를 보면 누가 식구 몇명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을 걸어 놓은 셈이다. 마당에는 두세평 규모의 초기집들이 움기종기 배치되었는데 해마다 잘 가꾼 주택을 품평하여 시장의 표창장을 받은 집이라고 한다. 노인의 거처와 장자의 거처, 그리고 동거 가족의 구성에 따라 각자의 처소가 마련된다고 한다. 마당 한편에는 사당이 연립된 곳이 있는데 한번 이사를 하면 먼저 살던 집의 신주를 모셔오고, 또 이사한 집에 새로운 신주를 마련하므로 사당의 수효를 보면 몇번 이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초기집이지만 기단은 돌과 벽돌로 치장을 제대로 하였고, 기후관계이겠지만 벽체의 구성은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부엌간도 따로 있어 공동취사가 되는 것 같다. 장자가 거처하는 건물은 맞배지붕 형태의 초기가 물매가 급하여 다락방을 형성하듯이 하였는데 곡식창고로 사용된다고 한다. 농경 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골목길에는 닭이 방목되는지 공양물을 헤집고 다니고 개, 고양이도 보인다. 공양물이 가족들의 먹이가 되는 것에서 우리의 까치밥이 연상된다.

주택에 정성들인 기단으로 축소하는 이유를 궁리하다보니 우기에 배수문제와 습기와 건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전통이었을 것으로 해석하여 본다.

골목 어구에 있는 집에도 사원의 대문 형태로 치장한 것도 있으며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

이고, 공회당도 마련되고 있다. 마을에서 관혼상제가 있으면 공회당에서 회의를 열어 각자가 마련할 품목을 정하고, 공동참여로 의식이 진행되며 참여가 불성실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6. 코끼리 사원

저녁 무렵에 고아 가자(Goa Gajah) 사원으로 향한다. 코끼리 동굴이라는 뜻이라고 하므로 Goa가 동굴이고 Gajah가 코끼리의 의미일 것이다.

계곡속에 숨겨진 것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며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사원의 전경이 보이는데 목욕장과 사당 등의 모습은 땀박새링 사원과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경역 원편으로 암벽에 거대한 귀면상을 조각하였고 귀면의 아가리에 해당하는 곳에 동굴 통로가 형성되었고 두사람이 간신히 비껴나갈 폭의 통로로 관광객이 연신 드나드니 동굴 입구는 북비기 마련이다. 안에는 가네샤(Ganesha)라는 코끼리 얼굴에 사람의 신체 형상을 한 동자상이 있고 힌두교에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예배 대상이 있다. 가네샤는 시바신의 아들격으로 코 끝이 왼손바닥 위의 물건을 탐하고 있고 발바닥은 합장한 형태로 배를 내밀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코로 손위를 향하고 있는 모습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학문의 신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결국 이 동굴은 힌두교 승려들의 수도처였을 것으로 추리되고 있다고 한다. 뒤편에 나오면서 목욕장을 다시보니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보살이 항아리를 안고 기울여 붓는 형상이다. 모두 6구가 있는데 영어 설명문에는 님프 상이라고 되어 있다. 님프보다는 보살이라고 칭하는 것이 형상의 전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는 어느덧 저물어 가고 사원 입구에 상인들의 호객행위는 여정을 더욱 피곤하게 만드는 속에서 귀로에 오른다.



장자의 거처 : 아래층은 침실이고 지붕에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물매가 크게 되어 있다



부엌 : 대가족으로 구성된 집에서 부엌은 별도로 독립되었고, 취사 도구를 단순하게 보인다



코끼리 사원 전경 : 왼편에 암벽 동굴이 있다



코끼리 사원의 신당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완)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2. 마당의 개념

2-1. 마당의 정의

2-2. 채와 마당의 분화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4-1. 마당의 유형분석

4-2. 마당의 형태원리

4-3. 마당의 규모

맺음말

4-3. 마당의 규모

마당의 규모는 그 '空間의 範圍'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크기 또한 중요하다. 마당의 실제적인 크기는 물론 공간의 깊이에서 오는 공간감의 체적도 아울러 구하여 보았다. 따라서 마당의 가운데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폐쇄도의 고찰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마당의 규모는 물리적, 심리적인 크기 및 폐쇄도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1) 마당의 크기

마당의 크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규모산정의 방법과 기준이 제시된다. 첫째, 과연 전통마당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각 채(棟)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곳의 각각의 마당은 그 채에 속한 적당한 마당의 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는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마당 크기의 기준은 물론 채가 갖고 있는 도리 방향으로의 '고유 間수'와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增加치수'³³⁾를 가지고 있다.

둘째, 마당의 알맞은 크기는 어떠한가? 정말 '감동적인 마당'·'적당한 마당'의 크기와는 다른-의 규모를 찾는 일이다. 쓸데없이 큰 공간보다는 오히려 작은 장소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構造的인 空間性'을 말함이다. 그 규모는 물리적인 길이의 치수뿐만 아니라 공간의 立體的인 境界까지를 포함한 그 周邊을 둘러싼 總體的인 範圍의 전부를 말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안마당의 경우에는 대청 앞에 몇간이나 열려진 부분이 있는지(대청과 뒷마당이 서로 통할수 있도록 전부 열려진 부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마당 크기 산출에 있어서 (안)마당에 면한 가로(폭) 및 세로(깊이)길이는 채(棟)가 갖고 있는 間수로 마당공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만약 정면 3間的 마당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대청을(남쪽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대청마루가 중심이 되

33) 金鴻禧, "朝鮮末期 邸宅에 나타난 民衆의 間집어 方法論에 대한 研究", 한양대 학론, 1988(이 논문에서는 가장 많은 間수의 집은 8-9간 집이라고 한다).

므로) 바라보았을 때 대청의 柱間이 3間이다. 즉 폭×깊이의 크기는 대청의 전체 柱間×대청과 ㄱ자로 꺾인 방 등의 각각의 길이로 그 基準을 삼았다.

또한 마당의 전체 크기는 기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마당만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기단폭을 빼고난 치수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단이 보통 화강석으로 되어있고 通路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당의 범주에 일단 넣고 그 크기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체에 속한 마당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도면 4-4>의 범위를 정하고 그 크기를 구하는데 1) 안마당의 치수상의 크기 2) 대청을 통과하는 공간의 깊이가 얼마인가 하는 열린치수 3) 공간의 체적에서 오는 공간감의 밀도의 크기 등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마당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마당의 심리적으로 느끼는 치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 2間크기의 마당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대청마루의 열려진 공간으로 인하여 실제 크기보다도 심리 치수로는 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당의 구성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체에 의한 6마당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안마당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의해서 다른 마당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2) 마당의 폐쇄도

마당의 폐쇄도는 인동거리와 건물높이가 측정의 기준이 된다. 즉 D는 인동거리로서 마당 깊이의 1/2에다 체의 半間의 크기를 합한 거리이며 H는 건물의 높이(h1)에서 시선의 높이인 1.5m를 뺀 치수를 말한다. 算式으로 나타내면 $D=d1/2+d2/2$ 과 $H=h1-1.5$ 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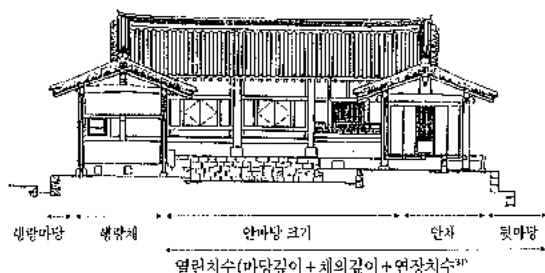
D/H는 폐쇄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D/H=1/1=1=45^\circ$ (완전한 폐쇄감을 느끼게 됨),

$D/H=2/1=2=30^\circ$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함),

$D/H=3/1=3=18^\circ$ (최소한의 폐쇄감 지각),

$D/H=4/1=4=14^\circ$ (개방감을 느낌)라는 기준³⁴⁾이 나올 수 있



<도면 4-4> 마당크기 산정범위 (이원옹가옥의 단면도)

게 된다.

$D/H=2$ 미만이면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D/H=1$ 이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인식하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3) 마당 규모 算定의 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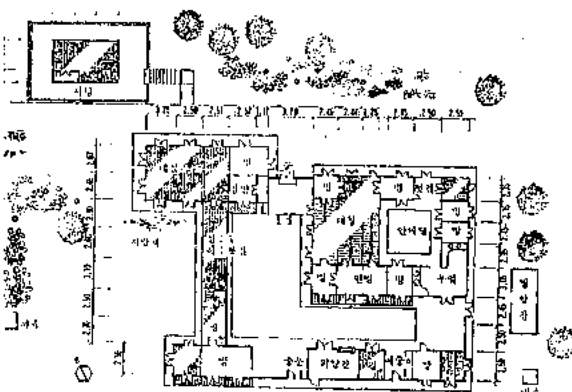
본 研究에서는 口字形 안마당을 갖는 平面과, 전통가옥에서 가장 작은 마당을 소유한 2개의 口字形을 갖는 체를 모델로 하여, 마당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3개의 전통 가옥 즉, 義城金氏大宗家, 김기응家屋, 香壇을 선택하여 여섯 마당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선택의 기준은 커를 갖고 있는 마당으로서, 안마당을 통해서 뒷마당이나 사랑마당을 향해 열린 공간을 휘돌아 가는 '회모리 공간'이 있는 마당을 선별하였다. 일자형 평면과 ㄱ자형을 갖는 가옥의 안마당과, 마당이 1, 2차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구획되는 ㄷ자형 체로(김동수가옥) 형성되는 마당은 넓은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열린 치수'를 갖고 있으며, 공간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체 가운데 커를 소유한 家屋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마당의 구성원리에서 영역상의 체는 6개로 나누며 그속에 11체가 속한 것으로 나누었고, 마당의 공간은 6체(棟)領域이기 때문에 물론 여섯마당의 주마당 속에 16개의 副마당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 義成金氏大宗家

이 가옥의 마당은 여섯마당의 형태로 보았을 때 4마당(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사당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안마당, 앞마당, 뒷마당의 副마당과, 사랑채 주위의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의 5가지 마당이 있으며, 행랑채 안으로는 행

34) Spreiregen, 1965, 75쪽(Spreiregen의 관찰자와 수평거리와의 높이관계의 圖式에서 引用)

35) 연장치수를 구할때 그 열린대상이 뒷마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랑의 경우에는 사랑마당이 열린대상이 되어 총합일의 마당의 열린치수를 느끼게 되는 것은 25.51m나 된다. 그러므로 열린대상의 끝부분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연장치수가 된다.



<도면 4-5> 의성김씨 대종가 배치도

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의 부속마당이 3개소이고, 사당채에는 1개소의 마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2개소의 마당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마당의 크기는(대청을 바라보았을때) 폭과 깊이가 7.03×5.97m로서 칸수는 3×2.5間이 된다. 마당면적은 41.97m²(12.70평)로서 가로와 세로의 비는 1:1.18이다.

안마당은 그 유형이 경기형의 ㅁ자형으로 유형7에 속한다. 마당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는데 비하여 대청의 열린진 間수가 3間으로서 공간감의 깊이를 구하면, 안마당에서 대청을 향해 보았을 때 마당의 깊이(5.97m), 채(안대청)의 깊이(6.64m), 사랑안마당 깊이(7.61m)를 더하면 무려 20.22m가 된다.

이것은 5.97m의 안마당의 깊이가 주는 물리적인 '고정치수'보다 심리적인 '열린치수'는 14.25m가 더 연장된 것으로써 2.39배의 열린치수가 나온다. 이 열린치수는 다시 마당의 바닥에서 처마끝까지의 높이인 3.83m에다 마당의 폭인 7.03m를 곱하면 26.92m²가 되므로 다시 열린치수인 20.22m로 체적을 구하면 544.32m³의 立方體의 空間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열린공간에서 나오는 치수는 '취모리 공간성'이 갖는 한국전통주거 공간의 특성이며 안마당의 규모는 물리적인 치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단면적인 공간성의 범위까지 연장된 부분의 크기까지도 보아야 한다. 이 가옥의 폐쇄도(D/H)는 안마당의 경우는 $D=d1/2+d2/2=2.95+3.285=6.235$ 고 $H=h1-1.5=7.12-1.5=5.62$ 이므로 $D/H=6.235/5.62=1.11 < 2$ 이므로 심리적으로 폐쇄감을 느끼는 안마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대청의 열린공간의 길이는 20.22m로서 폐쇄도가 1이라고 하더라도 확장된 열린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치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도면4-6〉 김기응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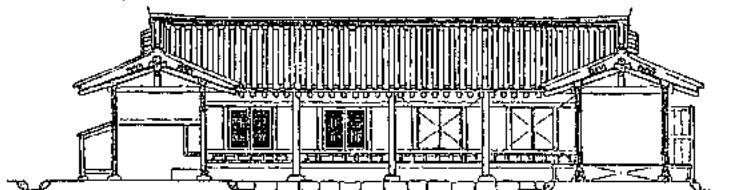
(2) 김기응 家屋

이 가옥의 안마당에서 보면 대청 뒤로 뒷마당이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의성김씨 대종가가 대청후면에 사랑채의 마당이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응 가옥은 채와 담장에 의해서 '분명한 區劃'을 가진 마당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모양이 대체적으로 四角形에 가깝고 쉽게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位階秩序가 뚜렷하다. 공간의 영역을 살펴보면 6마당의 구분으로 볼 때 3개소의 주마당(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副마당은 12개(후정과 정원 포함)에 이르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간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보여진다. 채의 구성은 행랑채 鎭域에 행랑채, 중문채, 곳간채와 사랑채 영역과, 안채의 영역으로서 모두 5채로 되어 있고 연속성에 의해서 마당이 배치되어 있다. 채에 의한 마당의 구분을 살펴보면 안채에는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후원이 확실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에는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이 채에 의한 분명한 구역을 자리하고 있으며, 행랑채에는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열두마당으로 이 가옥은 확실한 境界를 가지고 구분되어 있다.

마당의 크기³⁶⁾를 살펴보면 행랑채영역은 행랑채의 마당은 동서로 25m, 남북으로 15m(장변), 8m(단변)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문마당은 8×7m로서 장방형의 구조이다. 사랑채 영역의 사랑마당은 전면부의 15×7m의 장방형 공간(후면의 ㄱ자공간 제외)을 가지고 있으며 셋마당은 6×3.5m의 장방형이다. 안채영역은 4개의 副마당을 가지며(후정포함)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ㅁ자형의 평면으로 4면이 안채와 곳간채로 둘러 쌓여져 있고 안마당의 크기는 10×7m로서 4×3 間이 되며 가로 세로의 비율은 1:1.43이 되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비인 1:1.5를 넘지 않는다. 옆마당은 12×6m의 장방형으로 뒷마당(22×7m)과 연속되며 후정은 15×20m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안마당에서 보는 안대청은 의성김씨 대종가

36) 延世大 東洋建築研究室 『의성 김기응 家屋』, 1987, 78쪽부터 84쪽.



〈도면4-7〉 김기응가옥 안마당 단면도

〈표 4-4〉 안마당의 크기

家 屋	內 容	전체 마당 수	안마당 크기/와 비					圖面出處	
			가로 (폭)	세로 (깊이)	間數	마당 面積			가로세로 비
						(㎡)	(평)		
01	義成金氏大宗家	12	7.03	5.97	3×2.5	41.97	12.70	1:1.8	한국건축양식론
02	義成金氏小宗家	9	11.88/6.68	7.47/3.82	5×4.5	114.26	34.56	1:1.59/1.75	한국주택건축
03	忠孝堂	11	13.08	9.85	5×4	128.84	38.97	1:1.33	한국건축양식론
04	養眞堂	10	13.18	9.97	5×4	131.40	39.75	1:1.32	한국건축양식론
05	北村宅	10	10.71	10.24	4×3.5	109.67	33.18	1:1.05	하회마을조사보고서
06	臨瀾閣	15	6.30	6.24	2×2	39.31	11.89	1:1.01	한국건축양식론
07	金東周家屋	9	8.00	9.52	3×4	76.16	23.04	1:1.19	한국건축양식론
08	禮安李氏宗家	9	9.94	6.61	4×3	65.70	19.86	1:1.50	한국건축양식론
09	醴泉權氏宗家	13	7.44	4.98	3×2	37.05	11.21	1:1.49	문화재수리보고서
10	獨緣堂	14	13.17	10.23	5×4	134.73	40.76	1:1.30	문화재수리보고서
11	觀稼亭	10	7.73	6.67	3×3	51.56	15.60	1:1.16	한국건축양식론
12	孫東萬家屋	11	7.55	7.27	3×3	54.89	16.60	1:1.04	한국건축양식론
13	香壇	11	5.09	4.42	2×2	22.50	6.81	1:1.15	한국건축양식론
14	무침당	10	10.60	9.70	5×2	102.82	31.10	1:1.09	문화재수리보고서
15	낙선당	10	10.32	8.73	4×3.5	90.09	27.25	1:1.18	문화재수리보고서
16	이원옹가옥	7	8.10	7.20	3×3	58.32	17.64	1:1.13	문화재수리보고서
17	이희태가옥	8	10.42	9.72	4×4	101.28	30.64	1:1.07	문화재수리보고서
18	鄭在永家屋	13	7.55	8.18	3×3	61.76	18.68	1:1.08	한국건축양식론
19	朴堧家屋	13	10.10	7.37	4×3	74.44	22.52	1:1.37	한국주택건축
20	鄭炳鶴家屋	12	8.10	20.20	7.5×4.5	163.62	49.50	1:2.49	문화재수리보고서
21	金東來가옥	14	7.35	4.90	3×2	36.02	10.89	1:1.50	문화재수리보고서
22	윤선도가옥	11	9.30	15.00	3×4.5	139.5	42.20	1:1.61	선우정원논문
23	雲鳥樓	14	9.70	12.42	4×5	120.47	36.44	1:1.28	한국건축양식론
24	김기응가옥	12	10.00	7.00	4×3	70.00	21.18	1:1.43	연세대(동양건축연구실)
25	秋史古宅	11	7.47	7.47	3×3	55.80	16.88	1:1	문화재수리보고서
26	孟氏杏壇	10				불완전한 마당 형상			문화재수리보고서
27	尹埜古宅	13	9.69	8.29	4×3	80.33	24.30	1:1.17	문화재수리보고서
28	霽月堂	11	8.00	4.40	6×3.5	35.20	10.65	1:1.82	한국주택건축
29	同春堂	11	7.20	7.20	3×3	51.84	15.68	1:1	한국주택건축
30	船橋莊	15	10.00	8.98	4×4	89.80	27.16	1:1.11	한국건축양식론
31	臨曉堂	13	6.50	8.84	3×3	57.46	17.38	1:1.36	한국주택건축
32	宮집	12	9.76	7.32	4×3	71.44	21.61	1:1.33	문화재수리보고서
33	呂鄭九家屋	12	8.40	8.40	3.5×3.5	70.56	21.34	1:1	문화재수리보고서
34	金榮龜家屋	11	11.25	12.25	5×5	137.81	41.69	1:1.09	문화재수리보고서
35	演慶堂	13	19.56/12.23	21.17/2.78	5×1	448.09	135.55	1:1.08/4.40	한국건축양식론

〈표 4-5〉 間數로 본 마당의 크기

가로 세로 間數	2	3	3.5	4	5	6
1.5					演慶堂	
2	香壇 臨濟閣	예전권씨 증택, 金東來家屋				
2.5		의성김씨 대종가				
3		觀稼亭, 孫東萬家屋 이원옹가옥, 鄭在永家屋 秋史古宅, 同春堂, 臨曉堂	宮집	예안이씨 증택, 박항가옥 김기응가옥, 윤증고택 낙선당, 이희태家屋	무침당	
3.5			呂鄭九家屋	北村宅		재일당
4		金東周가옥		船橋莊	忠孝堂, 養眞堂, 獨緣堂	
4.5		尹善道家屋			의성김씨 소종가	
5				雲鳥樓	金榮龜家屋	

의 확장된 열린공간이 더 생기는 것이다. 다음 공간의 밀도는 안마당에서 뒷마당까지 열린 대청의 柱間 폭은 10.0m이고 처마높이가 2.3m이므로 $23.00m^2$ 가 되므로 열린치수의 17.82m를 곱하면 $409.86m^3$ 의 密度로서 공간의 부피를 갖는 체적의 크기가 나온다. 이곳에서도 안마당의 크기가 $10 \times 7m$ 라는 규모로서는 공간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區分 / 家屋		1) 獨樂堂	2) 정재영가옥	3) 船橋莊	
位 置		廣北 廣州郡 安康邑	廣北 永川郡 臨阜面	강원 강릉시 온정동	
年代 / 平面型		16세기초 / 口字형	18세기 중반 / 口자형	19c초 / ㄱ자형	
間數 / 立地類型		50間 / 평지, 냇가	30間 / 산기슭 경사지	55間 / 산기슭	
마당 구성	채의 構成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사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시당	안채+사랑채+행랑+별당채+시당	
	6마당構成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안마당+사랑+행랑+고방+시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6마당形(전체마당수)	5마당 2형(14)	5마당 1형(13)	5마당 2형(15)	
마당 유형	안마당	유형7 (口자형)	유형7 (口자형)	유형6 (ㄱ자형)	
	사랑마당	유형3 (3면 개방형)	유형3 (3면 개방형)	유형5 (사방형)	
	행랑마당	유형2 (전면형)	유형2 (전면형)	유형4 (후면복합형)	
마 당	행랑마당	○ 행랑마당은 前面형으로 행랑채 앞에 마당이 구성되고 있으며 동편으로 供需間마당이 사랑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관리인이 산다.	○ 3칸짜리 솥을 대문을 지나 들어가면 매우 큰 행랑마당이 전개된다. 마당은 유형2로서 전면형이다.	○ 행랑채가 하나의 커다란 일면을 이루며 행랑마당은 유형4의 후면복합형이다.	
	곶간마당	○	○	○	
	종문마당	○	○	○	
	사 랑 마 당	사랑마당	○ 사랑마당은 3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독립당의 당정은 냇가와 면하는 부분이 일부 열려있어 공간의 확장을 꾀하며 열린공간의 극대화를 뒷편의 계정과 어우러지게 하고 있는 매우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다.	○ 사랑방, 큰사랑방, 마루, 책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채는 사랑마당에 3면 개방형으로 동남에 위치한다.	○ 사랑채인 열화당은 별도의 채로 독립되어 있으며 사방형으로 마당을 구성한다.
		사랑앞마당	○	○	○
사랑뒷마당		○	○	○	
셋마당		○	○	○	
庭園		○	○	○	
부 마 당	안마당	○ 안마당은 뒷마당과의 열린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마당의 크기는 134.73㎡(40.76평)로서 다른 것과 비교해 비교적 큰편이다.	○ 안마당은 유형7의 口자형으로서 3×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의 크기는 61.76㎡(18.68평)이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08로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 동별당과 이어지는 안채와 안마당은 ㄷ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서별당은 소실되었다.	
	옆마당	○	○	○	
	뒷마당	○	○	○	
	庭園	○	○	○	
	庫堂 마당		○ 현재는 그 모습이 없지만 과거에는 고방채가 뚜렷하게 대문의 양측면에 있었으며, 고방마당이 고방채의 전면에 구성되었다.		
성 법당 마당	별당마당	○ 계정의 정자마당은 일취로 열려있고, 냇가와 전원은 통해있어 앞마당이 사랑채의 물이 된다.		○ 정자인 활재정은 전입구인 비갈마당에 위치하며 전면에 연못을 둠.	
	亭子	○			
	祠堂마당	○ 사랑앞에 매우작은 轉移마당	○ 사랑마당은 口자형	○ 별도의 사랑마당으로 사랑형	



열린공간으로 인한 공간의 깊이와 밀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 가옥의 폐쇄도는 안마당에서

$$D=d1/2+d2/2=3.5+1.91=5.41 \text{ 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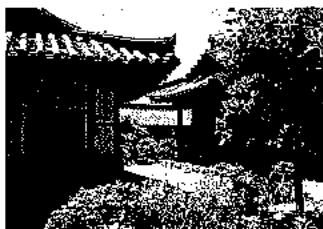
$H=h1-1.5=4.7-1.5=3.2$ 이므로 $D/H=5.41/3.2=1.69$ 가 되어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D/H=2/1=2$) 기준과 완전 폐쇄감의 중간에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수치는 전통주거

에서 나타나는 열린공간으로 解決되는 것으로서 뒷마당까지의 연결된 열린치수가 15m 이상이 되므로 답답함이 없다고 ($D/H=15.20/3.2=4.75$) 본다. □자형의 안마당으로 내부 자체만을 볼 때는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D/H=1$ 에서 2까지의 수치가 나오는 것이 열린공간의 밀도로서 오히려 開放感을 주고 있다.

4) 朴溪가옥	5) 鄭炳鎭가옥	6) 金東涑가옥	7) 雲鳥樓
慶北 鎭寧郡 하빈면	慶南 咸陽郡 池谷面	全北 鎭寧郡 산외면	全南 求禮郡 土旨面
1747년/ ㄱ자형	18c/ 一자형	1784년/ ㄷ자형	1776/ ㄷ자형
37間/ 平地	間/ 平地	75間/ 平地	55間/ 平地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사당	안채+사랑채(2)+행랑채+사당	안채+사랑채(3)+행랑채+사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안마당+사랑+행랑+사당	안마당+사랑+행랑+사당
4마당 1형(13마당)	5마당 2형(12)	4마당 3형(14)	4마당 3형(14)
유형7 (□자형)	유형8 (ㄷ자형)	유형6 (ㄷ자형)	유형7 (□자형)
유형2 (2면 개방형)	유형4 (3면 개방형)	유형5 (사랑형)	유형3 (3면개방형)
유형4 (후면복합형)	유형2(전면형)	유형6(전후면복합형)	유형4 (후면복합형)
○ 행랑마당은 사랑마당과 복합으로 사용 되는 유형4이다.	○ 별동의 공간채를 두고 행랑마당과 공간 마당이 붙어있다. 또한 안마당과 옆에 위치하여 있다.	○ 각 채는 畚畝型으로 독립된 채로 흐트려 놓았다. 행랑마당은 사랑채와 혼용되기는 하지만 안행랑채가 있기에 前後面複合型이다.	○ 행랑마당은 후면 복합형이고 비껴마당의 물을 지나 대문을 들어서게 되며 큰 행랑마당과 만난다.
○ 사랑마당은 사랑채가 전면에 노출되고 유형은 2면 開放형이다. 대청의 모서리 부분이 별당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다.	○ 사랑마당은 사랑채 앞마당 끝 담장아래에 石假山을造苑해 놓았다. 보통은 후원에 만드나 이 사랑채는 내려다 보게 해 줄길 수 있게 하였다. 사랑마당의 3면 개방형으로 前庭을 두었다.	○ 사랑마당은 별동의 사랑채 주위로서 사방형의 庭園이다. 전체 대지의 크기가 동서 65m, 남북 73m로써 각각의 채와 함께 마당은 넓은 구역을 갖고 있다.	○ 사랑채는 원래 안사랑, 작은사랑, 큰사랑의 모두 3개의 사랑채를 구성한다. 운조루의 사랑마당은 3면 개방형으로 루마루로 되어 있다.
○ 안마당은 ㄱ자형으로서 전체 형태는 안채와 사랑채가 서로 ㄱ자와 ㄷ자를 이루면서 전체는 □자형을 이루고 있다.	○ 안마당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랑채의 앞을 지나 중문을 통과해야 한다. 안마당은 구지형이 아니고 트여 있으며 마당면적은 구지형과는 달리 크게 163.62㎡ (49.50평)나타난다.	○ 안채의 평면이 ㄷ자형으로 되어 있지만 마당의 구성은 □자형과 일자형을 갖는다. 안채의 구지형은 3×2間으로서 36.02㎡(10.89평)의 庭園을 갖는다.	○ 안마당의 크기는 120.47㎡(36.44평)으로서 작지않은 크기를 갖고 있으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28이다.
○ 별당마당은 하업장의 별당채를 두고 있으며 마당의 구성은 사랑이며 前面은 봉래산상을 두었으며 누마루를 두어 마당공간을 확대함	○ 별당마당은 안채의 뒷편으로 두었다.		○ 현재는 별당이 없지만 3면개방형의 마당을 구성하였다.
	○ 사랑마당은 안채뒤에 四方型구성	○ 사랑마당은 안채우측으로 四方형	○ 사랑입구에 큰 轉移마당 형성



朴溪가옥



鄭炳鎭가옥



金東涑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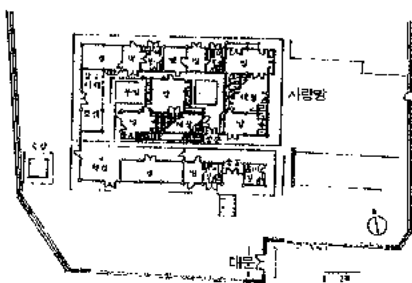


雲鳥樓

(3) 香壇

月字型의 平面構成을 하고 있는 이 주택은 안마당이 2×2間으로 전통주거 가운데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마당을 소유하고 있다. 물체인 주요 3채(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1棟形式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으로, 여섯마당의 분류로는 세마당(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이 자리하며 채에 속한 영역별로는 행랑채에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사랑채에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셋마당이, 안채에는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등(정원, 후정)이 있어서 모두 11개소의 마당이 된다.

안마당의 크기는 가로가 5.04m이고 세로는 4.38m로서 가로 세로의 비는 1:1.5가 되는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마당이다. 이 마당은 물리적인 크기로서는 매우 작지만 그러나 사랑대청 2間(5.04m)의 내부공간과 바로 외부의 열린공간이 맞닿아 연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느낌은 그렇게 협소하게 보이지 않는다. 안마당은 사랑마당 사이에 사랑채라는 '공간의 켜'를 갖고 있으며 이 공간 속의 공간이(안마당에서 사랑마당을 보면)라는 이중코드로써 물리적인 첫수를 극복하고 있다. 즉 한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휘몰아 가는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마당에서 사랑대청으로 보는 열린공간의 치수를 살펴보면, 마당의 깊이 4.42m와 사랑채의 보방향의 깊이 5.09m, 그리고 사랑마당의 깊이 약 16m를 더하면 25.51m가 된다. 이 열린공간의 수치는 마당의 깊이보다 5.77배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써 연장된 치수는 25.51m가 된다. 향단이 갖고 있는 안마당의 두間×두間의 間數의 크기는 이 열린공간의 치수까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공간의 밀도감을 구하면, 마당 폭(5.09m), 처마높이(기단과 마루높이를 뺀치수인 2.2m), 열린치수(25.51m)를 곱하면 285.77㎡의 체적을 갖는다. 안마당의 공간 폐쇄도를 살펴보면 D의 계수는 $D=d1/2+d2/2=2.21+2.55=4.76$ 이 나오고 $H=h1-1.5=5.58-1.5=4.08$ 가 되므로 $D/H=4.76/4.08=1.17 < 2$ 가 되어 폐쇄도의 계수인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므로 대단히 폐쇄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면4-8〉 향단 배치도

공간의 폐쇄도는 나타나는 수치보다 한국전통 가옥에서 느끼는 열린공간의 깊이인 25.51m의 길이로 작은 공간을 오히려 큰 느낌으로 확대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마당의 사례분석 종합

한국 전통주거 공간안에서 마당의 구성원리는 대단히 복잡한 樣態를 지니고 있다. 첫째, 마당의 분류 형태로는, 마당은 6마당으로서 주마당이 되며 그속에 副마당은 12개소가 되어 모두 16마당으로 分類된다. 둘째, 채와 마당의 관련성으로 보면, 채의 영역성에서 채는 6채로 구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11채가 구성되어서 모두 41.5개의 마당과 관련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렇듯 채와 마당의 복잡한 관계는 다시 6마당의 패턴체계를 나누어 볼 때, 한마당은 4가지의 형과, 두마당은 27가지형, 세마당은 27가지형, 네마당은 4가지형, 다섯마당은 3가지형, 여섯마당은 기본형을 가지는 체계를 가지며 모두 15형태의 마당패턴을 가지고 있다.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례조사를 하였다. 1) 마당의 특성원리는 어떠한가? 2) 마당은 구조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는 어떤질서를 갖고 있는가? 4) 마당은 어떤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가? 5) 마당의 형태원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가? 6) 마당은 어느정도 크기를 소유하며 그 폐쇄도는 어떠한가?

사례분석 종합을 통한 마당 구조 원리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켜를 조절공간으로 이용하여 마당구성에서 작은공간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② 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각 마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동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③ 마당의 類型分析에서 나타나는 안채의 안마당의 口字型(또는 扌口字型)을 發展 시키고 그 형태를 응용한다. 그외에 사랑채 및 기타 마당을 활용시키는 계획도 반영한다.

④ 마당의 규모에서는 적당한 크기를 현대건축 속에 응용하는 지표로 삼는다.

마당의 크기를 다시 정리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안마당 가운데에서, 작은 마당에서는 향단이 22.50㎡(6.81평)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예천권씨 종택 37.05㎡(11.21평), 임청각 39.31㎡(11.89평) 순으로 나타났다. 큰 안마당의 순서를 보면 口字형의 마당형태중에서 정병호가옥이 163.62㎡(49.40평)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형 채에서는 연경당이 448.09㎡(135.55평)로서 가장 큰 것으로

分析되었다. 안마당의 크기의 평균치수로는 81.11㎡(24.54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평균값이 적절한 치수로 보기에는 어렵고 마당이 작다고 하더라도 향단의 열림 치수가 작은 면적의 마당에 면하여 있으면 작은면적+열린치수가 되어 오히려 적절한 공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마당의 間數를 종합해 보면 대청과 기로로 면한 마당 쪽의 間數를 작은 순으로 봤을 때, 2間 규모로는 향단, 임청각이며, 세로의 길이에 면한 마당은 2間이 향단, 임청각, 예천권씨 종택이다. 또 김동수가 옥은 마당의 규모는 크지만 間數는 2間으로 나타났고, 의성김씨 종가택이 2.5間的 순으로 되어 있었다. 전체의 마당의 間數는 평균 3.88間(쪽)×3.28間으로 나타났다. 마당의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間數를 규모별로 整理하면 <표4-5>와 같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마당 공간의 間數로 볼 때 3×3 間の 가옥이 7가옥으로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이 4×3 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맺음말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마당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한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期間내에 그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갖고 내려온 歷史의 마당이라고 하는 거대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을 단순한 외부공간으로만 보려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마당은 채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으로서 즉 안마당은 안채와 안마당을,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한데 묶어서 그 구조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마당 구성원리 중에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마당의 構成 原理 속에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마당의 特性原理에는 軸의 원리(대청, 마당, 중문), 공간의 연속성, 커를 갖고 있는 공간의 二重的 코드가 있다. 또한 이원성의 多樣性 공간을 소유하고 自然과의 調和性 공간이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청이라는 커의 공간은 마당과 항상 면해 있는 부분(안마당+대청+뒷마당)으로 결합되어 있다.

둘째, 마당은 여섯마당으로 分類되며 각 마당은 기본형을 2개 또는 3개의 형을 갖는 구조를 이룬다. 또한 구성 형식에서는 16개의 形으로 나뉘지면서 채와 마당이 어우러진다.

셋째, 채와 마당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6체의 영역속에 11개로 분화된 독립된 채가 있으며 이 채는 다시 행랑마당에서 사랑마당까지 16마당의 각 기능을 갖고 있다. 관련구조의 상관성은 사랑채가 1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마당의 形態原理에서는 유형과 형태원리, 그리고 마당의 규모가 결과치로 나타났다.

첫째, 마당의 유형 分析에서는 주요 3체인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의 마당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안채는 민가형과 경기형으로 나누어지나 대체적으로 안마당의 구성은 □자형이 많으며, 사랑채는 단순형과 별동형으로 나누어진다. 또 기본형에서 시작하여 전면형, 2면 개방형, 3면 개방형, 4방향 등으로 되어 그 유형이 6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행랑마당은 후면형의 기본으로 모두 6가지 패턴으로 발생하며 그 형은 전면형, 전면특형, 後面 복합형, 前面 복합형, 前後面 복합형으로 세분되고 있다.

둘째, 마당의 형태원리에서는 안마당의 가로 세로의 비가 의성김씨 대종가는 1:1.18이고 충효당은 1:1.32, 향단은 1:1.15로 되어 대체적으로 1:1.5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 마당의 규모에서는, 안마당의 크기로는 가장 작은 마당을 가진 향단으로 22.50㎡(6.81평)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평균 마당의 크기는 81.11㎡(24.54평)가 되었다. 마당의 크기는 柱間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스칸의 크기와 관련된다고 본다. 현대 건축에서 適用한다면 傳統建築의 3×3間이면 현대에서는 한(1)間×한(1)間(한 스칸을 6m라고 가정하면)이나 1.5間×1.5間的 규모일 것이다. 마당의 폐쇄도는 D/H=1.5내외의 범위안에 있으며, 안대청의 마루에서 보이는 열린치수의 공간의 크기는 마당의 전체크기를 포함하여 20여 m의 길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당의 間數는 3×3間的 관가정, 손동만 가옥, 추사고택 등이며 그 다음이 4×3間인 김기응 가옥, 윤증고택 등으로 되었다. 規模로는 물론 제일 작은 크기의 香壇이 2×2間으로 나타났다. 間數에서도 평균적으로 쪽과 깊이가 3.88間×3.28間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3~5間×3~5間的 範圍 안에 들어 있다.

이상과 같은 마당 구성원리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마당 구성의 特性 原理'와 '形態 原理'를 알아보았다. 특히 그중에서 마당의 규모가 갖고 있는 적정 크기의 算出과, '열린 공간'의 해석방법은 현대건축에 應用할 하나의 '方法論'이 되는 틀'로써 그 基礎資料의 작은 材料가 될 것으로 본다.

외국의 건축가 3 - 파올로 솔레리와 아코산티

Paolo Soleri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자동차는 도시를 자연 전체에 흩어버려 놓는다. 아콜로지 하이퍼 빌딩에서는 인간척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이퍼 빌딩에서는 보행으로 움직인다. 하이퍼 빌딩 내에서 거리는 도보와 분으로 측정된다. 하이퍼 빌딩 안에서 자동차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콜로지에서는 에너지는 일상적 현대 도시에서보다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오염이란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기보다, 바로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효율이 좋아지고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오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중인 솔레리

출처 : <http://www.arcosant.org/info/fog.paol.html>

◇ 연 재 목 차 ◇

(각월 게재)

1. 렘 쿨하이스 Rem Koolhaas
2.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3. 파올로 솔레리 Paolo Soleri
4. 딜러+스코피디오 Diller+Scofidio
5.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6. 에릭 오웬 모스 Eric Owen Moss
7. 라파엘 모네오 Rafael Moneo
8. 베르나르 추미 Bernard Tschumi
9. 아키텍토니카 Arquitectonica
10. 건축 스튜디오 Architecture Studio

솔레리의 이념적 배경

파올로 솔레리는 20세기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유토피아를 계획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56년부터 아리조나에 거주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건축(Architecture)과 생태학(Ecology)을 결합시킨 「아콜로지(Arcology)」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주로 내가 하는 활동은 수작업에 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따라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솔레리는 회고한다.¹⁾

“과학적 혁명은 전력을 다하여 인간에게 다가왔으며, 인간들을 지배했고, 인간들은 구조주의, 기능주의,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신(神)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효율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서 통계적으로 결정된 미래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이, 과학적 결정론(Scientific Determinism)을 섬기게 된 것이 실수였다.”²⁾

다음은 1995년 12월 9일과 11일 이틀동안, 제리 브라운이 파올로 솔레리와 대담한 내용으로 미국 전역에 제휴 방송사를 통해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 사람들”³⁾ 내용 중 일부이다.⁴⁾

제리 브라운(JB) : (방송을 위하여 서론을 말한 뒤) 시작해 보시죠, 파올로.

파올로 솔레리(PS) : 글썄, 우리가 마을들, 도시들 그리고 대도시 체계라 부르는 것에 인간들이 모이는 것을 관찰하는 대단히 오래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사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북아메리카에서 설득력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최소한 지난 20여년간,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도시가 문명의 표제어라는 사실은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이다. 문명이란 단어 자체는 문명의 발전과 도시의 출현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JB : 그래서 그 도시들이 문명으로 묶이느냐 ...

PS : 그렇다.

JB : 그리고 파괴적 요소가 바로 문명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문명이 확실히 도시를 닦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대의 많은 지역에서, 도시는 대단히 문명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아하고 창조적이며 아름답고 즐거움이 있다.

PS : 글썄, 그것이 어떤든 도시의 병리이며, 그리고 모든 현상과 병리학들이며, 우리에게 자복천년의 꿈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그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회라 부를 수 있는 사회로, 이끌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바로 당신이 말하는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약 미국 대륙으로부터 모든 도시를 없앤다면, 남는 것은 별로 없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사실, 우리 미국인들도 도시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대단히 의심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도시가 대단히 다른 모습으로 규모로나 질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JB : 도시의 규모나 질적 차원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가 재미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에서 옮겨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도시가 그렇게 좋지 않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거의 30년간이나 그랬다는 것이 재미있다.

PS : 그렇다, 나는 그것이 꿈직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몇 가지의 은유로 말해보겠다. 우리는 몇년전의 지구 인구가 50억이었는데, 현재 급격히 불어나서 2050년경 쯤에는 100억 인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 위에 가해지는 인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지구에 얼마나 많은... 아니면 지금 조치가 필요한지... 인구 증가에 따라 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2050년에는 두 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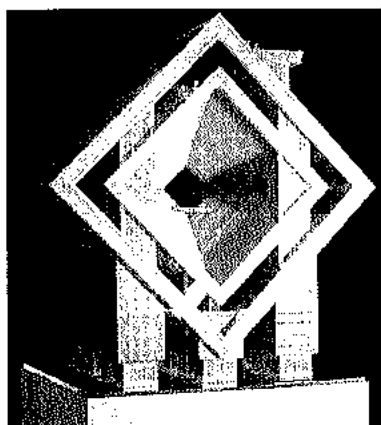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미국사람들은 미국적 꿈을 충족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 글썄 우리가 미국인들의 꿈을 실현되도록 해 주었고, 혹성의 다른... 단위를 확보했다. 그래서 미국의 꿈은 혹성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평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생각과 대단히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개의 혹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구의 인구가 20배 늘 것이므로, 그것은 우리 미국인이 평균적 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미국인들의 꿈이 지구의 꿈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2050년경에는 40개의 위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JB :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생활방식이 40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되면 우리는... 40개의 혹성 지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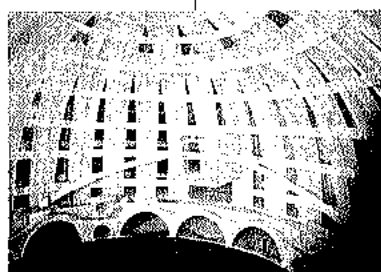
PS : 그렇다.

JB : 아니면 우리의 생활방식을 40배로 줄여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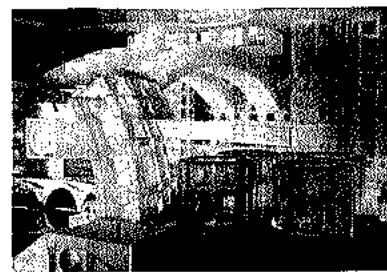
PS : 그것이 비통한 점이다. 우리가 절제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시의 생리학적 용어로 미국인의 꿈을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꿈은 꿈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일이 될 것이며, 그리고 자연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으로 고통, 분리, 고립, 인종적 차별, 외국인 기피증 등 계속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증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이 혹성 지구의 역사상 처음으로, 혹성 지구는 그 역할에서 주요한 배우, 주연배우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고, 지구의 한계가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가 즐기는 대상을 지구로부터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대단히 실제적 사실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국인들의 꿈을 절제하여 물질주의



Arcube, 1960년대의 투명합성수지 모형.
출처 : Slide by H. Hydon



1960년대의 아코산티, 투명합성수지 모형.
출처 : 앞과 같음



1960년대의 아코산티, 투명합성수지 모형 상세.
출처 : 앞과 같음

- 1) Paul Heyer, Architects on Architecture : New direction in America, pp.79.
- 2) Paul Heyer, Architects on Architecture : New direction in America, pp.79.
- 3) radio talkshow, "We the People."
- 4) <http://www.arcosanti.org/info/soferint/part11.html>

의 에덴동산 등을 끝내고 이를 대신할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들과 사회들의 영적 생활을 향하는 태도를 더욱 보이는 것이다. 당신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생활을 만들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JB : 좋다, 그러므로 아마도 인간으로서 우리의 존재방법 자체가 문명의 영속성을 위하여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을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식하고 지녀야 할 것이다.

PS : 내 생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실현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JB : 현재 우리가 지닌 방법을 일순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2억 5천5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나, 우리 자신들을 최고라고 여기며 너무 부풀려 살아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패턴으로 고정된 방법이, 우리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에 관한 스스로의 원칙들에 따라 발전시킨 방법을 유효하게 여기는 방법이, 생물학적인 법칙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구의 절대적인 황폐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PS : 예, 맞다, 그리고……

JB : 또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면,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수십 억의 사람들에게 노예들, 농노들 또는 날품팔이처럼 살도록 요구하고, 지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인들의 특별한 생활방식을 가능케 한다.

PS : 맞다, 특권층이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인, 유럽인, 특권층에 들어온 그 누구든 자원을 한정하기 위하여 조절할 책임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구 위에 가득찬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벌이는 고도의 소비만큼 중국, 인도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태는 대단히 빠르게 곤두박질할 것이며, 적대자나 “우리 나라가 최고”라는 생각과, 우리들에게 서서히 증대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싫어하는 것’(Zenophobia)은 큰 지각변동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JB : 이것이 의미하는 모든 바는 중국, 인도,

아마도 아프리카인들이 미국인들의 중산층 또는 심지어 중산층 하류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PS : 옳은 말이다.

JB : …… 그리고 우리가, 고도소비주의라는 것으로, 계속 오점을 남기면, 유용한 자원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PS : 그렇다, 심지어 수천년전에 겪었던 부족시대의 나락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당신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JB : 현재 유독 어려운 점은 많은 곳에서, 당신도 알 듯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핵무기가 있고, 심지어 대륙간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PS : 내 말은, 그것은 우울한 사건의 일부이며, 우리가 마련한 상황에서 유래하는 비극의 일부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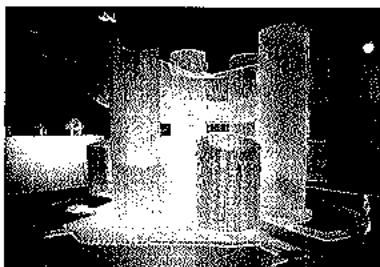
JB :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토론거리인, 상황이 있는데 중간계급이 재산과 더 버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중간 하부 계급이 고도 소비주의의 이름으로 획득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흐트러지는 동안, 그러한 방법들과 모델들과 이미지들은 다른 세계로 전해져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획득하게 됨으로써……

PS : 맞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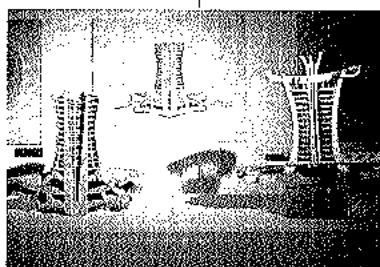
JB : …… 전체 일이 서서히 대규모의 그 무어랄까 … 전쟁 … 나는 약간의 열광적인, 광신적이 아닌, 잠깐 기다려라, 인도에서 보이는 일부 사람들만의 말로 하자면, 1년에 200 킬로그램의 곡식으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고, 당신들이 하듯 우리들도 4배에 해당하는 곡식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리고 이곳에 미사일들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곡식 또는 여러 가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나머지(굶주린) 사람들은 사바 신이 살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PS : 예, 그것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한 것이며, 그것은 가능성이다.

JB : 그리고 그곳에 아마도 나쁜 상황과 동등하게 50%의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Arcvillage, 출처 : 앞과 같음



도시의 소형 모형, 출처 : 앞과 같음



코산티 텐트구조물, 1965~70년, 출처 : 앞과 같음

PS : 오, 그렇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를 진전시켜 건축계획의 현 상태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그 이유는 인류의 모든 활동들은, 가장 부파가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요구하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의, 우리 사회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인식처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피난처로의 광대한 변화, 이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광대한 부담이며, 이것은 아주 명확하다. 지금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가장 낭비가 심한, 가장 오염을 만드는, 가장 인종분리가 심한 종류의 인식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교외로 확산된 주거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외로 확산되는 생각을 선호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보고 있다. 사실은 현재의 방법이 너무 소비적이고 기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파올로 솔레리⁵⁾

파올로 솔레리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아코산티(Arcosanti)와 코산티(Cosanti) 재단. 아코산티는 미국 아리조나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닉스로부터 북쪽으로 66마일 떨어져 있다. 주(州)간 고속도로 I-17을 벗어나 출구 262 코르데스 정션⁶⁾으로 빠져 나오면 만날 수 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근무하며,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작업을 한다. 관광은 매일 10시부터 4시까지 할 수 있는데 5달러의 현금이 요구된다.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하는 실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그들은 왜 실험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파올로 솔레리는 1919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1993년에 파시스트를 피해 프랑스 그레노블로 이주했다. 솔레리는 그곳 산업예술학교에 다녔다. 1935년부터 39년 기간중에는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리체

오 아피스티코의 토리노 앨버틴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계속했으며 1941년부터 1946년 사이에는 토리노 폴리테크니코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건너와서,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아리조나 주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서부 탈리어신 18개월 장학금을 받고 도제로서 참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옮겨갔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장학생으로 라이트에게 배운 건축가이다. 당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진행된 계획안 중에는 “Beast 교량”이 있다.

1949년 라이트에게 도제수업을 마친 후에, 솔레리는 아리조나 주, 피닉스 근처 사막 캠프에 남아, 같은 탈리어신 직원이었던 마크 밀스와 함께 유리와 알루미늄을 계획하고 케이브 크릭에 건설하여 돔 주택(The Dome House)을 지었다. 그 결과 냉, 난방 수동형 태양열 이용에 관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1950년부터 56년 중에는 이탈리아로 돌아와 연구를 수행했고, 1951년 M. I. T에 제안한 “우주적 가능성”이 채택되어, 인간 주거지에 적용된 태양에너지의 적외선, 수력과 조력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1951년부터 52년까지는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비에트리 술 마레(Vietri Sul Mare)에 대규모 도자기 공장 “조각예술 도자기”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주물하고 나중엔 청동 풍경을 생산하는 도자기 공예공방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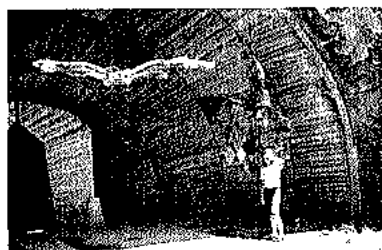
1956년 미국으로 돌아와서 늦게 결혼한 부인 콜리와 두 딸들과 아리조나 주 스코트데일에 정착하여, 후에 스코트데일 코산티재단이 될 땅을 매입한다. 솔레리의 실험적인 지구주택을 그 땅에 건설한다. 코산티는 1975년까지 건설이 계속된다.

1958년에는 록셈부르크에 다기능의 교량 설계경기에 출품하고, 메사 도시계획안(Mesa City project)을 시작했다. 맨해튼 섬 크기의 지역에 2백만 명을 수용하는 계획이었다. 계획안은 도시의 대규모 채색 드로잉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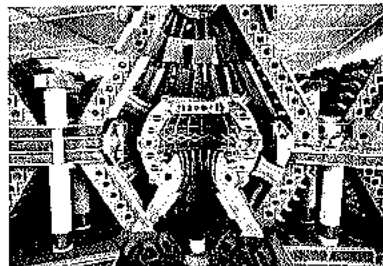
5) <http://www.arcosanti.org/info/solli.htm#1919>

6) Cordes J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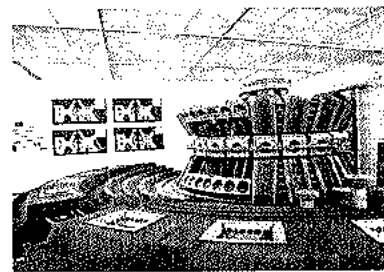
7) Artistica Ceramica Solimene



코산티 복합건물, 주택 스튜디오, 1966년.
출처 : 앞과 같음



3D- 저어지, 상세 모형, 출처 : 앞과 같음



3D- 저어지, 상세 모형과 뒷 벽의 도면들.
출처 : 앞과 같음

1961년 그의 '메사 도시 계획안(Mesa City project)'으로 그 래함재단으로부터 순수예술 연구로 지원금을 받았다. 뉴욕시 현대미술관(MOMA)에서 개최된 "공상적 건축(Visionary Architecture)" 전시회에 메사 도시계획안이 포함되었다. 그는 도시 설계이론 개발을 계속하면서 진흙으로 만든 건축적 모형들을 만들었다.

1962년 솔레리는 그의 철학적, 교육적, 비영리, 연구와 건설작업이 병행되는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재단인 코산티재단을 창설한다. 1963년에는 수공예 교육 제도로 A. I. A 골드 메달을 수상했고 템페에 있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부터 워크샵을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아 지원받기 시작했다. 또 코산티재단의 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와 다른 시설을 갖추었다. 1964년엔 20여개의 대학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공예 작업을 보여주고 슬라이드 강의를 진행했으며 '메사 도시 계획안'으로 "건축과 인간 생태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구겐하임 지원금을 받았다.

1965년 코산티 재단을 아리조나 주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생태학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두번째 구겐하임 지원금을 수혜받았다. 그리고 워싱턴 중부 주립대학 제4회 연례 심포지엄에서 "미국적 가치, 일하는 인간"에서 "여가 생활의 기원" 논문을 발표했다.

1966년 루커스(Rutgers)대학에서 "환경, 대학, 인간의 복지" 학술회의에서 강연했다.

1967년 구겐하임 재단으로부터 받은 작업의 결과가, "인간의 상상 속에서의 도시" (1969) 아폴로지 시리즈로서 M. I. T에서 출판되었다. 1968년 루커스 대학에서 기금을 받아, 미국 뉴저지 주의 도시 교통체계를 설계하는 계획을 착수한다(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에 연결된 "3차원의 저어지(3-D Jersey)"에서 하나의 구조로서, 3차원 도시 설계를 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 백만 명을 위한 도시구조속에서의 교통과 관련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작업을 협조했다).

1969년 아폴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 결과로 "인간의 상상력에서의 도시"라는 책을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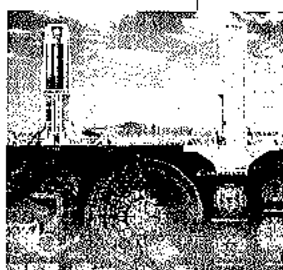
1970년 워싱턴 D. C. 의 커코란 미술관에서 파올로 솔레리의 건축적 전망을 전시했다(이 전시회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6-7개의 유명한 미술관에서 순회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대규모 전시회와 병행하여, 아코산티 워크샵에 참가한 많은 참가자들의 작업결과를 사진으로 간추린 전시회가 소규모 박물관, 미술관과 대학에서 순회 전시됐다).

1971년 피닉스문화센터 운영위원회로부터 기념비 조각 설계를 의뢰 받았다. "기부자"⁸⁾라는 조각을 아리조나 예술과 인문위원회의 기금으로 완성하여 피닉스 미술관에 1972년 제작 설치되었다. 1973년 "물질과 정신사이의 교량은 물질이 정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제명으로 책을 발간했으며 1975년 제록스 협력기금으로 "두 태양의 아폴로지: 태양으로 힘을 얻는 도시"⁹⁾ 전시회를 위한 기금을 받았다. 1976년 뉴욕, 로체스터 거리에 있는 제록스 광장에서, 제록스 기업과 코산티 재단의 후원으로 전시회 - "두 태양의 아폴로지: 태양으로 힘을 얻는 도시"전을 개최했는데,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후조건 속에 위치한 크고 작은 도시를 위한 계획안이었다. 또 이해엔 미국 과학기술센터협회¹⁰⁾의 주선으로 미국 순회전시회가 이루어졌으며 '아폴로지를 향하여-진행중인 작업'이란 주제로 미국 30개 대학을 순회하며 전시회와 강연을 시작했다. 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군(郡) 공원국의 위촉으로 원예시설의 강력한 냉, 난방을 위한 태양열에너지센터 시설을 설계를 맡았다.

1977년 "두개의 태양" 아코산티 계획이 수정되고, 샌프랜시스코에서 빌 그래햄의 식물 쇼에 초대되어 새롭게 대규모로 만든 아코산티 모델을 전시했다. 1978년 아리조나 주 스코트데일 제어스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1979년 P. A. 잡지에서 솔레리의 건물 이스트 크레센트 복합 건물¹¹⁾에 대하여 시상했다. 1981년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건설된 디콘치니 주택¹²⁾을 협조 설계했으며, 세계 건축 비엔나 레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1983년 워싱턴 D. C. 의 히르쉬호른 미술관에서 "현대예술에서의 이상향의 전당"에 솔레리의 작품이 포함되어 전시되었고 1984년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된 "지난 시절의 미래" 기획전시회에 솔레리의 작품이 포함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아코산티. 거의 매일 진행상황이 인터넷에 소개된다. 출처 : <http://www.arcosanti.org/images/WWW/Photos/index.html>



하이퍼빌딩 전시 패널, 출처 : <http://www.arcosanti.org/images/tp/panels.html>

8) Il Dominio.

9) The Two Suns Arcology - The City Energized by the Sun.

10)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s.

11) East Crescent complex

12) Deconcini House

13) Università Degli Studi di Genova in Reggio Calabria, Italy

전시되었다.

1985년 오스트레일리아, 그라즈에서 “평화를 위한 공간 : 건축적 비전” 제목으로 우주 주거지와 모형전 사회가 열렸으며 1989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 있는 제노바 연구대학¹³⁾에서 제3회 국제 유토피아 학술대회에서 유토피아 상을 받고 전시했다. 미국, 뉴욕의 뉴욕과학아카데미에서 겨울 동안, “파올로 솔레리의 주거지 : 생태학적 상세 (Minutiae)”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1990년 12월에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생태학적 상세(Ecological Minutiae)’ 전시회를 개최했다.

1991년 새로운 “아코산티 2000” 마스터플랜을 시작했으며 6월에 “파올로 솔레리 : 진행중인 작품들” 전시회와 아코산티 초대행사가 열렸다. 1993년 가을에 스코트 데일 센터에서 “솔레리의 도시들 : 혹성 지구 위에서와 그 이후의 건축”이 전시되었다. 1994년 “아스테로모 94” 모형을 일본 메이 예술센터를 위하여 작업을 위촉받고 제작했으며 아르커메디아(Arcomedia)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1995년 아리조나 주 글렌데일에 있는 글렌데일 지역사회대학¹⁴⁾의 야외극장을 맡아 설계와 건설을 위촉받았고 아코산티 건물 일부의 증축 설계¹⁵⁾를 했다.

1996년에는 아리조나 주, 스코트데일에 운하 계획안의 일환으로 보행자용 교량설계를, 일본 하이퍼 빌딩연구위원회로부터 아콜로지 설계를 각각 위촉받았다. 이는 1995년 10월, 일본 도쿄 하이퍼빌딩 심포지움에서 전시되었다.

아콜로지 이론¹⁶⁾

아콜로지는 생태학에 건축을 융해하여 구체화한 파올로 솔레리의 도시개념이다. 아콜로지 개념은 고도로 통합되고 집약된 3차원의 도시형태인데, 땅, 에너지, 시간과 인간의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평면적 도시확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아콜로지 개념으로는 (미국에서) 전형적인 도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하는데 기존 도시면적의 약 2%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 아콜로지에서는 내부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도시 외곽을 갈 경우에 사용한다. 아콜로지 내부에서는 도보로 걷는 것이 기본적인 수단이다. 오늘날 전형적인 도시에서는 60%의 대지가 자동차관련 기능으로 사용된다. 도시를 축소화하는 것이 대지, 에너지와 자원을 근본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화석연료 의존성과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태양, 바람 그리고 다른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한다. 아콜로지는 현재의 도시보다 1인당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여 재활용하고 태양에너지의 사용이 실현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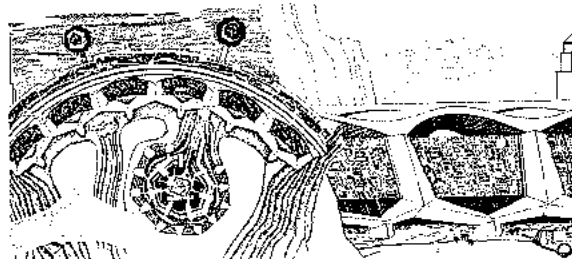
“현대도시들의 설계에서 내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몇 층 높이의 건물들이 수마일씩 외곽지대로 제멋대로 뻗어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의 결과로써, 말 그대로 도시들은 땅을 바꾸어 농장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넓게 퍼진 공간으로 사람들,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한다. 도시의 외부로 폭발하기보다는 내부로 폭발하게 하는 것이 나의 해답이다.”¹⁷⁾

“자연계에서는, 어느 유기체든지 발전할 수록 복잡성이 증대되고, 또한 그 유기체는 밀집되고 최소화 체계로 바뀌어 간다.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진화를 위하여 자연계에서와 같이, 복잡화하고 축소화되어 더욱 생명력있게 인간을 수용하는 유기체로 바뀐다.”¹⁸⁾

“이러한 개발이 운행하는 주요개념은 건축과 생태학이 하나로 통합된 내부 진행과정으로서 - 아콜로지이다. 아콜로지는, 최소한 이론적으로, 도시문명의 많은 문제들, 인구, 공해, 에너지와 자연 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과 도시생활



벨라디가 도면,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raeger Publishers, New York, 1972, p.180.



벨라디가 도면,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180.

14) Glendale Community College

15) Arcosanti Critical Mass 1

16) <http://www.arcosanti.org/info/faq-roc.html>

17) Paolo Soleri, 'Earth's Answer', The City of the Future, Ed. Michael Katz, William P. Marsh and Gail Gordon Thompson, New York: Lindesfarne/Harper & Row, 1977: pp.72-77.

18) Paolo Soleri, 'Earth's Answer', The City of the Future, Ed. Michael Katz, William P. Marsh and Gail Gordon Thompson, New York: Lindesfarne/Harper & Row, 1977: pp.72-77.

19) Paolo Soleri, 'Earth's Answer', The City of the Future, Ed. Michael Katz, William P. Marsh and Gail Gordon Thompson, New York: Lindesfarne/Harper & Row, 1977: pp.72-77.

의 질적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아폴로지는 도시조경이 밀도가 높고, 통합이 된, 3차원의 도시들로 뻗어나간 것을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론이다. 도시구조는 인간의 문화를 유지하는 복잡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거나, 또는 축소화해야만 하고, 사회와 그 미래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워진 신뢰로 도시구조를 보아야 한다. 아폴로지의 중심적 생각은 도시는 인간의 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19)

그 동안 솔레리가 발표한 아이디어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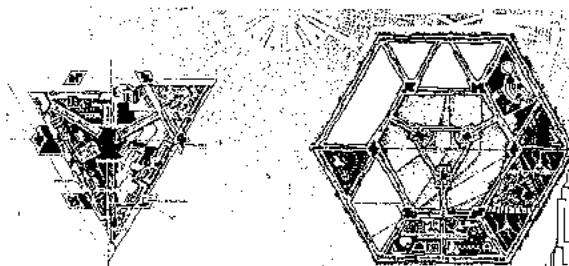
뉴욕시 계획 : 에이커 당 33인의 인구밀도에 대한 검토작업으로, 헥사헤드론을 만들어냈다.

벨라디가(Veladiga) : 기존 댐에 위치하며, 에이커 당 125명의 밀도를 지니는 표면적은 120에이커에 달한다. 하부에 도시센터가 있으며, 중간부분 경사면에 주거지가 있고, 상부에는 산업지역과 도로가 위치한다. 댐에 갇힌 물 안에 연구소와 수직이착륙 비행장이 연결된다.

헥사헤드론(Hexahedron) : 뉴욕 시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써 제안한 것으로, 어느 곳에도 위치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며, 17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높이는 1,100m에 달하는 1,000m이며, 인구밀도는 에이커 당 1,200명이다. 대지에 차지하는 면적은 140에이커의 규모이다.

아스테로모(Asteroromo) : 우주내 위치하는 인구 70,000명을 수용하는 전체의 직경은 1,400m이며 전체의 길이는 2,600m이다. 내부의 바닥면적은 466에이커이다. 우주 속에서 회전하는 원통으로 되어 있고, 내부 바닥에는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다. 원통의 주위로 실험실과 주거가 연결된다. 외부 우주선으로부터 내부로 연결되는 입구장치가 있다.

아코산티(Arcosanti) : 메사지역 사막에 위치하는 이 계획은 초기에 인구 1,500명, 밀도는 215명/에이커 높이 50m이며 표면적 7에이커 정도에 이르는 계획이었다.



헥사헤드론 평면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181.

코산티재단²⁰⁾

1956년, 파울로 솔레리와 늦게 결혼한 그의 부인 콜리(Colly)는, 솔레리의 건축적 또는 도시계획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교육법인인 코산티재단을 설립하였다. 오늘날, 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 디자인 전문가들, 도시계획가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솔레리의 건축개념과 철학을 교육한다. 아폴로지의 개념에 따라 5,000명의 주거지로서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아코산티의 건설을 책임진다. 이 건물이 1970년 이래 코산티의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였다. 일상적인 생활로서 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적 또는 문화적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27년전 코산티 재단은, 아리조나 고원사막 현 무암지대에 실험적 도시인 아코산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건설이 완료되면, 아코산티에는 7,000명이 거주하며, 지구 위에 파괴를 남기는 인간들의 충격을 줄이고 도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 대규모, 집약적 구조들과 대규모 태양 열 온실은 4,060에이커의 보존지역내에서 25에이커의 면적만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자들에게 아주 근접하여 천연의 시골을 유자하고 있다.

도시가 확산되어 주위의 자연환경을 휩쓸어버리는 현상은 대지와 자원을 고갈시켜 끝없는 낭비, 실패, 장기 간에 걸쳐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자동차에 의존하는 문명은, 공해의 증가, 과잉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한다. 아코산티는 이러한 주제에 3 차원적이며, 보행자-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주제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계획만이 도시의 확산을 약화시키고, 도시와 자연환경 모두 스스로 유지하고 번영을 약속한다. 아코산티는 하나의 전형이다(만약 아코산티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도시들을 건설해야 하는지 알려주

20) The Cosanti Foundation, <http://www.arcosanti.org/info/faq-fnd.html>



헥사헤드론 입면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181.

는 모델이 될 것이다).

아코산티는 이탈리아의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에 의하여, 아콜로지(건축+생태학의 결합 용어)의 개념에 따라서 계획되었다. 아콜로지에서는, 살아있는 건축과 생활의 상호 교류는 고도로 진화된 것이다. 같이 일하고, 자원과 인적 자원, 다용도 건물, 조명, 난방과 냉방을 태양열로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다양한 체계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설계에서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존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복합체에서, 창조적인 환경, 아파트들, 업무, 생산, 기술, 공지, 작업실들 그리고 교육행사와 문화적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온실에서 공작이나 사적 용도로 정원을 지닐 수 있으며, 온실은 겨울 난방을 위하여 태양열 집열판 역할을 한다.

아코산티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5주간의 워크샵 프로그램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익힌 건설기술과 아콜로지 철학을 가르쳐준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이 모였다. 많은 학생들은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고, 일부는 워크샵에 참가하여 각 대학의 학점을 받는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건축적 교육배경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흥미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의미 있는 시간과 기술로써 공헌하고 있다. 일주일간의 실험 조각 워크샵과 연장자 체류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참여방법을 제공한다. 아코산티의 체류자들은 워크샵 졸업자, 계획, 건설, 교육, 컴퓨터 보조도면 그리기(CAD), 건물 유지, 요리, 목공예, 금속세공, 도자기 그리고 통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솔레리 벨'을 생산하며, 뿐만아니라 매년 50,000명의 관광객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곤 매일마다 전시장,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 맞이한다.

아코산티에는 크래프트(Crafts III) 건물이 있는데, 면적이 13,500 평방 피트이며, 4층 건물로 방문자 센터와 카페, 빵집 등과 7세대용 주거가 구비되어 있다. 크래프트 건물 동쪽에는 주물공장동과 도자기동이 있다.²¹⁾ 안내방문자에게는 아코산티의 철학, 역사, 계획 그리고 대지 내에서 건설 진행사항을 안내자가 설명해준다. '콜리 솔레리 음악센터'에서는 콘서트와 다른 이벤트들이 손님들에게 아코산티를 경험

하게 해준다. 쇼에는 식사가 포함되며, 가끔 반대편 사막 평원에 2000개의 상형문자 조형 쇼가 포함된다.

-워크샵 : 연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워크샵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아콜로지 이론을 배우거나 건설에 참가하고 있다.

-거주자: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확장된 공동 사회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약 70명이 거주하며,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People' 항목에 보면 거주자와 졸업생의 명단이 있고 그들의 E-mail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코산티에 관한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 아코산티에 사는 거주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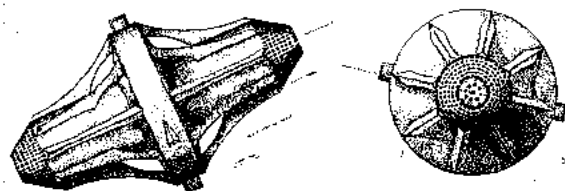
솔레리의 13번째 아콜로지인 아코산티(Arcosanti)는 3,000명을 위한 집합도시로서 1970년에 작업이 시작되어 27년간 코산티재단의 후원아래 아리조나 고원 사막지대에 실험적 도시인 아코산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후 계획의 규모는 확장되어 건설이 완료되면, 아코산티에는 7,000명이 거주하며, 지구 위에 파괴를 남기는 인간들의 충격을 줄이고 도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 대규모, 집약적 구조들과 대규모 태양열 온실은 4,060에이커의 보존지역내에서 25에이커의 면적만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거주자들에게 아주 근접하여 천연의 시골을 유지하고 있다.

파올로 솔레리의 하이퍼빌딩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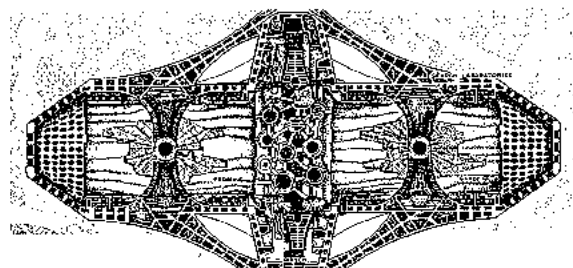
하이퍼 빌딩은 동심원을 지닌 2개의 엑세드라(Exedra)에 의해 둘러싸인, 높이 1km의 타워이다. 엑세드라는 도시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반원형의 건물이다. 타워와 '엑세드라'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윤곽선은 디자인의 여러 측면을 묶어 준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21) the Foundry Apse and Ceramics Apse
22) <http://www.arcosanti.org/images/tp/hb.html>
23) 엑세드라(Exedra): 반원형이고 등부분이 높은 옥외용 반원형 벤치 또는 실외용 긴 의자



아스테로모 입면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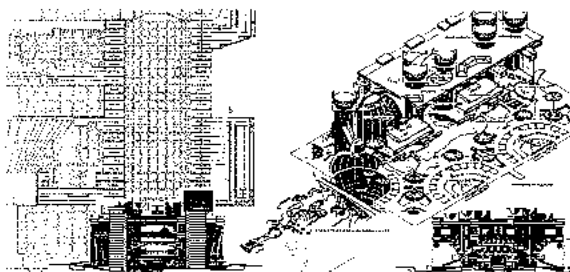
아스테레모 단면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182.

마주 향하여 홀어진 것과 기하학적으로 초점을 맞춰 말해보자면 : 방사선과 직교체계 : 직교체계가 중립적인 반면, 방사선은 중심, 반경과 원주를 암시한다. 타워는 중심에 있고, 방사선은 수평적 움직임의 무대이며, 원주는 두 개의 다층 높이의 주변 원호(엑세드라)를 지닌다.

우리 인간들은 남성, 여성의 성차를 고맙게 여기고 있다. 에로스는 종족을 위하여 항상 고정된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신의 뜻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의 주거지와 예술 속에 새기고 묘사되고 있다. 형태를 유추해서 보면, 타워는 남성적인 것으로서 남근(Lingam)을 상징하고, 동심원의 엑세드라²⁴⁾는 여성적인 것으로서 자궁을 상징한다. 두 성분의 혼합은, 말하자면 엑세드라 외부의 둘레를 깨뜨리고 파도처럼 다가오는 자연의 다른 성질,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도시의 "생산력(복합성)"을 만든다.

타워(남성) : 이 타워는 유추작업 속에서 남근, 즉 남성이다. 어쨌든 인간적인 스케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퍼빌딩의 거주자에게 이 높이 1,000m의 타워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8개의 테라 또는 인공대지를 지닌 타워를 묘사해 보면 문제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러한 다층을 지닌 레벨의 공지는 공원을, 공공용 문화공간들, 그리고 거주자에게 '숨쉴 수 있는 여윌공간'을 제공한다. 타워 속에 마련된 테라 들(The Terras)은 인간적인 축척을 지닌다. 타워 중간에 오르면 '중선 레벨'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테라 공원'이 있다. 온실로서 개발된, 이 공간은 하이퍼빌딩이 위치한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에게 완전하게 다른 기후를 제공해 준다. 하이퍼빌딩 높은 곳에 위치한 다른 공원은 높이에 영향받은 다른 종류의 미세 기후를 제공한다.

엑세드라(여성) : 반원형 구조를 지닌 두 개의 엑세드라는 자궁처럼, 이러한 유추에서는 여성적인 것이다. 최초의 사레인 하이퍼빌딩의 주위는 엑세드라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엑세드라는 건축의 외관 형태와 함께, 타워와 엑세드라 사이에 내부공간도 아니고 외부공간도 아닌 온도, 빛, 바람 그리고 비가 조절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형태와 방향은 설계에 중요한 수동형 태양열 효과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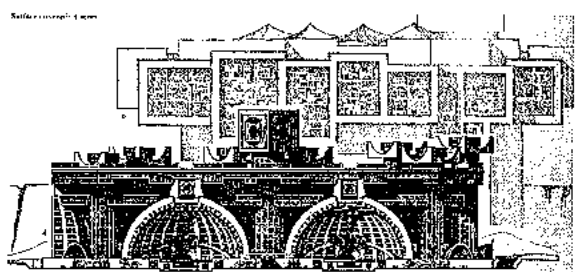
아코산티 단면부시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 183.

하이퍼빌딩의 개념²⁴⁾ : 하이퍼빌딩은 하나의 아콜로지이다. 아콜로지에서는, 건축과 아콜로지는 도시를 설계할 때 동시에 작용한다. 아콜로지에서는 오늘날의 대도시에서처럼, 평평한 대규모의 도시가 내부로 모여들어, 수직적으로 고층화되며 밀도가 높고, 복합적으로 내부로 모여 폭발하는 것이다. 일원화된 구조체계는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연히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구성은 밀도가 높고 밀집한 기능으로 생활, 작업, 교육, 문화, 여가 그리고 건강이 가능하도록, 거주자 가까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야외 자연이 가능한 체계이다. 밀집된 아콜로지는 오늘날 도시와 교외지역이 확산된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린 90%에 달하는 많은 대지와 농토를 다시 되돌려준다. 이러한 밀집성은 아콜로지가 더욱 일화한 체계로 만들어준다.

도시의 교외로의 확산과 그 치명적인 효과를 막는 것이 3차원 도시의 한 기능이다(고도의 소비, 인종적 분리, 낭비, 오염 그리고 생태적 격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최초의 하이퍼빌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이퍼빌딩 주위의 모든 개발들은 아콜로지에 의해야 한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로, 인생은 항상 3차원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은 '도시의 영향(Urban Effect)'으로서 설명되어야 한다. 하이퍼빌딩은 '도시의 영향'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이퍼빌딩은 필수 불가결한 제안이므로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하이퍼빌딩은 인생 자체의 존재론적 움직임을 나타낸다).

하이퍼빌딩의 운송수단²⁵⁾ : 하이퍼빌딩으로의 운송수단은 기본적으로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사이에 계획된 '지역간-대륙간 고속도 대규모 운송체계 (RCHSML)' 시스템에 의한다. 주요 터미널은 구조체의 북동 측에 있다. 저속도 '다인승 레벨(Mag-lev)' 선은 여행자를 주요 역으로부터 하이퍼빌딩내 역으로 이동시켜 준다. 하이퍼빌딩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여행자의 짐은 컨베이어 시스템이 담당한다. 건물내

24) <http://www.arcosanti.org/images/tp/HBWEB/concept/concept.html>
25) <http://www.arcosanti.org/image/images/tp/HBWEB/circulation/circulation.html>



아코산티 입면도. 출처 : J. Dahinden, 'Urban Structure for the Future', p. 183.

부에는 여행자, 거주자, 근무자, 방문자 발딩내 엘리베이터로 대규모로 이동시킨다. 저층부 공용공간인 '테라(Terra)' 들로부터 움직인다. '테라' 내에서 수직 동선은 에스컬레이터가 큰 역할을 한다. 내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속 또는 저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다양하게 변하는 조경을 경험하게 된다. 하이퍼빌딩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보조장치나 질적으로 보강된 에스컬레이터들, 대각선으로 또는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들, 움직이는 보도들, 전기적 컨베이어나 자전거를 활용한다. 서비스 운송은 테라 들에 있는 건설 야적장, 창고 또는 유통 근거지로부터 시작한다. 화물 엘리베이터들은 건설재료와 대규모 상품을 다룬다. 2개 층의 25,000,000 평방미터 면적의 지하 주차장은 태양열 동력 발전소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 주차장에는 64,000대의 승용차와 30,000대의 상업용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다. 자동차가 매일 필요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우리는 거주자들이 자동차를 레저용이나 장거리여행을 위하여 유지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평가 : 건축에서의 유소니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도시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은 주목받을 만한 일로 생각된다. 미국 교외에 있는 개개 주택마다 넓은 대지면적을 취하고, 도시가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미국의 전형적인 도시들이 지니는 비효율성으로부터 솔레리의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동아시아의 밀도가 높은 도시로서는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유한한 천연자원을, 곧 고갈될지도 모른 화석연료에 의존한 문명체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파올로 솔레리를 통하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주장하는 '유소니아(Usonia)' 개념을 보게 된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인들의 통일을 향하는 개념으로, 소설가 새뮤얼 버틀러가 제안한 용어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받아들여 그의 책에 사용하고 있다.²⁶⁾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이나 '미국인(American)' 이라는 말이 스스로를 잘 표현하는 용어로서는 미흡하고 그저 여러 나라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는 미국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통일과 결합(Unity 또는 Union)' 에 근거를 둔 신조어로 '통일된 미국'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용어 '유소니아' 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문명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담

은 용어로 보인다.

미래를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게 할 공학과 기술을 그리고 그 문화를 먼저 소유하고 이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지 모른다.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상황조차 불안했던 우리 나라 정치, 사회,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불현듯,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현재에 만족하는 이보다, 현재에 불만족스러워 하는 이들에 의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힘을 느끼게 된다. 대담 마지막에 청취자로부터 질문이 있었다. 그 중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David : 안녕하세요, 대단히 활기 있는 대담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내 기억에, 나는 약 15년 전에 아코산티를 방문했는데, 그때 감명을 받았고 진행되는 실험과 개념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 관심사는 이런 것인데, 확실한 것은, 나는 당신이 바뀌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CD플레이어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마도 더욱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들으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계획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와 내 아이들의 장래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 중략 —

JB : 좋아요, 데이비드,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올로, 여기에 논평을 해주시겠습니까?

PS : 예,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한가지만을 말하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인류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진화되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닌, 생각해 낸, 교육받아 온,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행하려는 이런 생각은, 정말로 정리하기 아주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존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권리선언' 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이와 대응되는 '의무선언', '책임선언' 항목 등도 미땅히 지녀야겠지요.²⁷⁾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의 일부를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맥락을 떠난 그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주의는 '의무선언' 없는 '권리선언' 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6) Frank Lloyd Wright, 'A Testament', New York, Bramhall House, p.160. Usonia.
27) Bill of Rights, Bill of Duty or Bill of Responsibilities

아파트의 구조변경 허용 한계

The Permitted Limits of Structural Changes in Apartments

이창남 / (주)센구조연구소
by Lee Chang-Nam

1.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후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불법개조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포하였으나, 일반인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명확한 범위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엘리베이터홀에 게시된 자진신고안내서에 포함된 구조변경 허용 기준표이다.

이들 본 아파트 주민 중에서 그 깊은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궁금한 점들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공동주택 유형별 허용여부 기준

구조변경부위	금지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1) 주요구조부 - 내력벽 - 기둥 - 보 - 바닥 슬래브	철거 또는 훼손 행위	없음
2) 비내력벽	신축 또는 위치 이동	비내력벽 철거행위
3) 발코니	돌, 콘크리트 중량재 2중 새시 (2중 패어글래스)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 사용바닥 높임 기존새시
4) 기타	- 다용도실, 부엌 등 실의 용도변경 또는 발코니 확장 등 수반되는 공사내용에 따라 허용여부 판단(위 1, 2, 3항과 같음)	

2. 위에서 먼저 규명해야 할 사항은 주요구조부의 철거 및 훼손 행위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과연 절대적이나 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의 구실은 거기에 매달리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즉 매달리는 하중을 제거하면 그 구조부재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얼마전 서울시에서는 도시고속도로를 공사하기 위하여 5층짜리 상가아파트 건물의 4, 5층을 철어버린 적이 있다. 즉 4층 이상의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을 잘라낸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아래 남겨놓은 1, 2, 3층의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기술용역을 발주했다. 물론 건물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존 부위에 해로운 충격을 주거나 구조부재간의 연속성이 깨짐으로 인한 응력 재분배가 잔존 구조부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염려된다면 철거 전에 철거 범위와 방법을 사전 점검받거나 철거할 때 잘린 부분의 마무리 설계 과정에서

간단한 검토를 곁들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기초와 1, 2, 3층 기둥은 위의 4, 5층 아파트가 헐려 없어짐으로 인하여 짐을 덜어놓게 된 것이므로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게 되었으며, 따라서 어쩌보면 전보다 더 안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신축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내력벽식으로 설계 시공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에서 벽체의 두께가 상하 동등할 경우 1층의 내력벽은 15층까지의 전체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반면 15층 벽체는 자중무게만 지탱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15층 벽체는 많은 부분을 잘라내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 물론 구조부재를 손상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보강해야 안전성이 보장되는 부실한 아파트도 없지는 않으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안전, 불안전을 거론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내력벽은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그 내력벽들은 지기 층의 무게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전체 하중을 받아서 아래층 내력벽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벽이라 해도 1, 2층 벽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4, 5층 벽에는 큰 구멍을 내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수가 있다는 뜻이다.

주요 구조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기초는 기둥보다 더 중요하고, 기둥은 보보다 더 중요하다. 바닥슬래브에는 구멍을 낸다해도, 또는 심하게는 어떤 바닥슬래브 전부를 잘라내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닥슬래브를 제거함으로써 인하여 그 바닥판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던 보와 기둥 및 기초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는 생명체와 달라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나 “사랑”이 없다. 박봉에도 힘겹게 교육시킨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다. 나무도 가지를 쳐버리면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요도가 낮은 구조부재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를 지탱하던 구조부재가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주요도가 낮은 구조부재를 삭제함으로써 인하여 이를 지지하던 부재에도 손상을 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가 기둥에다 힘을 전달하기는 하면서도 기둥 자체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휘청거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도록 설계한 경우이다.

3. 바닥슬래브에 실금이라도 생기면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아파트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대형 마루의 널판지 사이가 벌어져서 그 밑을 드나드는 강아지가 보이고 천 바람이 솔솔 올라온다고 해도 그 마루바닥이 꺼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철근콘크리트 바닥슬래브란 때로는

는 마루 널판지처럼 좁은 폭의 콘크리트 판들을 나란히 이어놓는 것처럼 가정하여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1방향 슬래브(One way Slab)이다. 즉 이런 바닥슬래브는 콘크리트톱으로 슬래브의 짧은 변에 평행하게 여러 쪽으로 잘라낸다 해도 구조안전상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이다. 즉 콘크리트 슬래브를 마루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일일이 쪼갬을 내기도 귀찮을 뿐더러 또한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붙여 시공하게 했을 뿐이므로 당초 서로 떨어뜨리려 했던 그 방향으로 금이 쫓 갔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하는 뜻이다. 필요하다면 바닥판에 길다란 구멍을 뚫어도 관계가 없다. 마치 마루 널판지를 하나하나 빼낸다 해도 그 빼낸 구멍에 일부러 발을 디디지만 않는다면 안전상 위험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바닥판에다 구멍을 뚫음으로 인하여 위 아래층 사이에 소리가 전달돼서 시끄럽다거나, 만약의 경우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그 구멍을 통해 불길이 올라가서 윗층에까지 불이 번진다는 등의 염려는 음향환경설계나 소방법에서 따질 문제이다.

4.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를 주요구조부라고 정의했다. 물론 아파트를 수리하는 사람이 기초까지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초를 주요구조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짐작한다. 아파트를 설계하다 보면 구조안전상으로는 굳이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필요가 없는데도 편의상 조적조나 다른 경량재를 사용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로 통일해서 시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설계 당사자가 아니고는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철근콘크리트 중에서 그것이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구조안전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인데, 사용상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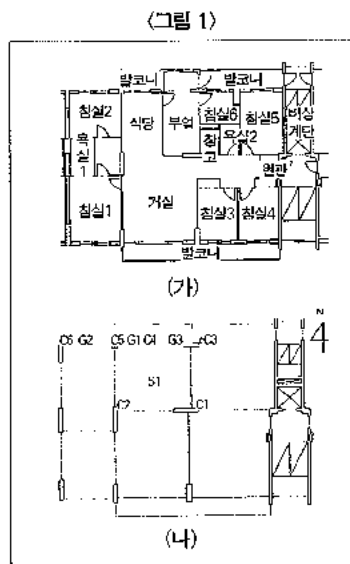
기둥도 기둥 나름이고 보도 보 나름이다. 아파트에서 철근콘크리트 재료라는 것은 구조재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칸막이 벽, 경계벽, 난간, 가림막, 각종 닥트 등으로도 부담없이 쓰는 값싼 재료이다. 즉 이들이 비내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5. 비내력벽을 신축 또는 위치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 역시 타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비내력벽을 위치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원래 아슬아슬하게 여유없는 구조설계일 경우, 구조상 좋지 않은 위치에 배열했던 비내력벽을 헐어

내고 그 대신 오히려 여유가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구조부재를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므로 구태여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아래 <그림 1>은 오래된 현대아파트의 평면도이다. 이 구현대아파트는 벽식구조가 아니라 기둥, 보로 엮여진 이른바 라멘구조이다.



이 아파트는 8년 전 <그림 2>처럼 식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위치를 변경시켰다. 상세도에서 보면 남북방향으로 배열된 식당과 부엌사이 칸막이벽의 북쪽 끝에 있던 문을 가운데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림 가에서 나로 변경)

이렇게 출입문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비

내력벽의 전체 무게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무게 중심이 바뀔에 따라서 슬래브 S1의 양 단부에 작용하는 전단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며, 이 슬래브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중 남쪽 기둥 C1, C2의 축력은 다소 감소하고 그 대신 북쪽 기둥 C4의 축력이 증가하게 된다.

어느 한 집에서 이같은 변경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매 층마다 같은 방법으로 칸막이 벽을 이동시키면 매 층마다 조금씩 증가한 북쪽 기둥 C4의 하중 증가가 어찌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므로 이같은 칸막이 벽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식당의 북쪽 창문과 그 밑

의 비내력벽을 헐어내고 창문을 배란다 끝으로 옮겼으므로 북쪽기둥 C4의 축하중 증가 염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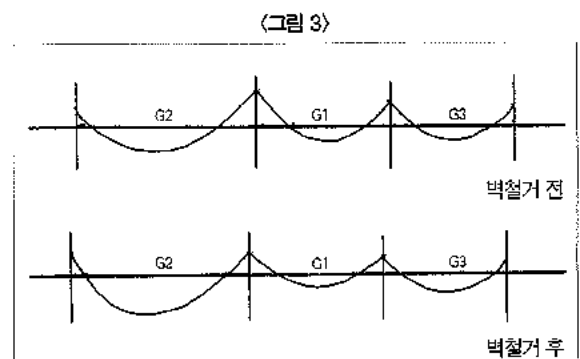
6.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그럴듯한 말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때로는 엉뚱한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다란 나무의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자 의자가 엉덩이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옆에 맥놓고 앉아있던 나머지 사람이 어이없이 주저앉은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의자는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가 두 사람이 앉아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한 손으로 무게 20kg짜리 물건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 손에 각각 15kg씩 도합 30kg 무게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다. 아파트구조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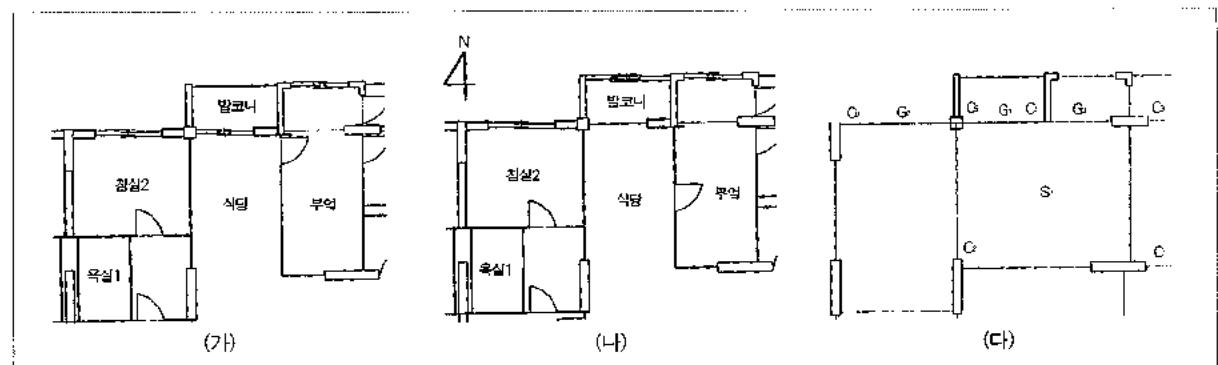
그러므로 비내력벽은 마음대로 헐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도 식당북쪽 창문과 그 밑의 벽무게가 줄어들에 따라 식당 보 G1을 지지하는 두 기둥 C4, C5와 그 기둥들에 연속된 동서쪽 보 G3, G2의 모멘트 값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림 3>은 식당 보 G1과 그 동서측 보 G2, G3의 칸막이 벽 철거 전후에 변형하는 모습을 과장해서 그린 그림이다.

구조물은 수시로 변하는 적재하중과 대항하



<그림 2>



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화하는 크기가 허용범위에 있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칸막이벽은 적재하중이 아니라 고정하중에 해당하므로 만약의 경우 원설계가 금은방에서 금저울을 다는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설계하여 조금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을 때, 한 번 물었던 곳을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본다. 권투경기에서도 공격자가 상처난 부위에만 골라서 잭을 넣으면 쉽게 다운된다. 아파트에서도 매 층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의 구조변경을 하면 원래 설계당시 생각했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누적되어 불안한 구조로 변할 수 있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물탱크청소 등의 이유로 집집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두는 일이 있다. 설계 당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부분적인 과하중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7. 버스에 많은 사람이 올라타는 것 같아 보여도 내리는 사람이 타는 사람 수와 같거나 적다면 걱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발코니에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마감하는 것이 전반적인 하중증가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중량재 무게에 해당하는 비내력벽, 즉 방을 발코니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헐어버리는 창문 밑의 벽돌벽 무게와 비길 수만 있다면 이들을 지지하는 보나 내력벽에는 짊어져야 할 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발코니 슬래브 자체의 내력을 검토하여 부족하면 그것만 보강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정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위에 사람 있는”, 즉 겹겹이 얹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어느 층에 사는 사람이 구조변경을 한 것이 그 아래 전체 층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무너지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인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의 어느 한 집에서 그 집에서만 사용하는 발코니가 약간 처져서 금이 조금 갔다는 등의 지엽적인 문제까지 간섭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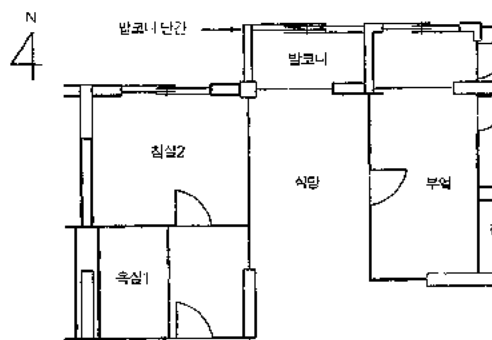
캔틸레버로 설계한 발코니에 힘겨운 하중을 가하면 그 처지는 것이 즉각 눈에 띄게 마련이다. 요즘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발코니 외부에는 창문을 달아서 방으로 쓰고 있으므로 발코니 끝이 약간만 처져도 창문 위에 틈이 벌어져서 하늘이 보이거나 빗물이 스며들기 마련이다. 즉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구조안전전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캔틸레버는 가장 위험한 구조부재이

다. 그러나 그 위험한 캔틸레버 발코니에다가 설계상에는 없던 중량물을 추가했는데도 안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가 빠져나가는 양측면에는 두께가 얇기는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설계한다(그림 4). 그런데 그 벽의 높이가 적어도 난간높이는 되기 때문에 강성이 매우 커서 충분히 보 역할을 해주고 있음으로 해서 발코니 슬래브가 저절로 보강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구조설계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습성에 따라 어떤 이는 구조계산규준에서 제한하는 최소치, 다시 말하면 아슬아슬하게 설계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여유에 더 여유를 두어 안전위주의 설계,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안전, 불안 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림 4)



8.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것이어서 거실과 침실2가 마루바닥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너도나도 마루바닥을 온돌로 개조하는데 관리소에서는 이를 묵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된다고 저지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설계 당시 그만한 하중을 더 지탱할 수 있도록 넉넉한 구조부재를 선정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계산을 제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구조계산값과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산수치대로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야 웅음데도 끄떡없이 서있는가 하면, 별로 염려하지 않던 부분에서 말썽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9. 이상에서 아파트의 구조변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이는 개념적인 얘기일 수 밖에 없으므로 만능의 진단이나 처방을 있을 수 없다. 각 아파트마다 그 설계, 시공상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전에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9

현상설계경기 / 113

계획작품 / 119

해외잡지동향 / 121

신입회원 /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8

게시판 / 130

협회소식 KIRA news

「재벌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출」 강력저지 나서

6월 9일 임시총회 개최해 강경대응책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공정위원장)가 건축설계용역업 규제완화를 포함한 「경쟁제한법령 개선안」을 마련, 이달중에 열릴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를 상정키로 함에 따라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가 크게 반발하며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한 「건축설계용역업 규제완화 방안」 내용중에는 현행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건축설계업무를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자기시공공사에 한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이 제안은 당초 지난해말 '시공업체가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 설계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설계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이 되는 대형공공건설공사(100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한 후 99년에는 제한없이 허용할 것' 이라던 당초의 제안을 변경해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협회는 이미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재벌 시공업체들의 「설계겸업」 요구 문제가 「不同意」처리

는 등 주무부처인 건교부 역시 이를 반대해 왔음에도 같은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또다시 같은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건축문화 말살정책' 이라고 밝히고 지난달말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건의문과 함께 전국 회원의 반대결의서명이 담긴 「결의문 및 서명날인부」를 전달했다.

협회는 또한 지난 5월 29일에 열린 제8회 이사회에서 오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제2회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설계자가 책임감리에 참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이달말 공포 예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자격 완화문제가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강력한 법개정반대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입법추진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어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 등 각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이를 종합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 이들 의견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월말경 당초의 개정안을 수정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협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자격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급감리원 또는 건설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됐던 당초의 개정안을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분야 기술

사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인 6월말쯤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우리 협회는 지난달 24일 건교부로부터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한다. 다만, 기술사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행시 참여하여야 한다'로 고친 수정안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5월 27일에 이 법의 제54조 제2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 건축감리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에 참여할 때에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해 건교부에 조정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건축감리전문회사 대표자자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와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과천청사 집회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조선일보와 서울경제신문(97. 5. 15일자) 등 일간지를 통해 법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하단 신문광고문 참조)를 게재한 바 있다.

이사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 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일(제6회)과 5월 17일(제7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 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회

- 제1회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예비비 11,327,200 원)
- 제2회의안 :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회계규정 개정(안)중 제62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
- 제3회의안 : 사무기구 개편 및 직원조 정(안) 승인의 건
- 회장, 부회장, 이사 3인(김광욱, 김기완, 안길원)으로 구성된 5인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후 다시 다루기로 함.

- 제4회의안 : 직제 및 사부분장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5인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후 다시 다루기로 함.
- 제5회의안 : 자문위원 위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이명호 교수외 2인)
- 제6회의안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일시 : 1997. 5. 28(수) 15:00 / 장소 : 울산시건축사회 회의실)
- 제7회의안 : 나주지역건축사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7회

- 제1회의안 :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대구무역센터 및 종합전시장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반복의 건 : 기각)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2, 207명 합격

예년보다 높은 30. 9%의 합격률

지난 5월 11일에 치뤄진 97년도 건축사 예비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올해 시험에는 총 7천1백45명이 응시, 이중 2천2백7명이 합격해 30.9%의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의 합격률인 5.7%(9천1백2명 응시, 5백20명 합격)보다 5배이상 높은 합격률로 이들 합격자중 전문대졸 이상자가 85%, 연령별로는 30대이하가 9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 p.131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발표」 공고 참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건축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용히 일하고 싶다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도 建築士라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백지화 하라!

- 우리는 정부안의 「부서 이기주의」와 「한진 영웅주의」를 엄중 경고한다 -
- 소수결정에 양항하는 경색남발은 전문인 사회를 혼돈에 몰아넣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정부는 대이성 「감리정책의 혼란」, 「건축사 정책의 난맥상」으로 우리의 인내한계를 시험하지 말라 -
- 우리의 마지막이고도 간절한 고언이다 -

대한 건축사 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경기도 건축사회 충청북도 건축사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사회 전라남도 건축사회 경상북도 건축사회 경상남도 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개최

광역시 승격에 따라 경남건축사회에서 독립

울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노진달)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 협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이전 경남건축사회에 소속이었던 울산지역건축사회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현재 소속회원수는 1백14명이다.

타스건축 김인환회원, 클래식 기타 연주회 열어

수준급 연주로 청중 매료

김인환(타스건축 대표)회원의 프로못지 않은 수준높은 기타 선율이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YMCA회관 2층 연주홀에서는 김인환·Peater James Burnside 조인트 기타 연주회가 열렸다. 김인환회원은 이날 연주회에서 기타독주곡으로 널리 알려진 'Capricho Arabe'와 'Minuetto in A' 등을 비롯해 미국인 기타리스트 Peater James Burnside와 듀오를 이뤄 'Moon Light' 등 기타 2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연주곡목인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끝났을 무렵에는 홀안 곳곳에서 청중들의 양팔이 쏟아져 나와 미처 양곡곡목을 정하지 못한 두 연주자가 잠시 당황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현재 타스건축사무소를 운영중인 김인환회원은 전복대 재학시절부터 클래식 기타에 심취해 이전에도 몇 차례 연주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며 기회

가 닿으면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에서 기념연주회를 열고 싶다고 밝혔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한 김회원은 특히 찬송가를 편곡해 여러 교회로 순회하며 연주를 갖고싶다고 한다.

「부산건축사화우회」

해외 정기스케치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고대 역사도시 스케치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으로 해외 정기 스케치전을 다녀왔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우회 회원들은 여행기간동안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오나라 도읍지인 수향인 쑤저우와 예향 항저우 등을 답사하면서 자연풍광과 전통건축물들을 마음껏 스케치했다며 올해 정기작품전 때 이들 작품들을 화폭에 담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벽식공동주택 설계

사례집 발간

실무적용 사례 등 수록

우리 협회 건축설계표준화위원회가 「벽식공동주택 설계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설계 사례집은 그동안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표준화(MC) 설계를 첫번째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실무적용 사례와 지침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제1장에서 MC설계 기준으로 수평 수직 모듈설정 방법 및 기준선도 설정 방법, 창호표준화 모듈 설정 방법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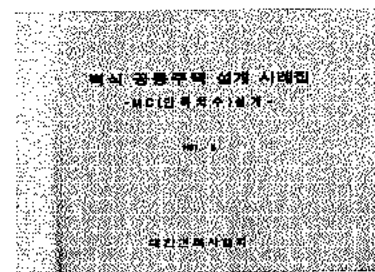
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실제 적용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은 협회가 연초 교재로 발간한 '표준화설계 가이드북'과 함께 MC 설계를 하는 설계실무자에게 설계프로세스에 따른 적용방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첫 적용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를 통하여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배포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퍼넨/A3판형/135쪽/직접구입시 1만1천원, 우편구입시 1만 3천원

문의: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02-581-5711~4)



건축계소식 archi-net

헌법재판소, 건축법 14조 및 78조 위헌결정

구체기준·범위 없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벗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제14조 및 7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는 29일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낸 건축법 14조 및 7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돼 있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범죄구성 요건을 명시토록 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5월 30일자 기사 전재>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초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구분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올해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성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초대전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전으로 구분해 작품을 공모하며 응모작중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갖는다. 초대전 응모작은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공모전은 11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각각 작품을 접수받는다. 일반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 관련 작품내용을 포함한 건축창작품을 규정된 패널과 모형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응모자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서 교부하는 응모원서(출품원서대금 5만원)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일반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 3점에는 상장과 상금 각 2백만원씩이 수여되며 또 특선 약간점에는 상장 및 상금 각

5십만원, 입선작 다수에는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발표된 주요 공모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품규격 : 패널 - 90cm×180cm 이내 (가로, 세로 비례는 자유로 도면에 주제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 모형 - 가로90cm×세로90cm×높이90cm 이내
- 심사위원 : 김인철, 김창수, 김창일, 박춘근, 배병길, 윤승중, 최영집
- 발표 : 1997. 11. 18
- 시상일 : 1997. 11. 28. 15:00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제2회 건축사진전시회」 출품작 공모

건축가협회, 건축물을 소재로 한 미발표 사진 공모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에서는 건축물의 조형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이를 공유하고 나아가 일반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회 건축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출품작은 국내외 건축물을 소재로 한 11"×14"사이즈의 건축관련 사진(원판첨부)으로 건축가는 물론 건축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일정 및 출품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모부문 : 컬러 및 흑백
- 원서교부 : 1997. 6. 16 ~ 9. 4
- 접수마감 : 1997. 9. 4(목) 오후 5시
- 출품방법 : 원서 및 출품작품 제출
- 출품비 : 1작품당 20,000원(출품작 수는 1인당 3점 이내)
- 심사위원 : 추후발표
- 심사결과 발표 : 1997. 9. 11(목)
- 시상식 : 1997. 11. 28(금) 오후 3시 / 예술의 전당
- 전시회 : 1997. 11. 19(수) ~ 11. 30(일) / 예술의전당 미술관

-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예총회관 5층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97 충북건축디자인캠프

“청주 도시복합주거” 주제로
이달 25일부터 4일간 열려

충북건축사회 등 충북지역 건축3단체가 주최하는 제5회 충북건축디자인캠프가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열린다. 충북지역 건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올해의 디자인캠프 주제는 ‘청주 도시복합주거’로 이일훈 연구소 소장과 서울시립대 송인호 교수가 ‘채나눔 작업’, ‘도시중정’ 등에 관해 특강을 한다.



홍익대건축학과, 英 AA School과 자매결연

내년부터 학점교류, 교환교수제 등 시행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가 영국 AA School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홍익대 건축학과는 지난 5월 10일 내한한 AA School의 Mohsen Mostafavi 학장과 양교간 친선과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이들 두학교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교환교수제, 학점교류, 전시행사 등 양교 학문발전을 위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한편 이날 홍익대는 관련학과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Mohsen Mostafavi학장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홍익대 건축동문회 신임회장 서상우 교수

동문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단
선출

홍익대 건축동문회는 지난 5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제12대 회장에는 서상우(국민대 건축학과)교수가, 부회장에는 강건희(홍익대 건축과 교수), 문신규(토탈디자인 대표), 김복수(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박승(삼우설계 대표)씨가 선출되었다.

경기대 개교50주년 기념 작품전

6월 23일부터 포스코센터 전시장에서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포스코센터 2층 전시장에서 건축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대학원의 97학년도 1학기 건축전과 건축공학과 4학년생들의 졸업작품전을 「개교50주년기념 특별전」으로 꾸민 것으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학부 졸업전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대학원 봄학기과정 작품전이 각각 열린다. 특히 대학원 작품전의 경우

건축과 기술, 건축드로잉 과정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9개 디자인 스튜디오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전시 개막일인 6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송효상(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대표), 김종규(마루건축 대표)씨 등 현역 건축사들이 비평가로 나서는 OPEN CRITIQUE도 열릴 예정이다. 또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의 경우도 그동안 우경국(서울캠퍼스 디렉터 / 예공건축 대표), 배병길(수원캠퍼스 디렉터 / 배병길 건축연구소 대표)씨가 디렉터를 맡아 '관계와 흐름'을 테마로 서울 양재천 주변을 대상으로 각 스튜디오에서 연구한 작업들을 전시하며 역시 전시 개막일인 6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구영민(인하대 교수), 이종건(동명정보대 교수), Methew(삼우설계)씨 등 현역 건축사들이 참가하는 OPEN CRITIQUE이 열린다.

문의 : 수원캠퍼스 0331-40-7608 / 서울캠퍼스 02-390-5154(건축공학과), 02-390-5245~6(대학원)

「제8회 김수근 건축상」, 수상자에 故 장세양씨

수상작은 '경기도립박물관'

올해 「김수근 건축상」의 수상자로 故 장세양씨가 선정되었다. 김수근 건축상을 제정, 주관하고 있는 김수근문화재단(이사장 이경성)은 지난 5월 23일, 8화째를 맞는 올해의 이 상 수상자로 故 장세양씨를 선정하고 그가 설계한 경기도립박물관을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립박물관은 건축전문위원회가 추천한 총 18개 후보작 가운데 심사위원단이 시대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작가의 세계를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가린 결과 최종 수상작에 선정된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인 故 장세양씨가 작

년에 타계하기 전에 완성한 건축물로 작가의 거시적 건축관이 그대로 건축으로 구현된 작품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연과 건축공간, 전래적 요소와 현대건축, 곡면과 평면의 외형을 작가 특유의 감성적 기법으로 교합하여 일반적으로 박제화되기 쉬운 박물관이라는 공공장소를 지형, 공간, 시간, 상징(Symbol)과 형상(Form)을 거침없이 수용한 역사와 인간의 무대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작가인 故 장세양은 김수근의 건축정신과 조형기법을 이어받아 한국건축을 대표해 온 건축가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86년부터 (주)공간을 이끌어 왔으며 생전에 서울 차병원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 수많은 국내 유명 건축물을 설계했다. 이번 심사에는 김봉렬, 민현식, 박길룡, 송효상, 이종호씨 등이 건축전문위원으로 참가해 1차적으로 후보작들을 추천했으며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김종성(서울건축 대표), 김병현(장건축 대표), 윤승중(원도사건축 대표)씨 등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맡았다. 한편 올해 심사에는 원실업 천안공장(최승원)을 비롯해 만종감리교회(백문기), 독성전철역앞 오피스(조성룡) 등이 최종심사에까지 올라 경기도립박물관과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 「작품집 출판기념회」

훗카이도 석채(石彩)교회 등
주요작품 소개

재일한국인 건축가로 일본에서 활약중인 이타미 준(伊丹潤, 60)씨의 건축작품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이타미 준 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일본건축가협회 정회원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벌여와

일본건축계에 잘 알려져 있는 중견 건축가로 이번 작품집에는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해 온 지난 30년간의 작품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건축에 미술을 접목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종합예술화를 추구해온 그는 조선시대의 민화와 전통 건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온양미술관과 서울의 각인당, 일본 홋카이도의 石彩교회 등이 있다.

이광노 교수, AIA 명예 특별회원 임명

AIA주최 건축엑스포에서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미국건축가협회(AIA) 총회에서 AIA 명예특별회원에 추대됐다.



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

6월 주제는 「'근대건축'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조망」 등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발표회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홍익대에서 열린다. 이번달 발표회에서는 「'근대건축' 개념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비롯,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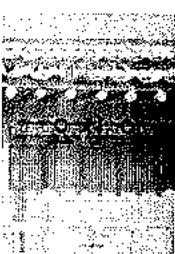
관 건축과 계단시설」, 「도시공간내에서 구체적 경험의 형태로서의 건축」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이상현(인우건축), 이재익(수원대 교수), 조승구(동명정보대 교수)씨가 발표한다. 6월 발표회는 특히 근대건축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킴으로써 근대건축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한국에서의 근대건축에 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관심이 모아진다.

문의 : 동양공전 박명덕 교수 (02-610-1806)

건축신간 안내

집짓는 이야기-요철요/
Hyper Architect ~

◇ 집짓는 이야기 - 요철요



이 책은 서울 환경 계획연구소를 운영하는 저자 현영조씨가 폐허로 방치되었던 인천의 어느 한옥을 헐면서 나온 현자재를 이용해 남한산성에 새로이 집을 짓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는 한옥을 해체하는 과정과 새집을 짓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요철요의 건축요소'를 비롯해 요철요를 지으면서 일어났던 애기거리들과 각 공간에 대한 기능해석을 엮은 '요철요의 사연', 요철요의 건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요철요의 공간들' 그리고 저자의 주생활공간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후진적인 도시는 정신병원이다', '현재의 주생활공간은 혁신되어야

한다', '철학적인 삶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후반부에는 우경국(예경건축 대표)씨와의 대담내용이 실려 있어 요철요의 이해를 깊게 해주고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요철요의 상량식에서 읽은 상량문이 실려 있어 전통가옥으로서의 요철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건축도서출판공사 펴냄 / 4×6배판 / 181쪽 / 2만2천원 / 문의 : 02-547-6156~7

◇ Hyper Architect-건축·컴퓨터·프리젠테이션



그래픽을 근간으로 하는 첨단 건축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주)동우건축

이 창립20주

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정보화사회가 몰고 올 디자인 혁명을 준비하는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은 건축가가 풍부한 디자인 사고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써 건축에 접근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함은 물론 건축설계개념을 발전시키거나 설계아이디어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의 핵심요소중 하나이다. 이 책은 다양한 컴퓨터 프리젠테이션 사례와 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컴퓨터로 인해 건축가의 창조적 영감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컴퓨터를 기초로 한 건축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이론적 기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강철구·이현수홍 / 도서출판 학천 펴냄 / 192쪽 / 26cm×26cm 컬러 양장본 / 3만6천원 / 문의 : 02-512-1373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제주의료원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창원시립서상도서관

제주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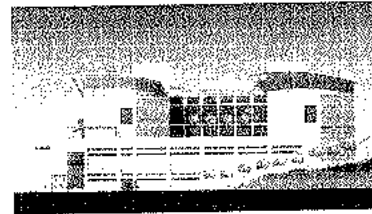
Cheju Medical Center

이 현상설계경기는 제주의료원의 이전에 따른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총 12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결과 삼우설계(한상목+이해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5월 6일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현신건축(김희수)안과 서건건축(엄 웅)안이 각각 선정됐으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석윤(김석윤 건축), 김세봉(제주 전문대 교수), 김태일(제주대 교수), 문창호(군산대 교수), 손영수(제주대 교수), 이명호(중앙대 교수), 이신호(보건의료 관리연구원), 이용희(제주 의료원장), 주종원(서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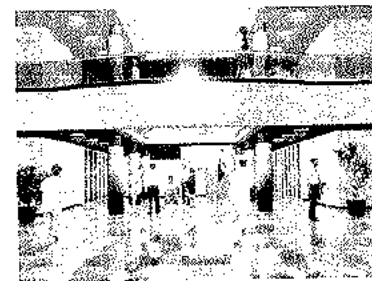
▶ 당선작 / 삼우설계 (한상목+이해원)



조감도



투시도



내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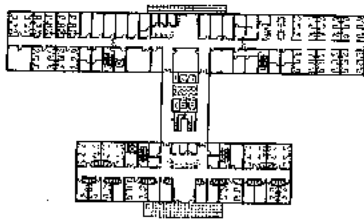
위 치	제주도 제주시 아좌 1동 4-13
대지면적	52,739㎡
건축면적	5,216㎡
연 면 적	21,342㎡
건 폐 율	9.8%
용 적 륜	29.3%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외벽 - 국산화강석(가평석) Stonecoated 미감 THK 16 복층유리 지붕 - 동판접기
프로젝트 팀	건축 - 이승호, 이진섭, 김명희, Matthew Vander Borgh, 박순희, 오정민 조경 - Paul Blazek 컴퓨터시뮬레이션 - 황수영, 류준식, 어수기, 장일선

30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현상설계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설계안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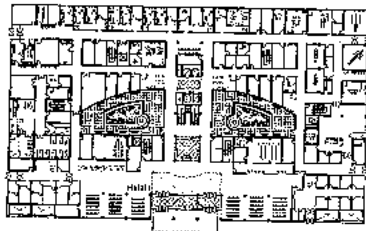
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대하면서 모든 참여 인원이 가졌던 의문이다. 제주의료원의 이전을 위한 이 현상설계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연면적은 약 6,000평에 달한다. 부지는 제주시의 외곽에 위치하며, 5·16제주 순환도로에 인접한 옥장부지이다. 비 오는날 처음으로 찾아간 부지는 초봄의 신록으로 뒤덮여 제주의 아열대성기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라산의 북경사 면에 위치한 탓에 가장 채광이 좋은 자리가 북향해 있다는 점 때문에 배치계획의 결정에서 주출입구의 위치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러한 활발한 토론이 이번 현상설계의 당선으로 이어진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배치대안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300Bed를 수용하는 병동부(Nursing Tower)의 형태와軸에 관한 것. 그리고 별다른 지침없이 요구된 영안실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진입로는 기존의 폭이 좁은 연결도로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에 접근하는 동선이 길어졌지만 이를 확실한 Gate로 삼아 인근의 제주대학의 교문에서 보이는 빛꽃터널 같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Way Finding을 쉽게 하고 마치 공원을 방문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병동부는 최초의 “꺾인 H-字形”에서 대칭을 이룬 형태로 변형하여 각 병동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했다. 일반 병동과 노인병동, 정신병동의 동선이 혼재된 가운데 “병동간의 적절한 분리과 향후 용도변경에 대비한 연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병동 디자인의 최고 주안점이었다. 입면에서는 초기안에서 제안된 강한 하이테크한 느낌의 지붕보다는 제주 성읍마을 초가의 이미지에서 빌려온 부드러운 Vault형의 지붕을 씌우는 안이 병원의 이미지에 잘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디자인의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4월 중순이후 입면 디자인은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힘든 작업이었다. 짧은 시간안에 디자인을 마치느라 무척 힘이 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대하고 보니

그간의 피로가 많이 가시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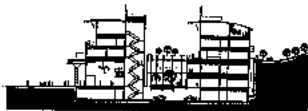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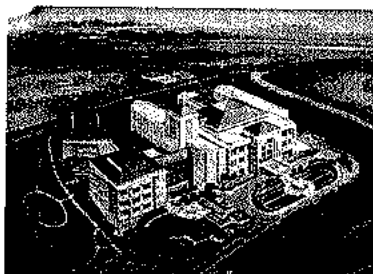


단면도-1



단면도-2

▶ 우수작 / 현신건축(김희수)



조감도

대지면적	57,739㎡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6,120㎡
연 면 적	20,338㎡
건 패 율	11.6%
용 적 륜	38.6%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계획

자연적인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평

면 및 단면계획으로 병동과 진료부를 수평적으로 분리한 분동식으로 구성하였다. 병동의 배치는 탁트인 자연과 접하여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동부에 인접한 옥외공간에 선글라스 및 치유의 정원, 물의 정원, 암석의 정원 등 각종 정원을 계획하여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평면계획

1층에 모든 외래진료과를 배치하여 중앙진료부와 수평, 수직적으로 연결하였으며 외래환자는 1층에서 진료와 처치가 가능하게 하여 수직동선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동부와 중앙진료부를 수평으로 연결시켜 환자의 동선을 단축시켰으며 정신과 병동은 별동으로 계획하여 다른 시설과 동선을 분리하고 옥외출입동선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입면계획

제주도의 오름을 상징하는 모임지붕 형태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한라산의 크고 작은 오름과 조화되는 입면을 구성하였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별장식의 의료시설로 계획하여 도로변의 개방공간에 조화를 이루는 매스의 분절, 리듬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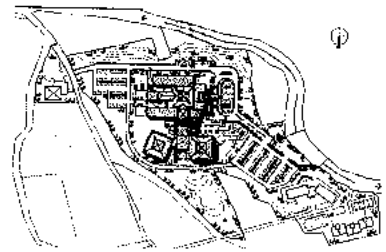
단면계획

인텔리전트 빌딩(I.H.S)의 개념을 도입한 현대사설의 의료원으로서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층고를 높게 하고 향후 증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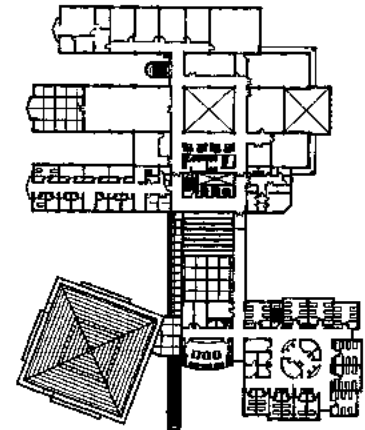
자연의 경사지형을 이용하여 노인병동의 옥외출입은 지하1층에서, 정신병동의 옥외출입은 1층에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방문객이 많이 예상되는 노인병동은 주출입구층에 일반병동은 이용빈도가 높은 중앙진료부가 있는 층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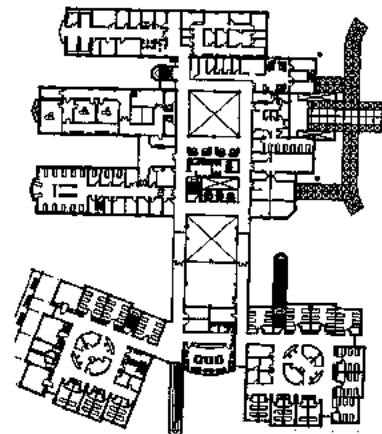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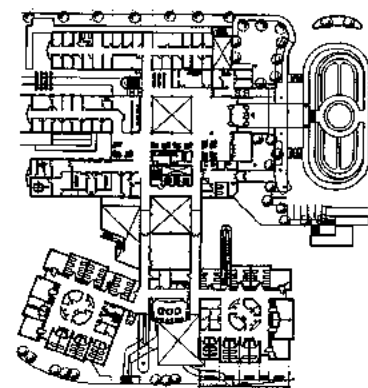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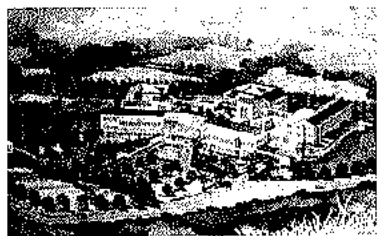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서건건축(임 웅)



조감도

위 치	제주도 아라1동 4-13의 11필지
지역지구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52,739㎡
구 모	지하1층, 지상4층
병 상 수	노인병동 - 92병상(호스피스 16병상 포함) 일반병동 - 92병상 정신병동 - 100병상 중환자 - 12병상 총 병상수 - 296병상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면적	7,058.72㎡
연 면 적	20,368.62㎡
건 폐 율	13.38%
용 적 륜	29.63%
주차대수	181대(기숙사, APT, 장의예식장 주차 제외)
계획담당	이항렬, 홍계열
설계담당	엄정웅, 우현배, 이동훈, 손태일, 최미자, 어철환, 장천수, 유헌선, 김진희, 김연정, 조수연

Concept

이 제주의료원 설계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요양병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 요양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연 환경과 내부 공간과의 긴밀성 - 바람 · 공기 · 물 · 햇빛 · 흙을 건축 안으로 끌어들이고 - 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특히 의료 시설과 고령화의 연관성에 착안하여 노인 요양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김박김보다는 여유로움을, 소독냄새보다는 향치의 향을, 차가운 의료가구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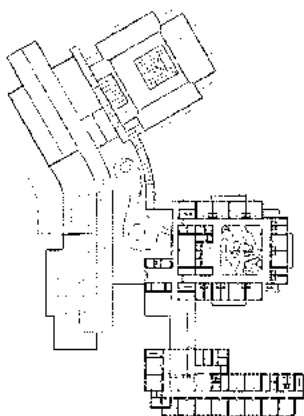
따사로운 햇빛을, 바라만 보기보다는 거닐며 만질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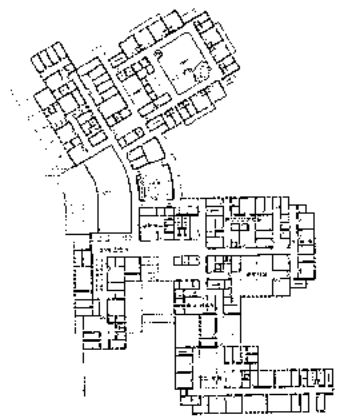
- 우수한 주변 경관을 외부공간으로 적극 활용
- 자연 안의 요양병원
- 외부 자연 환경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개방성 있는 로비
- 환자들의 Activity를 고려한 실내 중정
- 가정과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연출하는 환자의 공간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형단면도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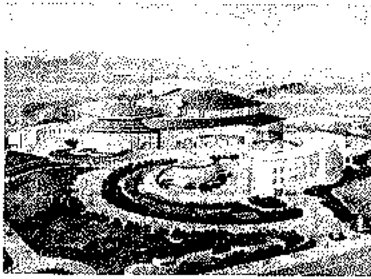
Cheju Civil Culture & Welfare Center

제주도는 시민의 휴식처와 문화교류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서 또한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주시민문화복지회관 건립,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4월 7일 현신건축(김희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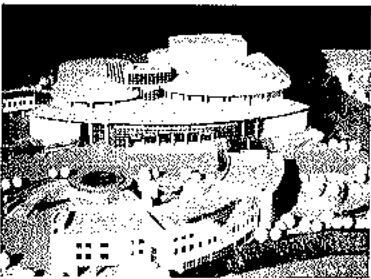
이번 설계경기는 최종 사전 서류심사를 거친 5개업체(현신건축, 성림건축, 금성건축, 포스에이씨, 세진건축)와 추가 선발업체(청화건축, 삼정건축, 제주 소재 2개소)를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했다. 당선작에게는 설계전을, 지망업체에는 1천만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기(구미공전 학장, 위원장), 김광문(한양대 교수), 정재철(국민대 교수), 윤도근(홍익대 교수), 문기선(제주대 교수), 이봉만(제주시의회 총무위원장), 김성흠(제주시 총무국장)

▶ 당선작 / 현신건축(김희수)



조감도



모형

위 치	제주시 도남동 1070번지의 49필지
대지면적	54,202㎡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건축면적	6,119.05㎡
연 면 적	19,120.12㎡
건 폐 율	11.29%
용 적 륜	35.28%
규 모	지하2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옥외체육 시설
주요외장재	지붕 - 천연슬레이트석 외벽 - 제주석, 화강석, 컬러록 충유리

"한라산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에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서 한라산을 형상화하고 제주도 꽃을 수놓아 제주도 특유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웅기종기 모인 오두막집을 구상하였다. 제주시민의 안식처로써 이바지하는 장소가 되어 주고 싶다."

30여만평의 드넓은 자연공원의 일부인 본 대지에서 계획의 주안점은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진입하도록 하고 지형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주 진입 광장을 데크로 높여서 '올래, 올래

목, 안거리, 밖거리' 등의 제주도 전통 건축의 공간구성 개념에 따라 공연장 건물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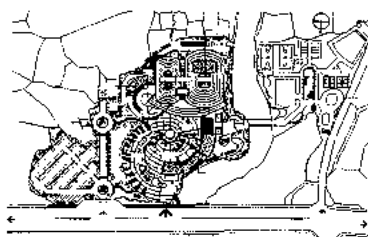
진입로 입구에서 문화회관 입구까지 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배치와 조화되는 동심원 구성으로 계획함으로써 '제주설화 조각공원, 제주 화훼단지'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서서히 시야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극장과 소극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로비와 아트리움으로 내외부공간의 연계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특히 관광객을 위하여 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지하층의 전시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로비에서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였다.

주진입 광장을 데크로 높임으로써 지하층을 야외 전시장과 같은 레벨로 계획하고 여러 곳에 선관을 두어 지하층의 모든 부분에 자연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외부에서의 자연스러운 출입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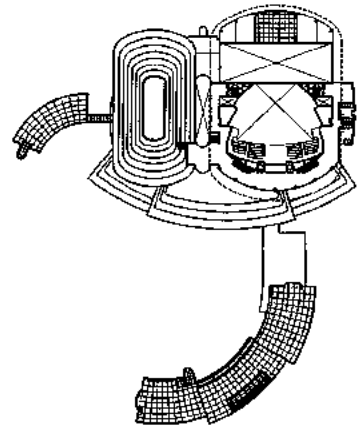
옥외 조각전시공원을 활성화하여 문화회관 지하의 전시실 기능을 옥외로 연장하고 복지시설동의 앞마당 역할로써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였다.

한라산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단식 지붕의 상단과 하단사이에 매입식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지붕의 윤곽이 운치 있게 보이도록 적극적인 조명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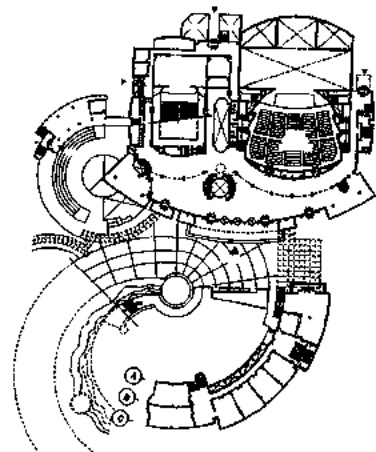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제주시민의 휴식처와 문화적 교류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의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으로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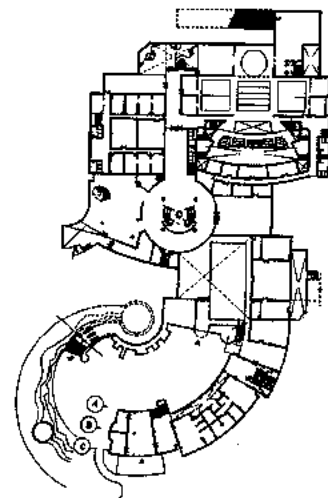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소공연장 단면도



대공연장 단면도

창원시립 서상도서관

Changwon Suhsang Municipal Library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중심지인 창원시에
서는 21세기 지방의 세계화와 자치시대
에 경쟁력있는 시로서 그 면모를 갖추어
야 할 때에 마산과 창원 일대의 그 지역
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주민의 레크레이션
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일반공개로 설계경기를 실시
하여 지난 4월 12일 매사건축(전재근)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종
18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
수작은 창원의 등건축(노영웅)안이, 가
작은 가원건축(임부춘)안이 각각 선정됐
다. 이번 설계경기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조훈(창원시 부시장, 위원장), 김정덕
(창원시 도시계획국장), 윤장우(창원시
건축종합민원실장), 배사문(창원시 시의
원), 조성기(부산대 교수), 박시환(부산
대 교수), 박춘근(동아대 교수), 조용수
(동아대 교수), 서유석(창원대 교수), 김
무권(하나그룹), 김인철(아르키움), 김
영섭(건축문화)

▶ 최우수작 / 매사건축(전재근)



조감도

위 치	경남 창원시 서상동 산 50번지 일월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원지구)
대지면적	10,008.0㎡
건축면적	1,159.46㎡
연 면 적	5,091.31㎡
건 폐 율	11.59%
용 적 륜	34.37%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화강석 버너구이, 24mm 파스텔
복층유리

형태(Mass)계획

- 구성
 - 도서관의 각각의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매스(Mass)로 구
성
 - 열람동 : 기능의 최적화를 위한 장방
형의 직사각형 형태
 - 장애인, 모자열람동 : 대지와 주변의
자연녹지의 자유곡선을 형상화시킨 자
연스러운 형태 도입
 - 사무, 회의동 : 외부공간의 다양한 연
출을 위해 열람동과 장애인, 모자열람
동 두개의 Mass를 자연스럽게 연결
시키는 브릿지 형태 채택
- 상징성
 - 서상공원내의 오브제(Object)로서 상
징적인 형태 구성
- 다양성
 - 기존의 무난하고 특징없는 형태의 도
서관형태를 탈피하고 주변의 대지현황
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형태
의 Mass 채택
- 친근감
 - 이용자들의 진입이 편리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

평면계획

- 개념
 -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용의
편리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 공간의 효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
성을 확보
 - 합리적인 내부공간 구성과 주차를 위
한 기본 모듈채택
 -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향
을 고려한 평면구성
- 진입
 - 대지 레벨을 이용해 다양한 진입계획
- 열람동
 - B.D.S(Book Detection System)영
역을 도입한 개가서고 계획

- 지역주민을 위한 그룹스터디실 계획
- 첨단정보와 컴퓨터 도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파크(Cyber park)계획
- 주변의 자연녹지로의 시각확보와 일정
한 조도의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위해
루버사용
- 각각의 실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완
충공간으로서의 중앙홀 계획
- 사무동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기
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 옥상공원의 계획으로 외부공간의 다양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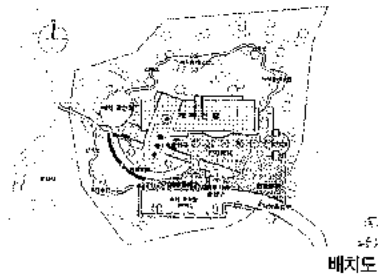
입면계획

- 이미지
 - 서상공원내의 자연 환경에 융화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 추구
 - 서상공원내의 오브제로서의 이미지형
성과 정면성 확보
 - 현대적인 감각의 매스와 도서관의 기
능 및 이미지에 부합되는 입면
- 입면
 - 각동의 매스의 균형과 조화에 의한 상
징성 부각
 - 주위 자연 환경, 대지의 특성, 건물의
배치를 고려한 Void와 Solid, 면과 선
의 조합에 의한 수직·수평적인 입면
요소 디자인
 -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
할 수 있는 철과 유리에 의한 투명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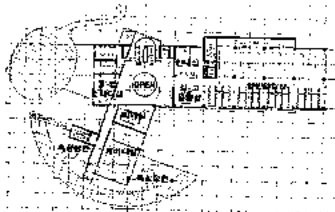
단면계획

- 수직적으로 열람기능과 사무 및 대민봉
사 기능으로 분리하여 배치
- 선큰을 서비스 공간과 연결하여 채광
확보
-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열람자와
관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
- 선큰에 의한 지하공간의 채광확보
- 층고 및 천정고의 계획에 있어 각 실의
기능과 용도에 알맞게 하여 휴먼스케일
에 의한 친근감을 주도하도록 한다.
-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층
고로 계획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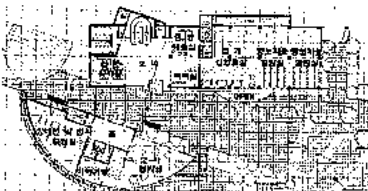
비용절감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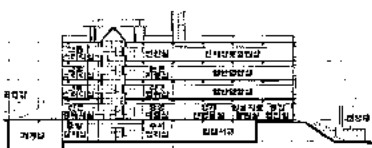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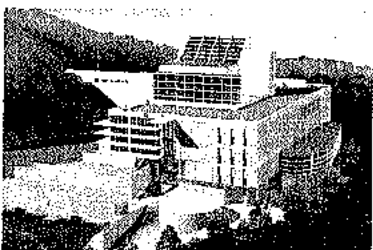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침단면도

▶ 우수작 / 돔건축(오영웅)



정면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대지면적	10,008.0㎡
건축면적	1,810.0㎡
연 면 적	5,189.89㎡
건 폐 율	18.09%
용 적 륜	46.26%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면계획

- 1층

- 전시/상연영역과 도서열람영역
주진입축을 경계로 하여 전시/상연영역과 도서열람영역이 나누어짐으로써 이용의 직접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도서검색 시스템(Book Detection System)
주출입 현관에 도서검색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도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주 진입층인 지상1층에 주부와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열람/놀이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이용의 편리를 기함과 동시에, 독서실화된 도서관의 이미지를 지양하였음.
- 전시/상연영역에 배치된 식당/소매점을 옥외공간인 데크와 연결시킴으로써,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유도함.

- 지하1층

- 서비스영역 -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작업실을 집중배치하여, 업무의 효율과 동선의 혼란을 피함.
- 도서의 흐름을 고려한 배치계획 - 포장 하역대를 통한 도서 반입 및 목록작성, 발간/제본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반입도서의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북리프트(Book lift)를 이용하여, 반입처리된 도서가 서고로 손쉽게 이동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지하층의 남동측이 외기에 면함과 동시에 선관을 두어 직원들의 직접적인 접근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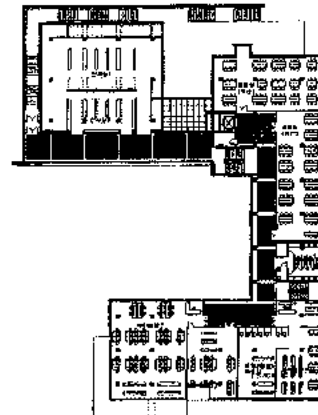
- 2층

- 전시/상연영역에 배치된 강당겸 제1세미나실을 통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의 상연을 통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도서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을 제고함.
- 각종자료실 및 정보검색과 관련된 기존 도서관 업무를 단순화, 밀접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쉽게 하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서고의 위치를 북 리프트(Book l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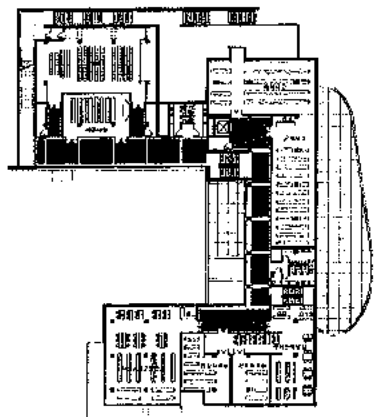
에 근접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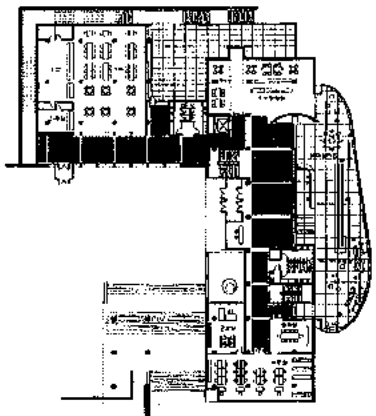
- 전시/상연영역에 전시실을 배치하여, 도서관의 상설전시 및 지역인들의 전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멀티미디어 기능의 열람실과 학생열람실을 상부에 배치하여 주 이용대상자였던 학생층의 이용을 상층부로 끌어올림으로써, 도서관 전체의 이용률을 높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계획작품 blue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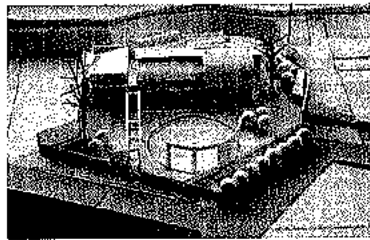
귀여리 주택

태평양시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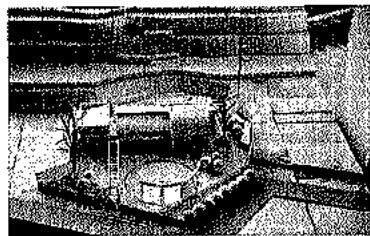
귀여리 주택

Guiyeori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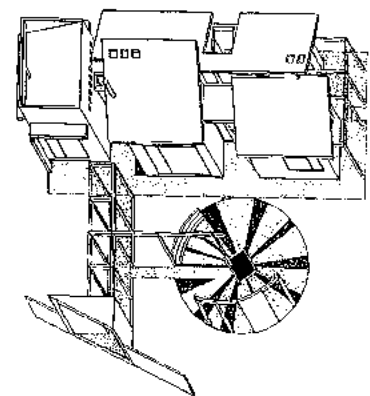
김희곤 / 홍간건축



모형 1



모형 2



위 치	경기도 평주군 귀여리 303번지
대지면적	744.0㎡
지역지구	도시, 자연녹지,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건축면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연 면 적	주택 : 99.06㎡ 창고 : 29.70㎡
건 폐 율	17.30%
용 적 륜	17.30%
규 모	지상1층
최고높이	5.10m
용 도	주택, 창고
도 로	2.5m, 3.5m도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참여자	원윤정, 박주환

빛과 녹색의 공존

현대인에게 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파열 정주자를 위한 주택인가? 노마드를 위한 주택인가?

이 주택은 노마드와 정주자의 중간에 있으며 사회의 정보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의한 변화를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마음이 따뜻한 중년부부를 위한 주말주택이 아니라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다.

처음부터 관념적인 형태조작보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재편집하는 그 가슴 벅찬 순간에서부터 어딘가 삶의 또다른 향기와 인생의 근원이 다시 만져지는 확실한 공간을 현대의 도시인에게 꿈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과거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현재의 밑거름 속에서 과거의 맛이 배어서 미래에 대한 강한 욕구와 삶의 건강한 추진력이 생기길 원했다.

형태의 현대적·기하학적 조작에 대한 의미보다는 태양과 녹색에 대한 소박한 욕구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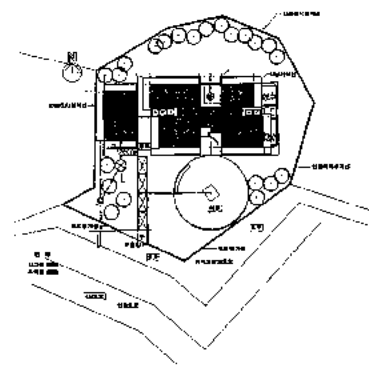
이 주택의 주된 관심사는 서울의 생활무대, 즉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노년을 보내는 주거가 아니라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사이 공간과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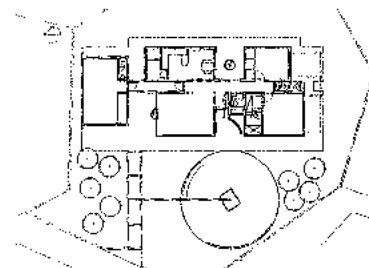
의 높낮이 조절에 의한 수평공간의 다층화 그 틈새로 투과되는 빛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유도했다.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와 외부의 돌담길, 마당의 형태적 현대화로 일년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퍼포먼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삶이 더욱 풍족하고 재미있게 연출되길 기대했다. 낮의 빛과 녹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밤의 인공적인 빛에 대해서 고민했다.

도시의 자기과시의 빛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박하지만 촉촉하는 빛에 의해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길 기대한다. 건물이 작은 자연이고 또 큰 자연의 일부로 연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은 주택이다. <글 : 김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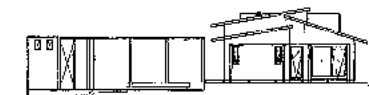
배치도



평면도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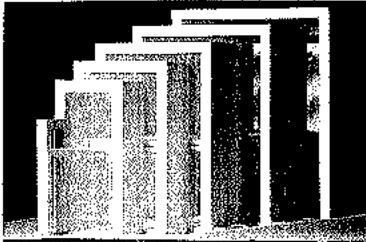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태평양시대 위원회

Pacific Age Committee Center

김인철 /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모형1



모형2

위 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9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371.9㎡
건축면적	62.64㎡
연 면 적	212.69㎡
건 폐 율	59.81%
용 적 륜	109.65%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8.4m
총 고	2.4~4.5m
주요설비	패널히팅
주요용도	문화시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19.48㎡
설계담당	허진성, 차기팔
모 형	이종걸

금화터널을 나와 세브란스로 내려가는 도중에 연세대의 후문으로 통하는 골목 길이 있다. 후문 못미처 김동길 박사의 태평양시대 위원회로 쓰이는 주택건물이 있고 그 앞마당에 이 공간이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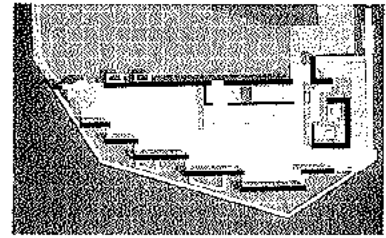
김옥길 이화여대 전총장과 함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김박사는 차를 마시고 그림을 보며 때때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원하였다. 이왕의 살림채를 뺀 나머지 여유는 18평, 이층을 만들고 지하는 조금 넓게 파기로 하였다. 주인은 희망만 이야기하였을 뿐 아무런 주문도 그리고 조건도 달지 않았다.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열린 벽들을 세웠다. 안채와 나란히 큰 벽에 의지하여 커다란 작은 벽들이 틈을 만들어 길을 향하고 있다. 막힘과 열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을 위해 콘크리트와 유리 외에는 모두 억제되었다. 프레임까지 생략된 극소의 디테일로 건축의 물성(物性)을 무성화(無性化)시키려 했다.

공간의 열개만으로 역할하는 벽은 틈을 만드는 장치일 뿐이다. 열림으로 인해 스며들거나 배어나갈 무형의 공간으로 건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가두어지지 않는 공간을 가두려 애쓰기보다 풀려난 공간의 영역이 방해받지 않고 무한히 확장되었으면 한다. 크기를 초월하는 것은 크기를 없이는 것이다. 18평 공간의 구체적인 크기와 상징적인 의미의 크기를 대비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치밀하게 고려된 의도보다 비록 우연이었다 할지라도 예정되지 않은 결과에 의한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단순함과 쉬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인의 희망은 대지를 제공하고 비용을 마련한 당신에게 설계자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또 주문하기를 2096년에도 누구누구의 작품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2096년에도 남아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누군가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불리우고 있을 것이라 장담하였는데 김박사는 방긋이 웃기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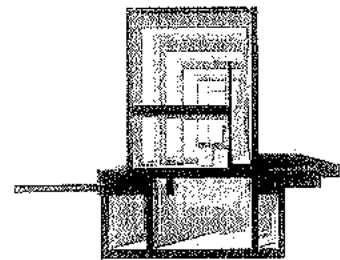
〈글 : 김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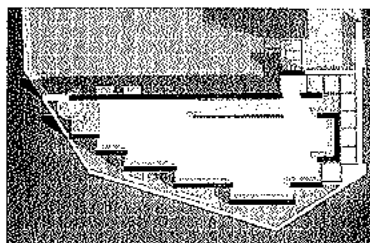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절단면도



종단면도



2층 평면도

Domu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 + u

신건축

Domus

97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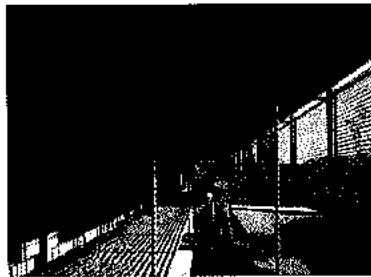
2월호에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포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제16회 베니스 비엔날



레중에 열린 '건축잡지의 미래'에 관한 워크숍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밖에 포장을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작품들과 산업계에서의 포장 아이디어 상품들이 소개되었다.

포장

건축에 있어서의 포장, 피복, 즉 구조체와 외관의 문제는 고트프리트 젠퍼 이후로 끊임없는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의 건축가들은 구조와 외관의 괴리를 부정하고자 했지만, 오늘날 건축의 피복이 그 구조로부터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투어스 과학기술관(Franck Hammoutène작)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는 작가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매개물이 되는 것이다. 생각자체는 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형태는 통신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수불가결성에서 우리는 외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입면이 또 하나의 차원으로써 독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축의 예로, ▶체코의 전통적인 맥락과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있는 건물로 두개의 은유적인 형상, 즉 미국 영화계의 진저와 프레드를 통해 그 나라의 자유화와 미국의 침공을 형상화하고 있는 Frank O. Gehry의 체코 프라하 오피스 건물 ▶검은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실제의 구조적 표피와 철제로 구성된 또 하나의 표피가 노출과 숨김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Franck Hammoutène의 투어스 과학기술관 [사진] ▶Pierre Hebbelinck의 벨기에 와림 P&V 보험사 사무소 ▶ARTEC의 오스트리아 빈 초등학교 ▶Carl-Viggo Hølmekbakk의 오슬로 벽돌집 ▶René van Zuuk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훈련센터 등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잡지의 미래에 대하여

지난 9월 제1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전세계 건축잡지사 편집장과 건축가들의 워크숍이 열렸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 매체들 사이에서의 건축잡지"와 "건축계에 대한 건축잡지의 영향"이라는 두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부분적 발제가 게재되어 있다.

기타

▶포장을 하나의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Christo와 Jeanne-Claude의 작품 세



포장을 하나의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Christo와 Jeanne-Claude의 작품

계 [사진] ▶산업계의 다양한 포장 아이디어와 그 상품들 ▶Michele De Lucchi와 Mario Rossi Scola의 극소주의적 형광등 작품 ▶Massimo Iosa Ghini의 상점 진열 디자인 ▶덴마크의 신세대 건축사무소 Chiasmus의 코펜하겐 항구 계획안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예술가 Marina De Caro의 조각, 의상, 패션쇼, 행위예술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작품세계 ▶그래픽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평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건축가 Caccia Dominioni의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약도 ▶Rudolf Steiner, Agrest and Gandelsonas의 작품집에 대한 소개 등이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e

97년 3월호

3월 호에서
는 Van Ber-
kel+Bos의
작품을 중심
으로 네덜란
드의 초근대
주의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에
의해 확대된 시공재료의 허와실에 대한
기사가 작품과 함께 게재되었다. 이밖에
건축계의 스카웃 열풍, 미국 시애틀의 도
시계획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네덜란드의 초근대주의 건축

네덜란드의 Ben Van Berkel과 부인
Caroline Bos가 이끌어 가는 Van
Berke + Bos는 근대의 추상미술이 이루
어놓은 업적을 거대한 건축구조물로 전환
시키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속도감이 느껴
지는 형태를 강조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건축에 컴퓨터 등 현대적인 기술이 개입되
면서 변화된 디자인 과정에 따른 결과이
다. 특히 도면 작성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
어 반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스
튜디오는 방대한 정보량을 빠르게 처리하
면서 건축적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유
용한 도구로서의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작으로 ▶에멘의 백화점 리노
베이션 ▶로테르담의 에라무스 교 ▶엔세
데의 국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암스테르
담의 드 콜크 복합건물(사진), 그리고 프로
젝트로 ▶니에에겐의 헤트 발코프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보르네오 스포렌부르크
주거단지과 정신요양원 ▶나아덴의 모비
우스 주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드 콜크 복합건물



테크놀로지와 시공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의
UCLA 파월 도서관 리노베이션에 이용
된 것으로 천정의 조각 패턴을 보존하면
서 동시에 내진성을 강화하는 구조법, ▶
Internet이나 WWW의 기술을 이용하
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로, 지
역간 또는 사무실간 정보를 외부에 노출
시키지 않고 교환, 전달하는데 아주 유용
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Intranet(또는 Internal
Web, Private Internet) ▶내진성이 강
화된 목구조 ▶CD-ROM이나 정보 통신
계의 발달에 의해 확대된 시공 재료 선택
의 허와 실 등이 다루어져 있다.

기타

▶Kennedy & Violich Architecture
이 계획한 미국 오하이오주 캔톤 컨트리
학교의 중축 ▶미국 워싱턴 시 중심가에
세워진 Eric Colbert & Associates의
비영리 의료센터 (사진) ▶전통과 양식
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둔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의 UCLA 파월 도서
관 리노베이션 ▶Stanford White에 대
한 2권의 신간소개 ▶거대한 프로젝트를
거처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재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미국 시애틀
의 도시 계획 ▶이슬람계의 건축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arim Aga
Khan 4세와의 인터뷰 ▶미국 워싱턴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관이 형성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들어서 그 시각적 축을
해치게 될 2차세계대전 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반대 ▶700년전에 건축된 파키스
탄 산간지역 요새의 성공적인 재활용계
획 ▶건축계의 스카웃전쟁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워싱턴의 비영리 의료센터(Eric Colbert & Associates 作)

Architecture

97년 4월호

4월 호에는
「근작」으로
Renzo Pi-
ano가 설계
한 Brancu-
si 스튜디오,
Toyo Ito의
일본 나가오

카극장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Rodolfo Machado와 Jorge Silvetti를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최근 작품
활동 등을 기사로 다루었다.

근작소개

▶Renzo Piano의 Brancusi 스튜디오
Brancusi는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오두막 작업실을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
로 여겼기에 그의 스튜디오를 다시 건축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파리 풍
피두 센터의 재건축계획 일환으로 바로
옆의 대지에 Renzo Piano에 의해 만들
어진 Brancusi 스튜디오는, 대리석과
철재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밝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의 조각들을 총체
적으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Brancusi 스튜디오(Renzo Piano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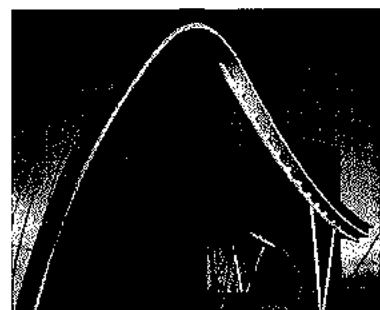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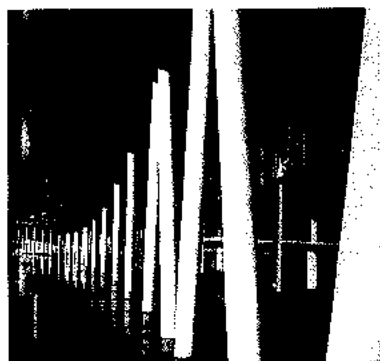
▶Rodolfo Machado와 Jorge Si-
lvetti의 근황

아르헨티나 태생의 이들 건축가들은 80
년대 건축계에서 포스트모던 이론을 통
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보스턴
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축 설계활동을 벌
이고 있는 이들과의 인터뷰와 아울러, 최



근의 대규모 작품인 게티 센터(Richard Meier에 의해 설계된 부분의 이웃한 대지에 계획)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Toyo Ito의 일본 나가오카 극장
빛과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건축적 실험으로 명성을 얻은 Toyo Ito의 최근 작품으로, 불투명한 솔리드, 투명한 솔리드, 투명한 보이드 등이 교차하며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파동치는 지붕의 형태를 "언덕", 그 내부의 철재기둥들을 "숲"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는 나가오카의 자연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나가오카 극장(Toyo Ito 작)

건축 디자인계의 도둑

건축가의 디자인이 다른 건축가나 건축주들에게 도난당하는 일이 많다. 즉, 한 건축가가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나면 건축주는 그를 해고하면서 더욱 값이 싼 다른 건축가를 고용하여 선행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불림없다. 건축주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신들에게도 저작권이 일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문서화한 건축가의 디자인에 저작권이 한정되어 있음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법정투쟁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아울러 건축주들의 신임을 잃게 된다는 점 때문에 그냥 눈감고 넘어가 버리기 일수다. 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지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와 시공

▶프랑스 파리의 한 기차역을 개조하여 그 외관을 보존시키면서 내부를 상가와 스튜디오로 재생시킨 Patrick Berger의 작품에서 사용된 구조법 ▶설계사무실의 중역들이 회사 인력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현상에 대한 문제 ▶독일 Nemetschek Systems의 Allplan FT와 프랑스 BAGH Technologies의 Architrion VI 등 새로 나온 CAD 소프트웨어 ▶유리섬유를 이용한 조명기법 ▶새로 나온 조명기구 소개 등을 다루고 있다.

건축가와 자동차

자동차는 기계공학과 함께 미적인 특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에게 더더욱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동차 선택유형은 매우 특출하며, 실제로 Le Corbusier, Walter Gropius, Buckminster Fuller는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이 강조되며, 대량생산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는 건축의 이상이 이미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타

▶Francois de Menil의 휴스턴 박물관 비잔틴 프레스코화 전시관 ▶예술계의 저명한 후원자인 Dominique de Menil과의 인터뷰 ▶Shelton, Mindel & Associates의 미국 뉴욕 팬트하우스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4월호

이번호에서는 주로 「주택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각 건축주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서도 건축적 의미화에 성공한 8개의 주택건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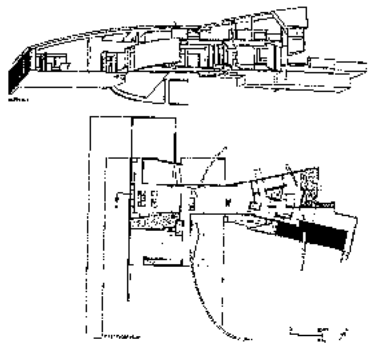
이밖에도 「건축기행」편에서는 1950년대에 Carlos Scarpa에 의해 설계된 이탈리아의 Antonio Canova 미술관이 소개되었으며, 다양한 조명효과와 관련상품들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다.

주택 건축

주택은 건축주에게나 건축가에게나 하나의 '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주에게는 자신의 요구와 특성에 부응하는 개인적인 생활공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고, 건축가에게는 소규모의 건축행위이니만큼 건축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건축가의 의도에 더욱 가까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주택은 그리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이 피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 소개된 8개의 주택은, 건축주 각각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건축적인 의미화에도 성공하고 있는 모범적인 예들이다.

▶Morphosis의 미국 캘리포니아 블레이즈 주택

블레이즈 주택의 부부 건축주는 원래 있었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된 바로 그 대지에 지어진만큼 전혀 새로운 형태를 요구했으며, Morphosis는 다양한 매스들의 중첩을 통해 시작과 끝, 내부와 외부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디자인을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을 충족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 블레이즈 주택(Morphosis 作)

▶Rick Joy Architect의 미국 아리조나
텍슨 코벤트 에베뉴 스튜디오

웅기종기 모여있는 소규모의 주택들과 그 사이로 작은 골목과 정원들로 특징지어지는 텍슨 지방에서, Rick Joy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그것을 형성한 기후와 재료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를 가지면서도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을 만들어내었다.

▶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의 미국 뉴욕 도심주택
뉴욕 중심가의 좁고 긴 대지에 들어선 이 현대적인 형태의 주거는 단순해지기 쉬운 공간구성을 다양한 층고를 통해 변화를 주고 있으며, 가구, 미술품과 같은 디테일 디자인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상적인 도심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그 외에 ▶Susan Rodriguez의 미국 메인주 섬 주택 ▶Scogin Elam and Bray Architects의 미국 조지아주 산악 주택 ▶Krueck & Sexton의 미국 시카고 벽돌-유리 주택 ▶Mockbee/Coker Architects의 미국 테네시 강변 주택 ▶RoTo Architects의 미국 뉴저지주 테이거 주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미국 뉴욕 도심주택(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 作)

건축기행 시리즈 - Carlos Scarpa의 Antonio Canova 미술관

전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방문하고 있는 사진작가 Richard Bryant가 Andrea Palladio의 빌라를 찍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가 18세기 조각가 Antonio Canova의 조각박물관이 있는 한 작은 마을을 찾았다. 1950년대에 Carlos Scarpa에 의해 설계된 이 박물관에서, 솔리드와 보이드, 빛을 교묘하게 조합시키는 Scarpa의 건축과 Canova의 조각들을 통해 건축과 미술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onio Canova 미술관(Carlos Scarpa 作)

조명

▶부엌과 응접실을 위한 조명계획 ▶주택에서 조명의 효과와 그 특성들 ▶미국 보스턴 과학박물관 갤러리 카페의 조명 계획 ▶새로운 조명 상품들 등을 소개하였다.

기타

▶목조건축의 효용성 ▶새로 나온 타일 재료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건축문화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징으로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작품과 드로잉이 소개되었다. 'Thinking



by means of drawing'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특집에서는 그의 드로잉들을 통해 그가 작품을 완성해가는 독특한 과정을 보이고자 했으며 시자 자신이 쓴 에세이 4편을 포함하여 9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특집 - 알바로 시자 'Thinking by means of drawing'

알바로 시자는 반복적인 드로잉의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그의 건축과 공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알토와 라이트, 꼬르뷔제로부터 배운 것을 소화해 내고, 포르투갈의 환경을 반영하는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건축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그의 주요 작품들과 최근작들, 그리고 이들을 만들어낸 드로잉들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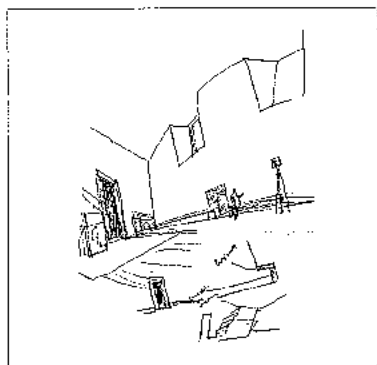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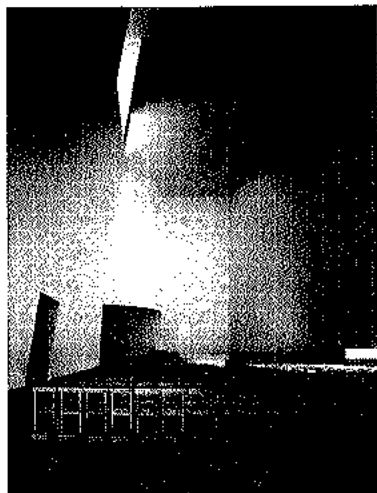
▶알바로 시자의 에세이

그의 에세이로 '재료에 관하여', '건축에 관한 8가지 요점', '주택 디자인하기', '여행에서의 스케치' 외 4편이 소개되었다. 이 중 '건축에 관한 8가지 요점'에서는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열거되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대지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루어지며, 그는 카페에서 디자인하고, 주민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치며,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을 의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방법론이나 이론을 갖고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관심사는 지극히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작업의 사고와도 같은 것이다.

▶최신작

-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의 교회와 교구센터(1990 - , 포르투갈)

교회에 있는 교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카톨릭 교회의 형태는 내부공간에 동서방향의 신랑을 가지며, 정통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교회의 건축은 '혁신적이지도 않고, 또한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닌'이라는 시자의 말과 같이 관습적인 형태와 일체화된 감정의 해석, 그리고 이것의 현대적인 구현인 것이다. 작품의 사진, 도면과 함께 그의 드로잉이 소개되고 있다. 드로잉을 통해 보이는 그의 작품에 대한 이미지는 정확하며 구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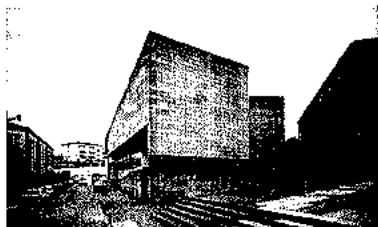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의 교회와 교구센터(Avaro Siza 작)

▶주요작품

그의 주요작품들은 1986 - 95의 시기와(후기) 1961 - 86(전기)의 두시기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후기의 작품들로는 포르투갈대학 건축학부, 갈리시아 현대미술센터, 아베이로대학 도서관과 중수탑, 세루탈 교원양성학교가 소개되었고 전기의 작품들은 비교적 더 작은 규모의 작품들로, 레사의 스위칭플, 핀토 & 소

또의 마요르 은행, 보우사의 집합주택, 키타 다 말라과이라의 주택개발지구, 보르게스 & 이르망의 은행이 소개되었다. 그밖에 연재물로 '공간의 시네마로 그라피' 제7회 '유로씨의 공간방랑'과 '공동체 건축의 아키올로지' 제6회 '시간이여 멈춰라'가 실렸다.



갈리시아 현대미술센터(Avaro Siza 작)

a+u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Sustainable Architecture / Sustainable Environment'라는 제목의 특집이 실렸다. 이는 건축과 Ecology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이를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품과 질문들, 그리고 에세이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집 - 'Sustainable Architecture / Sustainable Environment'

이 특집은 지구환경의 파괴나 에너지 고

갈 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오늘날에 있어, Ecology나 Sustainability의 개념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갖는 일이 다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로서 인더스트리얼 에이전시로부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에이전시로 이행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21세기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의 하나일 것이다.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Ecology나 Sustainability개념을 무시한 채로는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특히 이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유럽에 있어서는 이 개념에 의해 건축디자인이 근대건축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호의 특집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이론'의 3개 영역에서 이 개념에 대한 어프로치를 실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테크니컬한 어프로치로부터 先주민문화나 자연에 귀착하는 듯한 원시적이고 버나쿨러한 어프로치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에콜로지건축에의 정당한 어프로치인가를 판정하기는 곤란하며, 이들이 혁신적이며, 현실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지도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에콜로지 건축에의 어프로치는 작은 어프로치들의 축적된 산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 최초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콜로지 건축에의 확실한 수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세계공통의 기준으로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에세이로는 Peter Buchanan의 "Steps up the ladder to Sustainable Architecture"가 소개되었다.

▶(Questionnaire)에서는 Kimmo Liimatainen의 11인에게 '에콜로지란 무엇인가?', '에코-건축, 혹은 에코-시티라는 말에 가장 근접하는 예는 무엇일까?'라는 공통된 질문이 주어지고 이에대한 답변들이 소개되었다.

▶작품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테크니컬한 접근을

한 예(쿠마 겐코의 Eco Particle Project / Webler + Geisser의 Götz Headquarters)를 비롯, 원시적이며 버나쿨러한 접근을 한 작품(Gregory Burgess의 Uluru-Kata Tjuta Cultural Center) 등 5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Uluru-Kata Tjuta Cultural Center(Gregory Burgess작)

▶대답

Richard Rogers와 Abe Rogers, 시게루 반과의 대담이 실렸다. 주제는 'Paper Tube Architecture, Sustainability and Responsible Citizenship'으로 시게루 반이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화두가 되어 로저스의 지원성(持環性)을 가진 건축, 건축을 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생각에까지 이야기가 발전되었다.

신건축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 작품으로는 시게루 반의 JR 타자와 고평/ 타자와 고평 관광정보센터, 후루이찌와 다카하시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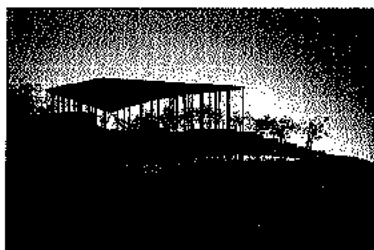


동작품인 하나마끼 종합체육관과 후루이찌의 두 개의 프로젝트, 아오키 준의 遊水館 외 14작가의 16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작품

▶후루이찌의 하나마끼 종합체육관과 두 개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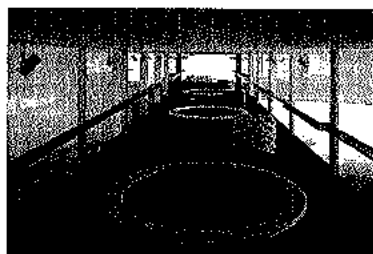
파동치는 듯한 거대한 지붕이 덮여진 이 체육관은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의 상세한 디테일이 소개되었다. 그의 두 개의 프로젝트(키타 아이즈 村設場 복합청사, H공원 글래스 하우스)에서는 '벽에서 기둥으로'라는 제목이 붙은 그의 에세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둥과 열려진 공간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그는 기둥의 공간을 언급하면서 도미노, 유니버설, 일본건축,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H공원 글래스 하우스(후루이찌 작)

▶遊水館(유스이강) - 아오키 준 설계

물의 공원안에 위치한 이 풀장은 공원안의 호수속에 자리잡고있는 작은 섬에 위치하고 있다. 원형의 평면을 지닌 이 건물은 호수 밖의 부분과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건물의 내부를 관통하여 풀의 위를 지나쳐 가게 된다. 방문자는 건물의 내 외부의 물 위를 걸으며 이들을 조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공공의 공간속에서의 유료 Zone/ 유료공간안에서의 공공 Zon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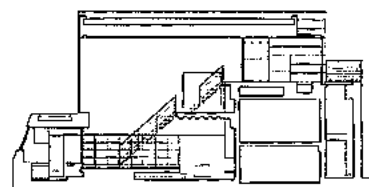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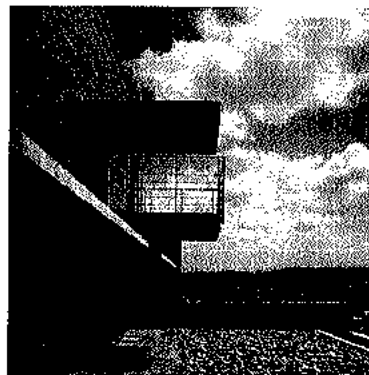
遊水館(유스이강) (아오키 준 작)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미즈히로 이치로 설계

각각 아트 공방, 유직 공방, 드라마 공방, 에코라이프 공방로 이름지어진 실들과 호반을 무대로한 오픈 스페이스,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각 실마다 다른 모습을 띄는 목구조로 된 천정을 가지고 있다. 각 공방마다 독특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전체적 통일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스튜디오 KAZ / G펜트하우스 - 마쓰시마 켄 설계

스튜디오 KAZ는 단순하면서 명확한 조형적 논리가 보이는 매스에 노출 콘크리트와 철재, 유리라 석재, 스테이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의 풍부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뛰어난 연결부의 처리로 두 개 매스의 조합으로만으로도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G펜트하우스에서도 스튜디오 KAZ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조형언어와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돋보인다.



스튜디오 KAZ/G펜트하우스(마쓰시마 켄 작)

연재

▶TOKIO계획 1997

Project - 05 Printed City : 유리의 진화, 그리고 환경정보와 환경기능의 프린트기술은 모더니즘의 균질공간을 갱신한다. 더우기 유리에 의해 만들어져, 그 표면에 정보로서의 기능이 프린트된 코트하우스의 집적은 반투명한 정보의 미궁 도시를 만들어낸다.

신입회원 new member

(97. 4. 1~4. 30 기준)

강명환: 1963년생/홍익대/건축사사무소 마루건축/877-3265/관악구 봉천동 1571-19
강문철: 1963년생/원광대/덕수건축사사무소/549-2062/충남 아산시 관곡동 543-6 광신빌딩3층
강준수: 1962년생/부천공전(합)동방건축사사무소/442-3311/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49
강형희: 1962년생/충북대/서울건축사사무소/905-0275/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13
강 호: 1965년생/홍익대/선인건축사사무소/932-4288/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178-3
고재선: 1957년생/계명대/건축사사무소 주춧돌/656-0422/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214-2
고호동: 1963년생/강원대/화인건축사사무소/635-1500/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7-53
구춘화: 1963년생/인천전문대/이상환경건축사사무소/323-7741/마포구 성산동 209-1 진영빌딩3층
김갑태: 1965년생/경북대 대학원/백천건축사사무소/784-8100/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744-12
김군식: 1963년생/영남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 마노/3473-7676/서초구 서초동 1357-7 대동빌딩
김기범: 1963년생/전북대/범우건축사사무소/245-4100/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6-1 2층
김기서: 1961년생/홍익대 대학원/(주)건축사사무소 모인친구들/3453-2423/강남구 역삼동 770-10 한성빌딩2층
김복래: 1958년생/한양대/예술종합건축사사무소/591-5537/서초구 반포4동 59-4 승원빌딩7층
김상오: 1965년생/연세대/(주)케이.투.에이건축사사무소/566-7073/강남구 대치동 909-7 우송빌딩 201

김상태: 1959년생/강원대/(주)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강원대/485-2894/대전시 서구 문산동 1133
김수경: 1965년생/홍익대/미래건축사사무소/35-5850/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98-28
김수영: 1963년생/동국대 대학원/(주)한신 C&C 종합건축사사무소/3473-0024/서초구 서초동 1439-5 정석빌딩3층
김수자: 1968년생/동아대/건축사사무소 장원/441-0400/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6-2 금호빌딩 302
김용한: 1965년생/연세대/건축사사무소 무영/569-1376/강남구 역삼동 603-4
김은경: 1968년생/경기대/위가건축사사무소/741-1890/성북구 성북동 125-9 두성빌딩2층
김종삼: 1958년생/원광대/(주)에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583-4200/서초구 방배동 901-5 원촌빌딩 201
김창로: 1965년생/경북대/정승건축사사무소/421-2297/대구시 북구 칠성2가 398-5
김호준: 1963년생/경희대 대학원/(주)건축사사무소 아라기아/749-1635/용산구 한남동 635-1 신화빌딩5층
남영균: 1962년생/(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751-7800/대구시 동구 신천3동 111 영남타워10층
박남재: 1958년생/인하대/(주)모양종합건축사사무소/793-6511/용산구 한남동 64-4 출판빌딩
박래석: 1962년생/조선공전/(주)다성건축사사무소/3141-8254/서대문구 연희동 165-3 현대빌딩 302호
박병학: 1958년생/동아대/(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462-4711/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3-14 일신빌딩4층
박상규: 1964년생/경남공전/플러스건축사사무소/637-1040/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7
박연배: 1964년생/울산대/건축사사무소 건영건축/23-1313/제주시 이도2동 1059-11 세원빌딩4층
박유진: 1960년생/인하대/(주)에스디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597-9877/서초구 서초동 1444-10 SD빌딩1층
박종훈: 1958년생/건축사사무소 두리/242-3043/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9-10
박형기: 1963년생/국민대/유상건축사사무소/65-2651/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

리 98-6

배상석: 1962년생/경남공전/(주)한성.일영종합건축사사무소/555-0126/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353
백재봉: 1963년생/조선대/백건축사사무소/282-8522/전남 목포시 상동 973-5,6
백정하: 1959년생/울산대/건축사사무소 기형/512-0140/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2-17
송명근: 1958년생/원광대/금호건축사사무소/368-1213/광주시 남구 월산5동 1015-1
송재익: 1959년생/부천공전/우람건축사사무소/955-9972/도봉구 방학1동 712-13 백운빌딩 401호
신래호: 1964년생/단국대/토담건축사사무소/471-0473/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77 호성빌딩4층
신상우: 1968년생/국민대 대학원/(주)시원종합건축사사무소/501-8501/강남구 역삼동 776-12 4층
안상진: 1964년생/부산대/건축사사무소 도흥/554-4540/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453-33
안종두: 1955년생/한양대/해동건축사사무소/561-0803/서초구 서초동 1309-10 아세아빌딩 301호
왕정환: 1963년생/경희대 대학원/(주)건축사사무소 아라기아/749-1635/용산구 한남동 635-1 신화빌딩5층
윤덕기: 1962년생/서울시립대/(주)팀바로건축사사무소/595-7473/서초구 서초동 1706-4 세광빌딩2층
윤보영: 1954년생/인천전문대/화운건축사사무소/558-1370/강남구 역삼동 708-30 정인빌딩302호
윤태원: 1964년생/서일공전/선우건축사사무소/512-3745/서초구 잠원동 35-1 아성빌딩2층

※ 고칩니다.

- 지난호(97년 5월호) 「신입회원」 명단 중 일부 회원의 전화번호가 틀리게 게재되어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p.136)

곽선산 : 3453-036 → 3453-0369

(p.137)

이한설 : 3272-125 → 3272-1255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4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9백7십8만9천3백23㎡ 보다 22.5%(2백2십만4천3백21㎡) 증가한 1천1백9십9만3천6백4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 누계 3천6백7십5만5천5백94㎡ 보다 6.8%(2백4십8만5천9백35㎡) 증가한 3천9백2십4만1천5백29㎡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1천2백4만7천5백24㎡보다 0.4% (5만3천8백80㎡) 감소한 1천1백9십9만3천6백4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4,392,946	4,936,135	543,189	12.4
부산	808,755	1,568,892	760,137	94.0
대구	544,907	909,668	364,761	66.9
인천	854,008	932,859	78,851	9.2
광주	94,595	163,701	69,106	73.1
경기	903,725	1,004,555	100,830	11.2
강원	217,959	241,043	23,084	10.6
충북	154,926	359,052	204,126	131.8
충남	194,970	290,245	95,275	48.9
전북	201,312	201,898	386	0.2
전남	173,576	266,351	92,775	53.4
감소지역				
대전	236,929	196,950	(39,979)	-16.9
경북	290,784	262,394	(28,390)	-9.8
경남	599,322	591,291	(8,031)	-1.3
제주	120,609	68,810	(51,799)	-42.9
합 계	9,789,323	11,993,644	2,204,321	22.5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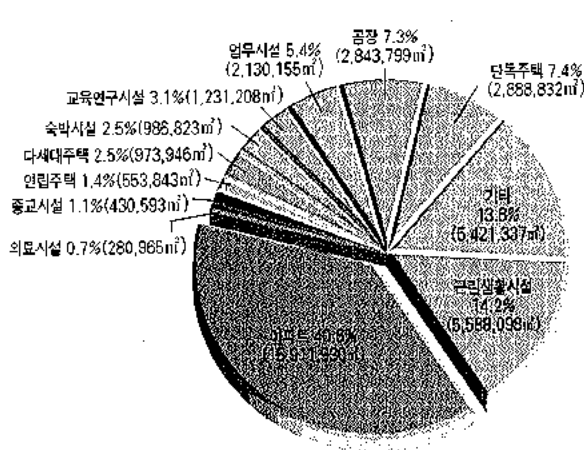
(용도)

단독주택	922,591 (-9.6%)
다세대주택	833,607 (-1.8%)
연립주택	243,638 (-1.8%)
아파트	239,264 (6.3%)
근린생활시설	149,378 (3.8%)
종교시설	161,776 (20.4%)
의료시설	4,602,355 (3.8%)
교육연구시설	5,542,530 (5.7%)
업무시설	150,080 (-25.1%)
숙박시설	158,675 (-25.1%)
공장	81,070 (9.5%)
기타	60,752 (41.8%)
연면적 합계 / 3월	345,925 (9.5%)
연면적 합계 / 4월	378,738 (41.8%)
연면적 합계 / 3월	537,031 (-56.4%)
연면적 합계 / 4월	761,253 (-43.3%)
연면적 합계 / 3월	436,807 (-56.4%)
연면적 합계 / 4월	790,280 (0.8%)
연면적 합계 / 3월	796,425 (-43.3%)
연면적 합계 / 4월	2,253,763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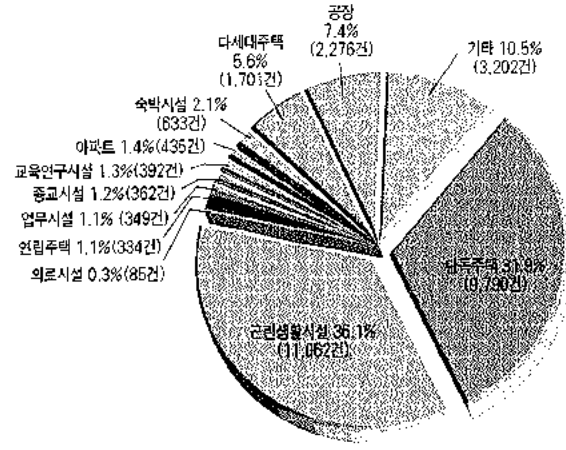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799	3,872	1,091,598	2,899	2,999	833,607	(900)	(873)	(257,991)	-23.6	
다세대주택	614	645	326,845	427	458	239,264	(187)	(187)	(87,581)	-26.8	
연립주택	86	88	124,087	84	103	161,776	(2)	15	37,689	30.4	
아파트	98	187	3,467,038	124	388	5,542,530	26	201	2,075,492	59.9	
근린생활시설	3,617	3,731	1,657,934	3,280	3,390	1,592,922	(337)	(341)	(65,012)	-3.9	
종교시설	114	147	147,081	125	134	158,675	11	(13)	11,594	7.9	
의료시설	25	26	79,264	15	15	60,752	(10)	(11)	(18,512)	-23.4	
교육연구시설	77	93	258,130	112	124	378,738	35	31	120,608	46.7	
업무시설	67	69	179,881	103	108	761,253	36	39	581,372	323.2	
숙박시설	145	147	130,910	170	180	190,516	25	33	59,606	45.5	
공장	726	978	994,002	651	834	796,425	(75)	(144)	(197,577)	-19.9	
기타	1,001	1,137	1,332,553	961	1,119	1,277,186	(40)	(18)	(55,367)	-4.2	
합 계	10,369	11,120	9,789,323	8,951	9,852	11,993,644	(1,418)	(1,268)	2,204,321	22.5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4월 누계)



연면적 (총 39,241,529㎡)



건수 (총 30,621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300	2,310	4,392,946	1,512	1,514	4,936,135	(788)	(796)	543,189	12.4	
부산	582	808	808,755	497	842	1,568,892	(85)	34	760,137	94.0	
대구	787	788	544,907	557	559	909,668	(230)	(229)	364,761	66.9	
인천	533	535	854,008	406	419	932,859	(127)	(116)	78,851	9.2	
광주	217	248	94,595	245	299	183,701	28	51	69,106	73.1	
대전	251	255	236,929	338	341	196,950	87	86	(39,979)	-16.9	
경기	1,799	1,980	903,725	1,711	1,916	1,004,555	(88)	(64)	100,830	11.2	
강원	529	576	217,959	546	595	241,043	17	19	23,084	10.6	
충북	496	524	154,926	511	605	359,052	15	81	204,126	131.8	
충남	419	336	194,970	436	350	290,245	17	14	95,275	48.9	
전북	266	266	201,312	246	246	201,698	(20)	(20)	386	0.2	
전남	282	321	173,576	410	459	266,351	128	138	92,775	53.4	
경북	623	716	290,784	550	621	262,394	(73)	(95)	(28,390)	-9.8	
경남	1,105	1,261	599,322	823	914	591,291	(282)	(347)	(8,031)	-1.3	
제주	180	196	120,609	163	172	68,810	(17)	(24)	(51,799)	-42.9	
합계	10,369	11,120	9,789,323	8,951	9,852	11,993,644	(1,418)	(1,268)	2,204,321	22.5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4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7,563	7,587	17,360,099	5,656	5,696	16,783,519	(1,907)	(1,891)	(576,580)	-3.3	
부산	2,596	3,515	3,239,849	2,004	3,043	4,744,913	(592)	(472)	1,505,064	46.5	
대구	3,626	3,669	2,634,390	1,813	1,816	2,569,289	(1,813)	(1,853)	(65,101)	-2.5	
인천	1,294	1,310	1,663,829	1,233	1,265	2,393,714	(61)	(45)	729,885	43.9	
광주	1,222	1,422	808,816	1,156	1,315	739,480	(66)	(107)	(69,336)	-8.6	
대전	768	772	533,664	967	962	512,992	199	210	(20,672)	-3.9	
경기	5,972	6,531	3,792,152	5,845	6,578	3,858,424	(127)	47	66,272	1.7	
강원	1,547	1,668	536,356	1,624	1,747	624,814	77	79	88,458	16.5	
충북	1,432	1,591	780,637	1,648	1,988	1,280,207	216	397	499,570	64.0	
충남	1,117	1,054	718,742	1,359	1,050	894,081	242	(4)	175,339	24.4	
전북	766	768	679,579	696	696	60,922	(70)	(72)	(78,657)	-11.6	
전남	1,205	1,339	624,855	1,174	1,287	593,266	(31)	(52)	(31,589)	-5.1	
경북	1,693	2,117	970,057	1,604	1,796	741,988	(89)	(321)	(198,069)	-21.1	
경남	3,650	4,158	2,187,538	3,326	3,748	2,683,069	(324)	(410)	495,531	22.7	
제주	483	524	255,031	516	554	220,851	33	30	(34,180)	-13.4	
합계	34,934	38,025	36,755,584	30,821	33,561	39,241,529	(4,313)	(4,464)	2,485,935	6.8	()=마이너스

게시판 bulletin board

직원모집

함께 일할 새가족을 찾습니다

(주)한목건축사사무소

- 계획 및 설계
아파트설계 유경험자
- 수시모집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904호
Tel : 761-6691-5
Fax : 761-669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기획연구실(실장 및 경력사원) 0명
설계실(실장 및 경력사원) 00명
감리실(건축, 기계, 전기, 토목분야 경력사원) 0명
- 수시모집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8 역삼빌딩
Tel : 538-9966, Fax : 538-9266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건축분야 경력사원) 0명
감리(건축, 토목, 설비, 전기분야 경력사원) 00명
- 1차 - '97. 5. 20한
2차 - 수시모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18 반도빌딩 4층
Tel : 3462-6366
Fax : 3463-6139

세진건축사사무소

- 실장급 0명
계획분야 0명, 설계분야 0명
- 서류전형 후 면접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1-3 93PLAZA 4층
Tel : 0457-355-8057
Fax : 0457-355-8058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 설계직 경력자(2년이상)
- Fax, 우편접수 가능
- 대전 서구 탄방동 758번지 명륜대학원 3층
Tel : 042-483-8812~4
Fax : 042-483-8814

정와건축사사무소

- 계획 · 설계분야 경력자(7년이상)
- 서울 강남구 논현동 82-20 상향빌딩 503호
Tel : 516-3027
Fax : 516-3165

(주)건축사사무소 이취그림

- 실장 · 차장 · 과장급 0명
- 이력서 지참 면접 함

교 수 초 빙

호서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1997년 2학기 임용 예정으로,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분야에서 「건축설계」를 지도할 실무경력이 풍부한 건축사를 전임교수님으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초빙분야 : 건축설계 전임교수
2.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자(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
3. 전형일정
 - 가) 일간지 교수초빙 광고 : 1997년 6월 9일(예정)
 - 나) 응모서류 접수기간 : 6월 23일(월)~7월 4일(금)
 - 다) 서류전형 및 면접 : 7월 하순
 - 라) 인선확정 및 통보 : 8월 초순

※ 참고사항

- 문의: 호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장
TEL. (0418)40-5492, FAX. (0418) 548-5126
- 구체적인 내용은 일간지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 서 대 학 교 건 축 학 부

-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8-6
청봉빌딩 2층(양재지하철역)
- Tel : 578-3560, Fax : 578-3562

(주)한성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설계, 감리, 업무행정(신입·경력·간부)
- 수시접수
-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5
남경빌딩 403호 층무부
· Tel : 414-6461, Fax : 420-6972

(주)영 건축사사무소

- 계획 및 설계감리
- 수시모집(이력서 Fax 접수)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사서함 43호)
· Tel : 265-9168, Fax : 268-5720

(주)플라스건축엔지니어링

- 설계 0명(경력자)
- 감리 0명(초급~특급,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 안전 진단 및 구조(건축기사 1급이상)
- 수시채용
- 서울 송파구 방이동 65 태원빌딩 12층
· Tel : 414-2149, Fax : 413-1283

19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총 2,207명 명단 발표

19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97년 5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합 격 예 정 자 명 단	• 별첨 ※ 삼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제 출 서 류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 1997. 5. 30 ~ 6. 5 (09: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제출서류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table border="0"> <tr> <td>• 서울건축사회 : (02) 581 5715~8</td><td>• 부산건축사회 : (051) 633 6677</td></tr> <tr> <td>• 대구건축사회 : (053) 753 8980~5</td><td>• 인천건축사회 : (032) 437 3381~4</td></tr> <tr> <td>• 광주건축사회 : (062) 521 0025~6</td><td>• 대전건축사회 : (042) 485 2813~7</td></tr> <tr> <td>• 경기건축사회 : (0331) 47 6129~30</td><td>• 강원건축사회 : (0361) 54 2442</td></tr> <tr> <td>• 충북건축사회 : (0431) 223-3084~8</td><td>• 충남건축사회 : (042) 256 4088</td></tr> <tr> <td>• 전북건축사회 : (0652) 87 6007~8</td><td>• 전남건축사회 : (062) 365 9944</td></tr> <tr> <td>• 경북건축사회 : (053) 744 7800~2</td><td>• 경남건축사회 : (0551) 46 4530~1</td></tr> <tr> <td>• 제주건축사회 : (064) 22 3248</td><td></td></tr> </table>	• 서울건축사회 : (02) 581 5715~8	• 부산건축사회 : (051) 633 6677	• 대구건축사회 : (053) 753 8980~5	• 인천건축사회 : (032) 437 3381~4	• 광주건축사회 : (062) 521 0025~6	• 대전건축사회 : (042) 485 2813~7	• 경기건축사회 : (0331) 47 6129~30	• 강원건축사회 : (0361) 54 2442	• 충북건축사회 : (0431) 223-3084~8	• 충남건축사회 : (042) 256 4088	• 전북건축사회 : (0652) 87 6007~8	• 전남건축사회 : (062) 365 9944	• 경북건축사회 : (053) 744 7800~2	• 경남건축사회 : (0551) 46 4530~1	• 제주건축사회 : (064) 22 3248	
• 서울건축사회 : (02) 581 5715~8	• 부산건축사회 : (051) 633 6677																
• 대구건축사회 : (053) 753 8980~5	• 인천건축사회 : (032) 437 3381~4																
• 광주건축사회 : (062) 521 0025~6	• 대전건축사회 : (042) 485 2813~7																
• 경기건축사회 : (0331) 47 6129~30	• 강원건축사회 : (0361) 54 2442																
• 충북건축사회 : (0431) 223-3084~8	• 충남건축사회 : (042) 256 4088																
• 전북건축사회 : (0652) 87 6007~8	• 전남건축사회 : (062) 365 9944																
• 경북건축사회 : (053) 744 7800~2	• 경남건축사회 : (0551) 46 4530~1																
• 제주건축사회 : (064) 22 3248																	
제 출 서 류	(1) 응시표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 1부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4)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의 전일('97. 5. 10)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시도건축사회 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의 경력 : 해당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최 종 합 격 자 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1997년 6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함. 나. 합격증 교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접수처에서 개별 교부함.																
주 의 사 항	•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시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성적일람은 '97. 5. 23 ~ 5. 29까지 본 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 소인분에 한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581 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 (504-9139)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97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00001	00005	00034	00035	00047	00049	00059	00069	00071	00074	00091	00105	00106
00110	00111	00121	00133	00153	00168	00170	00173	00174	00177	00183	00193	00194
00197	00198	00208	00209	00211	00227	00243	00244	00250	00254	00255	00257	00261
00275	00276	00277	00282	00298	00307	00318	00319	00324	00328	00332	00333	00344
00347	00348	00355	00378	00388	00390	00391	00395	00396	00400	00404	00407	00414
00417	00418	00419	00422	00424	00428	00435	00439	00442	00453	00455	00467	00474
00479	00481	00490	00493	00499	00500	00503	00509	00510	00513	00517	00522	00528
00531	00546	00550	00556	00557	00576	00578	00582	00590	00603	00605	00606	00612
00614	00615	00618	00629	00632	00634	00636	00640	00654	00667	00673	00680	00683
00701	00709	00720	00722	00723	00726	00742	00746	00755	00758	00766	00771	00776
00787	00788	00790	00805	00809	00816	00827	00848	00849	00856	00857	00858	00865
00866	00869	00870	00874	00881	00882	00883	00888	00889	00894	00895	00904	00907
00910	00916	00920	00928	00934	00935	00938	00939	00943	00948	00950	00960	00961
00988	00991	00992	00994	01011	01016	01019	01022	01023	01032	01038	01053	01059
01075	01082	01083	01091	01100	01103	01108	01110	01111	01116	01117	01119	01121
01133	01140	01141	01145	01147	01151	01154	01157	01168	01179	01181	01188	01190
01191	01192	01196	01199	01200	01203	01207	01213	01216	01218	01221	01225	01227
01228	01234	01236	01238	01240	01246	01268	01282	01287	01300	01303	01306	01324
01325	01329	01332	01338	01339	01343	01348	01365	01376	01377	01388	01395	01397
01404	01413	01416	01421	01422	01424	01432	01436	01438	01439	01444	01456	01457
01462	01464	01465	01471	01473	01477	01480	01484	01488	01490	01497	01504	01512
01513	01515	01517	01520	01525	01526	01532	01535	01542	01547	01551	01560	01567
01575	01578	01581	01586	01601	01602	01608	01613	01614	01618	01624	01625	01629
01631	01632	01637	01640	01641	01655	01666	01660	01680	01683	01687	01691	01696
01698	01703	01704	01710	01715	01717	01720	01727	01730	01731	01736	01748	01752
01768	01773	01778	01781	01796	01797	01816	01825	01830	01834	01838	01842	01853
01861	01862	01873	01879	01885	01889	01895	01899	01904	01910	01911	01922	01923
01924	01936	01941	01943	01945	01951	01977	01981	01984	01988	01989	01991	02014
02017	02018	02022	02032	02034	02035	02045	02052	02053	02062	02070	02079	02081
02109	02119	02122	02130	02131	02140	02145	02146	02149	02153	02168	02169	02174
02179	02181	02185	02191	02192	02193	02196	02202	02209	02212	02220	02230	02234
02235	02242	02243	02246	02254	02255	02264	02267	02275	02280	02293	02297	02308
02314	02315	02316	02318	02321	02326	02332	02335	02336	02348	02351	02354	02357
02364	02366	02389	02390	02401	02412	02414	02421	02432	02438	02442	02453	02461
02467	02468	02473	02477	02478	02483	02488	02499	02504	02507	02514	02516	02517
02526	02538	02539	02540	02542	02543	02544	02546	02548	02561	02564	02577	02583
02590	02591	02595	02598	02599	02600	02604	02613	02619	02637	02640	02644	02651
02654	02655	02667	02670	02671	02674	02683	02687	02690	02691	02700	02701	02719
02726	02729	02733	02739	02740	02751	02754	02755	02764	02775	02786	02790	02793
02794	02796	02798	02800	02801	02810	02822	02830	02832	02838	02847	02848	02852
02859	02860	02873	02879	02887	02896	02898	02924	02929	02952	02953	02958	02966
02968	02976	02977	02987	02997	03003	03007	03021	03023	03025	03027	03035	03036
03043	03052	03064	03068	03078	03079	03091	03094	03097	03100	03107	03108	03113
03118	03119	03120	03122	03123	03125	03137	03140	03146	03148	03151	03155	03167
03170	03180	03183	03193	03204	03207	03216	03228	03230	03234	03246	03256	03262
03271	03275	03281	03293	03294	03297	03300	03323	03329	03340	03343	03344	03354
03356	03365	03366	03367	03368	03371	03376	03378	03388	03391	03392	03395	03404
03409	03410	03412	03421	03424	03426	03432	03452	03455	03464	03466	03468	03470
03471	03477	03486	03488	03492	03493	03499	03502	03509	03515	03526	03531	03544
03557	03562	03569	03573	03574	03577	03581	03585	03590	03593	03605	03612	03615
03617	03620	03623	03630	03642	03643	03654	03666	03670	03676	03690	03695	03701
03702	03708	03709	03719	03720	03723	03730	03732	03734	03738	03740	03753	03755
03767	03772	03776	03779	03781	03784	03788	03796	03798	03801	03808	03810	03821
03823	03831	03832	03833	03837	03845	03852	03853	03859	03861	03867	03869	03877
03885	03897	03912	03915	03920	03928	03941	03954	03955	03958	03959	03966	03968
03980	03990	03995	04001	04005	04007	04013	04037	04039	04043	04047	04064	04065
04068	04070	04073	04080	04082	04087	04092	04098	04100	04101	04120	04122	04129
04148	04153	04158	04159	04169	04178	04180	04182	04184	04187	04188	04189	04192
04197	04198	04199	04217	04218	04221	04228	04232	04239	04241	04248	04250	04251
04256	04264	04265	04267	04285	04286	04290	04296	04308	04309	04314	04324	04329
04330	04339	04360	04364	04365	04367	04369	04370	04373	04383	04395	04396	04404
04418	04424	04430	04435	04443	04446	04475	04487	04488	04492	04496	04501	04504
04510	04512	04514	04524	04529	04533	04534	04546	04562	04577	04584	04589	04590
04591	04603	04605	04616	04617	04619	04620	04622	04625	04629	04630	04638	04639
04640	04651	04653	04654	04669	04678	04679	04689	04695	04696	04702	04705	04708
04711	04714	04726	04728	04739	04765	04769	04773	04775	04777	04779	04784	04790
04798	04802	04808	04817	04822	04823	04833	04836	04838	04841	04847	04851	04857
04874	04875	04880	04882	04883	04894	04895	04899	04891	04896	04905	04907	04914
04918	04922	04924	04929	04939	04957	04962	04966	04971	04980	04990	04995	05000
05003	05006	05021	05026	05027	05031	05034	05037	05045	05050	05052	05061	05066
05068	05069	05073	05077	05078	05079	05088	05092	05099	05115	05120	05123	05124
05127	05129	05130	05137	05142	05146	05147	05156	05167	05168	05173	05197	05202
05207	05221	05224	05225	05234	05247	05257	05262	05266	05267	05270	05271	05272
05299	05304	05316	05317	05318	05320	05327	05328	05351	05361	05363	05375	05379
05384	05387	05389	05393	05395	05400	05401	05402	05404	05409	05410	05418	05427
05444	05449	05454	05459	05463	05468	05480	05485	05487	05490	05500	05501	05502
05503	05510	05511	05526	05527	05531	05555	05568	05577	05579	05581	05585	05602
05605	05610	05614	05633	05641	05644	05645	05647	05650	05653	05655	05659	05666
05678	05679	05681	05682	05683	05685	05687	05690	05696	05698	05700	05701	05707
05714	05723	05731	05732	05739	05740	05741	05744	05750	05751	05760	05768	05771
05777	05835	05848	05849	05860	05876	05877	05882	05886	05894	05897	05899	05900
05908	05911	05916	05920	05923	05929	05944	05945	05951	05958	05965	05971	05972
05973	05977	05985	05993	06001	06004	06007	06010	06011	06014	06018	06032	06036

06049	06050	06059	06066	06071	06074	06080	06098	06114	06115	06125	06148	06156
06159	06161	06167	06169	06179	06186	06191	06197	06202	06203	06210	06222	06225
06233	06235	06236	06237	06240	06250	06259	06260	06279	06282	06291	06302	06306
06309	06320	06347	06356	06370	06371	06373	06376	06397	06399	06404	06414	06415
06416	06422	06424	06425	06429	06433	06434	06436	06438	06446	06464	06468	06475
06476	06485	06488	06492	06498	06503	06508	06510	06517	06525	06530	06532	06539
06542	06550	06552	06556	06562	06565	06568	06580	06585	06589	06592	06594	06595
06602	06604	06605	06613	06621	06629	06631	06632	06635	06645	06654	06661	06677
06679	06685	06724	06726	06732	06740	06743	06746	06747	06754	06756	06760	06767
06768	06771	06773	06779	06784	06786	06790	06791	06792	06793	06797	06801	06802
06804	06821	06823	06828	06834	06835	06841	06843	06866	06870	06882	06883	06901
06902	06909	06912	06930	06933	06943	06945	06949	06951	06952	06955	06958	06983
07001	07003	07005	07012	07027	07029	07041	07042	07046	07049	07052	07061	07064
07066	07068	07069	07078	07081	07090	07094	07100	07123	07150	07152	07155	07158
07170	07171	07177	07180	07185	07193	07195	07196	07198	07207	07222	07228	07230
07232	07239	07247	07255	07256	07272	07273	07275	07283	07291	07301	07308	07320
07324	07337	07341	07354	07365	07371	07377	07380	07384	07387	07391	07396	07398
07401	07403	07418	07424	07429	07430	07444	07452	07455	07465	07472	07479	07480
07490	07492	07502	07505	07519	07520	07524	07526	07528	07559	07562	07568	07571
07580	07585	07600	07601	07605	07609	07616	07618	07620	07621	07627	07632	07635
07641	07653	07660	07662	07663	07670	07677	07678	07680	07681	07692	07699	07713
07723	07728	07729	07732	07740	07761	07765	07778	07791	07812	07825	07838	07844
07848	07851	07854	07870	07871	07881	07884	07903	07908	07913	07920	07934	07937
07939	07945	07953	07961	07964	07965	07966	07971	07978	07979	07987	07995	07997
08001	08002	08004	08018	08023	08025	08031	08036	08039	08052	08067	08068	08069
08075	08080	08087	08091	08095	08100	08131	08134	08142	08147	08150	08154	08161
08164	08165	08166	08170	08174	08175	08186	08195	08200	08203	08205	08207	08215
08225	08229	08236	08245	08251	08254	08277	08282	08291	08293	08309	08315	08317
08326	08328	08332	08333	08335	08340	08346	08349	08350	08366	08385	08395	08399
08400	08412	08430	08449	08460	08465	08467	08475	08477	08482	08486	08490	08491
08497	08504	08505	08510	08517	08521	08524	08526	08536	08548	08559	08560	08562
08564	08565	08580	08585	08589	08597	08598	08599	08614	08615	08625	08631	08640
08641	08655	08667	08670	08676	08680	08682	08685	08687	08699	08702	08704	08708
08727	08728	08747	08773	08780	08789	08795	08796	08799	08803	08810	08820	08824
08825	08832	08837	08854	08865	08869	08877	08882	08883	08885	08893	08894	08900
08901	08905	08914	08915	08931	08935	08937	08951	08952	08976	08978	08998	09015
09018	09019	09029	09037	09038	09039	09044	09045	09049	09052	09053	09073	09083
09105	09108	09115	09116	09119	09123	09128	09130	09144	09179	09181	09182	09185
09196	09201	09203	09218	09230	09231	09249	09271	09281	09284	09296	09299	09304
09307	09311	09321	09322	09325	09328	09329	09331	09335	09342	09347	09350	09368
09372	09382	09384	09385	09388	09392	09394	09396	09405	09410	09411	09419	09422
09423	09428	09435	09437	09439	09443	09449	09455	09461	09463	09465	09467	09469
09481	09490	09502	09503	09506	09509	09511	09522	09529	09533	09536	09538	09541
09544	09549	09551	09557	09560	09561	09567	09577	09579	09590	09592	09599	09602
09603	09605	09610	09614	09621	09626	09631	09641	09652	09656	09668	09673	09678
09687	09689	09692	09693	09702	09707	09713	09718	09734	09741	09752	09759	09760
09763	09771	09776	09777	09782	09787	09789	09795	09799	09803	09814	09816	09817
09830	09841	09846	09849	09854	09858	09865	09868	09893	09896	09899	09915	09919
09921	09938	09941	09946	09952	09955	09965	09977	09981	09985	09993	10002	10005
10009	10012	10028	10031	10049	10050	10051	10052	10053	10061	10066	10068	10092
00931	0095	10096	10099	10103	10120	10127	10138	10156	10161	10170	10179	10182
10186	10189	10190	10199	10206	10212	10214	10216	10223	10226	10228	10234	10239
10252	10260	10272	10280	10282	10307	10308	10317	10320	10322	10347	10358	10366
10393	10396	10397	10412	10424	10425	10427	10440	10441	10449	10450	10458	10459
10460	10465	10477	10483	10485	10491	10495	10501	10503	10508	10529	10541	10554
10566	10573	10580	10586	10594	10607	10609	10616	10623	10625	10655	10661	10662
10671	10673	10681	10684	10701	10707	10731	10740	10762	10769	10773	10779	10780
10785	10786	10794	10801	10802	10809	10810	10815	10816	10822	10826	10829	10834
10836	10838	10840	10844	10846	10851	10855	10859	10876	10883	10886	10897	10905
10911	10917	10927	10929	10945	10946	10948	10952	10955	10962	10973	10976	10977
10981	10982	10986	10989	10998	11003	11008	11013	11014	11021	11032	11033	11038
11046	11060	11066	11075	11077	11080	11096	11097	11105	11110	11124	11130	11138
11140	11141	11147	11152	11153	11163	11169	11171	11174	11185	11187	11197	11201
11202	11209	11210	11216	11233	11235	11236	11241	11247	11250	11253	11257	11260
11264	11267	11273	11281	11282	11286	11290	11300	11316	11319	11332	11337	11340
11342	11344	11345	11350	11353	11356	11364	11373	11387	11390	11394	11399	11405
11429	11436	11439	11454	11459	11462	11470	11473	11478	11482	11488	11506	11512
11515	11516	11520	11526	11529	11533	11543	11544	11545	11560	11562	11564	11565
11570	11571	11572	11581	11582	11589	11600	11609	11618	11621	11628	11632	11635
11642	11646	11647	11653	11657	11660	11663	11674	11687	11693	11699	11702	11705
11719	11726	11728	11729	11744	11748	11752	11759	11765	11770	11774	11775	11779
11784	11786	11799	11802	11820	11822	11829	11836	11842	11852	11859	11866	11869
11881	11885	11886	11896	11897	11902	11906	11918	11921	11927	11929	11930	11933
11942	11947	11949	11958	11959	11960	11974	11980	11984	11985	11986	11990	11992
12011	12013	12022	12025	12036	12039	12041	12043	12054	12055	12060	12065	12067
12068	12071	12093	12108	12113	12116	12118	12122	12123	12128	12156	12160	12161
12165	12168	12186	12195	12199	12202	12204	12207	12212	12219	12223	12226	12238
12253	12258	12262	12266	12278	12281	12292	12298	12315	12317	12321	12326	12333
12337	12342	12344	12363	12368	12385	12392	12398	12409	12423	12427	12436	12441
12442	12444	12455	12459	12469	12472	12474	12478	12479	12483	12484	12502	12506
12509	12520	12523	12527	12530	12534	12536	12538	12547	12550	12552	12554	12556
12558	12562	12563	12568	12570	12589	12591	12592	12597	12598	12608	12623	12624
12627	12632	12638	12642	12648	12651	12652	12656	12657	12672	12681	12708	12722
12729	12737	12741	12750	12754	12765	12766	12769	12784	12806	12816	12821	12822
12823	12831	12838	12844	12847	12851	12852	12855	12863	12866	12876	12879	12887
12889	12891	12894	12897	12898	12899	12908	12921	12928	12937	12944	12945	12955
12967	12969	12978	12981	12985	12987	12988	12990	12992	12994			

'97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요강 발표

7월 28일부터 준공부문 작품접수,
9. 8~19 수상작 전시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부문
 - 96. 8 ~ 97. 8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 계획건축물부문(미발표 작품에 한함)
 -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소지자 제외)
 - 건축관련대학원 재학생
 - 대학(전문대 포함)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아 소개서 첨부)
- ▶ 계획건축물부문
 - 작품주제 : 도시의 여백 (대지는 실제대지 임의선정)

채워날기로 이루어진 오늘의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말아야 하는 도시에서의 묵은 무엇일까? / 비집고 들어서서 그조차 가득 채우기가 능사인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비워 내기로 바꾸지 않으면 도시의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 한 뼘의 바닥, 한웅큼의 공간이라도 소중히 다루어 공간, 그 비어있는 곳이 여백일 수 있게 하자. / 건축과 도시의 제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백의 빈곳에 초점을 모으려 한다.

- 페널(한변의 길이가 2m이내로써 면적 2평방미터 이내), 모형(x,y,z면의 길이 3m이내로써 체적 1입방미터 이내) 각 1점
-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7부 제출

심사위원

- ▶ 준공건축물부문
 - 추후선임 공고(예정)
- ▶ 계획건축물부문
 - 姜哲求 金光鉉 金瑛燮 金仁喆 劉元在 尹錫祐 (가나다 순)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7. 7. 28(월) ~ 97. 8. 2(토) 17:00까지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홍보과 ☎581-571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협회관)
- ▶ 계획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7. 9. 3(수) 09:00~17:00
 - 접수처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 기념관 ☎736-2025~7
 - 원서교부 : 당일 현장에서 교부

수상작 발표 및 전시

- ▶ 수상작 발표 : 97. 9. 8(월) 서울경제신문(입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 전 시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 ▶ 전 시 기 간 : 97. 9. 8(월) ~ 97. 9. 19(금)

기타 출품규정

- ▶ 준공건축물부문
 - 제출 사진첩 중 1부는 보관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본상 이상의 패널은 상설전시를 위해 반환하지 않음.
- ▶ 계획건축물부문
 - 공동작품인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패널제작시 반사성 재료(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사용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 패널 및 모형의 보수·보강 금함.

작품반출

- 1차 심사에 탈락한 작품 중 지정된 반출일내 찾아가지 않는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처리함.(단, 수상작은 작품전시후 반출)
- ▶ 준공건축물부문
 - 일시 : 97. 8. 25(월) ~ 8. 30(금) 17:00까지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홍보과
- ▶ 계획건축물부문
 - 일시 : 97. 9. 6(토) 09:00 ~ 17:00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 기념관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시상대상 상 종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비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	1인 대통령 표창
본상(6점)	"	"	"	주거용 3, 비주거용3점
입선작(다수)	상패	상패	—	
공로상	트로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계획건축물부문

- 금 상(1점)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 은 상(2점) : 상금 각 250만원 및 상장
- 동 상(5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 선(25점 이내) : 상금 각 30만원 및 상장
- ※ 수상자(대학재학생에 한함) 중 최고 성적자 2명
→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챔버리 파견

문의

-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581-5711~4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 건설교통부 · 서울경제신문사
후 원 / 대한주택공사 ·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